

#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기획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  
조사 연구 강정원 · 전미영 · 이인경

2018 경기북부 전통문화유산 주제별 기획발굴 제2권

## 경기북부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기획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조사·연구책임자 강정원

연구보조원 전미영 이인경



2018 경기북부 전통문화유산 주제별 기획발굴

2-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경기문화재단, 강정원·전미영·이인경, 2018

**기획**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조사·연구책임자** 강정원(서울대학교 교수 · 경기민속학회 회장)

**연구보조원** 전미영(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이인경(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인쇄·제본** 프린트킹

**발행** 2018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11772

**전화** 031-876-5843

ISBN 979-11-86929-33-9 (단품)

ISBN 979-11-86929-31-5 (세트)

=====

※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인용을 금하며, 필요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기획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  
조사연구 강정원 전미영 이인경

## 일러두기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에서  
「2018 경기북부 전통문화유산 주제별 기획발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하여 총3가지 주제별로 발간되었다.

학술조사는 사)한국민속학회/ 경기민속학회에서 수행하였으며  
일생의례(강정원) / 세시와 놀이(정형호) / 생업(이기태)을 대상으로 하고  
각자 책임조사를 맡았다.

면담은 2018년 6월~12월에 경기북부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8. 12. 11.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민속' 이라는 주제로  
〈제2회 경기북부 전통문화유산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였다.

---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조  
사  
개  
요

## 조사개요

본 조사 연구는 경기 북부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의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각종 사업에서 지역문화 유산의 원천자료(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특히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중에서 세시풍속과 놀이, 일생의례, 생업을 심도 있게 조사·기록하여 지역의 유의미한 문화자원으로 발굴하고자 하였는데, 본 권은 두 번째 주제인 일생의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본 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조사 연구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토박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속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 느낌, 전망을 면담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공포스러운 국경 아닌 국경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살아 온 사람들의 민속문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휴전선이라는 경계와 접경지대에 거주한 토박이와 그들의 민속문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민속문화 연구 그 자체에 대한 의의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본 조사는 경기 북부 지역의 10개 시군만 한정해서 수행하는 연구로서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민속지로 기획된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물 중에서 본 조사연구가 수행한 일생의례에 대한 민속지도 있지만,

모두 일정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본 조사연구와 일정한 시간 격차를 지니고 있다. 본 책은 앞서 출간된 여러 보고서와의 시간적 격차를 채움과 동시에 소위 구식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마지막 보고를 담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형성된 구조와 체계를 가진 전승 일생 의례에 대하여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향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주로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토박이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면담을 수행했는데, 이들이 구식 결혼식을 행한 마지막 세대에 해당된다. 1940년대 후반에 출생한 토박이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신식으로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구식 결혼식을 거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면담자를 선정하였지만, 간혹 신식과 구식 결혼식을 병행한 이들도 면담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다.

이 책은 출산준비와 출산, 아이의 출생 과정과 출생 후의 여러 의례, 혼례, 환갑 등의 축수연, 상장례, 제례에 대한 민속지이다. 면담 참여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 위주로 정리하였다. 일생의례에 대한 구술 증언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부조기 등의 물증도 함께 수집하여 일생의례의 구조와 내용을 함께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면담하면서 면담 내용을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두나 서면으로 구하였다. 백세 할머니의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 별로 적어도 2개 마을을 조사하였고, 각 마을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토박이와 면담을 수행하였다. 성별로도 균형을 맞추고자 시도는 하였지만,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면담 참여자인 토박이의 기준을 3대 이상 그 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정했지만, 이도 모든 면담대상자에 적용시키지는 못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생지와 성장지가 다르며, 모든 마을이 전쟁을 경험하여 이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피난민도 아주 소수지만 면담에 참여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진은 서울대학교 강정원 교수를 책임자로 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미영과 이인경이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면담 진행은 강정원이 하였고, 필요에 따라 전미영과 이인경도 질문하였다. 면담 참여자와 미리 약속을 정한 뒤에 그 장소로 가서 약 2시간 정도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에서 소개해 준 각 시군 문화원의 사무국장들의 소개를 받아서 면담을 시작하였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지역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경기문화재단과 각 시군 문화원에서 제공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각 면사무소의 면장이나 부면장, 문화담당 직원이 면담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각 시군의 노인회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는데, 노인회장이나 부회장이 직접 면담에 응해 주기도 하고 경로당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직접 토박이가 많다고 생각되는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마을회관에 가서 면담 참여자를 구하기도 하고, 가게에 들러서 면담 참여자를 찾기도 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7월에 시작하여 11월까지 수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녹취를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1월과 12월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각 시군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면담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한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고, 3대 이상 거주한 토박이를 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원칙은 가까스로 지킬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원칙을 관철시키는 데에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 조사 대상 지역에 토박이가 있기는 했지만, 전쟁과 수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토박이를 만나

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점을 조사를 수행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경기 북부 지역은 1950년을 기점으로 상당수 원주민들이 고향을 등졌고, 이 빈 공백을 피난민들이 채웠던 것이다. 이 피난민은 단순히 경기도 북쪽에서 왔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점도 조사 과정에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다. 경기도 북부 접경지대에는 경상도나 전라도 등으로부터 온 피난민도 매우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면담 참여자를 섭외하더라도 만나 보면 토박이가 아닌 경우가 있었다.



〈그림 1〉 일생의레팀 방문 조사지

일생의레 조사연구진이 면담을 수행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대부분의 조사지는 북한강 이북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강 이남에서 1개 지역을 조사하였다. 우리는 총 24개 마을을 방문하여 38명을 면담

하였고, 조사 중 사진 파일 482개와 동영상 파일 2개를 확보하였으며 이 중 장례식 영상과 부조 방명록, 부고 전보, 장례용품을 구입한 영수증 등의 물증 자료는 13개였다. 면담 참여자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표 1> 면담 참여자 명단

지역	마을 이름	참여자 이름	출생
가평	북면 목동2리	이유종	1937
가평	조종면 신하리	김옥순	1919
고양	일산동구 진밭마을	김수정	1955
고양	일산동구 진밭마을	이계희	1943
고양	덕양구 관산동	김유빈	1947
고양	덕양구 관산동	김준수	1943
고양	덕양구 관산동	김향칠	1947
고양	덕양구 관산동	추준수	1932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 상감천마을	문분권	1937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 상감천마을	신경래	1942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 상감천마을	이명희	1941
구리	인창동	김종해	1938
구리	인창동	김종덕	1930
구리	동창마을	문경호	1935
구리	동창마을	문경만	1968
남양주	수동면 운수리	이희원	1943
남양주	수동면 운수리	이희영	1936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정규혁	1927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고향 진중리)	이희종	1935

동두천	송내안골	송옥영	1941
동두천	안흥동	정기호	1931
동두천	모랫마을(상현2동)	이재현	1934
양주	남면 맹골마을	백영렬	1931
양주	장흥면 일영리	박성희	1931
연천	백학면 두일 3리	조한선	1941
연천	미산면 유촌리	이병창	1937
연천	미산면 유촌리	구본표	1945
연천	미산면 유촌리	심재학	1936
연천	미산면 유촌리	신동직	1944
연천	미산면 유촌리	신상섭	1961
연천	미산면 유촌리	정용재	1943
연천	미산면 유촌리	송영우	1939
연천	미산면 아미2리	왕영일	1936
의정부	입석마을	이순용	1940
의정부	장암동 동막골	함의한	1934
파주	파평면 장과 1리	정운춘	1940
파주	돌곶이꽃마을(서패동)	서○○	1940
파주	금산1리	권옥순	1933
파주	금산1리	이창무	1954
포천	관인면 지장산마을	정균	1942

일생의례 연구진은 2018년도에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면담 참여자들이 2018년 시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구술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면담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도 면담을 수행하고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변화에 대한 면담 참여자들의 판단도 듣고 이를 최대한 민속지에 포함시켰다.

본 민속지는 지역 개관을 포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연구진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아울러 면담 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특성과 역사도 최대한 파악하여 기술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생애사도 관혼상제, 일생의례에 대한 증언에 앞서 기술하였는데, 일생의례가 지역과 마을, 개인과 연관 속에서 구조화되고 수행되기 때문이다.

본 민속지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를 표할 순서가 되었다. 가장 먼저 따뜻하고 친절하게 낯선 연구진을 맞아 주시고, 어려운 질문에 소상하게 답을 해 주신 면담 참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와 함께 문화원이나 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과 경로당에서 도움을 준 여타 원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경기북부지역 민속지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가능하도록 기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진의 여러 불만과 불평도 곳곳이 견디며 연구에 다면적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기문화재단의 김지옥 선생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조사하고 민속지의 초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의 전미영 씨와 이인경 씨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연구책임자인 내가 민속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민속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밝힌다.



## 목 차

---

<b>조사개요</b>	2
<b>가평군</b>	
가. 북면 목동2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16
나. 조종면 신하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38
<b>고양시</b>	49
가. 일산동구 진밭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51
나. 덕양구 두포동 토박이의 일생의례	75
다. 성석동 상감천마을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101
<b>구리시</b>	113
가. 인창동(인창리)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115
나. 인창3리(동창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132
<b>남양주시</b>	144
가. 조안면 능내1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145
나. 수동면 운수리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160
<b>동두천시</b>	173
가. 송내동 안골 토박이의 일생의례	175
나. 안흥동 도곡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186

---

<b>양주시</b>	211
가. 장흥면 일영리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213
나. 남면 매곡리(맹골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230
<b>연천군</b>	247
가. 백학면 두일3리(발악동) 토박이의 일생의례	250
나. 미산면 유촌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269
다. 미산면 아미2리(답동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283
<b>의정부시</b>	295
가. 가능동 입석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297
나. 장암동 동막골 토박이의 일생의례	312
<b>파주시</b>	343
가. 파평면 장파1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346
나. 탄현면 금산리(조집동) 토박이의 일생의례	360
다. 서패동 돌곶이 꽃마을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374
<b>포천시</b>	381
가. 관인면 지장산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383
<b>경기북부 일생의례의 특징</b>	419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가평균

## 가평군

### 지역개관

면적	843.71km <sup>2</sup>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1읍 5면
인구	2019년 2월 기준 62,918명
인구밀도	74.86명/km <sup>2</sup>

경기도 동부 북한강 중류에 위치하여 동쪽은 강원도 춘천시·홍천군, 서쪽은 포천시·남양주시, 남쪽은 양평군, 북쪽은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에 접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의 5개 읍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에는 광주산맥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지나고 남쪽에는 북한강이 동서로 흐른다. 북쪽의 광주산맥에는 화학산, 응봉·춧대봉을 비롯한 1000m 이상의 높은 산과 가덕산·북배산·계관산·보납산 등의 고도 1000m 이하의 산이 있으며 이들은 강원도의 화천군 및 춘천시와 경계를 이룬다. 서쪽에는 국망봉·강씨봉·청계산·원통산·현등산·주금산·개위산·서리산(825m)·축령산 등이 있고 경기도 포천시와 경계를 이룬다. 중앙에는 명지산·매봉·칼봉산·불기산·대금산 등이 있다. 동서로 북한강이 흐르고, 그 지류인 가평천과 조종천이 흐른다. 북면에서 발원하는 가평천과 조종면에서 발원하는 조종천은 15개의 지류와 합류하여 곳곳에 분지를 만들면서 북서~동남향으로 흘러

북한강에 합류한다. 이들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15km의 좁은 통곡이 발달했다. 북한강 남쪽에는 장락 산맥이 남북으로 지난다. 이 산맥의 동쪽에 있는 왕터산·나산·봉미산이 홍천군, 양평군과 경계를 이룬다. 서쪽에는 화야산·통방산·중미산이 양평군과 경계를 이룬다. 중앙에는 청평호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넓은 분지가 발달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내륙 지방의 특성이 나타난다. 위도가 높고, 군 중앙부에는 북한강이 지나기 때문에 서울지역보다 연중 평균 4~5도 정도 낮다. 이러한 기후의 영향으로 잣, 포도, 사과 농사가 활발하다. 농가 부업으로 임산자원 개발이 장려되면서 잣·호도·도토리·대추·은행·표고버섯 등이 재배된다. 토지 중 임야가 83.5%, 경지가 9.4%, 하천부지가 3.2%이다. 경지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로는 쌀·콩·팥·옥수수 등이 있으며, 고추·배추·호박, 특용작물로는 참깨·들깨 등이 재배된다.<sup>2)</sup>

가평읍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육군 제66보병사단과 공군 제8999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육군 제66보병사단은 동원편제라 사단 전체가 붙어 있으며 바로 가평읍내와 인접하여 있다. 운악산이 자리하고 있는 조종면에는 수기사 맹호부대가 밀집분포하고 있다. 가평읍이 가장 인구가 많으며, 청평리와 청평리 서쪽으로 갈수록 춘천 생활권이 아닌 남양주 생활권(마석)이다. 청평리를 경계로 우측은 춘천 생활권, 좌측은 남양주(마석) 생활권이다.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평군”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평군”

## 가. 북면 목동2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가평 북면 사무소에서 75번 국도를 따라 북으로 향하면 북면의 가장 북쪽에 적목리가 위치한다. 적목리를 넘어서면 강원도 철원이 나온다. 북면사무소 소재지는 목동리이다. 목동 2리는 각성밭이 마을로서 큰 묘골과 작은 묘골로 구성된다. 큰 묘골에는 성 씨가 많이 살고 작은 묘골은 이 씨가 많이 거주한다. 가평 전역에 다수가 거주하는 성씨는 성주 이 가(家)인데, 이들은 춘천에도 많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림 1> 목동2리 전경

목동리는 현재의 행정구역 상 목동 1리와 목동 2리로 구분되어 있다. 목동 2리는 현재 100세대로 큰 마을에 속한다. 과거에는 목동 1리와 목동 2리가 목동리로 통합되어 있었다. 목동 2리에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 자금을 건어서 회관을 지었다고 한다. 목동리의 인구는 일제강점기 때에도 100호에 가까웠다. 원주민은 60-70퍼센트 정도 되는데,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 과거에 목동리는 묘골(작은 묘골, 큰 묘골)과 싸리재 마을로 구성되었다.



<그림 2> 목동2리 경로당(마을회관) 입구

1937년 생인 면담 참여자 이유종 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가평에서 학교까지를 오가는 봉고차가 단 한 대였을 만큼,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에 비하면 외진 지역인데, 현재에도 이 지역의 학생들은

춘천인근으로 많이들 유학을 가며 그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자취를 한다고 한다.

마을은 38선 이남이었지만 38선과 가까웠고, 마을까지 중공군이 내려오기도 했다. 육이오 전쟁 당시에 경기 북부의 여타 지역과 유사하게 주민들이 피난을 가기는 했지만, 인민군의 남하 속도보다 늦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마을이나 근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한다.

말도 못 했죠.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6.25 났거든. 그때 내가 졸업하면서 아주 철부지지 근데 산봉우리에서 광 하는 거야 벌써 (중공군이) 밀고 나간거지 뭐.

마을에는 논도 많고 밭도 많았으며, 산에서 화전도 많이 했다. 예전에는 모내기할 때 물 걱정을 했지만, 농수로를 정부에서 보급한 다음에는 물 걱정이 사라졌다. 가뭄이 강할 때는 내천을 막아서 보를 만들어 물을 보급했는데,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물이 많고 땅이 좋은 편이어서 쌀 소출량이 높은 편이었다.

토지 개혁 이전에는 대부분 소작농이었는데, 지주는 가평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천석까지 되는 큰 지주는 아니었다. 면담 참여자도 일부 소작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양식을 아끼려고 저녁에는 죽을 주로 쑤어 먹었다. 예전에는 콩이나 팥 같은 것을 팔지 않고 자급자족했으며, 콩죽이나 콩탕(대탕)이라는 것을 해먹었다. 콩탕은 콩을 갈아서 시래기를 넣고 끓인 음식이다.

옛날에는 너나 나 없이 양식을 애껴(아껴) 먹으려고 저녁에는 죽을 많이 쑤 먹어 저녁에는. 그런데 사실 저녁을 잘 먹어야지. 그런데 죽을 쑤 먹어 그래서 내가 죽은 죽어도

안 먹거든. 내가 남의 일을 가야 죽을 쑤어 잡수었어. (...) 쌀은 있는데 그걸 좀 애껴 (아껴) 먹느라고 저녁에 죽을 쑤는 거야. 그 무슨 죽은 먹겠는데 아주 흰죽은 못 먹겠더라고 쌀만 끓인 건, 아이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유, 지금 콩 팔 이런 걸 하면 지금은 팔잖아. 옛날에는 그걸 다 먹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콩죽 쑤어 먹고 콩으로 죽을 쑤고 콩탕이라는 거 알아요? 모르죠? 모를 거예요. 콩을 막 갈아서 끓여 시래기 같은 거 넣고 그게 콩탕이야. 근데 그전에는 그것만 해 먹었는데 지금은 돼지 뼈다귀 같은 것 사다 넣고 끓이면 맛있어요.

이 마을에서는 밭을 갈 때 소를 2마리 쓰는데, 그 이유는 돌이 많아서이다. 소 두 마리는 한 집의 소유가 아니라 한 집에서 한 마리씩, 총 두 집이 소유하고 있었고, 일을 할 때 이 두 마리를 합쳐서 부렸던 것이다.

저 집하고 나하고 짝을 해. 내가 산에 밭을 갈면 밭갈이가 오야지야. 그 사람이 누구 소 부리는 거 마음대로 주고 그래.

마을에서 밭농사는 주로 밀이나 보리, 콩, 팥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수확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소소했다. 밭을 하루 갈아 심으면 팥이 대여섯 가마가 나왔는데, 팥을 쌀로 바꾸어 먹기도 했다. 당시에는 팥 값이 비싸서 쌀값보다 좀 더 쳐서 받았다.

예전에는 산에 가서 시향을 지냈는데,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아이들이 사탕, 떡을 얻어먹으러 시향을 지내는 곳에 갔다. 또한 장사 치르는 곳에서 심부름을 하며 떡을 얻어먹었다.

장사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러면 떡 같은 것 음식을 하면, 그거 심부름을 하는데, 하여간 (음식을) 죄 나누어주는 거야 동네 사람들. 그때는 참 힘들었지. 지금은 애들 벌써 몇 해째야 십 년 전에도 저기 장사하면 떡을 안 먹어요. 지금 애들은.



<그림 3> 목동2리 경로당(마을회관) 전경

마을에 농악패는 없었다고 하며, 보름 명절에 마을 사람들끼리 지신밟기를 간단하게 했다. 정월대보름 때 윷놀이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어린아이들은 뛰어놀고, 햇불놀이를 많이 했다. 쑥 말린 것을 나이 수대로 묶어서 햇불놀이를 하는데, 정월대보름 저녁에 했다. 단오 때는 마을마다 술과 고기를 먹고 놀았고 그네를 매어서 타기도 했다.

(햇불놀이를) 많이 했죠. 지금 쑥 큰 거 그거 말린 것을 베어다가 이렇게 묶어서 그것도 나이대로 묶어요. 나이대로 묶어서 햇불놀이한다고. 그거 해야 좋다고 그래서 그것도 옛날에 많이 했지.

(...)그럼. 인제 그것 해가지고 달도 제일 먼저 봐야 한다고 아주 동네 산을 뛰어 올라가고 그랬지. (...)마을에서 (그네를) 매는 사람이 있었어.



〈그림 4〉 목동2리 마을회관 후원회원

마을 근처에 무당은 없어서 굿을 할 경우에 가평에서 무당을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굿(고사)을 했다. 음력 10월 즈음에 각 가정에서 고사를 지낼 때, 무당을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 단위로 무당을 불러서 마을 굿을 하지는 않았다.

네, (무당이) 있었죠.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농사 다 짓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 굿을 해야 잘 산다고 딱하고 해서 불러다 했어 북 치면서 (...) 무당 불러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아는 사람들 불러다 이 때는 어느 때냐 일락서산에 지는 해다 그런 저걸 하면서 했지.

## (2) 목동2리 토박이의 삶



<그림 5> 북면 목동 2리의 토박이인 면담 참여자 이유종 씨 (1937년 생)

면담 참여자인 이유종 씨는 1937년생이며 목동 2리에서 출생했다. 성주 이씨(星州 李氏) 문열공파이며, 목동리 입향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5대 조부 산소가 마을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5대조나 6대조 대에 이 지역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7대 할아버지 묘가 충청도에 있어서 시향 때에 충청도로 가기도 했다.

옛날에 농사 이외에 용돈(생활비)을 벌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실어 내는 차인 제모시(지엠시)를 이용해 짐을 실러 다니는 일을 했었다. 그 일을 하려면 짐을 차 위에 잘 싣는 기술이 있어야 했다.

저기 저 사실 지금은 이제 아들딸들 다 회사에 다니고 그래서 부모 용돈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들딸들 회사에 공장에 못 다녔어요. 어디 있어야 가지 옛날에는. 그런데 저 아시는지 몰라. 이 산에서 나무를 실어 내는 차가 있어요. 제모시라고 그 제모시라는 차가 있는데 용돈 좀 벌려고 그 짐을 실러 다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넷이나 다섯이 가서 실어요 짐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이십만 원 줘.

현재 원로산악회와 가평문화원에 관여한다. 가평에 갔다가 시간이 있으면 문화원에 가끔 들리는데, 가평에 아들이 살고 있어서 가끔씩 아들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한다.

이유중 씨는 한국전쟁 당시 나왔던 노래, 총각이 섹시에게 구애하는 땡기 찾기 노래 등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를 줄 안다. 노래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문화원에서 가수와 대결을 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이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받았으며, 직접 시연까지 하기도 했다. 땡기 찾기 노래는 총각이 불렀다고 하는데, 그 가사의 일부는 “영 글렀구나 다 틀렸구나 내 땡기 찾기는 영 글렀네 땡기 찾기 글렀지”와 같다.

20대 초반에 입대하여 보병으로 38개월을 복무했다. 그는 군대에서 여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막 뛰어나갔지. 정돈을 좀 덜해서 뛰어나갔더니 중대장이 강당에 딱 서 있는 거야. 아 기합 주려는 건줄 알고 잔뜩 졸고 있었지 그랬더니 등을 투덕투덕하더니 군대 생활을 하려면 이 병장만이나 해야지 전부다 절뚝대고 나갔다고 난 뛰어나가니까 칭찬을 해. 난 겁이 나서. 그런 칭찬도 받아보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아주 결심을 하고 제대를 하고 발가는 것을 배웠어요.

군에서 제대 후 발을 가는 것을 배웠다. 마을에서는 소 2마리로 발을 갈

았다. 두 마리 소를 각각 안소, 마라소라고 불렀다. 밭을 갈 때 소에게 하는 말(노래)가 있어서, 소에게도 노래를 해 주었다고 한다.

밭가는 소야 능라들지를 말아라 어디 소 힘든다 하지 말고서 한결같이만 잘자가다려 어디 오오. 그 돌래는 거덩 그리고 이제 저 글농밭에 밭길질 잘 내디디 오오라데 조소야.

그는 삼형제였는데, 형이 한 명, 누이동생이 한 명 있다. 형과는 4살 차이였다. 이유종 씨의 아버지는 일본 보급대에 갔다가 그곳에서 눈을 다쳤고 그 후 마을에서 작고하였는데, 그 때 그의 나이가 8세였다고 한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장수하여서 90세에 작고하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생활은 어머니와 형이 주로 꾸렸다.

면담 참여자의 학력을 보면, 목동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간이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한다. 집안이 어려워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간이 중학교는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중학교 과정을 마을에 천막을 치고 만든 학교를 말하는데, 목동리에도 간이 중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형님 군대에 갔지 집에서 뭐 집안 꾸릴 사람이 있어야지 나 밖에 없으니까 또 그러고나 보니까 옛날에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 못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다. 농사일은 늘 많았다. 형이 군대를 갔다가 다쳐 돌아와서 생활이 더 많이 힘들었다. 농사를 짓다가 21세에 결혼을 했다. 아내는 가평 경반리 조 씨인데, 못된 병이 들어서 작고하였다고 한다. 아내를 치료하려고 4년 동안 병원에 데리고 다녔다. 아내를 잃은 지 20년이 되었지만 재혼을 하지 않고 여태껏 혼자 살아왔다. 자식은 7남매를 두었다. 딸 여섯에 아들 하나인데, 자식들은 서울과 춘천, 울산으로 출가했다.

네,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보시기 어떤지 몰라도 이런 데 나와서 딴 동네 젊은이들이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느냐고 날 보고. (...)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악수하고 젊은이들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기가 나한테 와서 그렇다고.

### (3) 목동2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쳤는데, 딸을 낳으면 왼 새끼를 아들을 낳으면 바른 새끼를 끈다는 것으로 이유종 씨는 기억한다. 아들을 낳으면 새끼에 고추를 끼워서 매단다. 딸을 낳으면 고추가 아닌 무언가를 매달아 놓았던 것 같은데 이유종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금줄은 부정한 사람이 3일 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내가 집에서 몸을 풀었다. 아내 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아이는 이유종 씨의 어머니가 받았고, 태는 마당에서 방아에 찢어서 왕겨에 태웠다. 태를 태우는 것은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이유종 씨)가 했다.

출산할 때 미역과 밥을 상에 차려 방 안에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이를 산모가 먹었다. 이웃 등이 산모를 위해 미역을 사 올 때는 미역을 접으면 안 되고 펴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예전부터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보통 소고기를 넣었다. 이유종 씨의 아내의 경우는 고기를 먹지 않아서 넣지 않았고 대신 멸치를 넣어서 끓였다.

밥 먹고 이제 또 미역을 사오면 이거 꾸부러가지고 오면 안 된대. 그냥 저거해서 그전

에는 미역 오랭이(길이)가 길잖아. 길게 가지고 와야지 척척 접어가지고 오는 거 아니래. 지금은 미역이 봉다리(봉지)에 다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길었잖아. 그걸 사서 어깨에 메고 와야지 척 접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래.

자식들의 돌상과 백일상을 모두 차려주었다. 백일 떡은 백설기(하얀 것)를 놓고 그 위에 실타래를 걸었다. 수수경단도 놓았다. 손님을 청하지는 않고 집안 식구끼리 했다고 한다.

## (나) 혼례

면담 참여자 이유중 씨는 구식 결혼을 했다. 선은 보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장가를 가라는 말씀을 듣고 겨울에 혼례를 올렸다. 사모관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마을 청년들이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한다. 가령 두루마기 자락을 짝 밟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대례청에 놓인 콩이나 팥을 한 움큼 쥐어서 등 뒤로 넣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재항(재행, 3일 도배기)을 갈 때도 동네 청년들이 지게 고리를 밭에 둘러매서 쳤다.

네. 그랬는데 장가가라고 해서 겨울에 했어요. 그랬는데 갔지 갔는데 저거 그 옷을 만 것 입고하잖아요. 사모관대 쓰고 그런데 틀림없이 이놈들이 장난을 할 것 같아 거기 청년들이. 아니나 달라. 서로 신부 서로 절을 하잖아. 그런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놈들이 와서 두루마기 얼른 얘기해서 그 두루마기 자락을 꼭 밟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벌떡 일어났으면 자빠졌지 그럴 것 같아서 살며시 일어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땡기잖아(당기잖아). 땡기더라고 그래서 툭 잡아챘지 그래서 안 넘어졌고. 또 그 왜 대례청에 콩팥 같은 거 담아다 놓아요. 상 위. 그런데 나 저거 하라고 벌써 어떤 놈이 한 움큼 쥐어서 등허리에다 넣으려는 것을 내가 뿌리쳤지 그랬더니 나중에 제항 다니러 간다고 그러지. 장가 들어와서 3일만 있으면 가는 것 있어 우리, 인사하러 가요. 그런데 갔더니 그랬는

데 아이고 촌에 사람, 되게 약더라는 거야 그것도 여기 못 넣게 하고. 그리고 왔는데 또 뭐 그전에는 이 저 그 장난이 심했어. 지게 고리를 여기 매서 둘러매고 단 다고. (...) 처갓집에 (재향) 갈 때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해. 그러면 막걸리 몇 말 닭고기 얼마 뭐 부르면서 자꾸 해 얼마 낸다고 그래야 대답을 하지. 이거 둘러 맨 거 나중에 툭 툭 쳐.

혼례 때 신랑에게 장난치는 또 다른 풍습으로는 쓴맛이 나는 소태나무로 만든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서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 여타 경기북부 지역 (고양 등)에서 전해지는 젓가락으로 국수를 먹이는 장난은 없었다. 마구간에 줄로 묶어놓고 “소 한 마리 사왔다!”고 하며 구정물을 먹이는 장난도 있는데, 만사위에게 유독 그랬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소태나무 쓴 거 나무 쓴 게 있어 소태나무라고 근데 이제 그걸로 안주 해 먹인다고 거기다 이제 그 젓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안주 집어 먹이지 신랑 보내려고 그런 게 있었지. (...) 그럼. 그리고 또 장사 지내잖아 그러면 내가 저 집의 큰사위다 그러면 산에서 그 줄로 똑꼭 동여 매가지고 와요 젊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장난치느라고. 옛날에는 소 메는 마구간 있었잖아. 거기다 들여 놓고 소 하나 사왔다고 먹여야 된다고 거기다 넣어 놓고 구정물을 막 먹이고 그랬어. 장난하느라고.

부모끼리 합의를 한 후 혼례식 날짜는 남자 쪽에서 잡았다. 날을 잡아서 신부 쪽에 사주단자와 함께 보냈다. 신부 쪽에서도 무언가를 신랑 쪽에 보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다. 신부집에서 예단 혹은 혼수를 보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함은 친구들이 혼례 당일에 직접 메고 갔다고 하는데, 함 속에 옷 만들 천이 있었던 것 같다고 기억한다. 신랑이 신부집에 초행을 갈 때에는 보통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따라갔다고 하는데, 면담 참여자의 경우에는 작은 아버지가 기러기를 들고 동행하였다.

함은 그때는 함을 따로 안 가지고 갔어. 근데 가서는 저거 하는 데 그게 거기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데, 뭐 한 발짝 가는 데 돈 내라 그러고 돌 발짝 들어가면 돈 내라 그러더라고. (...) 친구들이(당일에 함을 매고 갔다). 그렇게 하고 장가를 들어갔지 아유, 장가 한 번 들기도 힘들더라고. 저거 이제 내가 갔으면 우리 큰 아버지가 있거나 우리 큰 아버지 없고 작은 아버지가 따라 갔더라고 지금 말하면 일가 대표지.

사모관대는 신부집에서 대례청에 들어가기 전에 갈아입었다. 신부 집에 갈 때는 트럭을 빌려서 타고 갔다. 대례를 치르고 나서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하고 주는 밥을 먹었다.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고 당일 다시 차를 타고 왔다. 신부는 신랑 댁에 온 당일에 시부모에게 인사를 했는데, 예단과 폐백(술안주)을 해가지고 왔고, 장롱도 장만해 왔다. 형편이 어려우면 장롱을 못하는 수도 있었다.

결혼 잔치 때 국수를 했는데, 호밀로 만들었다. 참여자가 장가갈 때는 밀 국수를 먹었다. 마을에서 재배하는 밀로 만들기도 하고, 국수기계 공장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마을 내에서 잘 사는 사람은 혼사 때에 돼지를 잡았다. 면담 참여자도 혼사를 위해 돼지를 잡았는데, 집에서 키우지는 않았고 사왔다. 보통 이십 근 정도를 샀다. 한 접시에 대략 5명이 먹을 때 한 사람당 2점씩 돌아갈 정도로 올렸다. 잔칫상에 돼지고기와 전이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돼지고기도 쓰고 소고기도 쓴다. 예전에는 소고기를 쓰기가 힘들었다. 신랑 집에서는 마을 사람들, 손님들에게 국수대접을 했다.

결혼계는 참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생겼다. 날을 받아서 누가 잔치한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알아서, 서로 무엇을 부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를 두고 “잔 드리러 오라”고 말했다. 결혼계를 포함한 마을계에 대한 참여자의 기억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그랬지. 서로 약속을 하지. 그전에는 내가 이제 또 우리 형님은 군대 가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 처갓집이 우리 동네야. 그런데 거기 뭐 소상인가 대상인가 일 년 만에 제사를 지내는데 떡을 해야 (제사이지) 말이야. 열 살짜리인가 뭐 지고 갔지. 저다 봤더니만 아 그거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때 저 떡 해 온 사람 잔 드리러 와라 그럼 어때 잔 드리러 와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뛰어 노는 애들하고 무슨 소리야 누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술잔 술 부으러 잔 드리러 오라는 거야 거기다 놓고서 떡 한 사람이 잔을 하나 드려야 된대 잔을 한 잔 부어놔야 된대. (...)아니 이제 내가 집에 떡을 해 가잖아 무슨 일에. 그럼 거기 가서 잔을 한 잔 내가 부어서 따라 드려야 한데 떡 그릇에 놔야 한대.

예전에는 사돈과 한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사돈을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면담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돈이야 뭐야 그 술상이라도 더 특별히 잘 봐 놓고 그러려고 아주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지금은 다 비슷비슷한데 사실 그래서 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며느리를 얻어 왔으면 저 색시의 어머니와 내가 사돈 아니야 그런데 서로 한 자리에 못 앉어 또,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지. 내 그러지 식구를 나눠 가지고 사니까. 더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게 아니냐, 내 생각에는.

재행을 가서는 신부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다. 근친을 갈 때는 엿을 해서 갔다고 한다. 근친 때는 신랑이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짐을 지고 가게 했다. 혼례 시에 가마를 메는 사람을 ‘조중꾼’이라고 했다. 양반이 아닌 “상놈(상민)”이 하루 일당을 받고 메었다. 이유종 씨의 아내는 가마를 타지 않았고, 이유종 씨도 말을 타고 신부집에 가지 않았다. 이유종 씨의 형과 형수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이 혼인을 할 1950년대 후반 그러한 풍습이 이미 사라져갔던 것이다. 마을 인근에는 차가 다닐만한 넓직한 신작로가 생겼다.

## (다) 축수연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집에서 했고, 음식도 집에서 했다. 동네 사람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왔으며, 환갑상은 제사상처럼 차려서 사진을 찍었다. 음식을 잘 쌓는 사람을 잔치 전 날에 부른다. 대추 같은 것을 실로 꿰어서 자른 무 주변을 빙빙 돌려서, 쌓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밤이나 다식, 과자도 종이 한 장을 깔고 속은 비워둔 채 그 바깥에만 쌓아 놓는다. 사과는 올린 것이 무너지지 않게 꼬지를 직접 깎아서 꽂아놓았으며, 산자는 쌓아 놓았다. 상에 놓이는 몇 가지 음식들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었고, “남들 보기 싫지 않게만” 했다. 절은 가까운 자손들이 한 번씩 하고, 이후에 잔을 올렸다.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고 놀았다.

그럼 그래서 만일 이만큼 쌓잖아 너무 쌓으면 다시 뒤로 쪽 쌓아.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만약에 내일 내 환갑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러 오는 사람을 몇 사람 불러, 잘 하는 사람을 불러서 오늘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아. (...) 실에다 대추를 끼가지고 무를 특 잘라놓고 거기다 빙빙 돌려서 갖다 놔더라고. 대추를 어떻게 저렇게 높이 쌓았나 그랬던 거야 처음에는 진짜. 그런데 밤, 다식은 접시에 놓는데 말이야, 쪽 돌려놓아. 돌려놓고 종이를 동그랗게 올려서 탁 놓고 복판에다 하나 놔 거기다 놔 찌그러지지 말라고 복판에다 하나 놓고 또 종이를 동그랗게 올려놓고 또 그렇게 쌓아 위 아래로. 밤, 다식 같은 것을 그렇게 놓더라고 동그랗게.

## (라) 상장례·제례

각 마을마다 장사 지내는 기구와 상여가 각각 있었다. 상조계가 오래전부

터 있어 왔으며, 현재 면담 참여자 이유중 씨가 계장이었다. 상조계원은 목동리의 묘골 사람들만 속하고, 이웃한 싸리재의 계는 따로 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쌀을 주기적으로 걷거나 하지는 않았다.

돌아가시면 그전에 산소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를 제일 먼저 불러요. 그럼 내가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 시키지. 시키면 저거 하고 인제 그런데 그게 뭐냐면 돌아가시면 내가 가서 다 저걸 하고. 내일이 장사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그 행상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거 가져올 사람 누구누구 가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 ) 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주고서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상여 메기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은 아침을 일찍 먹고 가서 산소에 가서 일 할 것이 있거든요. ( ) 그런 거 먼저 가서 하라고 그리고 상여 저거 되면 내가 상여를 모시고 올라가고 거기 가서 또 회 다지는 소리하고 그래야지.

염은 마을 내에서 염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했었다. 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죽은 사람은 팔 등이 오그라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펴야 한다. 방에 시신을 놓고 병풍 같은 것을 둘러 쳤다고 하며, 시신의 발을 상여 나갈 때 움직이지 말라고 묶었다.

사람이 그렇게 오그리고 있기 때문에 팔고 구부리고 근데 이걸 돌아가신 분을 펴 줘야 되요.( ) 그런데 가보니까 한쪽 다리가 좀 구부러졌어 근데 부인이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는지 암만 펴려도 안 펴져. 주물러 봤는데 안 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에서 다했잖아요. 집에서 다 하면 방에다 시신을 놓고 병풍 같은 것 치고 그랬죠.

시신은 아랫목에 두었다고 하며, 방에 들어가서 화투를 치고 술을 먹기도 했다. 면담 참여자는 상여가 나갈 때 여는 소리를 했고 군중들은 “오오흥”으로 받았다.

처음에 상여 실으면 절관 또 메고 저거 하면 종을 딸랑딸랑 하죠. 뭘 사람 들어서라고 그러면 다 채워졌나 하고 한 바퀴 뽕 돌아봐야 되요. 안 채워졌으면 사람 채워줘야 돼. 그래 채워진 다음에 이제 흔들면 그 사람들 메고 일어서지. 그 다음부터는 오오흥 오오흥 오오 흥 남쳐나면 오오흥 발맞추고 소리 맞추면 오오흥 오오흥 천천히 잘 모셔라 오오흥 오오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상여 모시고 갈 때.

이유중 씨는 묘골과 주변 마을의 상여소리와 회다지 소리를 모두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상여소리의 곡조와 가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가 재현한 상여소리의 가사이다.

(상여를 세우고) 어어어흥 어어어흥 이제 어흥 받잖아 어어어흥 어어어흥 어어남차 어어어흥 여보시오 군정님네 발맞추고 소리맞추며 어어어흥 어어어흥 어어남차 어어어흥 어어어흥 어어어흥 대궐같은 내집을두고 어어어흥 어어어흥 아들딸을 다놔두고 어어어흥 어어어흥 인간70이 고령인가 8~90 고령인가 어어어흥 어어어흥 내집이 어디갔나 어어어흥 어어어흥 대궐같은 내집이 어디가고 가는거냐 어어어흥 어어어흥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나 저승이요 어어어흥 어어어흥 문전옥답을 다버리고 어어어흥 어어어흥 12군정 어깨빌려 어어어흥 어어어흥 만첩청산을 들어갈때 어어어흥 어어어흥 이렇게 하는 거지. (...) 만첩청산을 들어가보니 구첩광정을 깊이파고 오는날을 기다렸나 어어어흥 어어어흥 황토로다 집을지을때 어어어흥 어어어흥 천년집을 지어볼까 만년집을 지어나보세 어어어흥 어어어흥 서산에 지는해야 지고싶어서 진다더냐 창해유수 흐르는물이 다시오기가 어렵구나 여보시오 군정님들 놀기좋다고 마냥노난세.

이를 계속하다가 상주를 부르고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했다. 산에 올라가 기 힘들 때도 이러한 가락으로 흥을 돋우었다. 회다지를 할 때는 이보다는 조금 더 느린 곡조를 불렀고 마찬가지로 쉬어가면서 불렀다.

에헤호호리도호울고흥 여보시오 군정님네 이내말씀 가는대로 이제 내 말 가는대로 잘 받아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먼데사람은 듣기나좋게 곁에사람은 보기좋게 에헤호호

리도호을고흥 여보시오 군정님네 한발두뺨 달곳대로다 아주광광 잘다주소. (받는 사람들은) 에허리동

달구질을 할 때는 그대로 멈춰 서서하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한다. 횃대를 한번 짚을 때 발을 두 번 밟는다. 노래하는 사람은 밖에서 사람들을 보아 가면서 소리를 준다. 몇 번 다지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만한다. 그다음 흙을 또 부어서 밟는데, 보통 5번 하고 떼를 입힌다. 달구질하는 사람들에게 술, 담배를 주면서 사례를 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었다.

같이 하는데 집이하고 나하고 같이 하잖아. 집이는 저리로 들어오고 나는 이리로 들어오는 거야. 저쪽사람하고 맞추고 나는 이쪽사람하고 맞추고. (...) 그러면서 그게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빙빙 돌게 돼. 이렇게 차츰차츰 몇 바퀴 돌아. 저절로 돌게 되어 있어.

관은 상주들이 들고 나오는데, 상주가 없으면 다른 이들이 들어가서 들고 나왔다. 나올 때 바가지를 깎으며, 탈관을 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했다. 산에 가서 하관하고 흙을 덮고 난 뒤에 회다지를 한다. 그 때 선소리(회다지 소리)를 하는데, 선소리는 때마다 다르다. 회다지 소리에 맞추어 횃대를 가지고 8명이 달구를 한다. 현재는 6명이 한다. 선소리를 할 때 돈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견힌 돈은 약 100~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포크레인비 등으로 비용을 치르고 난 후 남은 돈은 마을 기금으로 했다. 현재는 그렇게 하는 집안이 거의 없다.

에헤홀호리도홀고흥 여보시오 군중님네 이내말씀 가는대로만 그래서 이제 저승길이 멀다 해도 대문 밖이나 저승이요, 맞지 않아요. 대문밖에 나가면 저승 아니야. 대궐 같은

내집을두고 아들딸을 다놓아두고 그렇잖아요. 문전옥답 다 버리고 시비군정 어깨 빌려 만첩청산을 들어가니 구척광중 깊이파고 오늘날을 기다렸던가 칠성판으로다 요를깔고 잔디로 이불덮고 황토로나 집을질세 천년집을 지어나볼까 만년집을 지어보세 서산에나 지는해야 지고싶어서 지나든가 창해요수 흐르는물이 다시오기가 어렵거늘 (...) 큰사위도 왔건만은, 돈을 내라는 뜻이야 그제. 돈 걸라는 뜻이야 그러면 막내사위도 왔더구만, 인제 처음에는 부르는데 이제 그것을 또 알아야 돼. 만약에 저 사람이 며느리야 어느 집의, 예를 들어서 며느리면 며느리도 왔더구만 나올 것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애기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아무개엄마도 왔더구만 그러면 안 나올 수 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 자리를 보는 사람(지관)이 묘를 어느 정도 깊이로 팔지를 가르쳐 주었다. 마을의 상여는 한 쪽에 8명씩 총 16명이 뗏다. 이제는 이러한 큰 상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꽃상여를 사다가 쓴다. 마을에서 장만한 상여는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

예전에는 보통 5일장이나 7일장을 했다. 돈도 없을뿐더러 술을 살 수가 없었기에 직접 술을 만들어야 하는데, 술을 포함한 음식을 장만할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빈소를 바깥에 내기위해 땅을 파고 빈소를 만들기도 했다. 빈소를 만들고는 짚으로 덮어놓았다가 “장례날(장사날)” 다시 바깥으로 모신다. 발 같은 곳에 땅을 파고 만드는데, 상주들이 때때로 아침 낮으로 가서 곡소리를 한다.

예전에는 7일장 5일장.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것이 옛날에는 돈도 없지만 술을 살 수가 없어요, 술을. 술을 해서 먹게 되어야 장사를 지내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여름에 장사가 나면 빈소를 바깥에 내다가 땅을 파고 빈소를 했지.

마을 아주머니들은 수의를 만들고 남자들은 나무를 해왔다. 사람이 죽으면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도왔다. 음식은 옛날에는 팔

죽을 쑤어 갔다고 하는데, 사돈집에서는 흰 떡을 해가지고 왔다. 팔죽을 쑤어 오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 부조로 술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묵은 쓰지 않았다. 문상객에게 술과 밥, 국을 대접했다. 국은 동태 같은 것을 사다가 두부를 썰어 넣고 만들었다.

전을 만들어서 제상에 올렸는데, 예전에는 쌀이나 밀이 귀해서 메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메밀로 전을 만들기도 했다. 밀가루나 쌀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껴야 했다.

옛날에는 쌀 같은 것은, 그 메밀은 묵이나 썰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밀가루는 범벅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 먹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럴 때 먹으려고 주로 그런 때 안 쓰는 것이지.

관의 경우에는, 잘 사는 집은 미리 관을 짤 나무를 보관해 놓고, 그렇지 않은 집은 나무를 켜는 사람을 통해서 나무를 받아서 관을 직접 짰다. 관을 짜는 것을 비롯해서 장례 절차의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이 서로서로 도왔다.

옛날에는 나무를, 잘 사는 집은 미리 나무를 보관을 해 놓은 사람이 있고 또 저거 한 사람은 별안간 저거 하면 나무를 베어다 옛날에는 시골에 나무 켜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데려다 그걸 해서 짜고 그랬지.

못자리의 경우 한겨울에는 땅에 불을 해 놓아 언 땅이 어느 정도 녹은 다음 봤다. 처음에는 땅을 좀 넓게 파 두었다가 지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신이 들어갈 만큼 조정해서 봤다.

처음에 이렇게 좀 넓게 파요. 저 산사람을 지관이라고 그러지 지관이 저기 가서 얼마

파라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는 그 신체 들어갈 만큼을 또 따로 파지 복판에를.

탈관하고 난 뒤에 사용했던 관은 태워버린다. 땅을 파서 시신을 모시고 그 위에 흙을 덮고 흥대를 깐다. 흥대나 관은 소나무, 옷나무로 만들었다. 회를 섞어서 흙을 다진다.

이유종 씨 가족의 경우 상여가 나갈 때 노제는 하지 않았다. 대신 상여를 장지로 메고 가는 와중에 이동 거리를 봐서 잠시 쉬기도 했는데, 쉴 때는 선소리꾼이 가족들에게서 돈을 받아냈다. 이유종 씨는 선소리꾼을 40세 넘어서부터 했었는데, 특별히 배운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소리를 했던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이유종 씨는 선소리에서 상주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곡리나 철원 등지까지 불려가서 소리를 했다.

가다가 거리를 봐서 이제 쉬어 가고 그러지. 그때도 또 돈을 뜯는 거야. 내가 그걸 했으니까 얘기인데. 가다가 무슨 돌창 같은 거 개울 건너가잖아. 여보시오 군중님네 접강 천리가 당도했네. 이제 강이 있다고 거기서 멈춰서 안 가고 버티는 거야 상주들더러 돈 들 내라고. (...) 인제 또 그런 것 할 데 없으면 군데군데 가다가 일부러 낭구에다 들이 대고 안 가 또.

상청을 차리는데 삼우제를 지내면 일반적으로 끝낸다. 참여자가 어렸을 때는 3년을 차렸다. 사망 후 이듬해에는 소상을 지내고, 다시 이듬해에 대상을 지냈다. 어머니 장례는 집에서 치렀는데, 형과 함께 곡소리를 했다. 현재는 곡을 하지 않는다. 3일장을 지냈기 때문에 빈소를 차리지 않는다고, 상여가 갈 때에 선소리는 마을의 다른 사람이 해 주었다.

예전에는 장사를 치를 때 여자들이 산까지 따라가지 못했고 집 앞에서

운구와 이별했다. 안 상주들은 장사를 지내고 내려올 때 곡을 하면서 상주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상주들을 따라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다.

상웃이라고 누린 것 입었잖아. 그런것들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사 지낼 적에 그날 지금은 여자도 죄 따라가잖아. 옛날에는 여자들은 못 갔어요. 장사 지내고 내려오면 저 요 아래에 식당이 있지, 요 아랫집 같으면 여기도 상주들이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오면 안상주들이 마중을 나오지. 장사 잘 지내고 오셨나 안상주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지 인제 같이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서 또 제사를 지내지. 제사를 지내면 거기서 이제 향렬을 따져서 계속 다 절을 하지. 잔 드리고.

장사를 지내고 내일 모레가 삼우 날인데, 삼우 날에는 송편을 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소대상 말고는 시루떡을 보통 했다. 가마 메는 사람을 ‘조종꾼’이라고 했는데, 조종꾼은 70년 전(1948년 경)까지 있었다.

기제사의 경우, 이유종 씨는 어머니 제사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제사 음식은 생선은 자반(조기를 굴비처럼 말린 것, 작은 것)을 쓰고 북어 말린 북어포를 놓는다. 이 마을에서는 생선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상에 올리고, 밥도 올린다.

생선은 주로 여기는 자반이라고 조기 밥 앞에 놓잖아요. 그거하고 생선은 포, 북어 말린 것 그런 것 갖다 놓고 생선은 그런 것 쓰지 무슨 아랫녘처럼 생선 많이 안 하더라고 여기는.

제사 지낼 때는 처음에 재배라고 하여 2번 절을 했다. 그리고 잔을 올리고, 또 절을 했다.

여기서 절은 제사 지낼 때는 처음에 재배라고 2번 해요. 그리고 잔을 올리고 이제 또 하고 그다음에 잔 올릴 사람 다 올리고 그다음에 한번 2번 2번 세 번을 하고 이렇게.

## 나. 조종면 신하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그림 6〉 신하리 마을 전경

신하리의 동쪽에 대금산이 위치해있고, 서쪽으로 조종천이 흐르고 있으며 낮은 산지와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을로 간촌, 셋말, 신복, 아래새말 등이 있다. 신하리의 들녘을 옛날에는 새버들이라고 불렀다. 개간되기 전에는 새 밭이어서 갈다리, 억새, 버들 등으로 뒤덮여있었고, 여기에서 억새를 베어 집을 짓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sup>3)</sup>

---

3) [네이버 지식백과] 신하리 [Sinha-ri, 新下里] (두산백과) (2019.01.14. 검색)

## (2) 신하리 토박이의 삶



<그림 7> 조종면 신하리 토박이 김옥순 씨(1919년 생)

김옥순 씨는 너무나 우연히 만난 백 세 어르신으로, 살아오신 긴 세월만큼 우리 연구에 중요한 제보를 해 주었다. 기억력도 연세에 비해서 좋았고, 가족들도 흔쾌히 면담에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 낮 동안에는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요양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김옥순 씨는 1919년 상면 행현리(살구재)에서 출생했고 김해 김씨이다. 살구재라고 해서 살구가 많이 나지는 않았다고 하며, 모두 합해서 10~20집도 되지 않았다. 그 마을에는 한 씨가 많았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자손이 귀해서 본인을 제외하고, 딸 둘과 아들 하나(두 번째 처의 자식들)가 있었지만, 모두 일찍 죽고 본인 혼자 남아있다. 외모가 출중하였던 아버지가 처가살이를 했다. 일을 잘 하지 않았고 놀기(노래, 피리)를 좋아했으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를 “놀이 좋아하는 건달”이라고 표현하였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한다. 당시에는 글을 배우기 어려워 국민학교 2~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일은 많이 하지 않고 집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곱게 자라다가 19세에 결혼해서 신하리로 왔다.



<그림 8> 김옥순 씨 친정마을 행현리 전경

살구재에서는 주로 밀과 보리를 심었고 여름에는 주로 보리밥을 먹고 살았다. 밀은 맷돌에 갈아서 수제비를 끓이거나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당시

에는 매우 사정이 어려워서 이 조차도 먹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본인의 집은 비교적 사정이 나아서 굶지는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 쌀밥을 먹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친정에 눈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조금씩 팔았다. 동네에 친척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고 왕래도 많이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전주 이 씨(全州 李氏)였는데 친정어머니의 친척도 동네나 이웃에 없었다.

김옥순 씨는 단오 때는 그네도 많이 뛰고 또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다고 기억하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놀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여름에는 그네를 뛰고 겨울 정월 때는 널을 뛰고 윷놀이를 했다. 토끼윷(작은 윷가락)을 썼다고 기억한다. 그네는 혼자 뛰기도 하고 둘이 함께 뛰기도 했다. 둘이 뛰는 그네를 ‘어울렁 그네’라고 했다. 밤 나뭇가지에 그넷줄을 메어서 뛰었다.

학교 다니고 그만 두었으니까, 일본 정치(일제강점기)여서 일본글을 배웠는데 그러고 나서는 가지 않았으니까 (...) 토끼 윷이라는 것을 가지고 놀고, 윷도 벗기고 벗어놓고 윷도 벗기고, 널이나 뛰고 그랬어. 노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몇 달을 그랬으니까, 그네를 이런 밤나무 있잖아.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네 뛰고 싶어서 내 또래가 있었어. 처녀들이, 우리끼리 그네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네를 매 놓으면 그네나 뛰고 자랄 적에 그렇게 자랐지. 학교, 지금 세상 같으면 늦도록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지요. (...) 밤나무 그런 데다 땅 그네라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밤나무 나무가 있으니까 나뭇가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거기에다 매 놓고 뛰었지 뭐.

김옥순 씨는 본인이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자신이 글을 못 배웠었으니 자식이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하여 임초리에 예수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기는 했었으나 졸업을 할 경우 19세로 과년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산수, 국문, 일본어를 조금 배우다가 그

만두었다.

학교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아. 학교가 있어야지 다니지. 거기 학교라는 거는 임초리에 예수학교라고 있었어요. 딸을 가르치긴 우리 아버지가 글을 많이 못 배웠으니까 가르쳐야 된다고 (수구리) 학교라는데 다니긴 다녔어. 다니는데 애들도 많고 다니는데 일본 정치 때 자기구게고 그거 배우다가 그만 두고 임초리라고 있잖아. 임초리 학교가 딱 쫓는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데 내가 거기 학교를 들어가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새로 짓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졸업하면 19 이 되더라구. 근데 19까지는 그 안에 벌써 일찍 시집들 보내는데 그때 여자를 남자도 아닌데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고 국문 배우고 일본글 그거 조금 배우고 산수 같은 것 123이나 겨우 알았지. 그 나이에 그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 내 나이에. 123 자 보면 알아도 그것만 해도. 옛날시절 참 엄청나 아이유.

시댁의 성은 창원 박 씨(昌原 朴 氏)이고 큰 집이 포천에 있다. 낳은 열명의 자식 중, 아들 넷, 딸 둘이 살아있으며, “모두 밖에 나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림 9〉 신하리 노인회관

### (3) 신하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김옥순 씨는 자식들의 백일상과 돌상 모두 차려주었다고 하는데, 돌상에 송편과 백설기, 수수팥떡이 올라갔다. 백일상도 동일한데, 송편은 하지 않기도 한다. 대부분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했다.

돌상을 차리면 송편하고 백설기하고 의례히. 백설기 송편 그건 의례히 했다고. 해 주는 놈은 해주고 못 해주는 놈은 못 해주고 그랬지. 송편 수수팥떡 백설기, 세 가지를 해주어야 한다고. 백일상은 대개 백설기하고 그것도 그거야. 백설기하고 수수팥떡하고 송편. 송편 하는 사람은 하고 못 하는 사람은 수수팥떡하고 백설기. 송편 안하고 백설기하고 수수팥떡이 많고. 돌에는 송편에 백설기 수수팥떡.

김옥순 씨는 열 명의 아이들을 모두 집에서 낳았다. 인상적인 점은, 모두 아이 받는 사람 없이 혼자 출산을 했다는 점이다. 47세에도 아이를 낳았다고 말한다.

우리 애들, 우리 자식들. 다 난 집에서 낳았지 병원에 가 안 낳았어. 웬만한 사람 다 병원에가 낳는데 고생을 하면서도 집에서 낳았어. 낳기는 애를 여럿 낳지. (...) 받기는 누가 받아, 내가 그냥 낳았지. (...) 혼자 낳지 그럼 어떻게 해. (...) (아이를)받기는 뭘 받아 내가 그냥 낳았지. 그 여럿 낳을 때 시어머니 없었어. 혼자 다 낳았지.

삼신상은 처음에는 차리다가 나중에는 차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삼신상에 수수팥떡이 올라가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작고한 후부터 차리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미역국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항상 먹었다.

(삼신상을) 처음에 낳을 때는 채렸지만 나중에 차리기는 뭘 채려. 처음에는 좀 했지 수수팥떡을 했지. 처음에는 아들 낳았다고 차리고 그때는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 했지만 나중에 차리기는 뭘 채려.

출산 후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쉬면서 일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출산 당일에 나가기도 했다. 아이 오래 살라고 특별히 무당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으면서 “운명 수명은 팔자에 타고 나는 것”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 중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아파서(병긋) 무당을 부르기도 했지만 본인은 부르지 않았다.

뭘 오래 살라고 해. 해주기는 뭘 해 줘, 밥 해다 놓고 그냥 먹었지. 자기 운명 타고 나는데, 다 사람이 팔자는 운명을 타고 나는 것인데 뭐. 명도 타고 나고 너는 얼마 살아라. 나도 이렇게 살라고 타고 났겠지. 백살을 살아라. 너무 사는 것도 귀찮아, 사는 만큼 살아야지.

## (나) 혼례

대례를 할 때 노란저고리에 분홍치마를 입었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다. 잘 사는 사람은 큰 옷을 입기도 했으나 본인은 치마저고리만 입었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착용했는데, 당시에는 대부분 그러했다. 친정집에서 하루 자는 것은 있는 사람만 했고, 본인은 바로 신랑집으로 갔다. 가면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신랑집에 오자마자 시부모에게 절을 하며, 음식이나 선물은 가져오지 않았다. 선물도 있는 사람들만 했다. 사정에 따라서 신부가 입을 옷과 작은 농은 해왔다. 친정에서 올 때는 가마를 타고 왔는데 가마는 두 사람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씩 들고 왔다. 가마 안에 깔린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요강을 가지고 온 것은 기억이 난다. 친정에서 시댁까지 거리가 10리 정도였다.

중매를 누가 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중매로 결혼을 했다고 한다. 함에 대한 것은 많이 잊어버렸다. 딸과 아들의 경우 모두 신식으로 결혼했다. 3일도배기 때 잘 사는 집만 음식을 해 갔다. 사정에 따라서 음식 해가는 여부가 달라졌다. 근친도 마찬가지로였다. 신랑 달아매기가 있었다. 김옥순 씨는 남편과 나이차이가 10년이였다. 잔치 음식은 국수, 떡 등이 있었고 역시 사정에 따라 달라졌다. 잘 사는 집은 국수를 만들었는데, 국수는 메밀가루를 눌러서 만들었으며, 국수의 육수는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지만, 북어로 국물을 낸 듯도 하다고 말한다.

잔치 음식 그때 한껏 국수고 떡이고 그거지 뭐. 떡도 잘 하는 집은 개피떡도 하고 여

리 가지고 못 사는 놈은 아무거나 그냥 어물정어물정 하고. 그것도 (경우가) 여러 가지야. 잘 살면 잘 차리고 엄청나게 하지만 못 사는 놈은 아무거나 떡이고 뭐고 그냥 어떻게 신랑각시 결혼이나 하고 그런 거지. 지금은 안 그러우?

옛날에 잘 사는 사람 옛날에는 국수를 늘렸어. 절구에 메밀인가 가루를 해가지고 국수갱이 갖다 놓고 늘렸어. 우리 큰딸 시집갈 때도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시방은 다 국수 사다가 삶아서. (...) 그때 멸치도 흔한지 잊어버려서 몰라. 국수 국물을 뿔로 했는지, 북어 국물로 했을까 몰라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려서 생각이 다 안나. 나이가 백살이 먹어서 무슨.

이웃과 친척의 떡 부주. 국수부조가 있었다. 결혼식 상에 밤과 대추, 과일을 놓았고 그밖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시집 온 후 3일 후에야 부업에 나가서 일을 했다. 결혼식 때 잔치는 사정에 따라서, 3일 동안 하기도 했지만 당일에만 하기도 했다 시댁에 오고 나서는 반드시 3일이 지나야 부업에 나가서 일을 했다. 3일 전에는 부업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 (다) 축수연

김옥순 씨 본인은 환갑상을 받거나 환갑잔치를 하지 않았다. 남편 환갑잔치 때 서울에서 상을 크게 차렸다. 큰 아들이 차려주었다. 사진을 찍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라) 상장례

남편이 죽었을 때 가까운 곳에 산소를 썼다. 가까운 곳에 쓴 이유를 물

어보니, “산이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사람이 죽으면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수의를 만들었다. 수의는 동네 여자들이 베를 끊어다가 며칠(이틀) 동안 만들었다. 현재는 수의를 만들 수 있는 동네 여자들이 상경을 해서 별로 없다. 그래서 현재는 수의를 사와야 한다.

과거에는 장사치를 때 상여를 썼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상여를 쓰지 못하기도 했다. 상여는 동네 사람들이 뗏으며 5일장을 지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도와주었다. 손님이 오면 국과 밥을 주었다. 친정아버지 때는 3일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잘 기억이 안 난다. 딸들이 장례를 지냈고, 사위들이 와서 도와던 것 같다.

제사는 명절 때마다 산소에 가서 지낸다. 절만하고 갈 때도 있다. 생일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부주를 갈 때는 사흘 정도를 한다. 그 때는 자식들도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한다. 여자들은 상여가 나갈 때 산까지는 따라가지 않았다. 부모가 죽은 경우에는, 주로 아들들이 가지만 여자들도 따라갈 수도 있다. 어려운 사람들은 잔치도 하지 못하고, 상여도 쓰지 못하고 가까스로 상을 치르기도 했다.

(수의는)사다가 딱 간단하고 좋지. 옛날에는 복잡스럽지, 그 사람들 다 해 먹여야지. 지금도 어렵지 어려워. 동네 사람들이 다(도와준다). 상제들 옷도 다 사오지 않고 만들었어. 그때는 힘들었죠. 그것(음식들) 다 해 먹여야 하고. 지금은 안 해먹이나 지금도 어려운거야. 조그맣게 하면 우습고 크게 벌이면 엄청나고.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고양시

## 고양시

### 지역개관

면적	268.10km <sup>2</sup>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3 일반구 39동
인구	2019년 2월 기준 1,044,189명
인구밀도	3,894.77명/km <sup>2</sup>

고양시는 경기도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남동으로 서울과 접하고, 북동으로 양주시, 북서로 파주시, 남서로는 한강을 끼고 김포시와 인접하였다.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하여 동쪽은 높은 산지가, 서쪽은 낮은 구릉과 하천 퇴적지인 곡저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동쪽 끝은 동경 126° 59'의 덕양구 효자동, 서쪽 끝은 동경 126° 40'의 일산서구 구산동, 남쪽 끝은 북위 37° 34'의 덕양구 덕은동, 북쪽 끝은 북위 37° 44'의 덕양구 벽제동이다.<sup>4)</sup>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3개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다. 1992년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되었다.

서남쪽에 한강이 동남~서북향으로 흐르고, 북한산에서 발원한 창릉천은 서남진해 한강에 합류한다. 구릉지 사이로 넓은 골짜기가 많아 예로부터 논농사가 적합한 지역이었다. 1941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때 오늘날 서울의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강북 지역도 고양군에 포괄

4) 고양시청 홈페이지 (<https://www.goyang.go.kr/>)

되었다가 1949년 고양군의 옛 성저십리 지역들이 서울로 다시 편입되고, 1961년에 고양군청이 서울에서 원당으로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 이전의 영역을 되찾았다.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봉고성지·행주고성지·고토성지 등이 있다. 덕양구 지도동의 행주산성, 신도동의 북한산성 등이 있다. 일산서구 대화동의 벽절산 유적에서 백제 초기 유물이 대량 출토되었다.

논농사가 널리 행해졌으나, 1990년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가 잠식되었다. 주요 농산물은 쌀이며, 밭작물로는 콩·감자·무·배추·파·고추·시금치·오이·상추가, 특용작물로는 들깨가 재배된다. 과실류로 배가 생산된다. 대도시 근교의 구릉지나 야산에서는 관상수·화훼 등을 기르는 수목원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계·양돈·젖소·사슴·노루 등의 목축업도 성하다. 또한 임산자원으로 밤·도토리 등이 생산되고 있다. 농가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제 2차 산업 인구는 전체인구의 2.7%가량이었다.

대부분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충분한 공간이 적고, 용수개발도 부진해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sup>5)</sup>

## 가. 일산동구 진발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진발마을의 명칭은 3가지 유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신라군과 고려군이 싸울 때 신라군의 마차가 여기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군이

---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양시”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두 번째 유래이며, 김가네의 밭, 농지가 많아서 '김밭, 김밭' 하다가 진밭이 되었다는 것이 세 번째 유래가 된다. 90-100세 되신 어르신들은 진밭을 귀일 안골, 귀일 진밭 이라고 알고 있어서 귀일을 빼면 못 알아들었다고 한다.

우리 동네 전체적으로 진밭이라는 명칭이 신라군하고 고구려군이 싸울 때 신라군이 여기 들어와서 마차가 여기 빠져서 그때부터 진밭이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까지는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군이 여기서 진을 쳤기 때문에 진밭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가네 밭이 많아서 김밭 김밭 하던 게 진밭으로 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냐면 저한테 14대조 할아버지 산소를 할 때 논 20마지기를 팔아서 했다고 하거든요, 산소를 꾸밀 때, 지금 같으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농지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지 별로 안 남았지만, 그래서 3가지 말이 있어요.

진밭마을은 함중 어씨와 순천 김씨, 전주 이씨의 집성촌이다. 세 성 모두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기록에 따르면 함중 어씨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한다. 현재는 김씨와 이씨가 가장 많이 산다. 인구 700명 중 군인(하사관)과 가족이 250명, 원주민 130명, 나머지는 외지인이나 세입자들이 400명 정도이다. 1950년대에는 60가구(400명) 정도가 살았다. 사촌은 보통 한 집에서 같이 살았고, 형편에 따라 육촌까지 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 4개 마을(사당골, 벌말, 진밭, 오래골)이 합쳐서 60호로, 마을이 크지는 않았다. 사당골에는 순천 김씨가, 하모시(벌말)에는 함중 어씨가, 오랫동안은 전주 이씨가,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는 진밭에는 그 밖의 10여 가구가 살았다. 하모시의 어원은 함모시라는 맹꽁이 웅덩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함중 어씨 세거지를 길게 이야기하다보니 의미가 전화가 되어서 하모시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사당골 밑에 위치 하고 있다. 사당골의 경우 순천 김씨가 들오면서 사당을 지었다 해서 지어졌다. 오랫동안은 오얏리골이라고도

하며, 오얏리 씨를 가진 전주 이씨들이 산다고 해서 지어졌다. 전주 이씨의 입향조는 계원군이며 16대가 된다. 여러 마을 중에서 진발마을이 노동작업을 하거나 두레, 김을 맬 때 중심마을 역할을 했다.

월남전에 다녀온 부대가 진발마을에 최초로 군대가 마을에 들어온 때이다. 마을 외지인은 대부분 신병교육대인 백마부대가 들어서는 시점인 1968년대 이후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하사관들은 민간인에게 방을 얻어 살다가 이후 군인전용 숙소가 생기면서 따로 거주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일산 신도시의 영향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왔다. 또한 군인전용 숙소에 거주하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진발마을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현재 250-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들은 마을 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발마을의 원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송석 초등학교에도 입학하는 학생이 거의 없으며(한 학년에 20명 정도), 젊은 부부들은 직장과 교육 문제로 서울 일대나 일산 신도시로 이주해 나갔다고 한다.

식구들이 보통 산아제한이 없으니까 식구들이 외지로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열 낳으면 열 다 데리고 살았지. 출가해서 외부로 서울 가서 직장을 잡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낳아서 요 근방에 분가를 시키고 분가 시킬 능력이 안 되면 다 한 집에서 사촌들도 같이 살고 그래서 육촌까지도 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간 못내고 집 지어서 세간 낼 능력 안 되고 결혼 시켜서 그런 저 있을 적에는 사촌은 보통 한 집에서 같이 살았고 육촌도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주된 생업은 농업이며, 논이 밭보다 조금 더 많았다. 주요 작물은 벼 외에도 보리, 조, 수수, 콩 등 식량 작물 위주였다. 천수답이었지만, 도봉산 줄기로부터 샘물이 많이 나와 수렁이 형성되었고, 늦가을까지 논이 물이 잘

마르지 않았다. 따라서 쌀의 낱알이 알차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무게가 많이 나갔다. 무겁고 찰진 쌀이다. 골짜기에 물이 좀 있어서 고봉산 밑의 수령자리는 옛날부터 논농사를 위한 1등자리로 쳤다. 이 지역 농사는 수령 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천수답이었죠. 천수답이었었고 그래도 여기는 고봉산 줄기가 있고 그래서 수령이 많아요. 수령 샘물이 그래도 골짜기 터가 많았어요. 많아서 가을 늦게까지도 마르지 않고 그레 가지고 쌀알이 아주 여간 차지죠. 야무지질 않아요. 그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송포나 대화, 내유리 이쪽으로다 저거 하게 되면 우리가 공판을 내 가게 되면 그쪽 사람들은 가마니가 이만 하면 우리 동네 사람은 요만밖에 안 해요. 토막 대 만 해요. 아흔 한 근인가 몇 근 다는 건데 그거 달게 되면 우리는 반 토막 조그만데 사람들은 한 묶은 해 가지고 와요. (...)

(한 마지기가)200평치죠. 그래서 공판에 내어 가고 그러면 의심이 나 가지고 3번씩도 달아봐요. 한번 다시 달고 부피 큰 것을 다 바꾸고 2개를 자꾸 비교해서 달아보는데. 그렇게 여기 것은 양이 조금인데도 근량이 많이 나가고 거기는 그렇게 부피는 많은 대도 그렇게 나가고 그레가지고 공판 심사하는 사람들이 놀라죠. 이 동네는 말이 있어요. 진발 쌀 드시고 돌아가신 분은 송장도 무겁다고.

마을에는 마을 허드렛일을 하는 하인들이 있었으며, 상여나 마을 공동그릇 200-300개를 보관하고 관리 하는 일을 했다. 삼일재배 때 떡을 걸머지거나, 함을 지기도 했다. 댕가로 공동 논(부락)에서 생산되는 벼로 3가마 씩 받았다. 이들은 상여도가, 샌님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 때 장례 절차 등이 간소화되면서 사라졌다.

그렇죠. 상여도가로 상여 보관하는 상여도가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겹쳐서 일을 다 하고 그랬죠. 동네일을 다 하고 그런 것이죠. 지금은 다들 돌아가시고 자손들도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박대통령이 저거 하는 바람에 간소화 시키고 그래서 마을이 부흥이

된 거예요. 없는 살림에 빚 저 가면서 3년 초상 치루고 그런 게 싹없어지니까 남의 빚을 안지죠. 도로 저거를 해서 밀가루 타다 먹고 하니까 배도 덜 주리고 했지. 뭐든지 배에다 채우고 그런 거는 그때서부터 조금 나아진 것이죠.

4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는 솥두레가 있었다. 두레의 기(깃발)의 날개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기 때문에 솥두레임을 알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함께 도로를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 동참하며 식량을 받기도 하였다.

산제사를 봄-가을로 지내는데, 3개 성씨가 다 같이 지낸다. 하주는 3개 성씨의 대표 중 한 명으로 정한다. 성씨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제사를 지낼 때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음식을 베풀었다. 과거에는 그믐날 좋은 날을 잡다가 수 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양력 4월 3일, 음력 10월 3일을 제삿날로 한다. 제수마련은 일정했던 것은 아니고 변화해왔다. 통돼지를 잡았던 적은 있으나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았다. 제사를 한 번만 지내자는 젊은이들의 간청에 따라 그렇게 했던 해에 젊은 사람 4명이 사망하자, 자식들을 모이게 해 다시 회의를 열어 두 번씩 지내게 되었다. 마을 차원에서의 굿은 없었고, 굿은 개인적으로 했다. 마을제사를 위한 제단은 원래 없고 큰 아름드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 신도시가 생기고 외지 사람들이 사철나무를 함부로 훼손해서 나무들이 사라졌다. 지금은 단을 만들어서 지내고 있었다. 소나무였던 신수는 죽었으며, 제사는 여기서(마을회관 터에서) 지냈다. 가을 제사 지낼 때는 하주들만 올라가서 지냈다. 봄에는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하주를 정했다.

산제에는 상하주목, 중하주, 하하주가 있었고 상을 3개를 차렸다. 시루떡, 두부 부친 것, 달떡 등 음식의 수는 27로 맞추었다. 3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숫자로 맞추었다. 달떡은 멍쌀로 만든 호떡같이 생긴 떡이다.

시루떡도 아홉 켄을 만드는 것이. 한 주당 3켄씩 놓으려고 아홉 켄을 만드는 것이고. 인절미를 27개를 만드는 것이 9개씩 3목으로 놓고.

가을 제사 지낼 때는 하주들만 올라가서 지내고 봄에는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하주를 정해서. "가을에는 누구누구가 지내기로 했습니다."라고 고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 모였는데, 홀아비, 과부 등 부부가 아닌 이들은 하주를 못 했다.

상하주는 어느 누가 해야 되겠다, 중하주는 어느 누가 해야 되겠다, 하하주는 어느 누가 해야 되겠다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정해 주죠. 가을에는 내가 지내라, 중하주는 내가 해라, 하하주는 누가 해라. 이래가지고 명단 적어서 내가지고 축 읽을 때는 그 사람 명단을 넣어서 가을에는 누구누구가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하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요.

산제사 음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누어 먹었다. 여럿이 나누어 먹기 때문에 조금씩 밖에 돌아가지 않았다. 소고기 적, 족발, 우족, 대구, 통으로 된 북어포를 썼는데, 음식을 자르지 않고 통으로 사용했다. 앞다리 우족을 통째로 삶아 고기는 나누어 먹고 뼈는 고생을 많이 한 상하주가 가져가서 집에서 국물로 우려먹는다. 소두목을 따로 만들어(30~50개 정도) 동네 부락에 제사에 올라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챙겨주었다.

네. 소고기를 적을 쓰고 족발이요 우족을 하나 통째로. (...) 저희는 통짜로만 써요. (...) 북어포도 자르지 않고 통포, 통북어로 쓰고. 대구포도. (제사 지내고 난 후 우족은) 대충 팔라서 (소두목)을 거기 온 사람들은 소두목을 만들어요. 온 사람들 대충 30명이면 30개 만들고. 동네 부락 올라오지 못한 노인네들이 있으면 여유로 10개고 15개를 만들

면 50개명 목이 되잖아요. 여유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씩 잘라서 저거 하고 빼는 상하주가 가지고 가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국물 우려서 먹으라고.

임진강물을 정수하는 상수도가 설치되기 전에 진밭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물물을 먹었으며, 공동우물은 상수도가 설치된 후 사라졌다. 공동우물의 물은 무척 차가웠다고 한다. 사람들이 마시고 빨래를 하던 공동우물을 논 주인이 막아서 농사 용수로 사용하게 되었다.

임진강 물 올라오고 무슨 수로 저거 하기 전에는 그 우물이 큰 역할을 했죠. 동네에서 다 퍼 다가 마시기도 하고 상수도 하기 이전에는 다 그 물들 먹었었죠. 상수도 임진강 물이 오기 전에는, 상수도 생기고 나니까 논 가운데 있던 물도 길 만들어서 다 길어다 먹고 빨래도 하고 이런 것 하던 것을 상수도 생기고 부터는 나가지 않으니까 그걸 논 주인이 메꾸고 농사 지어 먹고 이런 식으로 저거 하고 하는 거를 공동 우물이 없어졌죠.

사당골은 우물고사를 지낸다. 우물에 떡을 가져다 두는 것이다. 집고사를 지내면서 동시에 공동우물을 모셨다. 먼저 떡을 잠시 가져다두고 다시 가져오는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물청소는 육안으로 보아 지저분할 때 일 년에 두 번 정도 했다.

17세부터 두레에 들어갈 수 있었다(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젊은이들이 두레에 들어갈 때 돌을 드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 두레에 갓 들어온 젊은이들은 ‘우장’ ‘호미’ 등을 지고 나르는 일을 했다. 가장 나이 어린 일꾼은 ‘조사’라고 불렸고 심부름꾼이었다.

## (2) 진밭마을 토박이의 삶

황정숙 씨는 1928년 생으로 건강한 편이고,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해 주었다. 그는 학교에 다녀 본 적이 없으며, 본은 장수이고, 고향은 파주 금촌 근처 등정굴이었다. 오빠 한 명이 있었고, 여형제가 다섯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맏딸이었다. 현재 고향은 없어서 길로만 남아있으며, 마을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20호 가량의 집들이 모인 고향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일정기 때는 새끼를 꼬아 비료 값을 맞추고, 면화를 심고 수확했으며 공출을 납부했다. 밭농사보다는 주로 벼농사를 지었다. ‘독까지 올려서 다 가져 가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를 뜯어 말린 것을 열 말 들이로 가져와 한 달을 먹어야 했다.(쌀은 공출해가고 옥수수를 배급했다.) 고모네 다섯 식구를 포함해 열아홉 식구가 모여 지내기도 했다. 고모들이 집에 오면 1년씩 지내곤 했는데, 집에 사람이 많아서 어머니가 "너희들은 얼른 시집가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냥 농사짓고 그냥 일본사람이 시키니까 새끼 꼬아서 비료 가마 치고 면화 심고 따서 가을이면 열말들이 부대로 하나씩 마당에다 널어가지고 췌가지로 후려갈겨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걸어서 부대에다 담아서 또 공출하고 그거야 농사야. 면화 심고.

아주 배가고파 맨날. 말도 못해, 먹을 것이 있어야지. 독까지 올려서 다 가져 가고 나면 가득이나 먹을 것 없이 조금씩 짓는데. 강냉이를 옥수수를 뜯어 말린 것을 열말들이로 하나 가져오면 그게 한 달 먹으라고 그런대나. 우리 식구가 열아홉 식구였어. 고모네 식구들이 오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희들은 시집가면 오지 마라. 아휴 내가 진저리난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고모 네들이 살림은 안하고 친정에 와서 들어 눕는거야, 머리 질끈 동이고. 일 년이야, 오시면. 그러니까 속상하셔서 너희들은 시집가서 오지 마라. 아휴 지켜

워 죽겠다 그랬어.

아버지는 이북(함경도)에서 다른 집 살림을 하셨을 뿐 아니라 큰오빠도 농사일은 하지 않고 공부만 해서, 생계는 작은아버지가 농사일을 해주신 덕분에 꾸릴 수 있었다. 옥수수 열 말 들이 한 부대를 배급받아서 강냉이 죽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 반면 웃말(윗마을)은 창고가 가득 찰 정도로 부유해서, "저렇게 가득 찬 창고가 어떻게 비워지는지 나는 아직까지도 몰라"라고 하며 부러워했다고 회상한다.

우리 웃마을이라고 그래. 동네가 일자로 죽 되어 있는데 기중 위인데. 그냥 창고 하나가 마름을 봐서 가을에 들어오셔. 마차에다 떡 해서 담고 엿 과서 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차에다 실어다 거기다 갔다 그렇게 쌓아. 근데 그거 어떻게 없애는 건지 내가 지금도 그것을 몰라. 그러면 그거 그렇게 내가 부러웠어. 어휴 저렇게 쌀이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 벼가 많으니까. 어휴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뒷광을 열면 웃마을이 보여. 그럼 올려다보면 배는 고프고.

큰 오빠는 대학에 붙었으나 돈이 없어서 졸업은 하지 못했고 신림동에서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93세에 작고했다. 나무가 떨어지면 딸들이 주변 동산으로 올라가 솔가지 등을 주워왔는데, 짚신을 삼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새끼를 꼬아서 감고 다녔다. 겨울에 항상 나무를 하러 다녀야 했는데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겨울에 눈은 여기 빠지지 왜정시대 때 신밭이나 어디 있어. 그냥 짚신을 아버지나 있어야 삼아주는데 누가 삼아주지도 않고 새끼를 파서 칭칭 감고. 미끄러우니까 동산에 가면 얼음판이니까. 남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황정숙 씨는 해방이 되던 당시의 상황을 마을 아저씨에게 듣고, 경험했으며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본 정치(일제강점기) 때에는 그 정치로만 죽는 줄 알았지 머리가 둔하니까. 해방이 되는 게 뭘지 몰랐거든. 몰라 그때는, 일본 정치 그대로 살다 죽는 건 줄 알았지. 아무 것도 몰랐어. 근데 어머니가 물길어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바가지에 퍼서 이렇게 이고 왔거든. 물 길어가지고 오시더니. 옷마을 아저씨가 고만이야, 옷마을 아저씨가 그렇게 잘나고 많이 배우시고 부자고. 옷마을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제 살기 좋게 되었다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되면 또 그렇게 돼요, 엄마. 아휴, 일본 사람이 손을 들어서 아주 살기 좋대. 나간 사람 다 들어온데. 어머니, 그렇게도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그 도당 재에 가보면 안대더라. 그래서 그 높은 데를 올라가는 데가 있어 그래서 가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걸 부르면서 조그만 지프차가, 차가 그때 어디 있어. 풍당 풍당풍당 하면서 달고개 고개를 가더라고. 저게 해방된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구. 나 여태 그 생각이 나.

나이가 20살이 되던 해에 진발마을로 올면서 시집을 왔다. 시부모님은 매우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어서 경제적 면에서 많이 배웠다. 절약하며 부를 늘려나간 시부모님을 보면서 남편과 자신도 조금씩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고 한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지금도 시장에 나간다고 한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계희 씨는 1943년 생으로, 진발 두레회 부회장이다. 계원군의 16대, 진례군의 18대, 진남군 19대 자손이다. 부모님은 시골 분으로 농사를 지었다. 아버지가 골패를 좋아하셔서 사랑방에 막봉꾼, 문봉꾼들이 모이곤 했다. 한겨울에 사랑방 창문을 열어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노름꾼들이 오즘을 누웠던 것이 기억이 난다. 가진 땅은 없었다. 이전에 마을사람들은 땅 있는 사람들은 다들 몇 마지씩은 가지고 있었다.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인도 두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있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땅을 소작해서 가족들을 건사했다.



〈그림 1〉 면담 참여자 이계희 씨, 김수정 씨

이계희 씨는 7남매 중 아래에서 두 번째로서, 큰형이 자신보다 19년 위였다. 중간에 누님 세분이 있고, 본인 아래에 누이동생이 한 명 있었다. 본인과 형제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후 시행된 농지개혁 이전에는 아는 사람한테 소작을 해 살았다.

살림살이가 아주 어려워 젊은 시절에는 죽을 밥 먹다시피 하며 살았다. 감자, 수수 등을 섞어 밥 대용으로 많이 먹었다. "옛날 생각하면 생각도 하기 싫지 뭐"라고 말한다. 22세에 군대에 가서 25세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1968년 3월에 제대하였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집안 형편이 상당히 안 좋았으나, 제대하자 어느 정도 나아졌다.

부산 고속도로 건설 등 일자리가 많이 생기자 동네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객지로 많이 나가 돈을 벌어 와서 마을 형편이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해방 때 기억은 나지 않으며, 한국전쟁 때 기억은 난다. 한번 피란나간다고 나간 것이 '수색'이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갔는데, 중공군들이 '뭐 하러 여기 왔냐'며 돌아가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피란이라는 게 없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50세, 어머니는 90세 때 돌아가셨다. 이에 대해 이계희 씨는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만 놓아 놓구선 가신 거예요."라고 했다.

집안을 건설하는 데에 큰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큰형은 교통부에서 근무했는데, 마을에서 일산역까지 4-6km 되는 거리를 허구한 날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 일산역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출근했다. 교통부 직원이라 기차 탑승료가 무료였다.

군대에 다녀와서 24세에 결혼을 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건설현장에 몇 개월씩 있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살았다. 공사를 하러 남쪽에 가려고 하자 아내가 말렸으며,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진밭마을로 다시 돌아와 밭을 내서, 논을 임대 해 농사일을 시작했다. 70년대서부터 마을에 들어와 살았다.

현재 마을회관 터에 위치했던 송석초등학교를 다녔다. 마을 주민이었던 문봉길 씨가 땅을 기증해 그곳에 학교를 이전했고 이계희 씨는 19회 졸업생이었다. 송석초등학교는 해방 전 개교하였으며, 현재 84세이신 김수정 씨의 아버지가 1회 입학생이었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은 이 마을에서 있었으나, 4H 활동은 활발히 했다. 당시에는 하우스라 안 하고 '온상'이라 했던, 구덩이를 파서 짚을 썬 다음 작물 심기에 활용하는 방법 등 농업 기술을 배우고 견학도 다녔다. 화정역 근처에 여성들의 4H 활동이 활발했으며, 그들과 함께 교류했다고 한다.

### (3) 진밭마을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출생의례에 대한 정보는 이계희 씨와 김수정 씨에 의해 제보되었다. 아이가 잘 태어나라고 빌 때는 절(보광사, 만경사)에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아이가 안 생기는 일은 별로 없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부유한 고관대작 집에서 많이 한 고민이었다.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빌었다. 마을 내에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이를 받을 때는 동네 노인들이나 주로 출산 경험이 많은 이웃에게 요청했다. 특별하게 ‘산파’ ‘전문가’로서의 인물은 없었다. 병원을 가지 않았고, 탯줄도 아이 받는 사람이 자르거나 면담 참여자가 직접 잘랐다. 탯줄은 주로 불에 태워버렸으나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출산 시 아이를 받을 때, 어렵게 살았던 예전에는 짚을 깔았지만 요즘에는 비닐, 포대 등을 깐다. 면담 참여자는 당시에 비닐이 있어서 비닐을 사용했고 아기 옷은 미리 준비해 놓는다.

당시에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출생 후에만 알 수 있었다. 아들을 낳으면 금줄(새끼)에 숯 고추를 달아서 사람들 못 들어 오게 했다. 여자의 경우는 금줄에 숯만 달았다. 금줄은 삼칠일(21일) 동안 걸고, 외부인은 출입금지지만(엄밀히 말하면 부정한 사람) 친척들은 대략 드나들 수 있었다. 아이를 낳으려 친정을 가는 풍습은 못 봤다고 한다. 모두 자기 집에서 출산했다. 출산 후 몸조리는 3일 정도로 길지 않았다. 일주일 지나면 정상 생활을 했다.(우물에서 물도 길고, 밥도 하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출산 도와준 이웃 중 한명이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없이 살아서’

그런지 삼신상은 본적이 없다. 아기 이름은 작명소에서 지어오지 않았다. 면담자가 아는 한자를 토대로 나쁜 글자를 빼고 지었다. 돌림자를 넣어서 조부가 짓기도 한다.

백일잔치, 돌잔치는 어려웠지만 간소하게라도 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수수팥떡과 백설기를 집에서 만들어서 가족끼리 나누어 먹었다. 돌상에 실타래도 놓았다. 참여자 본인의 돌잡이는 기억하지 못했다. 돌잔치를 할 때 사람을 많이 부르지 않았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음식도 한두가지를 올렸다.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던 집들은 큰상에, 규모가 크게 차렸다. 사진관도 흔하지 않아서 사진은 없었다.

## (나) 혼례

황정숙 씨의 경우 외가(외삼촌)의 중매로 20세에 진밭마을로 시집을 갔다. "옛날에는 꼭 친척들이 온 곳에서 혼인을 했거든."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워낙 없는 살림이시다보니 요령을 못하셨는데, 공출만 성실히 했지 일본군 몰래 땅 밑 항아리에 면화를 심는 등의 재주가 없어 딸이 시집가는 데 이불을 해줄 도리가 없었다. 외삼촌과 아버지가 혼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여자는 중매에 관여할 수 없었다. 혼인 전에는 신랑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어른이 봄에 사주를 가져 왔고, 1년 뒤 초여름에 시집을 왔다. 잔치 이튿날 처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봤는데, "좀 마음에 덜 들었"다고 했다.

사주는 봄에 가져갔는데, 잔치날은 10월 초여드렛날이었다. 신랑은 말을 타고 마을로 왔다. 큰 오빠가 8월 몇 일에 창고에서 터져서 나온 사향목을 가져다가 다듬이질을 해서, 바느질을 잘 하는 면장 마누라에게 부탁해 입고

갈 옷을 준비해주었다. 동네 할머니(의범이 엄마)가 큰 오빠의 아내를 보고서 "병든 새악시를 중대한거야."라고 말하며 일주일 있다가 이불을 덮고 드러누울 것이라 했는데 정말 몸이 아팠다.

색시는 대례를 지내기 위해서 꾸미고, 손수건을 두 손에 얹고 앉아있었다. 대례를 하기 전에는 속상해서 밥을 먹지 못했다. 대례는 낮에 지냈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한다. 양쪽에 하님들이 도왔는데 "한 쪽은 하님이고 한쪽은 그때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곁들어주고 그랬겠지."라고 하며, 불려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색시 하님으로 와라' 하면 왔었다. 하님들은 돈을 주고 고용했다.

대례를 할 때 밥을 먹지 않았던 이유, 시집을 갈 때의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먹는 것이 싫지. 지금 내 맘대로 하니까 안 간다고들 뻔대지. 누군 하고 싶어서 와, 다 싫어. 그래도 어른들이 보내니까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가니까 속상하니까 안 먹는 거지 뭐. 먹기도 싫고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친정에서 나올 때)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억지로 가마 타러 나오지. 옛날에 좋아서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밤낮 울지. 속상하고 싫어 다. 그런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나보다 하고 가야지. 억지로 가는 거지.

시집을 오니 시부모님과 시조부모님이 글자를 몰라서 놀랐는데, 신랑은 국민학교를 다녔다. 트럭을 타고 가다가 봉일천 근처에서 내린 다음, 거기서부터 가마를 타고 왔다. 신랑은 따로 말을 타고 왔다. 신부가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것을 진밭마을에 이미 시집 온 외할머니가 마을 어귀에서 바라보았다고 한다.

대례를 친정에서 지내고 당일 바로 신랑댁으로 이동했다. 대례를 지낼 때 음식상을 받지 않았다. “에이 그런게 어디 있어. 옛날에. 여간해가지고 있어 그런게.”라고 응수했다. 대례를 지내고 나서도 밥을 먹지 않고 왔다. 신랑에게 들볶이질을 하며 무언가를 던지는 장난을 심하게 쳤기 때문에 신랑도 밥을 먹지 못했다. 신랑집으로 이동할 때에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만 트럭을 타고 봉일천에서 들어올 때 가마를 탔다. 하행으로 집안 내 황씨 백수건 달아져씨가 같이 따라왔다. 옷말 어른이 왔으면 했지만 그쪽 집안이 어려워 집안 어른으로 모셨다.

시댁에 처음 들어올 때 바가지를 켜다. 친정 부모님께 인사할 새도 없이 울면서 시집을 갔다. 바가지를 깨고 이방을 하고 들어왔다. 친정에서는 아버지가 부잣집에서 버린 자부동(방석)의 시꺼먼 솜을 가져다가 빨아서 광목, 시향목, 회향목 등으로 염색을 해서 동네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이불을 마련해주었고 머리장과 요도 마련해주셔서 해갔다. 어떻게 윗겹는지는 잘 모른다. 이미 와 있었다고 한다. 20세는 아주 과년한 색시라 나이가 많다고 말이 나왔다. 부모님께 말은 못 했지만 "어떻게 시집을 가서 그 집 이불을 덮고 자나" 걱정을 했다. 그것을 보고 "시집 이불은 안 덮겠지"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아버지가 이불, 요, 머릿장을 마련해주셨던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너 이불도 못 해서 그냥 보내야겠다. 그 20살인데 그뻘 아주 과년한 색시아. 나이가 아주 많다고 이렇게 말이 나. 아이고, 그 집 이불에 가서 어떻게 자나. 그 생각이 나더라도 그래도. 아이고, 엄마가 이불을 못 해준다니 그 집에 가서 이불을 어떻게 덮나. 저년이 시집가는 데 참관 한다고 그럴까봐 말은 못하고 점점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어휴, 어떻게 시집을 가서 이불을 덮고 자나. 그래도 아버지가 살림을 꼼꼼하게 튼튼하게 하셔서. 그렇게 나가서 팔남봉으로 돌아다니셨어도 어디 가서서 누구 부잣집에서 자부동

뜯어서 틀어서 갖다 판다고 가져가더라. 옛날에 모든 게 귀하니까 왜정시대 때 광목 요렇게 한 마에 쌀 한 말을 준다고 그래도 못 샀어. 없어. 그러니 옷이 얼마나 귀해. 그래 가지고 그냥 이불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데.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오시더니 그 자부동의 솜을 헨거지 그걸 틀어서 팔러 가는 것을 내가 붙들어서 가지고 왔다. 근데 틀은거야. 이만해 커다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꺼멥더라고. 난 지금도 속상해. 이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도 또 광목, 향목, 옥양목 옛날에 목이 여러 가지야. 이끝 저 끝해서 거죽으로 반물을 들여서 물도 집에서 들었어 광목에다. 빨간 물 깃에 들고 해서 그 헨 솜을 쥐서 할머니들이 해 놓았는데 그래도 숨이 나가더라고. 요는 조그맣게 했는데 그래도 그것은 집에서 누가 좀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구지렁솜이야. 그건 새 것이야. 그거 틀어서 요포대기 하나 하고 이불을 그렇게 해서 헨 솜으로 하나 해놓고 그래가지고 해 놓으니까 그래도 저것이라도 있으니까 시집의 이불은 안 덮겠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만한 머리장도 하나 사오셨어, 아버지가. 조그만 것, 한 짝 놓는 게 있어 그것도 사오시고. 오강도 작은 어머니가 사 오시고 누가 조금씩 이렇게 대야도 하나 사시고 그래서 그냥 온 거지 뭐.

함은 황정숙 씨가 시댁에 도착하기 전 이미 도착해 있었으며, 폐백은 안주 조금에 술 한 병이었다. 다홍치마와 노랑저고리를 입었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매일 아침 시부모님께 문안인사를 드렸다. 폐백을 할 때 신랑이 옆에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며, 시부모와 시할머니에게 폐백을 했다. 신랑댁에 들어 온 사흘 째(3일) 아침부터 부엌일을 시작했다. 그날 광목바지, 저고리를 벗은 신랑을 처음 보았다. 손수건을 들고 손님을 맞는 날은 잔치 이튿날 하루이다.

떡을 해서 하인이 지고 가게하며 근친을 갔으며, 그 때 신랑 발 매달기를 했다. 매질을 심하게 해서 신랑이 크게 다친 경우도 있었다. 시집을 왔을 때 시누이들이 신랑과 신랑을 붙잡아 매서 천으로 돌돌 감거나 노래를 시키는 장난을 했다. 동네 친구들이 장난으로 거친 나무젓가락으로 신랑에게 국수를 말아 먹였다.

이계희 씨의 경우 중매쟁이가 결혼 날짜를 잡고 함잡이가 개입했다. 중매쟁이를 통해 선을 본적 있었다. 양부모가 만난 뒤 당사자끼리만 남아서 서로 ‘맘에 들면’ 사진을 찍었다. 면담자(이계희 씨)의 어머니는 민며느리였다. 남자 쪽에서 날짜를 잡아서 보냈다. 여자 쪽에서 보낸 적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은 보내지 않고 택일을 날짜만 2~3개 정도를 적어서 보내고, 그 날짜 중 선택하는 권리는 여자에게 있었다.

대례는 신부집에서 준비하고 결정된 날짜 당일 오전 즈음에 말이나 차를 타고(면담자는 차를 탔다) 신부집에 간다. 대례청에 수탉을 놓고 술을 따르고 맞절(남자2번 여자4번)을 한다. 신부집에 갈 때 함잡이(보통은 먼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친구들이 많이 해주지만 본인이 처음이어서 다른 남자분이 했다)가 함께 갔다. 친구들이 함을 메고 가면 ‘돈(술값) 내놓으라’는 등 장난을 친다. 70년대 무렵이었으며, 신식결혼도 있었다.

결혼을 할 때 신랑 마을에 있는 관복을 입었다. 신부는 신부마을의 관복을 입었다. 신부는 관복을 벗어놓고 마을을 넘어온다. 신부가 두 명의 부축을 받아서 대례청을 걸어 나왔다. 신랑은 신부집에서 동네 어른들과 상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때 상은 신부와 따로 받았다. 작은집 할 아버지(색시 데리고 온), 5촌 당숙과 함께 갔지만 상은 따로 받았다. 상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식사만 하고 차린 상을 가져가지는 않았다. 3일 재배 때 신부 측에서 첫날에 음식을 해오지는 않고 대신 장롱, ‘자방틀’ 등의 신부가 필요한 가구를 가져온다. 바지저고리, 비단, 시어머니 이불 정도는 예단으로 해왔다. 신랑이 말을 타고 갔다면 신부가 가마를 타고 오겠지만, 본인은 차를 탔기에 함께 차타고 돌아왔다. 시집을 온 후 원래 3일까지는 신부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있으니 3일이 되기 전에 부엌에 가서 일을 한다. 삼일도배기(3일 뒤에 신랑 신부

가 함재비와 함께 다시 신부집으로 돌아가는 것) 때 여러 가지 떡(구체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함), 약식 등을 해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 이바지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이 날인데, 이바지 음식은 폐백과는 다르다. 폐백(신부가 준비)은 첫날 시부모에게 절할 때 자손 많이 낳으라고 밤 대추 던져주는 것이다. 남의 귀한 집 딸 데려갔다고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때리고 장난을 치는데, 이를 ‘발단다’라고 표현한다.

신부 친척들에게 인사는 3일도배기 이튿날 큰집 작은집을 돌면서 하는데 이 때 술을 얻어 마신다. 장난으로 술을 매우 많이 주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때쯤 술이 많이 취해서 잠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신랑집으로 돌아갔다. 신부는 신랑의 친척들을, 그들이 신부를 보러왔다고 하면서(이웃들과) 방문할 때 보게 된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의 잔치는 당일 하루 전날부터 준비한다. 별도의 대접 없이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눠 먹고 마셨다. 따로 초대를 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척 들(누이)이 와서 준비를 돕고 묵어가기도 했다.

대례청에 놓였던 닭(신부 측에서 준비했던 것)은 처갓집에 두고 오지만 기러기는 가져온다. 마을차원에서 혼례 절차 관복 등을 준비해 주었다. 가마는 없었다. 참여자는 가마꾼을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상여일 것이라고 했다.

홀기(혼례식 시 순서 부르는 사람, 신부 측에서 준비)가 있었다. 본인 결혼 때 썼던 차는 빌렸다. 당시에 차는 거의 없었고 말이 대부분이었다. 말을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마구장이 신부 집까지 말을 끌고 왔다가 간다.(빌려줌) 가마는 말에 달려있는 것을 썼다. 부락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기에 빌려서 사용했다고 한다.

신부가 신부집을 떠날 때 장모 장인에게 인사하고, 신랑 집에 들어가기 전 재앙을 쫓기 위해 바가지를 발로 밟아서 꺾다. 바가지는 깨질만한 것만 가져다 놓는다. 혼례 품앗이는 주로 음식으로(술 목 떡 국수) 했는데, 음식이 귀하고 돈으로 해도 근처에 사올 곳이 없고, 술도 담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잔치는 부락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친척들이 모였었다. 청첩의 개념은 적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네잔치에 오게 된다. 음식을 해서 오기도 했고, 대부분 와서 먹고 갔다. 술도 귀하고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잔치나 초상이 나면 술 취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많았다. 그걸 보고 “아 잔치 잘 차렸구만” 이라고 했다. 어떻게든지 술을 숨겨서 많이 만들었다. 60년 중후반에 짚가리에 숨겨서 술을 몰래 담그는 일들이 있었다. 면담 참여자가 살던 시절에는 시장에서 국수를 팔아서 그것을 사왔다. 신식결혼을 해도 감주 국수 목 등의 부주는 해 갔다. 혼례 절차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종이에 기록을 했으나 거의 다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 (다) 축수연

황정숙 씨의 경우 돼지 새끼를 장에서 사와 1년을 길러 시아버님, 시어머님 환갑 때 돼지를 잡았다. 입을 옷이 없어 아무 옷이나 입고 절을 드렸지만, 환갑잔치를 크게 열어드려 지금도 한이 없다. 부조로 떡이 7그릇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 (라) 상장례.제례

황정숙 씨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모두 진갑에 돌아가셨다. 시할머니는 당고개에서 돌아가셨다. 시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1년을 앓고 댁에서 돌아가셨을 때. 병원은 따로 가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병원에 모시고 확인을 받은 다음 안 방 앞에서 돌아가셨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며느리가 뒷방에 병풍을 쳐 놓고 수의를 바느질했다.

친정아버지 장례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 시집간 딸도 아버지 장례에는 참여했다. 상을 당한 곳에서는 곡소리가 나야 한다고 하여, 어린 아이들이 울고 있지 않으면 '안 울고 앉아있으면 큰 흥'이라고 소리를 들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일장을 지냈다. 딸은 방 안에 앉아서 곡을 하고, 사위는 나가서 일을 보았다. 상이 난 곳에서 곡소리를 하지 않으면 큰 흥이라고 여겼다.

가서 울고 그래야지. 그때는 곡성소리나 노냥 나야 돼, 우는 소리가. 지금은 우는 것이 상극이야. 조금도 안 울어 들, 그게 뭐야. 옛날에 애, 곡성 소리 내라. 왜 애들이 많은데 곡성이 끊어졌냐. 얼른들 울어 이려고 야단인데. 그때는 안 울고 앉아 있으면 큰 흥이에요.

사위가 처가에 가서 상여 나갈 때 돈을 쓰면 좋아하기는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드물었다. 이 지역에서는 여자들도 장지까지 따라 갈 수 있었다. 친정에서는 여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진밭마을에서는 여성도 남성도 같이 일을 했다고 한다.

장례를 치를 때는 떡은 안 들어오고, 술이나 조금씩 들어왔다. 장례 때는

돈 부조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만 돌아가시면 빚을 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황정숙 씨의 경우 초상 때 빌린 돈을 갚을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자도 하늘에서 자는 것 같이 공중에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도 한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뚝으로 따로 따로 마루에 밥, 냉수, 반찬을 다 놓은 상청을 3년 동안 올렸다.

이계희 씨의 경우, 장례는 3년상을 치렀으며, 없는 살림에도 마찬가지로였다. 장례식에 갈 때는 떡, 감주, 두부, 국수, 묵 등을 품앗이해서 가져갔다. 상여는 성이 얇은 사람들이 메곤 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 이러한 의례들은 상당히 간소화 되었다. 이씨들도 상여를 메라고 하고, 제사(소대상)도 간소화 했다.

모든 장례 절차는 집에서 했다. 사망의 진단은 대개 경험 있는 사람들이 허리에 손을 집어넣어서 허리가 뜨면 살아있고 붙어있으면 돌아가신 것으로 이루어졌다. 사람에 따라 귀가 올라가고 내려간 것으로도 판단하지만, 대개는 허리가 뜨는가 여부로 판단했다. 사망할 때가 되면 내의를 만질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불렀다. 이씨 집안의 경우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수세 걷기 등 절차를 가르쳤는데, 양반들이 남의 손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있었고 특히 여자는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고 여겼다. 집안 일가에서 이러한 일을 하였고,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수세 걷기를 하는데, 흠이불 등을 길게 찢어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매어서 손과 연결해서 움직이지 않게 했다. 자세들 만들었다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 옷을 갈아입히면서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시신을 닦을 때는 숨으로 겨드랑이 등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를 대략 문질러 닦아내는 정도이다. 그 후 자세가 고정된 뒤에는 맨 것을 풀어도 된다. 이 모든 절차는 모두 자식(상주)이 하지 않고 사촌, 당숙 혹은 집안을 잘 아는 지인

이 했다. 상주는 지켜보는 정도였다. 갈아입을 새 옷은 항상 준비를 해 놓았다. 초상이 나면 지붕에서 초혼을 받드시 하였다. 현재는 병원에 모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빈소와 상청을 받드시 차리는 것으로 알았다. 상청의 경우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상까지 설치해 두었는데, 집에 흰 관목으로(김) 만들어서 커튼식으로 접었다가 폼다가 했다. 사갓밥은 초혼(두루마기를 휘두르면서)하면서 바로 만들었고 절구통을 얹어서 위에 놓았다.

대부분 돌아가시고 나서 장의사를 통해 관을 준비하거나 부유한 일부의 경우 미리 준비를 했다. 장의사에 가면 염옷 상복 관 모두 팔기 때문에 치수를 재서 알맞은 사이즈의 이미 만들어진 관을 구매했다. 염하는 사람이 사이즈를 측정해서 알려준다. 돈 있는 집안은 본인이나 자손이 미리 '나무'부터 사다놓고 옷칠 등의 관리를 하고 관을 오겹으로 짚고 안에 비단을 넣었다. 오겹관은 잘 썩지 않았다. 고양은 대부분 탈관이었다. 관을 쓰는 경우는 좋은 관을 사용하였다. 탈관할 경우에 우선 일정한 깊이로 구덩이를 판 뒤에, 가장 밑바닥에 사람모양으로 흙을 파냈다. 그 위에 회로 사람모양을 만든 뒤에 시신을 둔다. 시신 옆에는 시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흙 등을 채워 넣고 그 위에 뚜껑대신 홍대(토막나무, 보통 나무 쪼갠 통나무.)를 덮고 그 위에 회 섞은 흙을 덮었다. 홍대는 시신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하였다.

서민은 '먹는 것이 무섭기에' 3일장을 했고 부유한 집은 5일장을 했다. 부주는 음식(감주, 두부, 묵 등)으로 했는데, 부주는 혼례보다 상례 때에 가장 많이 하였다. 문상객을 접대할 때, 개별 상을 사용하지 않고, 큰 교자상을 띄고 한꺼번에 음식을 차렸다.

호상이면 달구 할 때 충청도에서 전해온 상여 놀이를 했다. 고양 고양의

전승된 상여놀이는 없다. 3일째 아침에 발인을 했다. 상여에 관이 실려서 나갔다. 띠별로 해서 관이 나가는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 있었다. 관이 나갈 때 머리부터 나가서 안쪽으로 상여머리가 집 대문으로 향하도록 돈다. 상여로 집을 향해 세 번 절(나무아미타불 세 번)을 하고 출발했다. 상여 옮길 때의 과정이 초기에는 굉장히 슬프지만 나중에 가면 춤을 추는 등 경쾌해진다. 상여 앞에는 벼슬을 했을 경우 명정, 기들이 나아간다. 명정 혼백 만장이 앞서가고 뒤에 상주들(여자 포함)이 산소까지 따라간다. 그 과정에서 특정 년도 생들의 경우 상주라고 하여도 상여가 나가는 과정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언짢은 일이 있으므로). 상여가 갈 때 쉬어가면서 상주들, 사위, 사촌들이 돈을 내거나 하는 장난들이 있으며 그렇게 수거된 돈을 마을의 운영기금으로 썼다.

마을 내에 상여꾼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불러 모을 필요가 없었다. 양반들은 참여하지 않고 따로 댔다. 박정희 정권 때 간소화되어서 양반도 함께 참여했지만, 양반들은 농악도 못하게 했다. 반대로 상민의 경우 말을 잘못 타면 몰매를 맞기도 했다. 상여가 나갈 때 소리메기는(상여소리) 사람은 반상 차이가 없이 반드시 있었다. 상여소리는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상여가)느리게 가는 하는 소리, 빨리 가게 하는 소리가 있다. 처음에는 선소리하다가 빨리가야 하면 후렴구만 하고 속도도 빠르게 한다. 가사는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즉흥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돌아가신 분이 핸드폰 달라고 하신다.”라고 하기도 한다.

쌀계(한 말 등 다양함)가 있었는데, 급하게 초상이 나게 되면 집집마다 쌀 보리쌀 한 뒷박씩(자신이 가져온 것은 자신이 먹도록) 견었다. 가외로 한말씩(10가마, 20가마도 있었다) 모으는 것은 있는 집 사람이 주로 하거나, 하고 싶은 사람이 했다. 쌀계는 이 마을에는 지금은 없는데, 친구들끼리

상의해서 합의하는 게 비슷한 조직은 현재에도 있다. 풍동에서는 상조계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돈을 걷는다.

못자리는 풍수지리를 토대로 미리 말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종중 산이 없는 경우는) 미리 잡을 수가 없으며 글귀 읽는 사람을 찾아가 풍수를 따져서 남아있는 자리에 못자리를 정했다. 세 성씨는 자기 산(종중 산)에 묻었으며 특정 장소에 묻어달라고 지목을 하기도 했다.

노제(노인정에 들르면 친구분들이 제사를 차려주는 것) 후에 장지로 가서 상여 내려놓고 문상 못한 사람들은 시신 내린 다음에 절을 하였다. 달구 소리는 부락마다 한 사람씩 하는 사람이 있으나 신유희 씨가 가장 유명하고 소리가 좋다. 달구에는 10명이 참여했는데, ‘달고’(달구) 참나무 혹은 밤나무로 만든 2m정도의 달굿대를 사용하였다. 고양사람들은 왕릉부역을 많이 나가서 시신을 밟지 않는 습관이 있어 당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각 지방마다 다르지만 여기는 시제는 음력 10월 12일이며 묘지기에게 종중에서 400만원을 준다. 제사상의 경우 흥동백서 진설 대신 조율이시를 쓴다. 음식은 생선의 경우 조기, 대구포, 문어를 꽃모양으로 만들어서 놓는다. 여러가지 고기(소, 닭, 돼지)를 이용한 육전은 좌측으로 어전은 동측으로 배치한다. 시제와 기제사의 과일 배치는 다르다, 기제사는 과일 등을 한 줄로 3~5개 정도 놓고, 시제 때는 높게 쌓았다. 요즘엔 먹는 사람이 없어서 기제사도 잘 안한다.

## 나. 덕양구 두포동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마을에 과거에는 60호 정도 살았다. 자연부락이 두 개였는데, 그 중 하나가 두포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포동의 남쪽에 있었다. 현재는 두포동이지만, 과거에는 막은개(마근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막은포라고 표기하고 막은개라고 불렀다. 마을 유래에 대한 기록은 없고 동네는 집성촌이 아니었다. 진주 정씨와 청풍 김씨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도였다. 청풍 김 씨가 들어온 지는 200년 정도 되었다. 면담 참여자(김준수 씨)는 15대이다. 족보에 따르면 조상이 1500년대에 해주(청평)로부터 두포동으로 입향한 것으로 나온다. 김씨는 저쪽 아랫동네, 남쪽에 선산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 동네 마을 이름의 변천을 쭉 보니까 하여튼 부르는 것은 막은개는 막은개야. 막은개인데 그게 어떻게 하다보면 막은포라고 지명이 나와. 막은포 그게 뭐냐면 삼 막자에 뿌리 근자를 쓰고 개 포자를 써서 막은포라고 나와. 그러다가 조금 들어가서는 두포로 바뀌어. 막을 두자에다 그러니까 막은 삼 막자의 두자가 한테 합해져서 막을 두자로 돼 버린거야. 막은개 그렇게 해서 그 뜻을 막다의 막을 막을 두자 개 포자 해서 그 전에는 막은포였었다고 그러니까 표기는 그렇고 부르는 것은 막은개였어. 그게 이제 우리말 그 사람들이 막은개 그거는 맑은개라는 거야. 그 뜻에 따르면 청개라고 부르던지 했어야지 청포라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우리 나름대로 생각은 그런 거야 하여튼 부르는 것은 막은개 막은개다. 막은개인데 한자는 안쓰고 소리나는대로 막은개라고 한 것이고 나중에 두포로 바뀐 거는 바뀐 대로 두포로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뜻이 이제 개울을 막은 것으로 두포로 됐어.



〈그림 2〉 두포동 전경

마을에 두레가 있었는데, 빨간 깃발을 매단 암두레가 있었으며, 깃싸움을 했고, 1960년대 즈음해서 두레가 사라졌다. 모내기보다는 김매기 때 두레를 주로 활용하였다. 김매기 때가 여유 시간이 많아서 놀고 춤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포동은 어려운 동네라 농사를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마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두레는 그리 잘 운영되지 못했다. 팽가리나 장구 등 악기를 장만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부잣집이 없었다. 부잣집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인색했다고 하며 “노랭이”라고 표현했다.

(두레의) 주목적은 김매기 때. 김매기 때가 여유 시간이 많지. 놀고 그냥 춤추고 그러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없어진거야. (...) 김매기 한가할 때 두레를 자주 하고 이 동네가 좀 어려워가지고 농사를 많이 안 지었어요. 농사를 많이 못 지었으니까 그것도 두레를 운영하려면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부잣집이 돈도 좀 내놓고 그래야 운영이 잘 되는 것인데. 저 새 집에서 노랭이가 되어서 동네에 돈을 풀지 않아서 그걸 활성화가 못한 거

쪼, (...) 두레 그 장구, 북, 징, 팽과리 그거 다 장만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 그거 장만하는 것보다도 술도 많이 줌 내고 술안주도 내고 그래야 모이는데 부잣집이 노랭이처럼 하니까 동네가 다 안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자 집의 일을 사흘 해주고 쌀 한 말을 받아가면서 생활했다. 한 집에서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그 집의 소작을 했고, 농지개혁 이후에도 생활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면담 참여자는 "거의 다 소작이었지. 소작 면한 지 얼마 안 돼."고 했다.

마을 토지의 상당수는 기개 유씨와 최씨의 유택 땅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그 땅을 살 수도 없었고, 따라서 모두가 소작으로 농사를 지었다. 유씨와 최씨들은 두포동에 거주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땅을 구입하기도 어려웠다. 한 마지기에 4가마가 나왔는데, 이자는 거의 대출받은 뭇의 1/2(반타작)이었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차이가 컸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집안이 기울 정도로 생활 형편이 어려웠고, 부자들은 첩을 두기까지 했었고 첩을 두는 것이 능력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오면 그 집은 망하는 거야. 그러면 땅을 내 놓으면 뭐해. 그 부잣집이 와서 돈을 주고 땅을 주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 거의 다 한 동네에 부자가 하나 있으면 다 그 집에 매어서 대소사를 그 집에 의논을 해서. 별써 날 잡으면 그 집에 가서 돈으로 안 주니까 쌀을 몇 자루를 팔아서 그것으로 잔치하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거기다 다 모이지. 그 집이 나 며칠날 모내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를 할 생각을 못해. 그 집에 다 가야 하니까. 그때만 해도 (생활수준) 차이가 많이 났지. (...) 지금하고 같나요. 지금은 살기 좋을 때예요. 정말 좋아. 그때 당시에는 그 집에는 보통 아래윗집 몇 집에 작은 마나님을 몇 두고 살고 그랬어.



〈그림 3〉 두포동 전경

농지개혁 후에도 혜택 받은 농가들이 얼마 없었다. 유타는 농지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다. 유타는 그늘(거머리)이 많은 땅으로 마을 안쪽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잔치집이나 그날 모내기를 하는 집, 제사하는 집을 찾아다니며 얻어먹으려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어려웠다. 제사집에 가셔도 음식을 얻어 먹고 떡을 받으러 다녔다. 이를 “야경 돈다.”라고 했다. 굶지만 않으면 부자였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모내는 날도 누구네 모낸다 하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야. 그 날은 거기 가서 얻어먹는 거. (모내는 집에서)그 날은 인심을 쓰는 것이지. 모내기 같은 거 하는 거는 공짜가 많았어. 가서 밥을 얻어먹고 줄 잡아주고 그런 것까지도 했다고. 불 켜놓은 집이 제사지낸다고 하면 제삿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 집 문간방에 가서 푹푹 대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최고가 먹는 거야. 하루 종일 해 가지고 하루 먹는 것. 여자들이 하루 종일 보리방아 찼고 봄에 제일 힘든 것인 그것이에요. 하루 종일 보리 그거 삶아서 말려서 찌서 그것을 먹고 그 이튿날 다음날 먹을 것 또 하고. 하루 종일 먹는 거. (...) 굶지만 않으면 부자인거야.

산제를 당고사라고 부르며, 당고사는 산에 올라가서 빌었다. 당곳은 하지 않고 고사만 지냈다. 무당을 데려오는 데도 돈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주는 여자로 1년에 세 집 씩 정했다. 주술(비손)을 하는 사람은 전부 여자였다. 동네 어른들이 그 해 각 집의 대소사를 미리 파악해 당주를 정했다. 해당년에 행사가 있는 집은 부정을 탄다고 여겨서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주로 선정된 집에 줄을 매놓고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에는 재물, 떡 등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남자들이었고, 기도(비손)을 하고 안녕을 비는 것은 말씀 잘 하는 아주머니였다. 새마을운동 이후에 당고사가 남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주 또한 남자로 바뀌었다. 참여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여자들이 가서 주술을 하고, 안녕을 빌었다. 소머리, 소적, 우족, 속2개, 배, 감, 밤 (3송), 떡(시루떡) 등이 산제사 상에 올랐다.

당주를 정하는 데 마을 회의를 해서 올해는 어느 집 어느 집을 당주로 하자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재물, 떡이나 이런 걸 올려 가는 것은 다 남자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 올라가서 실지로 비는 것은 그 이전에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다 동네에서 조금 말씀 잘 하시는 아주머니가 올라가셔서 주술을 하는 거야, 동네 안녕을 비는 거야. 그리고 운영하다가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당주 선정도 안 하고 마을 뭐야 자치회라고 그래야 될까 무슨 그냥.

1년에 한 번, 10월 음력 초하루에 산제를 지냈으며, 산제사가 끝나야 집집

마다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산제사는 나무가 아니라 바위에 했는데, 바위가 3개 있었다. 예전에는 등짐을 졌었으나 현재는 당 앞까지 도로 포장을 해서 차로 운송을 한다. 현재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상석을 훗날 설치해 두기는 했는데, 원래는 바위만 있었다.

당고사는 어떤 형태로든 중단된 적이 없었다. 마을에서는 여신을 모시는데, 감주, 식혜 등을 사용하였다. 남자가 제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 유림복을 입거나 유교식으로 축문을 쓰는 등 절차가 유교화 된 것도 있었으나 다시 고사 형태로 원위치 시키고자 한다. 유교식화한 다음에도 여자가 올라가기는 했으나 뒷설거지만 했다. 동네 스님에게 부탁해 스님 방식대로 산제를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스님을 부르는데 돈도 더 들고 형식도 바뀐 것에 대해 반발이 있어서 한 해만 하고 하지 않았다. 당고사의 형식을 유형화하고자 하나 호응이 별로 없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당고사 자체는 전승될 것으로 본다.

아무 주문도 안 하고 그냥 놓고 절만, 여자가 했을 때는 이렇게 빌었겠지. 남자가 올라가니까 제사 형태도 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면 유교의 유림 다른 어디가면 남자들이 하면 유림복도 입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했었어. 당고사 지낼 때 유림복을 해서 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왜 없던 법을 내세우고 그러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해서 그냥 유림복도 안 하고 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올라가실 분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올라가서 지금은 남자들이. 여자 분이 올라가는데 가서 오히려 여자 분들이 뒷설거지만 해주고 올라가는 그것은 뭐 하는 것은 이제 남자들이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노인정에서 노인 회장했던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대표로. 지금 형식을 내가 유교식으로 축문을 좀 쓰고 하다가 작년부터는 또 그렇게 안 해. 그냥 하자고. 그전에는 유교 형식대로 제사 형식으로 좀 하다가 그게 아닌 것 같고 고사고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원 위치 시키고 하자고. 그런데 지금도 째짤한 것이 바로 그거야. 고사 형식으로 했다면 작년 재작년에 동네에 스님 한분 사서, 그래서 스님보고 부탁을 해서 스님한테 일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이니까 금년도에 당주다 생각을 하시고 불교 스님이시니까 스님이 주관을 해서 한번 하라. 그래서 스님은 스님대로 징을 울리고 하셨어.



<그림 4> 관산마을 시루통



<그림 5> 관산마을 회관



<그림 6> 관산마을 회관



<그림 7> 관산마을 당고사 용품 창고



<그림 8> 관산마을 당고사 물통



<그림 9> 관산마을 당고사 제단



<그림 10> 관산마을 당고사 제단 전경



〈그림 11〉 관산마을 당고사 우물

척사대회는 매년 정월대보름 근처의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행된다. 과거에는 척사대회를 크게, 3~4일 동안이나 하곤 했다. ‘춘향이들’을 모았다. 면소재지 같은 곳에서는 규모가 커서 며칠 동안 하고 상품도 컸다. 해당 마을은 동네 사람들끼리 했기 때문에 상품은 크지 않았다. 널뛰기 단 체전도 60년대 중반까지 참여했었다. 정월대보름에 쥐불놀이도 했다. 달마 중놀이는 나이 수대로 짚을 엮어 햇불을 만든 다음 달이 떠오르면 태웠다. 액운을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거는 전해 내려오지 않아. 그런 거는 없었어. 달집 태우는 거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달맞이 행사는 개인별 나이별로 묶어가지고 태우는 것은. 허수아비 만들어서 액운을 태운다고 버리는 것이고 달맞이 할 때는 자기 나이별로 짚으로 그걸 태워서 하는 것이지. 짚을 이렇게 묶어서 태우는 데 한 살짜리는 짚을 한번만 묶고 열

살짜리는 열 개를 묶는 거야. 열 개 표시를 죽 해. 그걸 달이 떠오르면 옆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단오 때는, 초파일날 그네를 매서, 단오날에 그것을 풀었다. 다음 해에 새롭게 맨다. 그네는 짚을 나뭇가지를 대고 엮어서(묶어서) 3가닥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기둥을 새로 세우기도 했다. 어느 마을이든 그네 맬 나무는 하나 씩 있었다. 마을 소나무가 크게 있어서 거기에 매기도 했다. 남녀노소가 다 그네를 탔는데, 석전은 없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던 행사였다.

선우궁보라는 보가 있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였지만, 농지개량조합으로 이후 흡수되었다. 여름 장마통이면 벌써 떠나려가기 때문에, 해마다 이른 봄 오뉴월이면 말뚝을 박아 보를 막는 물막이 공사를 새로 하곤 했다.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중요 마을 행사였다. 농기구 가래줄을 같이 모여서 자체 협동 방식으로 해결하던 문화가 1965년 이후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사라졌다.

그렇지. 우리가 보가 선우궁보라고 그러는 보인데 선우궁 지명은 나도 모르겠어. 왜 선우궁으로 되었는지 요 근래에 근처에 선우궁이라는 무슨 자취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궁자가 붙은 것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보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농지개량조합으로 흡수가 되면서 사실은 그것은 협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지. 그 이전에는 목리 면적 내에 보 쟁인들이 합동을 해서 그 비용을 다 물고 그래서.

그렇지. 보를 칠려면 개울을 칠려면 가래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물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협동을 두레 형태라고 할까. 같이, 물줄기를 같이 쓰는 것이니까. 물줄기를 같이 하는 거지. 협동 작업을 하는 거지. 매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마통이면 벌써 떠 내려가. 그러니까 이른 봄이면 냇물을 막아. 그러면 농사철이 주로 옛날에는 밭농

사 보다는 논농사 위주의 물 대는 게 5,6월 그러면 모만 다 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막아 놓은 게 장마통에 다 떠내려가. 냇물에 있는 게 다 떠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또 여름에 가가지고 물이 필요하면 물막이 공사라고 해서 말뚝을 박고 거기다 거석이라고 해서 나무를 대고 물을 끌어드리는 것을 가을까지 하다가 그렇게 되면 또 봄에 하다가 여름이면 다 나가는 것이고 또 그리고 보 도랑도 다 흙으로만 된 것이니까 1년 지나면 자꾸만 메꿔지지. 그럼 그거 또 가래로 칠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네줄 하듯이 농기구 가랫줄을 같이 모여서 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졌고.

## (2) 두포동 토박이의 삶

김유빈 씨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대 직후 농촌진흥청에서 농사기술지도 업무를 맡는 공무원으로 첫 직장을 잡고 정년퇴임을 했다. 고양군청에 소재한 원당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고등학교 막 졸업을 하고 공채 공고가 있어서 있었는데 그 시험을 응시를 하고 대학을 한 번 간다고 응시를 했는데 똑같이 되어서 공채시험을. 그래서 학교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은 안 가고 조금 있다가 군대에 갔지 뭐. 학교도 떨어지고 시험도 못 보고 그래 가지고 뭐 학교는 포기를 하고 군대에 가서 제대를 하고 나니까 그것도 지도기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지. 내가 4H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관을 다른 데 보다는 좀 낫지. 안 그랬으면 산림계통 관리소 쪽으로 갈 뻔 했지. 그러다가 농촌지도쪽이 내가 4H때 했고 그랬으니까 그리 가자고 해서 그리 갔지.

그렇죠. 농촌지도라는 것이,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가끔 가다보면 농업진흥청 그러는데 농업진흥청은 농업 하나인데 농촌 그러면 농촌 사회가 들어갔단 말이야. 농촌사회 중에는 농업기술도 있고 농촌사회구성원들이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한 뭐야 교육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쪽 부분에 정년퇴임 기간 동안에 많아졌지. 농촌사회분야. 옛날에는 농촌사회분야라고 하면 지역개발, 사람육성, 그러니까 4H를 아는지 모르겠어. 4H애들 청소년 지도 이런 게 주로 그건데.

직장에 다니면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농사일 일부는 남을 주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지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촌 기술을 지도했는데, 사람과 사회에 대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농촌사회 분야에서 지역개발, 인재육성을 위해 4H를 이끌었다. 청소년 지도는 주로 인성교육(민주시민교육)이었다. 본래는 후계농업인육성 계획이었으나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인성교육으로 바뀌었다. 그곳에서 34년을 근무하고 만 60세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였다.

본 마을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새마을 모범 부락이었다. 쓰레트, 길 넓히기, 농업 기술 시범 사업, 생활개선, 메탄가스 보급 등의 새마을 사업 관련 일을 했다. 마을 스스로가 왜정 때부터 단합이 잘 되었고, 새마을 정책에 협조를 잘 했다. 새마을 사업과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겹치는 부분(청소년, 지역개발)이 있었고, 초창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나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잠식했다.

쓰레트도 하고 길도 넓히고 또 농업 기술도 시범 사업도 이쪽에서 많이 했지. 생활개선 어떤 이런 회관 이런 거. 지역의 부녀회 중심으로 생활개선사업이란 것도 있어. 그것도 많이 했고, 메탄가스도 해봤고 여기서.

(모범 부락이 된 이유는)난 잘 모르겠는데 왜정 때부터 이 동네가 단합이 잘 되고 모범 부락이 되려면 특별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내가 보건데 그렇게 지도자가 있다기 보다는 스스로가 협조를 잘 하는 것 같아. 하여튼 말을 잘 들었어요.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뭐라 그러면 잘하니까 퇴비도 일등.

### (3) 두포동의 일생의례

#### (가) 혼례

면담 참여자 추준수(1932년생) 씨는 1952년 음력 8월 초하룻날 결혼하였다. 전쟁이 막 끝났을 즈음이었고, 그 당시의 관습대로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시집을 왔다. 면담 참여자에 따르면 상이 나오기 전 신부는 안방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신랑은 관례복을 두루마기까지 다 입고 신부집에 들어온다. 신부집에 들어서기 전 친구들이 장난을 많이 해서, 혼례식 때 신랑의 웃고름이 떨어져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절은 신랑과 신부 모두 똑같이 3번씩 했다. 절을 우선 한 번 하고 술을 따라주고 다시 절을 한다. 신랑은 큰 상은 받지 않고 함께 밥을 먹었는데, 신랑상이라고 하며 차려 주었다. 대례를 지내고서는 주걱대에 국수를 돌돌 말아서 신랑 입에 넣어주었다.

그냥 제돌을 싸가지고 그냥 팽개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랑 두루마기 웃고름이 다 떨어지고 그래 장난 심하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독상 받는 거 그런 건 모르는데 하여튼 대례지내고 들어오면 그 국수를 말아가지고 어디가 앉지도 않고 주걱 꼭지인지 뭘지 돌돌 말아서 먹이더라구.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그리고 상 차려 내 나갔죠 신랑상 차려서.

추준수 씨의 경우 대례를 하고 신랑이 식사를 하고서는 바로 신행에 나섰다. 이 지역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갓집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신랑집에 들어 설 때, 바가지를 깨고 들어섰다. 친정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오는지, 안 하고 오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가마를 타고 신랑집에

갔다. 신랑만 삼일재배를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고, 여자는 시집을 가면 3년 안에 친정에 가지 못했다. 근친을 가서는 1달 정도 머물렀으며, 돌아올 때도 친정에서는 신부를 가마를 태워 음식과 함께 보냈다. 근친은 신랑 없이 신부만 가마를 타고, 소에 떡을 싣고 가기도 했다. 추준수 씨는 혼인 후 3일 뒤 친정에 방문하는 삼일재배 때 친정에 가지 않았다. 신랑만 가서 하룻밤 자고, 발바닥을 두드려 맞고 왔다. 폐백음식은 닭, 대추(접시에 실로 엮어 빙빙 돌려 쌓은 것), 정종 한 병이 전부였다.

폐백음식 옛날에는 닭, 닭하고 대추, 대추해서 끼워서 빙빙 돌려서 이런 쟁반에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것 밖에 안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시방들은 폐백해가지고 별별 것을 다 해가지고 가더라고.

신랑집에 돌아온 다음 이튿날까지 '색시놀음'을 하고, 폐백을 드리고 시부모에게 인사를 한다. 사당 차례를 오기도 했다. 사흘 되는 날 아침 부엌에 나온다. 시부모님이 "이제 그만 해라" 하실 때까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절을 드렸다. 신부는 시부모님 친척들에게도 인사를 다 드렸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왔다.

가마타고 가고, 음식을 해서 소에다 싣고 떡 그런 것을 해서 소에다 싣고 가마타고 그렇게 보내더라고. 우리 친정 작은 올케가 그랬어요. 작은 오라비 작은 성님이 3년 만에 친정을 보내는데 떡 그렇게 해서 싣고 가마타고 보내는, 나 어려서 보니까 그렇게 보내더라고. 3년 만에.

남자만 가면 막 그거 발바닥 대고 막 때리고 그래. 무척 때려요. 장인 장모가 그렇게 다 해서 자꾸 내지, 때리지 말라고, 장난이라도 무척 심하게 했어요. 장난을. 여자는 시집을 오면 3년 안에 안 갔어요. 친정으로 아주 옛날에는(누가 맨발로 도망갔다면, 하도 두들겨 패서 )

김향칠 씨와 김준수 씨의 경우 당시에는 신식 결혼식이 유행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구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도 예식을 식당에서 하는 사람이 많이 우리 친구들 다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좀 덜 들자 그래가지고 구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형님이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예식비니 뭐니 경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구식을 했어요 이렇게.

김준수 씨는 처갓집에 앞마당이 없어 문 밖 앞뜰에서 식을 올렸다. 마주설 때 신랑은 대문에서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신부는 왼쪽에 섰다. (하지만 김향칠 씨는 대문 밖에서 식을 올렸다.)

절은 남자가 먼저 하고 여자가 답례를 하는 순서로 각각 3번을 하고 술을 한잔씩 했다. 대례가 끝나고 처갓집에서 국수를 먹었다. 본가에 가는 길에는 따라온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자유의 다리와 북악스카이 부근을 차를 타고 드라이브했다.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때는 이제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북악스카이 그 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북악스카이 옛날에 길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자 친구들인 신부 친구들이 오잖아요.

신부 친구들이 따라오고 남자 친구들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북악스카이 길이 많았잖아요. 영업용 택시 타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장난을 하느라고 여자 친구들하고 남자 친구들하고 막 부딪치고 이려고 그랬는데,

신랑집에 신부가 들어설 때 신부는 바가지를 깨고 집 안에 들어선다. 본가에 와서는 누님이 긴 막대기(큰 나뭇가지)에 국수를 말아 굴뚝 뒤로 데려

가 신랑에게 먹였다.

함은 동네에서 아들을 낳은 남자가 지고 갔다. 그래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딸을 낳은 사람은 함을 지지 않았다. 형님 되시는 분이 함을 지고, 친구들은 쫓아갔다. 후행으로는 오촌 아저씨가 가셨다. 함을 매는 방법이 달랐다. 함 끈을 풀면 그것을 두고 가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했는데, 두 경우 모두 풍습으로 존재했다. 함 끈을 두고 오면 첫아들 기저귀 끈으로 쓰기도 했다. 함 끈은 부인이 재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전안례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대청에서 서로가 신부하고 신랑하고 이렇게 그게 무슨 의식이다 무슨 의식이다 함도 지고 가서 내려 놓고 함 끈도 풀지 않고 그냥 풀리지게 그 매는 방법도 다르잖아. 그렇게 해서 나오고 함끈을 두고 가야 되요 가지고 가야 되요. 옛날에 함끈을 두고 가면 어떻다는 풍습이 있고 함끈을 가지고 오면 어떻다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함끈들을 대개들 두고 오면 첫아들 낳으면 기저귀로 그것을 하고 그랬던 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례를 마치고는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한 뒤 본가로 돌아왔다. 오촌 당숙은 형수님과 함께 따로 집으로 돌아가셨다. 서너 명의 신부 친구들이 본가에 따라왔다. 함에는 옷을 서너 벌 지을 정도의 천을 끊어 넣었고, 작은 종이에 생년월일을 적었다. 신부는 가구와 어른들의 버선을 한 다발(10개 정도) 챙겨와 식구들에게 챙겨주었다.

그때는 다 천으로 감으로 다 끊어가지고 간 거예요. 함 속에다 거기다 넣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 그럼요. 가구 같은 것은 가지고 왔고. 뭐 어른들은 그때 무슨 버선인가 뭐 버선이 한 죽이 열 개라 그러나 몇 개라 그러나 그 버선을 해 가지고 가서 아마 저거 식구들을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것은 뭐 처가에도 뭐 그렇

게 시골서 살아서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신혼여행은 못 갔다. 그 때는 신혼여행으로 온양온천에 많이 갔지만, 그마저도 가지 못했다. 차에서 내려 바가지를 놓으면 신부가 그것을 밟고 깨뜨리고 들어간다. 국수를 젓가락에 말아서 신랑에게 먹였다. 신랑을 매다는 민속은 신부를 데려갈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신랑이 유명한 사람인지, 술을 잘 먹는지, 힘이 좋은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니 그게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신부를 데려갈 능력이 이 사람은 얼마나 되나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심하게 하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날 정도로 하고 또 신랑이 유능한 사람이면 오히려 신부집에서 진짜 보면 그냥 감당하기 힘들지. 술 잘 먹고 거기서 평가가 나오는 거야. 이집 사위 어때 어때 그러고 평가가 나오는 거야.

## (나) 축수연

김유빈 씨가 부모님 환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사진도 제공해 주었다. 아버지 환갑이 1973년도였지만, 당시에 엄격히 적용되던 가정의례준칙 때문에 상은 차려 드리지 못하고, <그림 12>과 같이 사진만 찍어 드렸다고 한다. 사진의 병풍은 집에서 가지고 있던 것인데, 사람들이 들고 서 있다. 어머니 환갑상은 1981년도여서 차려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 환갑상 앞에 놓인 고임은 모조품으로 사진용으로 샀다고 한다. <그림 13>는 아랫 동서들과 찍은 사진이고, <그림 14>은 자녀들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부모님 환갑상을 차려 드렸다고 한다.

환갑잔치에 초배상과 본상이 있었다. 초배상은 술상과 간단한 안주를 올리는 상이고, 본상은 국수와 고기, 반찬, 술 등으로 구성되었다. 초배상이

들어간 후에 여러 가지 음식이 올라간 본상을 냈다. 손님들의 경우 초배상 음식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마당에 멍석을 깔아 국수, 고기, 기본안주 등을 차려놓고 먹었다.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동네사람들이 해주었다. 국수는 계곡 근처 물 흐르는 곳에서 대량으로 삶아왔다.

오전에 아들딸들 손주들한테 잔을 받고, 그다음에 벌써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손님들은 또 손님들대로 초배상부터 해서. 여기 잔치 문화가 초배상이라는 게 있고 본상이 있는 거야. 이제 우리 문화는 상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할 때는 오신 분한테는 우선 초배상이라고 해서 간단한 술상을 하나 봐서 초배상에서 술을 한 잔 먹고 그다음에 본상은 제사, 상갓집에서도 처음에 조문을 하고 나오면 초배상에서 한 잔 먹는 거야. 초배상이라는 게 있어.

김유빈 씨의 경우에 부모님의 금혼식도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차려 드렸다고 한다. <그림 16>에서 보는 것처럼 케이크를 떡 대신 준비하였다. 당시의 축하 민속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김유빈 씨 아버지 환갑간치 (1973년)



<그림 13> 김유빈 씨 어머니 환갑잔치 (1981년)



<그림 14> 김유빈 씨 어머니 환갑잔치 (1981년)



<그림 15> 김유빈 씨 부모님 금혼식 (1985년)



<그림 16> 김유빈 씨 부모님 금혼식 (1985년)

## (가) 상장례



<그림 17> 1993년 김유빈 씨 아버지 장례

관산마을에서는 주로 탈관 방식을 사용했다. 관에 시신을 넣기는 하지만 매장 직전에 관에서 시신을 꺼내고, 시신만 매장하였다.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1993년 당시에 이미 매장할 때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였다.

매장한 후에 상청은 김유빈 씨의 경우 아버지는 1년, 어머니는 100일을 차렸다. 매일 하루에 한 번, 밥과 국, 술 한 잔의 상식을 올렸으며, 보름달에는 상망이라 해서 제수를 더 많이 놓았다. 김유빈 씨의 1993년도에 있었던 아버지 장례나 2001년도의 어머니 장례 때 모두 남성 유족은 삼베로 된 상복을 갖추어서 입었고, 여성들은 광목으로 된 흰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염습은 동네 사람들이 상부상조해서 처리했다고 한다. 3일장을 했으며,

상여는 발인을 지낸 후 머리부터 나갔다. 발인 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고, 아침 일찍 이면 그냥 나갔다. 문 앞에서 상주들과 상여가 마주 서서 "잘 가시라"라고 3번 인사(절) 했다. 상여놀이는 안 하고, 호상일 경우 가면서 장난을 했다. 놀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장난을 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핑계 대며 돈을 뜯거나 사위를 상여에 태우기도 했다. 상여꾼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며, 상여 소리는 동네 사람들 중 재주 있는 사람이 했다.

상여놀이는 안했지. 그냥 가면서 하는 것이지, 실지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가면서 사위들을 상여에 태우기도 하고 운구할 때 매장지까지. 가는 동안에 놀이라는 것은 그거야. 뭐야 상여를 못 가게 하든가 상여가 안 간다고 핑계대고 돈 뜯고. 또 호상 같은 경우에는 사위를 상여에 태워 앞에다가. 그래서 보통 저쪽 남쪽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 정중히 모셔야 되는데 시체가지고 논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것도 있었어. 장난으로 했었어

큰일을 치를 때는 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웃을 돕고 또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호부조의 문화가 있었으며, 이웃집이 상을 당할 때 회사에 늦게 출근하더라도 일을 먼저 도왔다. 이러한 호혜성의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훗날 본인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 옛날에는 상을 당하거나 뭐 할 때 서로가 협조 안 하던 사람이 상을 당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곤혹을 치루는거야. 사람을 사서 해서 돈이 많이 들든지 뭐든지 상여를 안 매준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저거하니까. 나 같은 경우도 동네 살면서 직장을 나가는 데 동네 큰일이 나면 다른 일은 몰라도 상이 나면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아침 출근을 늦게 하는 거야. 상여를 한 코스라도 모셔다 드리고 동네 일하는 사람이 아이고 당신은 상여 했으니까 출근하라고 하면 난 또 사무실에 지각을 하고.

## 다. 성석동 상감천마을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그림 18> 상감천마을 회관

마을이름은 상감천이며 우리말로는 웃감내라고 한다. 아랫동네는 아랫감내라고 한다. 행정명으로는 성석동이다. 상감천보다는 웃감내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전에는 성석리였다. 예전에는 고양군 백제면 성석리로 광범위한 마을을 포괄했으나 현재는 여러 마을이 갈라져 나왔다. 웃감내는 단일한 마을이다. 현재 마을의 가구 수가 500호 정도로 많으나 대부분이 빌라 등에 입주한 외지인이고 토박이는 20세대 조금 넘게 남아있다.

현재 빌라가 들어선 자리는 예전에는 대부분 농지였다. 외지인이 들어오

기 전 인구수는 약 40호 정도였다. 외지인이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상감천에는 이전부락, 아랫감내, 성황 마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이 마을들이 일을 함께 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당시 마을이 분리되기 전 호수는 100호 정도였다.

56년 전에 3년에 한 번 굿을 동반한 큰 제사를 지냈었다. 이후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자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는 일이 생기자 다시 지내게 되었다. 문분권 씨와 이명희 씨는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친 일이나, 군인들이 마을의 큰 나무 두 그루(참나무, 상수리나무, 돌무더기나 재실·제당은 없었다.)를 베고 철조망을 친 이후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마을 굿이나 마을제사가 단순히 ‘미신’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군부대가 들어섰기도 했고 주민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도당굿(대동굿)할 때는 제물로 큰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썼다. 무당들이 많이 왔으며, 무당의 ‘오야지’가 있었다. 돼지의 성별은 기억이 없다. 점차 굿이 간소화되면서 돼지 머리가 대신 쓰이기 시작했다. 돼지와 함께 시루떡을 썼다. 도당굿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했다. 아랫감내의 굿은 당일에 했다. 성황마을에는 두텁바위라는 큰 돌이 있는데 성황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치성, 제사를 지낸다. 두꺼비가 앉아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두텁바위라고 불린다. 성황 마을 아래에 김씨들이 사는 마동이 있는데, 그 마을에 ‘못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를 때리거나 치면 마을 여자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하는 등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현재는 그 바위를 파서 묻어버렸다.

정월대보름 때는 집집마다 다니며 농악을 치며 인사를 하며 놀았다. 지신 밟기는 하지 않았다. 보름 전이나 보름 당일에 했다. 40호를 전부 다니면 하루 정도가 걸렸다. 잘 사는 집은 농악을 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

다. 농악은 6~7명이 댔는데, 마을마다 있었다. 이명희 씨가 상쇠잡이였는데, 팽과리와 북, 징, 장구, 소고가 주된 악기였고, ‘뽕뽕이’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달맞이 행사가 저녁에 있었다. 남녀노소 나이 수대로 짚을 매고 불을 부친 다음 소원을 빌었다. 이전부락은 현재도 시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달맞이 행사를 크게 한다. 김을 맬 때 두 명이 댔는데, 김은 2회 맨다. 농악은 6.25 전쟁 전에 마지막으로 쳤다. 동네 노인이 젊은이들이 “(농악을)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야단을 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단오 때 다른 큰 행사는 하지 않고 그네를 댔었다. 짚으로 동아줄을 틀어서 그네를 댔었다. 마을의 나무가 자꾸 죽어서 그네 매는 행사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10월에 마을 단위로 지내는 고사는 특별히 없었고 개인 집 고사만 있었다.

마을 골짜기마다 이름이 있어서 ‘개미고개’, ‘오좁텃골’, ‘안능안’, ‘감내골’, ‘굿당골’, ‘성시내골’, ‘홀애비골’, ‘새젓개울’, ‘망리’, ‘성황(서낭)대’ 등 다양하다. 마을 뒷산은 황룡산이라고 불리지만 원래는 학이 쉬다 가던 고개라고 하여 학영산 이었는데 와전이 되었다.

상감천 마을은 각성반이 마을이다. 이, 김, 박 등 다양한 성씨들이 들어와 있다. 성씨 당 두 집정도 살 정도이다. 예전에 대부분 소작을 했는데, 일정기 때 지주는 권씨, 박씨, 이 씨였고, 박 씨 서원이 있었다. 농지개혁 이후 토지 분배를 받으면서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권씨, 박씨, 이 씨가 자신 소유의 땅을 팔았다. 권 씨와 박 씨는 충청도 사람들이었다. 가을이 되면 마을로 올라오곤 했는데, 3일 전에 와서 미리 작물을 받아가기도 했다. 마을에서 농사는 논, 밭농사인데 논, 밭 할 것 없이 지주에게 소작을 받았다.

6.25 전쟁 때 마을이 중공군의 본부였다. 중공군이 ‘군기가 엄해서’ 수탈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마을 학생들은 마을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

진 진밭학교(현 성석학교)를 다녔다. 학교는 건물 형태가 아니라 강습소의 형태였다.

마을에는 한말계가 있었다. 40호에서 각각 거두었다. 혼인, 초상 등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거두었고, 그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한 집 당 무조건 한번만 걷었다. 한말계는 면담 참여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 (2) 상감천마을 토박이의 삶



<그림 19> 면담 참여자 문분권 씨, 이명희 씨, 신경래 씨

면담 참여자들의 생애사는 집단면담을 수행한 관계로 상세하게 수집하지는 못하였다. 진밭마을 이장님이 상감천 마을 이장님을 소개해 주어서 찾아갔다. 이장님의 주선으로 마을 회관에서 세 분의 면담 참여자를 만나게 되

었다. 문분권 씨는 82세 1937년생이고, 이명희 씨는 1941년생이다. 신경래 씨는 1942년생이며 현 마을회장이다. 문분권 씨는 6.25 전쟁 당시 14살이었고, 신경래 씨는 9살이었다. 문분권 씨는 전 진밭학교를 다녔다.

### (3) 상감천마을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아이는 친정으로 가서 낳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댁에서 낳았다. 문분권 씨의 아이들은 모두 장모가 받았다. 문분권 씨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웃사람이 아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태는 태웠다. 아이가 태어나면 왼새끼를 꼬아서 고추, 숯을 달아 금줄을 달았다. 금줄은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달았다. 젖이 부족한 경우 암죽(밥물에 당원을 탄 것)을 먹였다. 삼신상은 없었고 백일상, 돌상이 있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백일상은 잘 안 차렸다. 돌상에는 돌떡(거의 수수팥떡, 송편)을 차리고 실, 연필, 책, 돈 등의 돌잡이를 놓았다. 돌떡은 마을사람들과 나누어먹었고 그에 대한 보답이 있었는데, “돌떡은 그냥 안 먹는다.”고 했다. 현재도 돌상에 수수팥떡을 놓아주는 사람이 있다.

#### (나) 혼례

세 사람은 모두 구식으로 혼인했다. 문분권 씨는 1961년에 결혼했는데 중매는 고모가 했다. 당시에는 연애가 거의 없었고 ‘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부

모가 좋다하면 그냥 가는 것'이었다. 중매는 마을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다. 본인이 싫다고 하면 혼인을 하지 않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싫다고 하지 않았다. 선 자리에 신랑신부가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친구 등)이 따라가서, 그 사람이 신랑신부가 될 사람인 줄로 착각하여 혼약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선을 보고 난 후에는 사주단자를 보냈다. 택일은 대부분 신부 쪽에서 잡아서 보냈다. 택일은 혼인 한 두 달 전에 잡는데, 혼담에서 혼인까지의 기간이 짧은 게 좋다고 했다. 혼인은 거의 가을 추수가 끝난 후인 겨울(동짓달)에 했다. 선달에 혼인하기도 했지만 잘 하지 않았다.

함은 혼인 하루 전 날에 갔으며 마을 친구들 중 아들 낳은 사람이 여럿이서 매고 갔다가 돌아왔다. 함이 간단한 경우 혼자 가기도 했다. 여럿이 가면 장난을 많이 쳤다. 예전에 가마는 마을마다 있었고, 말의 경우에는 말을 키우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빌려서 타고 갔다. 나중에는 택시를 타기도 했다. 문분권 씨는 차를 탔다고 하며,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세 면담 참여자보다 앞선 세대는 말을 타고 갔으나 세 사람은 모두 구식이라도 차를 빌려서 탔다. 차는 차가 다닐 수 없는 데 까지 갔고, 신랑은 그 때 내려서 걸어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때 신랑에게 재를 집어던지는 장난을 했다.

신랑과 함께 집안의 남자 윗사람이 따라갔다. 집안에 따라갈 어른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따라가기도 했다. 여자가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신랑은 마을 소유의 기러기를 가지고 갔다가 혼례를 치르고 다시 마을로 가져왔다. 대례상에 대추, 닭 등을 차리고 기러기를 놓고 신랑 신부가 맞절을 했다. 신랑 신부가 서는 위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절은 대부분 세 번을 했고 신랑 신부가 같은 횟수로 절을 했다. 절을 시키는 전문가가 있었다.

대례를 마치고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했다. 잔치(국수잔치)는 혼인 당일에 신부 집, 신랑 집에서 총 두 번 했다. 예전에는 부조가 국수, 감주 등이었다. 많이 먹는 손님은 국수를 7그릇 먹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먹는 것이 귀했기 때문이다. 돼지를 잡는 것은 잘 사는 집의 경우였고, 대부분은 콩나물, 청포묵을 올렸다. 잡채도 귀했다. 멸치육수를 쓰거나 맹물에 끓이기도 했다. 잔치는 하루면 끝났다.

신부가 갈 때는 처삼촌 등이 따라왔다. 신부도 신랑과 함께 차를 탔다고 하며, 가마는 신랑이 말을 타는 경우에만 썼다고 한다. 신부는 한복과 족두리를 착용하고 연지곤지도 지우지 않고,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방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저녁은 먹고 첫날밤을 보냈다. 다음날에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명희 씨는 당시 여자들이 결혼 후 힘들게 살았다고 회상한다. 경우에 따라 신부가 3일 뒤에 부엌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첫날밤을 지내고 바로 부엌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자들을)위해주는 것이 없고 일 시켜먹는다”고 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3일 만에 처가에 가는 삼일재비가 있었다. 신랑을 매달아놓고 발바닥을 때렸다. 동네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에게 장난을 쳤다. 장난이 심할 때는 밤새도록 장난을 쳤는데, ‘혼나는’ 수준이었고 ‘비위를 맞추어야’ 했다. 하룻밤 자고 돌아갔다. 이명희 씨는 술을 자꾸 먹으려는 장난을 당했다. 문분권 씨는 처갓집이 어려웠는데, 장난을 당하지 않았다. 신부집에 갈 때 함에 음식(술, 멍쌀로 만든 골무떡<sup>6)</sup>, 찹쌀로 만든 인절미)을 해갔고 신부집에서 다시 음식을 싸주어 보냈다. 가져간 음식은 이웃, 가족, 친척과 나누어먹었다. 떡을 하는 데는 한말 이상이 들어갔고 기계로 뽑았다. 당시에는 “잘 먹으면 그만”이었다. 술은 결혼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 술은 대병에 담아 가

---

6) 절편과 유사하다.

저갔다. 1년 만에 친정에 가는 근친 풍습은 없었다. 부모님 생신 등을 제외 하면 신부는 친정에 여간하면 잘 가지 못했다. 동네 안에서 하는 결혼은 흔 하지 않았다. 이명희 씨는 처의 이모부가 중매를 썼다. 처의 이모부가 이명 희 씨의 형과 잘 알았다. 선을 보고 나서 신부와 몇 번 더 만나서 사진을 찍거나 짜장면을 먹기도 했다. 예전에는 부모끼리 합의하고 나면 끝이었다.

#### (다) 상장례.제례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가 있었다. 차일(천막)과 늦그릇도 마을제 산으로 있었다. 상여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늦그릇은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바꾸었다.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용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다. 상여는 네 마을 사람들이 댔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댔 수 없었다. 상여 매는 것이 의무는 아니어서 정해진 사람도 없었다. 부고는 네 마을에 모두 전달했는데 방송이 없어서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했다. 부고는 손으로 한문으로 작성했다. 마을에 반드시 한 사람은 한문으로 부고를 작성할 줄 알았다.

초상이 나면 남자들이 새끼를 꼬았고 여자들(주로 나이 먹은 할머니들)은 베로 수의를 만들었다. 수의는 반드시 마련했다. 수의는 하루면 만들었다. 염하는 사람들도 마을마다 전부 있었고 이 마을에도 있었다. 염은 사망 후 둘째 날에 하게 된다. 염을 하기 전 옷을 벗길 수 있을 만큼 벗겨놓고 깨끗한 옷이나, 하얀 보자기로 시신을 덮어놓는다. 옷을 벗길 때는 찢어서 벗겨야 벗겨진다. 수의는 순서대로 입혀야 한다. 살아서 깨끗한 사람은 죽어서도 더욱 깨끗하다고 했다. 염은 두 명이 마주 앉아서 하는데, 시신의 팔다리는 묶어놓는데, 묶어놓은 상태에서도 수의를 입힐 수 있다. 칠성판을

깎고 엮을 한 시신을 올린다. 그 후에 입관을 했는데, 관은 사서 썼다. 예전에는 나무를 켜서 직접 관을 만들기도 했다. 주변에 제재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송관을 구해서 동네에서 관을 짜기도 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동네에서 도와서 장례를 치르게 했다. 관은 어떻게든싼 값에라도 마련을 했고, 입관하지 못하고 시신 채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었다. 입관을 할 때 시신 위에 관보를 씌우며 관 뚜껑에 쇠못은 절대 박지 않는다. 나무못이나 끈을 쓰기도 한다. 관 주위에는 병풍을 쳤다. 관을 쓰고 난 이후에는 관을 태워버리는데, 이 마을은 탈관 방식을 사용했다. 아주 예전에는 입관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면담 참여자들은 짐작하는데, 입관을 한 묘가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묘 터를 팔 때는 시신의 모양 그대로를 한 자 두 치 정도 더 판다. 끈으로 관에서 시신을 들어낸다. 보통은 두 군데를 매어서 내지만, 무게가 무거운 경우 세 군데를 매기도 한다. 묘 터에 들어간 시신 바로 위에 흥대를 덮는다. 흥대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통나무(소나무)를 직접 깎아서 홀수로 개수를 맞추어 만들었다. 직접 만든 흥대가 오래간다. 회를 쓰지 않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신경래 씨에 의하면 회를 쓰지 않는 '생 땅'이 최고라고 했다. 흥대나 관을 돌로 쓰는 것은 찬기가 들어서 매우 좋지 않다. 시간이 지나서 묘 터를 캐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운구 시에 상여소리를 했으나 현재는 잘 하지 않는다.

달구질은 세 번 했다. 묘는 자기 산이 있으면 자기 산에 쓰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묘지에 썼는데 다른 마을의 공동묘지에 쓰는 경우도 있었다. 성석리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산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묘를 만들었다. 신경래 씨에 의하면, 땅 자체는 산 보다는 공동묘지 터가 훨씬 더 좋다고 한다. 가족, 친척, 동네사람들이 관을 들고 나갔다. 관은 보통 한 쪽에 세

명씩 총 6명씩 들었다. 관은 머리가 먼저 나갔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들은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다른 부위가 먼저 나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며 웃었다. 관을 들고나가서 상여에 올렸다. 상여가 나갈 때는 소리하는 사람이 앞에 선다. 보통은 키가 큰 사람이 뒤에 서고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서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해야 힘이 덜 든다. 바가지는 방에서 관을 들고 나올 때 발로 밟아 꺾는다. 상여를 들고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을 한 바퀴 돌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돌지 않고 가기도 한다. 산까지 가는 도중에 쉬는 횟수는 정해져있지 않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 때 돈이 장사를 치르고도 남은 만큼 많이 걷힌다. 집안 형편에 따라 돈을 내지 않으면 상여를 움직이지 않는 장난을 쳤다. 달구질 할 때도 사위만 잡아서 달구질을 시키는 등 장난을 쳤다.

이렇게 모인 돈은 2~300만원이 넘었는데 그 돈은 마을기금으로 썼다. 마을기금으로 쓰였기에 내라는 사람도 당당했다고 한다. 제사를 지내고 마을로 돌아와서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상청을 했으며, 상식을 차렸다. “먹기 전에 조상부터 잡수라고” 차렸다. 쌀밥, 국, 반찬 몇 가지, 떡을 차렸다. 신경래 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이었다.”고 회상했다. 3년 상을 치렀는데, 소상, 대상 때 사람들이 떡을 받아먹었다.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제삿밥을 먹기 위해 기다렸다. 과일, 녹두부침개, 시루떡, 편, 소고기 적(없는 사람은 돼지고기로), 송어 적 등을 기제사상에 놓았다. 차례 때는 떡국을 올렸다. 예전에는 제사를 밤 12시에 지냈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구리시

# 구리시

## 지역개관

면적	33.31㎢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8동 304통
인구	2018년 12월 31일 기준 203,553명
인구밀도	6,112.61명/km <sup>2</sup>

동쪽은 남양주시·광주시, 서쪽과 남쪽은 서울특별시, 북쪽은 남양주시와 접하고 있다.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토지의 50% 이상이 고도 500m 이하의 지역에 속한다. 동쪽에는 왕숙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한강에 합류하고 남쪽에는 한강이 동서로 흐른다.

전 토지의 39.2%가 산림지인 이곳은 경지가 전체의 19.8%인 485ha이며, 이 밖에 대지 8.4%, 도로 4.6%, 하천 용지가 3.4%이다. 경지 중 논은 7ha, 밭은 478ha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 이외에 채소류로 호박·상치·배추·시금치·과, 과실류로 배가 많이 생산된다. 서울 근교에 입지하여 과수원·수목원·화훼 단지 등이 도로변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이 제한을 받는 관계로 타지역에 비해 과수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배·복숭아·포도 등이 많다. 산지지역에서는 밤·대추 등도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인근에는 동구릉 야차산성 등의 유적지가 있어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이들 관광객을 위한 수목과 화훼원에 이외에도 요식업이 발달해 있다.

구리는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양주 관할 하에 속하였다. 이후 1914년 4월 1일에 양주군의 구지(九旨)면과 망우리(忘憂里)면이 합쳐져 구리면이 되었고, 1973년 7월 1일에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86년 1월 1일에 구리시로 승격되었다.

## 가. 인창동(인창리)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그림 1〉 구리시 인창동 마을 전경

인창동은 본래 양주군 구리지면의 지역으로 1914년 구지면의 동창리와 인창리의 각 일부가 합쳐져 인창리라는 명칭으로 구리면에 편제되었다. 인창리는 1973년 7월 1일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되자 구리읍에 소속되었고 1980년 4월 1일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 인창리로 편제되었다. 1986년 1월 1일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어 인창동이 되었다

인창동에는 옛날부터 습지가 많았다. 땅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덕 씨는 논농사를 지으려 세 군데나 우물을 판적도 있었다. 인창동의 주 생업은 농업이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영향으로 연근을 재배했다고 한다. 연근 수확물은 과거 배우개 시장이라 불렀던 현재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 인근의 시장에 가져가 팔았는데, 우마차에 작물을 싣고 새벽 1시에 출발하면 새벽 4-5시쯤이면 닿을 수 있었다. 일본 도매상인들이 주 고객이었다. 궁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인창리의 궁말, 응달말, 아랫마을, 양지마을(배틀고개) 이 4개 마을이 하나의 큰 부락이었는데, 그 부락 사람들이 함께 산치성을 지내고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에 참여했다. 산치성은 10월에 가을타작을 마친 뒤 길일을 받아 시행하였다. 과거 ‘구장’이라 불렀던 이장, 반장과 같은 원로 노인들이 모여 “음력으로 10월 초 닷새 날 하자, 그 날이 길일이겠다,” 같이 말하며 택일을 하였다. 산치성 터에는 큰 바위가 놓여져 있고,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산치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최근 초상집에 다녀오지 않았거나, 여자의 경우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어야 했다. 제관은 해마다 한 명씩 선정하였다. 궁말, 배틀고개, 양지말, 응달말 이 네 마을에서 크게 흥한 일이 없었고 또 일흔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 분 한 명이 제관으로 지정되어 직접 절을 올렸다. 제관으로 지정된 분은 초상집에 가지 않고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산치성을 지내는데 어떻게 지냈느냐. 예를 들어서 가을 타작을 10월 달 아닙니까. 가을 타작 그거 다 해 놔. 다 해 놓은 다음에 제일 길일로 낱을 받아요. 4개 부락에서 그 지금으로 치면 산치성을 지내는 그 운영위원들이 반장 이장님, 옛날에는 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반장님 이장님 또 원로 노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며칠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옛날에는 음력이에요. 지금은 오늘이 10월27일이죠 그렇지만 음력으로 10월 초닷새 날 하자 그날이 길일이겠다, 택하자 그래가지고 산치성 터가 있습니다. 아주 산치성 터에는 이렇게 바위돌이 있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 놔어요.

그 앞에 나무가 있나요?

제각이 있는 건 아니고 없어요. 그런 돌이 하나 있는데.

돌만 있었어요?

돌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돌들하고 한쪽 귀퉁이만 조금 나온 게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항상 그 자리가 치성 드리는 자리다. 큰 돌이야 거기다 옛날에 놓고 지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거기 몇 번 이제. 첫째 거기 가는 사람은 몸이 깨끗한 사람 초상집에 안 가고 얘기 안 넣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제사에.

그러니까 누구누구 추천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 그러면 제관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제사를 절하는 사람 제관을 하나 선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면 그래도 궁말 베투고개 양지말 응달말 이 4마을 중에서 크게 흥한 일이 없었고. 또 그해에 그분이 깨끗하게 집안에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을 적어도 지금으로 치면 한 70세 이상 이런 노인을 제관으로 그 사람 제사를 올리는 사람으로 하나 선정을 해. 그러면 그분은 음력 10월 초닷새 날이 예를 들어서 음력 초닷새 날이 산치성 올리는 날이면 누구네 초상집에 안 가. 밖에 나가면 안 돼. 안 가요, 집에서 몸 깨끗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준비하는 과정이 각 반장들이 쌀을 지금으로 치면 목판 한 되라고 그래. 목판 한 되면 아마 1키로 정도 되나요. 8키로가 한 말이니까. 1키로 씩 집집마다 반장하고 동네 청년들하고 자루를 지고 다니면서 쌀을 견습니다. 쌀을 견고 쌀 없는 사람은 돈으로 그거 비슷하게 내고. 해서 이걸 한 데 모아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런 정미소 떡 방앗간이 없으니까 이 바로 학교 밑에 동네 거기서 동네 깨끗한 일 잘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한 여나 명이 모여서 절구에다 떡방아 찧고 채로 재고해서 커다란 시루에다 떡을 찧니다. 그날 제사날. 불을 때가지고 커다란 시루로 이래. 떡 커를 이렇게 두껍게 해. 삼색 과일이라고 해서 사과 배 감 이렇게 삼색과일 예다가 소는 또 소고기를 해요. 소고기는 뭐냐면 소 머리고기 있잖아. 아냐, 옛날에 소를 잡았어. 차츰차츰 규모가 줄어들어가지고 소 머리 놓고 지냈어.

산치성을 드릴 날짜가 정해지면 구장들은 동네 청년들을 대동하고 자루

를 지고 다니며 목판 한 되 정도의 쌀을 집집마다 걷었다. 쌀이 없는 집안에서는 돈이나 비슷한 가치의 물건으로 대체해서 납부하였다. 모인 쌀은 동네의 일 잘하는 아주머니들 대여섯 명이 모여 절구에 찧고, 채로 쳐서 커다란 시루에 떡을 찼다. 떡 쪄는 20CM가 거뜬히 넘을 정도로 두꺼웠다. 그리고 제물로 사과, 배, 감과 같은 삼색 과일을 올렸다. 해방 전에는 소도 직접 잡았는데, 차츰차츰 규모가 줄어들면서 소머리만 놓았다고 한다. 마을의 개울 옆 모래사장에서 중송아지로 마을의 노인들이 직접 잡았다고 한다. 소머리를 올릴 때에는 털을 모두 제거하였다. 제사음식은 종이에 싸서 구장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구장은 창호지 몇 발을 이어 붙여 마을의 세대주들 이름을 나열해 적었다. (이후에는 인창동 주민 일동이라 축소해 적었다고 한다.) 축문도 지었지만 이후에는 사라졌다. 소지는 제사를 지낸 후 불태웠다. 산치성을 지내는 날이면 마을 아이들에게 호랑이가 내려오니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주의를 주고는 했다. 산치성은 산신령님께 지내는 제사였다. 산신령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분명하게 전해지는 바가 없다. 인창동 산제사는 경의중앙선이 들어서면서 산 속에 굴을 뚫고 그 속으로 기차가 지나가게 되자 제사터가 울린다는 이유로 없어졌다. 산치성이 없어진 이후로 동네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산치성이 없어진 탓에 그 일이 났다고 걱정했다. 산제사는 1990년대 초에 양평 가는 전철이 개통되면서 사라졌다.

인창동에서는 마을을 단위로 굿은 하지 않았다. 신사굿이라고 해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굿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갈매동과 토평동에서 도당굿, 퇴계원에서 산대놀이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김종해 씨는 어린 시절 도당굿을 구경하러 갈매동 벌말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다.

현재 중앙선 철도가 다니는 길은 과거에는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청량리에서부터 봉화동 봉화산 근처의 봉우재, 큰마우라 불렀던 양원동, 인창동 돌다리개, 조은리, 덕소, 양평을 지나 원주까지 이어졌다. 당시 마을의 공동묘지 자리였던 산이 일제 강점기 때 ‘신작로’가 되었고, 지금은 산에 터널을 뚫어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게 된 것이다.

구리시 문화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을의 이름은 배탈고개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이를 한문으로 옮겨 포기현이라 불렀다.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는 배를 짜는 마을이었다는 설, 과거 을축년에 수해가 크게 들었을 때 왕수천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렇다는 설 등이 있다. 김종해 씨는 ‘배탈고개’라는 지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배를 탈 정도로 물이 들어왔으면 마을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단오를 따로 지내지는 않았다. 대보름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는 축제가 있었다. 바가지를 물에다 얹어 놓고 장단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공동묘지 근처에서 쥐불놀이를 했다. 쥐불놀이는 강통 돌리기라고도 했는데, 그렇게 불을 질러놓은 곳을 세 번 뛰어 넘으면 그 해의 액운을 쫓는다는 말도 있었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무당집에 방문해서 한 해의 액운을 점쳤다고 한다. 점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는 동산으로 올라가 자기 나이대로 벗짚 매듭을 저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었다. 그것을 ‘쟁이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 벗짚 인형에 돈을 꽂기도 하였다. 오후 3~4시무렵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기 시작하다가, 달이 천마산에서 마석쪽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다님, 다님, 절합니다. 그저 금년에 저희 식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저 하는 일 질 되고 농사 풍년 되게 해주십시오”하고 빌었다. 그 다음 쟁이에 불을 질렀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불 조심하라고 타이르고, 아이들은 불을 보고 신나했다.

인창동에는 ‘도깨비 경’이라는 것이 있었다. 어른들이 채 열 살이 안 된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에 따르면, 밤에 놀러 다니다가 도깨비가 나타나 길을 가로 막으면 도깨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 도깨비 경을 읽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각항자방 신무기 두여하 이슬벽 괴로우면 필자상 상자필경 오류규 벽시루에 여의두 김이신장 정항각 (...)”과 같은 주문을 인창동 어린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외우고 다녔다. 그렇게 하면 도깨비가 사람이 외운 주문을 채 따라 읽지 못해 “아, 이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하면서 도망간다고 한다.

우리 여기서는 유일하게 도깨비경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어른들이 마을 방에 가면 우리 그 어른들이 도깨비라는 게 있다 이거야 옛날에는. 그러면 도깨비경인데 그때 내가 8-9살 때 배운 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 밤에 어디 놀러가다가 도깨비가 딱 나타나면 길을 가로 막는다 이거야. 그러면 도깨비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도깨비경을 읽어라. 어떻게 경을 읽느라 하면 내가 지금 그대로 읽겠습니다. 각항자방 신무기 두여하 이슬벽 괴로우면 필자상 상자필경 오류규 벽시루에 여의두 김이신장 정항각 요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각항자방 신무기 두여하 이슬벽 요까지 갔지. 그거를 도깨비하고 맞닥뜨렸을 때 내리 읽었다 치 읽었다 하면 도깨비가 따라 읽지를 못해. ( ) 각항자방 신무기 두여하 이슬벽 괴로우면 필자상 상자필경 오류규 벽시루에 여의두 김이신장 정항각 이러면 아, 이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도깨비가 도망을 간다. 그래 도깨비하고 맞설 때 그걸 읽어라. 그래서 그걸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려.

인창동에는 주문을 외우는 치병의례도 있었다. 마을 사람 중 누가 병이 나면 동네 사람들 중 각성만이 세 명(김씨, 박씨, 장씨)이 모여서 눈을 치우는 너까래(넉가래)를 들고 환자를 찾아갔다. 그 셋이 환자 앞에 앉아서 ‘도투마리경’을 읽으면, 환자 뒤에 숨어있던 귀신이 무서워서 물러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투투마리경을 적어둔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는다고 한

다. 그렇게 경을 읽으면 환자네 가족은 담배나 술을 대접하였다고 한다.

뭐냐 하면 병이 나면 우리 동네 사람이 각성받이가 셋이 예를 들어서 김씨 박씨 장씨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눈 치우는 너까래라는 게 있어요. 그놈을 가지고 거기다가 도투마리경이라고 그래. 우리는 정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그게 도투마리경이야. 이것을 읽어 그 환자 앞에 가서 각성받이 셋이서 읽어주면 거기 환자에 숨어있던 귀신이 무서워서 물러간다. 그런 건데 그게 내가 잊어버렸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거기까지 밖에. 그런 걸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동네 토속적인 그런 뭐 알아보려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런 정도밖에 몰라. 그걸 발음을 못 하겠어. 어디서 찾지를 못 하겠어. 하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한 60~70 더 드시고 웃어른 되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읽은 분들이 진만아버지 상길씨 영배아저씨인데 영배아저씨는 그걸 좀 몰라. 종환이. 근데 그거를 경에 대한 저걸 몰라. 그렇게 한 거는 틀림이 없어. 많이 했지 우리도. 여기 우리는 안 가도 응달말까지 가고. 진만아버지 도투하 러 경수아버지도 많이 다녔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 다녔어. 가면 술 주지 담배 사주지. 그러니까 잘 다녔는데.

인창동에서는 미국의 하키와 비슷한 게임을 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했다고 한다. ‘얼리콩’이라고 했는데, 좌우 양 쪽에 골문을 만들고 모인 사람들끼리 편을 갈랐다. 나무로 만든 공 채로 납작한 나무 막대기 공을 쳐서 골문을 통과하게 하는 게임이었다. 뒷 산에서 구한 나무를 직접 잘라다가 채와 공을 만들었다. 참여하는 사람은 다섯 명이 되기도 하고 열 명이 되기도 했는데, 몇 명이 모이든 두 편을 나누면 놀이를 시작할 수 있었다.

## (2) 인창동 토박이의 삶

인창동 토박이 김종해 씨는 1938년 생이다. 인창초등학교 1학년이던 때 (1945)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설 명절을 쇠거나

회갑잔치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개울에서 소를 잡아도, 그 쇠고기를 산 사람도 경찰에 잡혀갈 정도로 견제가 심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종해 씨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또 다시 한국전쟁을 겪게 되었다.



<그림 2> 김종해 씨

한국전쟁 발발 당일은 일요일이었는데, 김종해 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침부터 이상하게 천둥소리가 났다고 한다. 포천에서 12시에 시작된 전투가 밤 9시에는 구리 인창동까지 밀려들어왔다. 김종덕·김종해 형제의 가족은 충청도 온양까지 걸어서 피난을 갔다. 배를 굶은 채로 걸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전쟁 와중에도 김종해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52년에 동대문 중학

교에 진학하였다. 동대문 중학교는 동대문 상고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현재 이름은 성동중학교이다. 인창동에서 청량리까지 걸어가서 청량리에서 전차를 타고 수유동까지 갔다. 아침 7시쯤 인창동 집에서 출발하면 등교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학교에 다녀와서는 꼴을 베고 땀나물을 하는 등 집안일을 도왔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병행했다. 가방에 비누, 연필, 치약, 칫솔을 가지고 다니면서 평화시장과 구기동에 서 집집마다 가정 방문을 하면서 팔았다. 종로5가 버스 종점에서 신문팔이도 해보았다. 고등학교를 힘들게 졸업한 이후에는 군 입대를 했다.

김종해 씨는 1959년에 제2훈련소에 입대하여 총 33개월을 복무하였다. 1962년에 일반 하사로 제대한 이후부터는 계속 농사일을 해왔다. 어른들이 하는 농사를 뒷바라지 했다. 1965~196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목축업이 흥하기 시작했을 때 현재 건원초등학교 근처 아파트 부지가 된 자리에 소규모 우유 목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인창동 주변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소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 그만 두었다고 한다. 중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두고 다시 농사일을 시작해 지금도 크지는 않지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우유목장 많았어요. 젖소. 그래 젖소를 키우다가 이제 동네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니까 소를 키울 수가 없어 동네에서. 여기저기 새로운 개발지가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되니까 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만 두고 어느 직장을 또 다녔지. 직장에 다니다가 뭐 그만두고 농사 또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온 거지. 지금도 농사를 해요.

김종해 씨는 작은 어머니의 막내 삼촌댁의 중매를 통해 아내를 소개 받았다. 아내는 밀양 박씨의 와부 덕소사람이었다. 군대에 있을 당시 사진만 보고 부모님의 결정을 따랐다. 혼례식을 올리기 위해서 군대에서 휴가를 신

청했는데, 행정 처리를 해주는 중위가 마침 인창리 한 동네 사람이었다. 혼례식을 사유로 하는 휴가는 육지 사람일 경우 1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그러면 그렇게 주세요”라고 했더니, 중위는 일단 휴가를 그렇게 주고 그 이후에는 보름에 한번 씩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일제의 동양척식회사가 들어오기 전 김종덕·김중해 형제의 아버지는 이씨 왕조의 2천 여 평의 둔전을 경작하였다. 그 논을 받는 대신 동구릉 제사 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 참여하였는데, 예컨대 콩나물이나 녹두나물을 시루 째 길러 바치는 등이었다. 행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논을 주인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김종덕·김중해 형제의 가족은 ‘신안공사’라고도 불렀던 동양척식회사에 농토를 빼앗겨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1년 단위로 도지를 내고 연근 등의 특수작물을 재배했던 것이다. 도지의 정확한 비율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삼분병작이라는 공출 제도가 생겨서 소작한 경작물의 1/3을 동양척식회사에 냈다고 한다. 인창동에 밭이 많지는 않았지만, 집집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밭은 동양척식회사에서 손을 대지 않아서 김종덕·김중해 형제의 가족은 그나마 형편이 나았다고 한다.

김중해 씨의 형 김종덕(1930년 생) 씨는 7남매 중 맏이였다. 어려운 시기에 그는 전차를 타고 중학교까지 다닐 만큼 학업에 열중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마저도 모두 잃게 되었다. 해방 이후 1948년 김종덕 씨는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하였고 19세의 어린 나이에 웅진반도에서 전투를 했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전쟁을 하다가 북막염에 걸려 영등포 육군 제1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부평에 있는 미군병원으로 보내져 위절제 수술을 했다. 한국전쟁 와중에 김종덕 씨는 국군 출신이라는 신분이 알려지면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마루 밑에 방공호

를 파서 숨어 지냈다.

제대 후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주를 “차대기로 실어다” 팔아보고, 돼지도 “차대기로 실어다” 팔아보았다. 소도 길러보고, 매일 자전거를 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팔기도 했다. 폐차장도 운영해보았다.

### (3) 인창동(인창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아이가 태어나면 원새끼를 꼬아 거기에 숯과 솔잎을 꽂아 금줄을 만들었다. 여기에 아들일 경우 고추를 추가했다. 집안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태는 마당에서 태웠다. 김종덕 씨의 아내와 어머니는 인창동 집 근처 불암사라는 절에 가서 사월 초파일날 명다리를 걸었다. 아이의 부모는 생명의 잉태와 명복을 주관한다고 믿는 삼신제석이나 칠성신에게 명주 또는 무명형짚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실타래와 함께 바치는데 이 공물(공회)을 ‘명다리’라 하고, 그것을 바치는 행위는 ‘명다리 건다’고 한다. 명다리를 걸면 아이는 무당에게 팔린 것으로 여겨져 무당과 양어머니, 수양아들의 관계를 맺는다. 무당은 자신의 신굿을 할 때마다 명다리를 내어놓고 이들의 수명장수를 빌어준다.<sup>7)</sup> 아이의 첫 돌에는 돌상을 차리고 돌잡이를 시켰다.

---

7) [네이버 지식백과] 명다리 (두산백과)

## (나) 혼례

김종덕 씨는 겨울인 12월에 혼례식을 올렸다. 와부의 처갓집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택시를 타고 갔다. 막내삼촌이 웃어른으로 함께 가주셨다. 함은 신랑보다 한두 살 더 먹은, 먼저 결혼해 장남을 낳은 이웃이 지고 갔다.

처가에 도착하니 이미 대례상을 차려 놓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신랑을 골리려고 돛자리 밑에 콩을 잔뜩 깔아두었다. 신부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모관대로 갈아입었는데, ‘나오까리’라고 불리는 모자를 쓰고 한복에다가 두루마기를 걸쳤다.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양 볼에 연지곤지를 찍었다.

대례식은 신부집 앞마당에서 했다. 신랑은 대문 기준으로 오른쪽에 서지 않고, 집을 기준으로 바깥 대문 쪽에, 신부는 안쪽에 마주보고 섰다. 상 위에는 과일 등이 차려졌다. 용떡이라고 해서 가래떡을 말아놓은 다음 검정깨로 두 눈을 붙인 것이 상 가운데 올랐다. 신랑과 신부 측에서 각각 목기러기를 가져 왔다. 처음 누가 절을 하나를 두고 “신부 쪽에서 먼저 절을 해라,” “신랑쪽에서 먼저 절을 해라,” 하며 서로 버티며 옥신각신 했다. 신부는 한삼을 끼고 늘어뜨린 천으로 얼굴을 가려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절은 3차례 하였으며 신부가 절을 할 때는 양 쪽에서 부축해주는 사람 두 명이 붙었다. 식이 끝나고는 바로 차를 타고 신랑집에 갔다. 보통의 경우 신랑집에서 다섯 명이 가면, 신부집에서는 ‘지지 않는다’고 아홉 명이나 따라왔다고 한다. 하지만 김종덕 씨의 아내를 따라온 사람은 처남 한 명뿐이었다. 처남은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돌아갔다.

사당차례라고, 신부가 시부모께 인사하는 절차는 대례를 드리고 신랑집으로 온 당일 날 폐백 이후에 했다.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밤은 신랑집 신방에

서 치루었다. 동네잔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신방을 지킨다고 하면서 구멍을 뚫고 훑쳐보았다고 한다.

3일 만에 신부집에 재행을 갔다. 동네 사람들이 발바닥을 때리니, 신랑을 달아맨다며 놀렸지만 실제로 신랑달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부집에 갈 때는 덕소까지 간 다음 거기서부터 신부집까지 10리를 걸었다고 한다.

김종해 씨의 경우도 재행을 갔다. 시부모님이 신부집에 가져갈 정종 한 병과 소고기 등이 담긴 음식 보따리를 챙겨주셨다. 신랑이 앞에서 먼저 걸으면 신부가 보따리를 들고 저만치 떨어져 뒤따라갔다. 김종덕 씨의 동생인 김종해 씨는 청량리 나비 예식장에서 신식결혼을 하였다. 식을 올리고 잔치는 집에서 했다. 8월 8일 약혼을 하고 8월 9일 결혼식을 올린 후에 피로연은 신랑과 신부집에서 각각 했다. 국수를 삶고 떡 등의 반찬을 올리는 것은 구식결혼과 같았다.

인창동 사람들은 집에서 큰일을 대비해서 심은 메밀쌀을 남양주 조은리 수석동 인근의 국수 누르는 집에 가져가서 빵아서 메밀국수를 만들었다. 김종해 씨는 어머니가 국수를 사러 갈 때 따라가 막 나온 면발을 국물에 넣어 먹었던 것이 기억에 난다고 한다. 잔칫날 하루 즈음 전에 국수 누르는 집에 가서 1인분에 한 타래씩 말아 넓은 채반에 싸서 집에 왔다. 그 다음날 소고기, 무 등으로 장국을 끓인 다음 그 안에 국수 소면을 넣어 손님을 대접했다.

내가 어릴 때는 저 조은리, 남양주시 조은리가 수석동인가 거기 국수 누르는 집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환갑이든 결혼하면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 본적이 있어. 국수를 눌러 메밀로 해서 진짜 메일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쪽 얹어 놔 하나가 한 사람 몫이야. 그때 따라가서 국수국물에 그거 하나 넣어주면 그렇게 맛있어. 올 가을에 우리 아들을 장가를 들인다, 우리 아버지 회갑이다 이렇게 예정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은 전부 미국서 들어온 밀가루 국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 산골이고 저 별관 밭에다 메밀을 심어. 올 가을에 무슨 큰일을 준비 대비해서 메밀을 심어서 메밀을 털어가지고 메밀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 방앗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남양주의 그 메밀국수 누르는 집이 있어. 그럼 그 집에 메밀쌀을 가져 가서 하면 거기서 빵아가지고 메밀국수를 만들어서 내일이 잔치라면 오늘 쯤 가서 해야 되요. 그러니 메밀을 해서 가서 국수를 기계에다 놀리고 국수를 지금같이 길게 자르는 게 아니라 삶아가지고 완전히 메밀국수 타래를 지어 한 그릇씩 딱 딱 우동 옛날에 집어넣듯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채반이라고 불지 않게 거기다 싸가지고 집에 와요. 그래서 그 이튿날 잔치하면 장국을 끓여가지고 손님이 오는 대로 그 장국에다 국수 한 타래 넣고 국물 붓고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거야 고명 넣고. 그렇게 대접을 했지 옛날에는.

부조는 인절미 두 말, 콩나물, 술 등으로 했다. “내가 아들 장가갈 때 인절미 해줄게 인절미 서 말 해가지고 와,”처럼 잔치 때 필요한 음식을 미리 요청하면 이웃이 그것을 해다 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명확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졌다. 부조는 집집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배틀고개 뿐 아니라 인창리를 단위로 마을 사람들이 오며가며 했다. 잔치 소식은 가가호호 모두에게 알렸다. 마을의 젊은이들을 불러다 “너는 궁말 가, 너는 아랫말 가,” 시키면 젊은이들이 집집마다 가서 “국수장국 점심에 잡수러 오세요, 오늘 누구네 잔치해요,”하고 전했다고 한다.

잔치를 하면 어떻게 하나면 아무개네 흥길동 네 누가 장가간다. 이러면 누구네 집에서는 떡 서 말 해가지고 오고 어떤 집에서는 인절미 두 말 해가지고 오고 어떤 집은 콩나물 길러오고 술 담가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흥길동이 장가간다고 하면 집에서 내가 집의 아들 장가 갈 때 떡 해줄게 떡 서 말만 해다 줘 이러면 그 집에서 떡 서 말 해가지고 와. 또 내가 누구한테 가서 내가 집의 아들 장가 갈 때 인절미 해줄게 인절미 서 말만 해줘 이러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갖다가 나눠서 먹는 거야.

인창동의 4개 부락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그릇

을 마련해두었다. 숟가락, 국그릇, 밥그릇 200개, 접시 500개, 술 몇 개 등을 뉘 집 창고에 보관하고, 반장이 관리를 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쌀계를 했다고 한다. 숟가락 등에 구멍을 뚫어 공용물품임을 표시했다고 한다. 차일, 교자상 등도 마을에서 구비해두었다. 명석은 집집마다 가지고 있어 필요할 경우 이웃들로부터 빌렸다.

혼례식을 올릴 때는 집 앞 마당에서 직접 떡메를 쳤다. 달떡, 절편, 인절미 등 떡 종류는 다양했다. 쌀밥을 해 떡메를 쳐서 떡이 되면 암반에 올려두고 잘랐다.

그게 있었어. 암반. 암반이라는 게 떡메 떡 치는 거. 떡메로 떡을 같이 동네사람들이 해서 옛날에 암반이 있어서 이집 저집 암반을 빌려다가 떡을 쳤지. 그리고 또 떡 잘 치는 사람은 불러 다니며 쳤어요. 잘 치는 사람은 힘 좋고 이리니까.

#### (다) 축수연

해방 전, 김종덕·김종해 씨의 할아버지의 환갑잔치를 할 때는 일본사람들 몰래 배밭에 땅을 파서 담가놓은 술을 가져와서 상에 올렸다. 잔치는 3일을 했고, 마을사람들 뿐 아니라 면사무소 직원, 학교 선생님 등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초대를 했다. 기생 등을 불러다가 춤추고 노래하는 판을 열었다. 김종덕 씨의 고모부는 다른 마을에서 식당을 열어 큰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평소 사람들이 쓰는 돈 보다 10~30배를 더 많이 써서 동네 사람들에게 ‘집안 내 사위가 시견방 떠다고’ 큰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고 한다. 환갑잔치까지 사람들의 부조를 받았다. 칠순 잔치에서는 부조를 받는 경우도, 안 받는 경우도 있었다. 팔순은 보통 받지 않았다.

## (라) 상장례

오늘날 조문 가는 것을 과거에는 ‘조상 간다’고 하였다. 마을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면 사람들은 막걸리 한 병, 창호지 한 곤, 쌀 한 되 등을 부조로 가져갔다. 상갓집에는 꼭 팔죽 부조가 들어왔는데, 상을 당한 가족은 첫날에는 꼭 팔죽을 먹었다. 손님상에는 무로 장국을 끓여 밥과 함께 내왔다. 주로 삼일장을 했는데, 김종해 씨는 자전거를 타고 광릉, 송산까지 부고 소식을 전했던 게 기억난다고 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초혼을 불렀다. 평소에 고인이 입던 옷을 지붕위에서 펄럭이며 “초혼이요, 초혼이요,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인창리 몇 번지 아무개”를 외쳤다. 초상이 나면 으레 장의사를 불렀다고 한다. 김종덕 씨의 아버지가 염을 잘 할 수 있어서 집안사람들을 많이 해주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같이 묶고 배에다 쪽 손을 뿜었다고 한다. 그 다음 발가락을 묶어서 시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 다음 칠성판이라는 널빤지 위에 모셨다. 그 위에는 흙이불을 씌웠는데, 코와 입을 막았고 이를 수세라 한다.

마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가 있었으며, 상여 메는 사람을 ‘상도군’이라 불렀다. 상여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작은 상여는 외줄로 두 사람이 양쪽에 메었고, 큰 상여는 많게는 여덟 명이 양쪽에서 네 사람씩 메었다. 두 명, 네 명, 여섯 명, 여덟 명 이렇게 메었다. 피리 부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등이 상여 앞에서 걸어갔다. 선소리를 매기는 사람은 궁말 경출아배라고 불리는 분과 그 무리들이었는데, 선소리꾼이 선소리를 메면 이에 장단을 맞추어 사람들이 악기를 쳤다.

상여가 가면서 상여놀이를 했다. 상여가 집안에서 나가기 전에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개울이나 냇가 다리를 건널 때도 멈춰서 있었다. 머리에 건을 쓴 상조 건재비들이 돈을 내고 절을 하면 그제야 상여가 움직이곤 하였다. 산에 올라가기 전 어귀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김종덕·김종해 씨의 집안은 덕소에 종중산이 있었다.

형편이 넉넉한 집안에서는 나무토막이 판자를 직접 마련하여 상이 날 경우 목수를 불러 관을 짰다. 관에는 옷칠을 하였다. 김종덕·김종해 형제의 집안은 관을 통째로 묻는 입관을 하였다. 지관을 통해 못자리를 알아본 다음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7~8척 땅을 팠다. 하얀 대접에다 먹갈을 갈아 돌에 고인의 성함과 돌아가신 날 등을 적었는데, 이를 ‘지석’이라고 한다. 혹은 그릇에 같은 내용을 적어둔 다음 안에 재를 잔뜩 담아 봉분 겉 부분에 묻었다. 이러한 표시는 이후에 산소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장의사한테 맡기면 되. 근데 동네에서 거만 다 했어요 여기. 거의 동네 사람들이 했어요. 동네 사람이 지관분 모시고. 그전에는 지석이라고 그래 나도 지석도 써 봤지만 지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다음에 산소 가지고 분쟁했을 때 사람일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하얀 대접 안에다 붓을 먹갈을 갈아가지고 써요. 이게 아무개 몇 월 며칠날 그 아무개 묘라고 여기다 써

광중을 채울 때는 달구질(회다지 놀이)를 했다. 달구질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일부는 밖으로 빠져서 춤을 추었다. 세 번, 다섯 번마다 새끼줄에 돈을 꽂았는데, 이를 맨 처음 광중, 속광중, 바깥광중이라 불렀다. 관은 속광중에 들어갔다. 관을 놓은 다음 흥대를 관 위에 덮고 명정을 풀어 덮었다. 그 다음 상주들이 삼을 하나씩 들고 모여 한 삼씩 흙을 떠 넣었다. 상주들이 물러나면 그 때부터 본

격적으로 광증을 매우며 장사를 지냈는데, 부유한 집에서는 몇 백 만원씩이나 달구질놀이를 하며 돈을 내기도 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마을 공동경비로 들어가 동네 회장과 총무가 관리하였다. 어려운 집일 경우 그렇게 받은 돈을 장사가 끝나고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상여를 메거나 장사 치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품앗이였다. 평소에 고인의 자식들이 그런 곳에 자주 다니지 않으면 고인이 돌아가실 때 손님이 많이 오지 않거나 상여 뭉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생겼다. 인창동에서는 안씨라는 지관선님이 있었는데 지관선님은 못자리를 봐주고 그 집 아들은 상여도 메어주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관선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 다수가 그 초상집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잔치와 초상집 음식 준비 마찬가지로 품앗이였다.

김종덕·김종해 씨는 김해 김씨 경파이다. 과거에는 시제를 지냈으나 종가집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흐지부지되었다. 생일제사는 지내지 않고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만 챙긴다. 어물은 조기, 북어포, 엉덩이 살로 만든 쇠고기 산적, 국수, 나박김치, 전 세 가지, 나물 세 가지, 과일, 식혜 등이 올랐다. 김종덕 씨는 지방 쓰는 법을 배워서 기제사를 지낼 때 마다 꼭 지방을 썼다. 명절 때도 제사를 지냈는데, 추석 때하고 설날은 절을 두 번 반하고 술을 한 번 올렸다. 추석 때는 평소 제사 음식에서 송편이 추가로 올랐다.

## 나. 인창3리(동창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그림 3〉 동창마을 전경

동창마을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마을로서, 조선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 등 중요한 능들이 있는 동구릉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 구조물을 제작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동창마을의 명칭에 대한 유래로는 구리시 인창동 일대의 마을로 조선 시대에 동구릉을 관리하기 위한 창고가 있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한양을 중심으로 동쪽의 약 30리 지점에 있다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옛날에는 왕숙천 바로 앞까지 마을이 있었으나, 을축년[1925년] 대홍수로 지금의 자리로 올라와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앞말과 밤말, 동계, 샘말 등의 동네들이 있었다. 동구릉의 일을 도와주고 경작지를 임대받거나 땀값을 얻는 등 마을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동구릉이 큰 영향을 미쳤다.

나무는 동구릉, 산에서 끌어다 बे지. 옛날에는 산이 있어서. 동구릉 산소 있잖아,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봉사, 벌초를 가서 해줘. 그거를 해가지고, 이파리, 뽕나무를 굶어오는거야. 뽕나무도 가랑잎, 이파리만 굶어오는거지. 그거가지고 나무 해다가 불때가지고 했지. 그것도 제각기 노나가지고, 산도. 제각기 뽕나무를 해다가 살았다고. 가랑잎도 아주 많아서 그것 가지고도 겨울을 났어. 가랑잎으로만.

마을 사람들은 왕숙천의 물을 모으는 보를 만들어 주로 쌀과 보리, 귀리, 밀 등을 경작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채소류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였으며, 이후 농지가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에 대부분 편입되어 사라졌다. 과거 논농사를 지었을 때 가뭄이 든 해에는 왕숙천의 물을 서로 끌어다 쓰기 위해서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두레는 없었지만, 농사일을 서로 도우는 품앗이는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인창초등학교와 동화중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동창마을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동구릉이라는 문화재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기나 버스 등이 다른 근교 지역보다 늦게 들어왔다. 경작한 농산품이나 뽕나무, 야채 등을 팔 때 청량리에 있는 경동시장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다 보면 교문시장에 채 도착하기 전에 물건을 산다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중앙선이 통과하는 구리역이 있었고, 교문리까지 오는 버스가 있었지만 동창마을과는 꽤 거리가 있어 면담 참여자 문경호 씨의 경우 자주 이용했던 기억은 많지 않다고 한다.

걸어다녔지, 차 없을 때. 걸어서 남대문까지 여기 사람들은, 처음엔 뽕나무 장수도 하고, 야채 장수도 하고, 다 들어오면, 청량리로 걸어다녔지. 한 30리 되는 길인데. 밤에, 새벽

에 일어나서 걸어갔던 말이야. 야채같은건 짊어지고도 가면, 시장 사람들이 저 마을 입구까지도 사러들 나오대. 거기 가서 팔고, 못 파는 사람들은 시장까지도 가서 팔고. 청량리 시장이 경동시장, 경동시장으로 갔지.

매년 정월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산제사를 지내며 부군당님을 모셨다. 제일은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로, 음력 1월 1일 날 아침 동네 어른들이 날을 받되, 제의 날짜는 정월초닷새를 넘기지 않았다.<sup>8)</sup> 제사에는 남자만 참여하였는데, 남자들 중에서도 나이와 집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정이 없는 사람 대 여섯 명을 선정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날이 가까워질 때 마을 아낙네의 출산일이 다가오면 다른 마을에서 낳게 할 정도로 특히 아이 낳는 것을 꺼려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산제삿날 받아놓고, 애를 낳을래면, 나가서 낳아야지, 부정 타서 안 된대. 제사 날 받아놓고 동네에서 애를 낳으면 부정이 타서 그 돈을 못 쓰고 다시 돈을 다시 걷고 다시 날을 받아서 지낸대. 애를 낳은 사람은 딴 데로 나갔다고.

산제사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살아있는 돼지를 짊어지고 산신바위가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산에서 불을 지필 땔나무도 큰 짐으로 지고 갔다. 돼지를 잡고, 술을 빚고, 쌀을 뺑아 시루로 떡을 찌는 등 주요 음식 장만을 그곳에서 하였다. 이때 쓰는 물은 산제사 때만 사용하는 창디 우물에서 길렀는데, 현재에는 그 자리에 고속도로가 들어서 사라졌다고 한다. 익히지 않은 고기와 삼색 과일, 떡, 술 등을 올려놓고 제사상을 차렸으며 이 때 돼지의 내장은 모두 빼서 국으로 끓여 그 자리에서 올라간 사람들끼리 먹었다. 제사가 끝나고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제사 음식을 창호지에 싸서 고루 나누어주었다.

---

8) 구리문화원 홈페이지 <http://gurimh.or.kr>

면담 참여자: 추우니까 땀나무를 많이 가지고 올라가야 해. 밤새도록 불을 놓아야 해. 정월달이니까 축잡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 놓고 거기 앉아서 불 쪼고 그러니까는, 땀 나무를 몇 짐 지어서 올라가야 해, 장작을. 동구릉에 나무 많으니까 여기서 얻어다가 패 가지고 가져다 두었다가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때고. 아침부터 몇 명은 돼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잡고, 돼지 내장 정리도 하고, 가지고 내려오고. 산제사 할 때는 집안마다 소지를 올리고, 집집마다 뭐뭐뭐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산에 올라가서 돼지 잡고, 거기서 아침에 술도 해놓았다가 그 술로 하고. 밥은 없었지. 떡으로다가 전부. 백설기 떡 이지. 떡하고 돼지 잡아 놓고, 술, 과일. 생 돼지를 산에 올라가지고 가서 잡았다고. 생 돼지로 제사를 지내지. 내장 다 빼고. 생 돼지 올려서 지내고. 제사 지내면 그거를 다 잘라서 집집이 다 노나주는거야. 떡이고, 과일이고. 식사는 안 해. 돼지 내포들 끌어가지고, 우선 대동이고 이장이고 거기서 끓여서 먹지.

면담자: 노나먹으려면 자기 돈 내야지요?

면담 참여자: 그 전에는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없어서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지니까, 한 집 당 만 원씩을 걷어서 하는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마을의 재산이 있었지. 논 같은 것은 없고.

본래에는 산 위에서 지낸 다음 산 중턱 부분에 따로 마련된 부군당이라는 곳에서 밤 12시 넘어 한 번 더 제사를 지냈는데, 현재 산신바위와 부군당은 모두 개인 소유의 땅이 되어 접근이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12시가 되었다고 싶으면 차려놓고, 올려놓고, 절을 하면서 이름 부르고, 이름 부르고 소지 올리는거지. 거기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소지를 올려주었지. 옷은 두루마기를 입고 흰 옷도 입고, 제복이 있었지. 우물도, 그 산제사를 위한 우물이 따로 있어서 아침에 차려입고 가서 깨끗한 물 가져다가 제사를 지냈지.

## (2) 인창3리(동창마을) 토박이의 삶



〈그림 4〉 문경호 씨와 왕정춘 씨 부부

동창마을의 토박이를 만나려고 찾아갔지만, 강원도에서 피난 온 문경호 씨를 만나게 되었다. 문경호 씨는 어릴 때 이곳으로 옮겨와서 토박이와 다를 바 없었고, 구리시에서 토박이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문경호 씨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지나 온 삶에 대해 차분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와 함께 집에 함께 있던 부인(왕정춘 씨)도 면담에 참여해주었다.

문경호 씨는 1935년에 강원도 평강군 별내면에서 태어나 강원도 철원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국전쟁 당시 구리시 동창마을로 피난을 왔다가 같은 피난민 출신이었던 아내 왕정춘 씨를 만나 아예 정착을 했다. 면담 참여자는 남편 문(文) 씨이며, 그의 가문은 철원보다는 황해도에 많이 살았다고 알려진다. 문경호 씨는 현재에는 이북지역에 해당하는

철원 지역에서 구리로 피난을 오는 과정에서 강동구 천호동 등 서울 등지를 몇 번 씩 옮겨 다녔다. 그 와중에 중학교 2학년 이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였으며 아버지를 따라 곧바로 농사꾼이 되었다.

면담 참여자의 아버지는 유능한 농사꾼이었다. 피난을 올 때 소 한 마리를 끌고 내려와 새롭게 정착한 타지에서 귀한 밀천으로 삼았다. 주로 어린 황소를 사다가 겨우내 잘 길러서 교문리 우시장에 내다 팔았고, 교문리 우시장이 없어진 뒤로는 마장동에 팔아 이득을 보았다. 그 중 일부는 따로 떼어다가 어린 수송아지를 다시 사는데 쓰고, 나머지는 농지를 구입하는데 보태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소 한 마리에 땅 한마지기를 살 수 있을 만큼 소는 큰 재산이었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과 농사일 품앗이를 할 때도 소를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의 몫만큼 쳐 주어, 잘 키운 소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힘을 빌려 너른 땅을 경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때두 좀 살다가 소들을 길렀지, 옛날에는 소 기를 돈도 있어야지 (길렀어). 먹이야 짚으로 했지. 여름에는 풀도 베어다 맥이고, 겨울에는 짚풀을 먹였지, 지금같이 사료들 먹이나? 그래가지고 쓸어가지고 가마에다 풀여다 줬지. 짚푸레기만 먹고 자라니 안 자랐지, 소가. 그 때는 잘 맥이면 소가 잘 크닌까는, 여름에만 농사지으면 겨울에는 놀잖아, 소두. 그러닌까 그 때만 잘 맥이면은 살이 찌가지구, 팔아서 띠구, 또 죄꼬만거 사가지고 와서 또 길러서 팔아먹구 그렇게 하는거지. 옛날에는 소가 큰 재산이었었어. 소 한 마리 팔면 땅 한 자리 사고, 그랬었지. 지금은 땅 한 자리 사려면 소를 몇 마리 팔아야 해. 그러다가 나중에 경운기가 나오는 바람에 소로 농사를 안 지었지. 경운기가 들어오면서.

경운기가 소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점차 소의 가치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면담 참여자의 아버지는 소의 경제적 가치가 급락한 이후에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키웠을 만큼 소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소도 계속 길렀어요. 내가 농사지으면서, 아버지가 80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일흔 대여섯까지 소를 기르셨을거야. 그리고 경운기를 하는 바람에, 몇 해 소 안부리다가 돌아가셨지.

면담 참여자의 아내 왕정춘 씨는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출신으로, 한국전쟁 1.4후퇴 당시 동창마을로 피난을 와 신랑인 면담 참여자를 만났다.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들은 서로 동갑내기 이웃으로 가깝게 지냈으며, 술자리에서 오간 혼담이 혼인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신부는 19세, 신랑은 21세였다. 부부는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는 집이 부부의 첫 신혼집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한국전쟁 직후(1956년 즈음)였던 혼인 당시 대부분의 집들이 불타 없어졌다. 면담 참여자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땅에 집을 짓고 살다가 주인이 찾아오자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고,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아예 땅을 구입하여 첫 아들인 면담 참여자에게 물려주었다.

면담 참여자 부부는 주로 쌀, 조, 밀, 보리, 호보리 등의 곡물 농사를 하다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서울에 납품하였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지만 고된 노동에 비해서 버는 돈은 적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지역 재개발로 인해 동네 이웃들 대부분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데 대한 아쉬움을 부부는 지금도 짚게 가지고 있다.

우리두 하우스 한 20여년 했는데, 그거하구 편안히 살려고, 다 정리하구서는 살라 했더니 죄 병들이 나 죄 병신이 됐지. 편안히 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하우스 배추, 쑥갓, 야채, 상추, 뭐 도마토도 심어보고 다 했지. 지금은 다 정리해버리고 없는 거지. 집도 요거하고 집밖에 없어, 허허. 토지같은 거는 보상받아야 정부공시가로 반값도 못 받는 것이지 뭐. 정부에서 하는 거는 다 반값도 못 받는 거야. 뭐 수용령 내리고 뭐. 마을

은 커지지도 못했어. 자꾸만 줄어들었지. 길 나는 바람에. 길 위로, 대교 위로만 집이 있지, 길 위로는 아파트 다 들어왔지. 길로 또 올라가고. 죄 만 데 사람들 들어오는거지.

### (3) 인창동(인창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첫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다.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는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며, 아이의 백일과 돌 때는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올린 상을 차려주었다. 아들을 낳으면 금줄에 고추를, 딸을 낳으면 솔가지를 솥과 함께 꼬아 금줄을 만들어 걸었다. 아이들의 배냇저고리는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입혔다.

#### (나) 축수연

면담 참여자의 아버지가 환갑이었던 1980년대에는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집에서 국수를 대접하는 잔치를 열고, 기생을 불러다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놀았다고 한다. 그 때도 마찬가지로 동네 이웃들이 제각기 음식을 가져오는 등 부조가 있었다고 한다.

옛날엔 저기 누구야, 아버지 어머니 환갑 때, 저기, 옛날에는 기생이지, 허허허. 노래하는 여자들,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가, 차려서 먹고 놀고들, 동네사람들 모이고 그랬어, 아버지 환갑 때 집에서. 음식 준비는 동네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서 음식들을 장만해가지고, 옛날에는 술이나 국수나 먹고 그랬지.

## (다) 상장례·제례

면담 참여자의 아버지는 1990년대 초에 돌아가셨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마을 사람들 중 경험 있는 사람이 옆을 도와주었다. 면담 참여자의 경우 수의 옷감과 관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장만하였으며, 장례식 와중에 동네 할머니들이 집으로 모여 수의를 만들어주었다. 3일장을 했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음식은 소고기 뭇국, 반찬, 술 등이었다.

장지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연천지역 처갓집 동네 인근으로 미리 점지해두었으나 장례 와중에 지관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와서 묘 터를 보고 갔다. 면담 참여자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관광버스 세 대가 따라갔을 만큼 장지까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다. 손님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고 상주들은 마을에서부터 상여와 함께 출발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탈관 풍습을 따랐다고 한다. 이웃 중 소리를 잘 매기는 사람이 달구놀이를 이끌어주었다. 장지에 가서도 그 근처의 동네에서 빌린 솔을 새로 걸어 밥을 짓고 일을 도와주고 따라와 준 사람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였다.

그럴 때만 해도 동네가 살기 괜찮았는데, 이제는 장사 지낼 때도 사람들도 안 가줘. 쫓아다니는 게 어디있어? 가서 국밥이나 먹고 술이나 한 잔 하고, 옛날에는 일해주고 얻어먹고 그 맛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아버지 제사는 봄에 가고, 추석 때 가고, 일 년에 세 번씩 가지.

면담 참여자 가족은 설과 청명, 추석 이렇게 일 년에 세 번 장지로 직접 방문하여 성묘를 한다. 기제사 때는 지방을 써놓고 과일과 떡, 전, 삶은 닭, 소고기 뭇국 등을 상에 올린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남양주시

## 남양주시

### 지역개관

면적	458.05㎢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5읍 4면 7동
인구	2019년 1월 기준 682,540명
인구밀도	1,488.54명/㎢

남양주는 북쪽으로 포천시·의정부시, 동쪽으로 가평군, 북한강을 경계로 양평군, 남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광주시·하남시, 서쪽으로 구리시·서울특별시와 접한다. 광주산맥의 남단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높는데 동부는 산지지역이고 서부는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조안면·와부읍에는 하중도가 발달하고 일부지역에는 구하도의 흔적과 하안단구가 곳곳에 나타나 있다.

남양주의 옛 이름은 풍양인데, 이 고장은 바로 풍양 조씨(豊壤 趙氏)의 관향이기도 하다. 고려 태조 때부터 양주군에 속하게 되어 한국전쟁 때까지 이어지다가 1980년에 구리·미금 2개 읍과 별내·진접·진건·수동·화도·와부의 6개 면, 68개 리가 분리되어 남양주군이 신설되었다. 이후 구리읍과 와부읍 등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에 따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남양주시가 탄생하였다.

전체 토지의 66%가 산지인 남양주는 경지가 전체 토지의 14%, 하천이 5%, 도로용지가 3%, 대지가 5%이다. 경지 중 논 29.62㎢, 밭 31.41㎢이

며, 주요 농산물은 콩 등이다. 채소류로는 무·배추·상추·오이·시금치·고추·파, 서류로 고구마·감자, 과실류로 배·포도, 특용작물로 들깨·참깨 등이 생산된다. 농작물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진접읍과 진전면 지역인데 쌀은 진접읍, 밭은 진건읍, 두류는 수동면, 서류는 조안면, 과실류 중 배는 별내면에서 많이 생산된다. 산지가 많은 이곳에서는 임산자원으로 밤·잣·은행·도토리·대추 등이 생산되고 있다. 이 밖에 화훼단지·과수단지·수목원 등이 도로를 따라 발달하고 있다.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2.7%인 1만 7930명이이고 제조업 인구는 4.21%인 2만 7884명이다. 주요 광산물은 장석이 생산된다. 제조업은 조립금속·비금속·섬유·식료품공업·종이 인쇄업 등이 활발하다.

## 가. 조안면 능내1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는 광주군 지역으로, 1906년 양주군 초부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양주군 초부면 봉안리와 마현리 각 일부, 그리고 능내리를 병합하여 '능내리'라 하고 와부면에 소속되었다. 이후 1986년 4월 1일 와부읍에서 조안면으로 분리되었다.

마을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 양옆으로는 산지가 위치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마현, 원릉, 상봉, 하봉 등이 있다. 능내리는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확(韓確)의 묘가 있다고 해서 능안 또는 능내라 하였다고 한다. 마현은 광주 분원으로 넘어가는 길로, 말을 타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

던 고개라 하여 마현이라 하였다. 이곳에 정약용 선생과 그 친척들이 살았고 한림학사 민씨도 살았다고 한다. 원릉은 능안이라고도 불리며, 서원부원군 한확의 묘소가 있었던 곳이다. 상봉과 하봉은 원래 역촌이었는데 천안이 분할되면서 상봉안, 하봉안이 되었고, 이를 약칭하여 상봉, 하봉이라 하였다.<sup>9)</sup> 예봉산은 능내리 조동 서쪽에 위치하는 587.5m의 산으로, ‘큰사랑산’, ‘영산’ 등으로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이곳에서 마을제사를 지냈으며, 신령을 모시는 영험한 산이라고 여겼다. 예봉산은 땔나무와 취수원을 제공해주는 등 마을 사람들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 금단산이라 그러고 저기 예봉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겨우내 땔나무해요. 겨울에 해가 짧잖아요. 먼데 가면 하루에 한 짐. 강 건너서 그래가지고 이제 땔나무를 갖다가 쌓아 놔 야죠. 그게 없으면 아주 고생해요. 물 적지 날마다 물을 길러 가야 돼요. 저장할 물이 나오질 않아. 사람이 한 줄로 서 있어. 그 물을 하려고, 취수원이 멀기 때문에. 개다가 시골이면 그저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쪽박물이라 그러죠. 바가지로 퍼서 그러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래서 강이 저기 있고 그러니 아주 까마득하게 그나마 파야죠. 두레박 우물인데 그 물 한 지게 길어다 놓으려도 아주 큰 노력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살기가 부적합하니까 모든 이에게 거기.

남양주 능내1리에는 나주 정씨, 명성왕후 민씨, 김씨 등이 모여 살았으며, 나주 정씨가 가장 많이 살았던 시기는 1800년대 정조시대 때이다. 1920년대에는 마을에 25여 가구가 있었으며 그 중 나주 정씨는 6집이었다. 능내리는 물이 많으면서도 또 부족한 지역이었다. 한강 바로 앞에 자리 잡아 장마 때 물이 차오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떠내려간 사람들이 많았을 만큼 수해 피해에 취약한 지역이었다. 장마철이면 침수를 피하지 못해 익사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 장마철에는 집이 침수되는 것을 예측하여 집

---

9) [네이버 지식백과] 능내리 [Neungnae-ri] (두산백과)

안 물건들을 보따리로 싸서 고도가 높은 산 밑의 집들에 쌓아두는 풍경이 그려지곤 했다. 물이 너무 많아 골치를 앓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지하수가 부족해 식수를 구하는 것이 큰일이었고, 논 또한 만들 수 없었다. 퇴산기슭에 파 두었던 세 개의 우물들은 자주 가물었다. 밭 경작은 가능했기에 겨울에는 주로 조를, 봄과 여름에는 보리를 수확하였다.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를 지으려면 다른 마을로 원정을 다녀와야 했고, 이러한 이유로 인구가 느는 것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의 집성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마 지면 강은 보통 때는 강이 저 바깥에 여기서 한 200미터 저 바깥에 200미터 넘지 한 500미터 저쪽에 있다가 여름 되면 이 동네가 물바다야. 여기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 장마철이다 그러면 보따리를 갖다 저기 산 밑에 집들이 쪽 있었거든요. 많은 것도 없고 거기다가 옮겨 놓는 거야. 여기서 물에 빠져 돌아간 분들 많아요.

여기 물이 가까워도 말하자면 강가죠. 먹을 물이 없어요. 우물 파도 깊이 파야지 그래가지고 우물은 산에서 산기슭에 우물이 세 개 있었어요. 그게 말이 우물이지 조그만 가물었다 하면 산이 낮으니까 지하수원이 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이 멀리 예봉산이고 여기는 평야도 아니요 죄그만 퇴산이라고 그래서 지하수도 부족해요. 문제는 여기 취수원이 없어, 얼른 얘기해서. 그래서 사람이 여기 붙어나지 못했어요.

이러한 불편 속에서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 소작을 시킬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지주이거나 한강에서 배를 부려 생계를 해결하는 뱃사공, 혹은 어부 집안이었다. 정규혁 씨의 집안은 토지개혁 전까지 남양주 예봉산과 봉안 근처에 2만평 정도의 농토를 가지고 있어 그곳에 사는 소작인들이 농사를 해다 주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 농사일을 대신 해주는 일꾼들 없이는 능내리에서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웠다.

뱃사공들은 강원도에서 물건을 사다가 강을 타고 남양주까지 실어다 날

왔다. 서울의 문밖제일마제 동대문을 지나 마포서부터 능내리까지 다니는 뱃길이 있어 땀감이나 식량 등을 운송하였다. 그나마도 여름에만 남양주에 있고 다른 계절에는 본 고향인 강원도 화천, 영월 등지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규혁 씨의 회상에 따르면, 양반이었던 대여섯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뱃사공 집안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이들을 ‘상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문밖제일마제 동대문 지나서 마포서부터 뱃길애기예요. 뱃길이 고속도로고 그거거든요. 그때 길이라는 게 뭐 없지. 산에 가는 게 기껏해야 저기 당나귀 그러니 그런 게 소 이런 게 등짐을 실어 나르는데 뭐 얼마 되요? 천상 커다란 나무라든지 이런 거 해 오려면 물이죠, 뱃길. 배 동력을 동네가 있으니까 동네에 뱃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림 1> 옛 나루터의 흔적

능내리에서는 해방 전까지 근처 산에서 산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하지만

면담 참여자는 이에 대해 들어만 보았으며, 직접 참여한 경험은 없다. 능내 1리 근처의 진중리 에서는 몇 년 전까지 산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산제사를 지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새우젓 등 비린 음식을 피했으며, 돼지 한 마리를 잡아 고기를 분배한 다음 짚으로 싸서 가구 별로 나눠주었다고 한다.

능내1리는 한국전쟁 당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 멸절한 집이 하나도 없을 만큼 직접적인 폭격을 맞았고, 마을 주민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다. 전쟁 발발 당시 면담 참여자는 조안국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사이렌을 울리며 전쟁을 알렸던 광주시 분원과 다르게, 능내리는 아무 소식도 전해지지 않은 채로 잠잠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면담 참여자가 조안면 경찰지서에 찾아가 직접 사이렌의 의미를 묻고 전쟁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2) 능내리 토박이의 삶

면담 참여자의 이름은 정규혁이며, 연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좋고 답변을 체계적으로 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1929년 생이며, 강원도 춘천에서 나고 자랐으며, 춘천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 도 단위로 한 두 개씩 있었던 중학교는 5년제로 운영되었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선생님을 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면담 참여자가 다녔던 학교에서 조선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입학할 수 있었지만 정원의 반이 일본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각 도에 하나만 있는 중학교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고 한다. 중학교 졸업생들의 60%는 취직을, 나머지 40%는 일본이나 조선에 있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던

시대였다.

학교에서 수학은 늘 ‘수’를 받았던 면담 참여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경성예과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당시 의학전문학교는 선발정원이 20명이었는데 사정이 있어 등록하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22명을 선발하였다. 그 중에 면담 참여자도 포함되었다. 학교 월사금이 40전이나 되었고 교복과 책, 기타 잡비를 걷어갔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웬만큼 넉넉한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다. 하지만 최종선발에서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중학교 선생님들과 정규혁 씨는 그의 아버지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림 2〉 정규혁·이희종 부부

중학교 졸업 이후 면담 참여자는 강원도 도청에 취직했다. 처음 입사한 그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법규책만 읽으라고 해서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는 국민학교들에서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사범학교 출신이 모자라던 당시에 촉탁교사(임시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 따로 마련되었고, 1945년 해방 직전 그 시험에 통과해 교편을 잡게 되었다. 강원도 춘천국민학교에서 먼저 교편을 잡다가 남양주로 들어와 조안국민학교로 옮겼다. 남자 3개 반, 여자 1개 반으로 구성된 4학급이 오전/오후반으로 나뉘었다. 교실은 학생들로 뻘뻘이 찬 콩나물시루와 같았다.

이후 면담 참여자는 능내리 나주 정가의 양자가 되어 조안국민학교로 이직하였다가 35세 때 교사 직장을 관두고 다른 일을 찾았다. 한국전쟁 당시 양자로 들인 나주 정씨의 양부모님 두 분은 모두 폭격에 돌아가셨다. 본래 한국전쟁 직후에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주 정씨의 독생자가 되어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어 포기하였다. 한국전쟁을 치르고 군 생활을 하고 나서 농사를 짓거나 사업(투자)을 하였으며, 팔당댐 대책위원 등의 지역사회 현안에 참여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면담 참여자의 아내 이희종 씨는 1954년에 아버지 친구의 중매를 통해 현재의 남편(정규혁)을 소개받았다. 두 사람의 중매를 맡았던 친정 아버지의 친구는 면담 참여자와 같은 문중 집안의 사람이었고, 부인의 담임선생님이자 교장선생님이기도 했다. 당시 면담 참여자는 군인이었는데, 나주 정가 양부모님 모두를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잃었던 터라 강원도의 생부모님이 신부 측 부모님과 혼담을 나누었다고 한다. 신랑의 어머니가 본인의 여형제와 함께 신부측 가족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선을 봤지만, 정작 신랑과 신부 본인들은 혼례식을 올리기 전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부인은 전주이씨 남양주 광평대군 자손으로서 남양주 진중리에서 나고 자랐다. 부인의 아버지는 해방 전에는 조안리의 구장, 조안하교 사친회비 회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봐 명성이 자자했다.

아버지가 구장을 보셨는데도 그냥 종교는 안 하셨어, 아무 종교도 절에만 어찌다 할머니가 그전에 다니셨대. 그 근래는 다니시지도 않고 근데 아버지가 잘 사신 것 같아, 그런 걸 보면. 종교를 안 하셨어도 어려운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 얘기 낱고 밥도 못 끓여 먹는다고, 쌀 아무개 치가 얘기 낱는데 첫 국 끓여 먹으라고 쌀 한 말 쥐. 쌀 한말을 퍼 달라 그러면 퍼서 갖다 주고.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아버지가 이봉석씨야. 그때 이봉석씨 장군이라고 글씨도 똑같아. 그래서 별명이 이봉석 장군, 친구끼리도 그러셨어.

### (3) 능내리의 일생의례

#### (가) 혼례

면담 참여자가 예비 신부의 집에 방문한 날은 늦은 봄이었다. 예비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밤 구덩이에 묻어두었던 밤을 꺼내 삶아다가 대접했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는 식사는 하지 않고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금방 돌아갔다. 양가가 혼담을 주고받은 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사주단지를 보냈다. 신랑이 사는 동네 사람 중 한 명이 사주단지를 가져 오면, 신부의 아버지는 책을 펴고 신랑의 생년월일을 따져보며 부부의 궁합이나 혼례를 치르기 위한 길일 등을 점쳤다고 한다. 이후 신부의 아버지가 혼례 날짜를 정하는 택일을 하였는데, 면담 참여자 부부의 경우 혼담이 오간지 한두 달 이후였다고 한다(양력 1954년 4월 29일).

혼례식 당일 날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마를 타고 방문하였다. 구 철교까지는 자동차를 탔고,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마을길에서부터 가마를 탔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의 사촌 형님이 후행으로 따라왔다. 사모관대와 가마는 동네에서 빌렸다. 마을에 도착하면 신랑은 우선 가마에서 내려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렸다. 그 다음 신부 일가 친척집에 들어가 점심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저녁에 대례를 치르러 신부댁에 들어갔다. 사모관대는 신부집 대문에 들어서기 친척집 사랑방에서 갈아입었다. 들어가는 와중에 동네 청년들이 재를 뿌렸다. 함과 치마쪽으로 짠 기러기가 예식 당일 날 함께 들어갔다. 장인어른은 함을 받은 후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손만 넣어 치마 하나를 집었다. 함에는 속치마와 겹치마 두 벌(붉은 치마, 남색 치마)이 있었는데 신부는 그 중 친정아버지 손에 먼저 잡히는 치마를 입고 대례를 지냈다. 겹치마 두 벌은 각각 반대색의 보자기로 싸여져 있었다고 한다. 치마를 집으면서 친정아버지는 신부의 첫 아이가 딸일지 아들일지를 점쳤다고 하는데, 무슨 색이 아들이고 무슨 색이 딸이었는지 면담 참여자의 부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의는 신부 집에서 미리 준비한 노랑 저고리를 입었는데, 분홍색 속저고리를 먼저 입은 다음 그 위에 겹쳐 입었다. 노랑저고리와 남색치마를 입은 신부는 그 위에 활옷을 걸쳐 입고 족두리를 쓰고 양 볼에는 연지곤지를 찍었다. 옷을 입는 모든 과정에서는 ‘하님’이라 불리는 여자 어른들이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이희종 씨가 살았던 조안리에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웃마을 양수리에서 모셔왔다고 한다. 이희종 씨가 결혼하던 시기 그 이전에는 교전비라고 하여, 혼례식에서는 하님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가마타고 신랑집으로 가는 신부를 따라가 평생 동안 하인 역할을 하는 여종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면담자** 함을 어떻게 친정어머니가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면담 참여자** 그렇죠. 아버지가 받으신 거 같아.

**면담자** 어디다가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떡 시루나?

**면담 참여자** 몰라.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치마, 치마로 이렇게 싸.

**면담자** 그렇게? 받아서 안으로 갖고 들어가셨어요, 장모가 그럼 받으셨네?

**면담 참여자** 그러면 아버지가 함 뚜껑을 열고 이렇게 손을 넣고 보지 않고 뭘 집어. 그러면 그때는 함 속에 탄 패물이고 이런 것도 없어. 치마 둘, 속치마 걸 치마 빨간 치마 남치마인가 그렇게 두 개를 청홍 두 개를 치마를 넣어.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금방 손으로 치마 주름을 잡아가지고 그걸 입고 대례를 지내. 그걸 금방 함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빨간 거는 남 보자기로 싸고 남치마는 빨간 보자기로 싸고 이렇게 반대로 해. 그러면 그거를 아버지가 열어서 빨간 거를 먼저 꺼내느냐 남색을 먼저 꺼내느냐 그러면 어떤 게 아들인가 그거는 잊어버렸어.

**면담자** 아, 그걸로 첫째를 아들 낳나 딸 낳나 그거 보는 거예요?

**면담 참여자** 그 치마를 꺼내면 빨강이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는 몰라. 어렸을 때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아우, 첫 아들이다, 이래. 저고리는 집에서 해 놓지. 노랑 빨강에다가 속에는 분홍저고리 또 치마는 남치마인가 아무튼지 그렇게 겹쳐 입었어. 저고리도 속저고리라고 분홍저고리고 의례 분홍저고리야 속저고리는. 노랑저고리에다가 그렇게 입었지.

대례 이후에는 살아있는 수탉, 밤과 대추, 용떡, 쫄불 등을 올린 초례상을 차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맞절을 했다. 초례상에 오르는 용떡은 하얀 쌀로 만든 가래떡을 용처럼 둘둘 말아서 놓은 것을 칭한다. 초례상에서 신랑 신부가 절을 할 때 닭이 울면 신랑이 출세를 한다고 전해졌다. 예식을 중재하는 হল기는 면담 참여자가 예식을 올릴 당시에는 없었다고 한다. 신랑과 신부가 절을 한 횟수는 정규혁 씨와 이희종 씨 모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한다. 절을 올린 후 신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만히 앉아있는 신부놀음을 했다. 다음날 가마를 타고 갈 길이 멀어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다. 신랑은 건넌방에서 신부 가족, 손님들과 함께 따로 식사를 했다. 잔치음식으로는 국수를 삶았다. 반찬으로는 떡과 나물,

다식, 돼지고기 등이 풍성하게 올랐다. 신부집과 신랑집에서 각각 한 차례 씩 하루 동안 잔치를 했다. 부조는 북어 한 쾌, 달걀 몇 개, 국수 몇 몽탕이, 막걸리 몇 동이 등 잔치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들로 들어왔다.

신랑이 손님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신부가 있는 사랑방으로 들어가 잘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마을 청년들이 도리깨로 문을 찢는 등 첫날밤을 훑쳐 보기 위해 장난을 쳤다. 신랑을 매달아 발바닥을 때리는 장난도 그날 저녁에 했다. 신랑을 따라온 후행도 마찬가지로 신부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신부집에서는 후행을 후하게 대접했는데, 혼례식 다음날 아침에도 식사 전 ‘임뱃상’을 따로 차려줄 만큼 신경 썼다고 한다. (임뱃상은 잔치 때 큰상을 받기 전에 먼저 간단히 차려 대접하는 음식상이다.) 이전에 혼례를 올렸던 이희중 씨의 시누님들과 다르게 정규혁 씨는 따로 큰상을 받지 못했는데, 한국전쟁 직후에 힘든 시기라서 그랬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부부는 함께 트럭을 타고 신랑댁으로 출발했다. 당시 능내리로 거처를 옮겼던 정규혁 씨의 생부모님께서 부부를 맞이해 폐백을 받았다. 부부는 대례 이후 삼일 췌 친정에 방문하는 삼일도배기를 따로 챙기지 않았다. 그 대신 그해 가을에 떡, 집안사람들에게 선물할 버선 등을 구입한 다음 엿을 고아서 사람을 일꾼을 시켜 지고 가게 하여 부부가 함께 신부집에 방문하였다.

**면답자** (혼례가 끝나고)친정에 언제 다시 가신 지 기억하세요?

**면담 참여자** 삼일 췌는 안 간 거 같아. 나도 갔고 그랬지.

**면답자** 같이 며칠 췌 가셨는지 모르시겠어요?

**면담 참여자** 삼일 췌 갔나? 아니야, 삼일 췌 뭘 가, 안 갔는데. 닷새에 갔나? 안 갔어. 그냥 살다가 이제 봄이니까 가을에 이제 가지. 처음에 그렇게 시골에서 들은 가을에 친정에 처음 가면 엿을 고아가지고 갔다고. 엿을 고아가지고 그게 상하지 않으니까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엿을 고아가지고 있는 집들

은 그냥 일꾼을 시켜서 지고 간다고. 떡에 뭐에 그런 걸 지고 가서 그 동네 사람 다 돌려 먹고 같이 먹고 그랬다고. 옛을 고아가지고 가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 양말 남자는, 여자는 버선 죄 한 켤레씩 돌렸어.



<그림 3> 1930년대 조안면에서 신랑이 받은 큰 상

## (나) 상장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돌아가셨던 면담 참여자의 양부모님은 동네사람들이 만들어 주었던 가묘에 1차적으로 매장되었다. 이후 면담 참여자가 이를 수습해 다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한다. 부친은 장례를 3일장으로 치뤘다. (더운 여름에는 3일장, 추운 겨울에는 5일장으로 주로 치뤘다고 한다.) 수의와 관은 미리 준비를 해 두었는데, 관의 경우 나무만 미리 가지고 있다가 고인

이 돌아가시는 날 동네사람들을 불러 직접 잤다. 양반가에서는 상여를 직접 메지 않고 아랫사람들을 시켰었다. 해방 이후 신분제가 허물어지며 그러한 관습은 점차 사라졌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이희종 집안 중 어느 가족은 평소에 이웃들의 상여를 메어주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본인이 상을 당해 장사를 지내려고 보니 이웃 중 상여를 메 줄 사람이 없어 상여를 다시 뜯고 직접 메고 갔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나무만 이제 준비 해 놔. 미리 준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방도 되요. 동네사람들 이렇게 양손 톱 있으니까. 그래 식구가 번창하니까 뭐니 뭐니 해도 여기는 별도지만 진중리 같은 데는 한 집안이 뭐 8촌 같으면 너저분하지. 그래서 이렇게 또 돼요. 그계 또 웃기지. 진중리 친정에는 그전에는 아랫사람만 상여를 메었대. 그래가지고 소위 그 집안에는 상여를 안 땀다고 동네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집안 내 노인네가 돌아가셨는데 상여를 꾸며놓고 시집가지 다 모시고 장사를 지내려니까 상여 메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상여가 안 가나, 나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 왜 저러지 어른들이 왜 여기서 쭉덕쭉덕 그래. 그러더니 좀 있더니 상여가 가지를 얹고 죄 도로 뜯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올라갔어, 집안 식구들이. 그래도 산소가 이렇게 동네 가까운 산에 있으니까 그렇게 갔지, 상여들을 안 메었어.

이희종 씨의 아버지는 구장을 보실 만큼 마을 일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전쟁 때 마을에서 홍역, 장질부사 등의 돌림병이 돌았던 적이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자가 생길 만큼 피해가 컸다. 서양의 학문에 어느 정도 깨어있었던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해 폐닌실린을 사다가 소독된 주사기로 아이들을 손수 치료했다고 한다. 이희종 씨는 집안에서 화롯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주사기를 삶던 풍경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한다. 덕분에 ‘마당에서 경중경중 뛰어다닐 정도로’ 병이 나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 덕분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은 서로 손수 상여를 메겠다고 자청하였다.

**면담자** 그 다음부터 전주 이씨들도 스스로 메야 되는 거죠?

**면담 참여자** 그러고들 안 하더라고.

**면담자** 안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 돌아가시면?

**면담 참여자** 그래도 있는 집은 그래도 좀 해줘, 또. 있는 집은 잘 먹이니까 또 해 주더라고. 그런 면담자: 집은 또 해줘. 그래서 우리 친정아버지도 장사 모실 때 안 해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랬더니 외래 넘고 치져. 죄다들 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도 또 한 쪽이 메고 또 딴 사람들이 메고 그리고 갔어, 가까운데 또. 아버지가 6.25때 저기 장질부사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 아주. 자고만 나면 동네 사람이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애가 죽었다 뭐 몇 십 그런다고. 돌림병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는 뭐가 그거 홍역도 앓다 그렇게 많이 죽어, 애들이. 근데 아버지가 의사 역할을 하신 거야. 페니실린 사다가 그거를 그 주사를 주시더라고. 그러면 애들 다 나아서 경중경중 뛰어다녀.

**면담자**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면담 참여자** 응, 아유 웃겨, 그냥 그 화룻불에다 주사기를 삶고 냄비에다 넣고 그렇게 삶고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이희종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더운 여름날이었다. 시체가 빠르게 부패해 비닐로 감았는데도 시체로부터 나온 채액이 관 밖으로 흘렀다. 역겨웠을 일임에도 마을 사람들이 흔쾌히 도와주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음에 이희종 씨는 지금도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면담 참여자** 그렇죠. 여름인데 아주 그냥 삼복지경인데 아버지가 그거야.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름 그때만 해도 아버지제사가 5일장이었나, 3일장인가. 3일장일거야, 여름이니까 아마. 3일장 하셨어. 근데 할아버지는 5일장을 지내셨는데. 시체가 깨끗했거든.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질질 흘렸어, 상여가 가는데.

**면담자** 여름이니까?

**면담 참여자** 그런데도 서로 메려고 그랬어. 얼마나 고마워.

염은 집안사람들이 했는데, 양반가의 경우 딸들에게도 염하는 법을 직접 가르쳤다고 한다. 시체에 짚을 놓고 마디를 묶는 방법, 칠성판 놓는 법, 수의 바느질 법 등을 눈으로 보고 배웠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반드시 여자가 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익혀두었던 것이다. 보통은 이웃에 사는 집안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염이나 기타 장례 절차들을 해결하였다.

집안에서 하죠. 근데 그전에는 양반의 딸은 다 그거 배워가지고 갔어. 나도 그거 배우는 걸 봤어. 이렇게 짚 이렇게 놓고 맨 마끼 이렇게 묶는 거 칠성판하고 이러는 거 양반의 딸은 다 배웠어.

이희종 씨의 가족은 관을 통째로 매장하는 입관을 했다. 제수로는 북어, 조기, 쇠고기 등이 주로 올랐다. 상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비해둔 것을 사용했는데, ‘행상’이라는, 동네의 후미진 곳에 작은 집을 지어두고 보관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이러한 마을 공동 물품들이 모두 유실되어 집집마다 방문해 빌리러 다니기도 했다. 마을에는 선소리꾼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인물이 김수산, 장소팔 씨 등이었다. 아버지의 장지에 여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으며, 집 밖 바깥마당에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고 한다. 상여 멘 사람들이 절을 하고, 상여도 상여대로 절하는 시늉을 하고, 집안사람들도 상여를 향해 큰절을 했다.

**면답자** 여자들은 어디서 마지막 인사를 하나요?

**면담 참여자** 집 밖에 마당. 바깥마당. 거기서 이제 떠난다고 이제 상여가 인사하면 절을 하고 그랬잖아. 상여들 멘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잖아. 상여 상여대로 집 절하고 가고.

**면답자** 그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산으로 가고. 남자들만 따라 갔나 봐요?

**면담 참여자** 그렇죠. 거의 남자들만 따라 가요. 지금들은 여자들이 다 가지. 지금은 다

가지. 우리가 가까우니까 저녁때 갔었다. 그 집 뒤편에 저녁 때 차려가지고 제사를 지냈나, 뭔지 모르겠네, 잊어버렸어. 여자들은 비치지 않아, 밥하는 사람들이나 산에 이렇게.

**면답자** 예전에는 일단 삼오까지 지냈죠?

**면담 참여자** 그렇죠. 삼오 지내야 이제 시집에 갔지.

제사는 총 세 번을 지냈다. 먼저 우제는 집이 아닌 산소에서 지내는 첫 번째 제사로 고인의 넋이 편히 계시도록 안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초우제는 장사지낸 그날 집에 돌아와 지내며, 두 번째인 재우제는 초우제 뒤의 유일(柔日, 육갑의 십간 중에서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가 들어간 날)에 지내고, 세 번째인 삼우제는 재우제 뒤의 강일(剛日, 육갑의 십간 중에서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이 들어간 날)에 지낸다. 이희종 씨는 아버지의 삼우제를 지낼 때까지 친정에 머물렀다. 장례를 마치고는 사랑방 윗방에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상청을 차렸다. 실제로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이 국과 밥과 반찬을 차려서 상을 올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승냥까지 챙겼다.

## 나. 수동면 운수리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수동면은 예로부터 물 좋고 산이 좋다고 유명했다고 한다. 수동(水洞)의 순 우리말 이름은 ‘물골안’이다. 운수리의 옛 이름은 군안인데, 임진왜란 때 난리를 9번 겪었다고 해서 ‘구난’이라고 하던 것이 ‘군안’으로 바뀌었

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해방 후 1960년대 운수리에는 100 여 가구가 살았으며, 수동면의 마을들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과거에는 행정구역이 양주였다. 현재에는 50여 가구가 본토박이다. 두메산골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시외로의 교통도 불편하였다. 일제 때 까지 정기 버스노선이 없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좁아 자가용 차가 겨우 다녔다.

주요 작물은 벼와 호보리, 밀, 메밀, 수수, 옥수수, 감자, 등이었다. 천수답에서 벼 논농사를 짓기 위해 해마다 개울을 막고 보를 만들었다. 주민 대부분 소작농이었다. 수동리 땅의 거의 절반은 방규완이라는 99칸짜리 집이 있는 백석부자 가문의 소유지였다. 1970년대부터는 지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물 걱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농사를 해서 노동력 대비 버는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림 4〉 수동면 운수리 전경

여기는 지금도 어렵다니까 지금도. 지금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려워요. 남양주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울 것예요 아마. 조안 쪽 만해도 관광지가 있어 가지고 괜찮은데 제일 어려워요. 요즘 시청이나 모임에 가면 그 남양주 그 아파트 인구 많이 늘어나면 뭐 하나 이쪽에 관광벨트를 조성해 가지고 여기도 살게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힘들어요, 지금도. 여기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잖아.

펜션도 여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예요. 딴 데서 들어온 사람이 하는 것이지. 원주민들은 뭐 여기 진짜 살기 힘들어요. 또 원주민들이 뭐 요즘 아이들이 배운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고 좀 못 배운 아이들은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어른들 중에서도 도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농사만 짓고는 겨우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

찌꺼기들만 여기 사는 거야. 지금은 여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아파트 경비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농사 짓는 것보다. 농사지어서 일당 3만원이 안 나와. 단 돈 이백만원만 나와도.

마을 단위의 산제사는 없다. 그 대신 세시풍속을 마을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풍습은 있었다. 정월 대보름에는 달맞이를 하면서 쥐불놀이와 윷놀이 등의 놀이를 하였다. 아이들은 6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 옆 동네 지둔리에 가서 그네를 타고 왔다. 깔따리라는 풀을 자기의 나이 수만큼 베어 굶은 끈처럼 묶은 다음 불붙여 태우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놀이도 있었다.

## (2) 운수리 토박이의 삶

이희영 씨는 1936년생으로 전주 이씨이며 아버지 대부터 운수리에 들어와 살았다. 그 전까지는 남양주 금곡, 홍의릉 근처에 있다가 농토를 찾아 운수리로 들어왔다고 한다. 수동초등학교 11회 졸업생이며, 졸업 후 농사일을 하다가 마을에서 한국전쟁을 맞았다. 이희영 씨의 가족은 따로 피난은 가지 않고 마을에 방공호를 파서 숨어 있었다. 군대를 다녀와서 27세 때 한양건설을 통해 사우디와 싱가포르 일대에서 4년 동안 살았다. 그 후에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그림 5〉 수동면 운수리 부노인회장 이희영 씨(1936년 생)



〈그림 6〉 수동면 운수리 노인회장 이희원 씨(1943년 생)

**면담 참여자** 그까짓 면사무소 그것 때문에 도시로 쳐들어가지. 그런데 이 양반들이 거기로 피난을 간 거야, 전쟁 나는 데로 간 거야. 그래도 여기서 안 나간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안 나갔어요. 여기만 살던 사람은 다른 데가 더 좋은 줄 알고 갔는데, 다른 데 다녀본 사람은 청주로 왜 피난을 가. 상식적인 얘기지.

**면담자** 여기 인민군들이 안 들어왔던가요?

**면담 참여자** 인민군들 들어왔어요.

**면담자** 면사무소가 있으면 들어왔죠? 행정중심지이니까 아마 작은 소대라도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면담 참여자** 저쪽 변두리는 뭐 조용했어요.

**면담자** 그렇겠죠?

**면담 참여자** 미군들이 폭격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웠지, 사실은. 인민군들은 와서 민간인들한테 피해 준 것이 없어요.

**면담자** 3개월 있다가 뭐 나갔을 테니까?

**면담 참여자** 그럼요. 개네들은 내가 그때 6.25 때 8살 뭐 이럴 때니까, 정말 그 우리 집이 기와집이 컸었는데. 그놈들이 돼지머리 무슨 돼지가 그렇게 커. 그놈을 갖다 놓고 우리 어머니 보고 꿇여달라고 그러면 해서 주면 요즘 쓰는 그 빨간 돈 있잖아, 중국 돈. 자꾸 주는 거야, 쓸데가 없는데 필요 없다고 그래도 먹고 난 그릇 밑에라도 두고 가 개네들은.

이희원 씨는 1943년 생으로 한산 이씨의 후손으로 7대 째 운수리에 살았다. 운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 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그곳에서 나왔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 IMF 직전 57세의 나이로 운수리로 돌아왔다. 현재에는 반딧불 보전사업과 환경교육활동을 주로 하는 노인회에서 부회장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 (3) 운수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아이를 낳으면 대문에 금줄을 매달았다. 아들일 경우 숯, 솔가지, 고추를, 딸일 경우 숯, 솔가지를 왼새끼로 끈 금줄에 꽂았다. 돌잔치는 형편에 따라 열었는데, 외동아들이었던 이희원 씨의 백일잔치 때에는 소를 잡고 기생들을 초청할 정도로 성대하게 열었다고 한다. 돼지를 잡고 곶을 삼 일 씩 하는 집안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 뭐 백일 상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는 백일 다 했는데 나는 내 돌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 잡고 했어요. 그때 소 잡고 하는 것이 없었지 뭐. 서울에서 기생도 놀러오고. 내가 우리가 아버님이 큰아버님이 자손이 없어요. 그때는 밑에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 양자를 갖는데 내가 큰집으로 양자를 갔어. 우리 그 양자 간 아버님이 괜찮으셨지. 형님 아시죠? 알지. 그 양반이 내 돌 때 잔치를 하는데 3일 잔치를 했어요. 소를 잡고.

#### (나) 혼례

이희영 씨는 개성에서 마을에 피난 온 여인을 서울에서 만나 연애결혼을 했다. 대례는 신부집이 아니라 신랑집 마당에서 했다. 신부집이 서울에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에 사과, 배, 대추, 밤, 산자, 살아있는 암탉 한 마리 등을 차려 신랑과 신부가 그것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

고 썼다. 국수도 신랑과 신부 쪽에 놓인 작은 상에 한 그릇 씩 놓였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세 번 씩 절 했다. 대례를 마친 후 색시는 건넌방 아랫목에 앉아 색시놀음을 했다.

암탉 하나만 놓으면 돼. 하나만 이렇게 놓고, 그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중에 대례 지내고 하면 신부 측에서 안겨주잖아, 닭을. 알 잘 낳으라고.

요만한 상에다 그냥 색시 먹으라고. 그전에는 여기 장작 나무불을 땀잖아요. 시집을 결혼 처음 오면 아랫목에다 이렇게 앉혀 놓고 상을 하나 차려 놓아 줬지, 그렇지? 거기 있으면 방이 좀 뜨거워요, 그게. 그 색시노름 한다고 그러지. 가만히 있는 거지 그림 같이, 웃지도 못하고 진짜 고역이지 뭐.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도 못하고. 장판이 다 타는데 뭐. 장판이 다 타는데 얼마나 뜨겁겠냐고.

이희원 씨는 평택 출신의 신부와 1969년 혼인하였다. 서울의 신식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고 버스를 대절해 손님들을 모두 신고 운수리로 와서 잔치를 또 한 번 열었다. 잔치 때는 국수, 막걸리, 떡 등을 부조로 받았다. 아주 가까운 사람은 식혜와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부조로 가져왔다. 마을사람들 거의 전부가 잔칫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각자 자신이 먹을 음식을 부조를 통해 조금씩 챙겨왔기 때문이다.

#### (다) 상장례·제례

운수리에는 ‘굴뚝계’라고 30명 정도가 참여해 장사 난 집에 쌀 한 말씩을 내주는 계가 있었다. 그렇게 쌀 두 가마니가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히 장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워 상여를 쓰지 않은 집도 꽤 있

었다. 마을 공동 상여를 쓰려면 이용 요금을 내야 했고, 또 상여놀이를 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망 당시 입은 옷 그대로 두고 멍석으로 돌돌 말아서 들것에 싣고 장지로 갔다.

그때는 음식이지 돈 어딜 돈. 전부 음식이야 음식. 그러니까 그 굴뚝계를 해 가지고 그 집에서 30명이면 29말 아니에요. 주인 빼 놓고 그거면 한 가마, 두 가마가 넘잖아. 그것 하나면 그날 장사 충분히 지냈어요, 그것 가지고. 그때는 또 웬만한 사람 상여도 안 썼잖아 그냥. 그냥 입은 옷에 돌돌 말아서 그냥, 지금은 돌아가면 옷 다 빼옷 입히지만 나 할 적에는 그때는 옷 입은 채로 그냥 해 돌돌 말아서.

관을 만들 경우에는 집안 뒷마당에 옷나무나 소나무를 미리 구비해두어 쌓아두었다가 고인이 돌아가시면 목수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짚다고 한다. 수의는 삼베나 광목으로 마련하였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봐 두었던 장지에 미리 가서 땅을 판 다음 짐승 등이 들어가지 않게 나무와 솔가지로 잘 덮어두었다. 땅이 언 겨울에는 왕겨 몇 가마를 삼일 동안 옮겨 둔 다음에 불을 피워 땅을 녹였다.

어린 아이가 죽으면 애충이라고 하여 땅 위에 시신을 두고 돌과 솔가지로 덮어두었다. 애충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몰래 만들었다. 땅에 파묻지 않다보니 산에 오른 주민들의 눈에 띄어 사람을 놀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집터 혹은 장지가 없는 사람은 땅 많은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부탁을 해 땅을 얻었다. 땀감이 없어도 산을 가진 사람한테 부탁해서 나무를 얻거나 밤중에 몰래 가서 나무를 베 다음 빈자리를 흙으로 잘 덮어놓았다고 한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베푼 집안은 ‘덕을 쌓는다’는 칭송을 들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땅의 소유자 관련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기 산. 남의 산도 그때는 인심이 좋아서 누구 돌아가면 산 많은 사람은 가서 인사하고 좀 우리 아버님 모신다고 그러면 산 주었어요. 그때 옛날에는 집터가 없는 사람 있잖우, 집터도 줬는데 뭐. 아이고, 나 지금 집을 짓고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집터 좀 주세요. 아 지어야. 그러잖아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잘못하면 재판도 걸고 지금 세상에 재판도 걸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 땅 때문에. OO이 라고 개장사하는 그놈도 OO이하고 재판해 가지고 졌잖아, 삼촌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이가 다 차지를 했잖아 여기. 우리도 우리 집 뒤에 밭에다 누가 조그맣게 집 짓고 있는데 사람 안 사는데 집을 헐려고 그러니까 거쳐 와서 사람이 못 하게 해서 허는 것 비용 줘가지고 보냈는데 뭐. 지금은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집 짓고 살다가 내놔라 그러면 아이 그럼 내 놓지요. 근데 그 노인네 먼저 돌아간단 말이야 자식들이 너희 아버지가 준 것인데 왜 내 놓느냐.

평소에 이웃들의 집안 대소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의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 집 아들이 상여를 안 댔다고 상여를 안 메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안 된다고. 여기 OO이 이장할 때 OO네 그 동네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갔거든. OO이네? OO 아버지가 안 다니니까. OO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럼. 그러니까 그 사촌형이 있어. 그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빌었어. 그래 가지고 상여를 메다가 산에다 놓고 밭들도 안 먹고 자기네 집에 가서 다 밥 먹었어. 버릇을 가르친다고. 그래 가지고.

회다지 놀이는 상주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진행했다. 상주 집안이 넉넉한 형편일 경우 회다지 놀이를 할 때는 심하게 장난을 치며 많게는 7 번까지 다졌다. 멈출 때마다 아들, 사위가 돈 봉투를 건넸다. 그렇게 모인 돈은 새로운 상여나 병풍을 사는 등 동네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희원 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돈을 마을 공동의 장례용품을 구입하는 데 기증하였는데, 바로 이듬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할머니가 아들이 댔던 현 상여 대신 새 상여를 타서 잘 된 일이라 생각하였다

고 한다. 최근에는 종이로 만든 상여가 농협에서 나와서 1회용으로 사용한 다음 태워버린다고 한다.

돈 내고 상여 메고 하고 그럴 때 돈. 근데 상여 매는 동네사람이 저 사람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목표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장난들을 심하게 하지. 없는 사람은 한 번 쉬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안 나올 것 장난하면 뭐 해. 그러니까 돈 나올 것 같은 사람은 몇 발짝 가서 쉬고 몇 발짝 가서 쉬고 회담이는 것도 그냥. 가다가 전봇대만 있으면 전봇대에다 딱 걸치면 못 해. 장애물만 있으면 서는 거야. 상주들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뭐 다 해야 돼. 술 먹이고.

장지에 다녀와서는 보통 삼우제와 49제까지를 지내며 상주가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렸다. 1940-50년대까지 3년 동안 상청을 차렸지만, 오늘날에는 삼오(100일)까지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이희원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더라도 49제를 할 때 탈상하였다. 제사상을 차릴 때는 흥동백서를 따랐고 조율이시는 집안마다 자율적으로 따랐다. 제수생선은 조기를 주로 썼는데, 닭을 놓는 집도 있었으며, 쌀밥에 돼지고기 적이 올랐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동두천시

## 동두천시

### 지역개관

면적	95.67km <sup>2</sup>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8동
인구	2018년 12월 기준 96,226명
인구밀도	1,007.93명/km <sup>2</sup>

동두천시는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시로, 동쪽은 포천시, 서쪽과 북쪽은 연천군, 서쪽과 남쪽은 양주시에 접한다. 산이 많은데, 토지의 2/3가량이 산지이다. 시의 중심부에는 추가령지구대가 남북으로 지나고, 동남쪽과 서북쪽에는 500m 이상의 고지가, 서남쪽에서는 낮은 평야가 나타난다. 추가령지구대의 동쪽에는 소요산·국사봉·왕방산이 포천시와, 서쪽에는 마차산이 양주시와, 남쪽에는 칠봉산·해룡산이 양주시·포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원래는 양주군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분리되어 현재에 이른다. 1963년 이담면이 동두천읍이 되었다. 면의 중심지인 동두천리의 이름을 따라 개칭되었다. 케네디기념문화회관이 있으며, 매년 10월경에 소요문화제와 소요단풍제가 개최된다.

전방에 속하는 지역으로 군사 시설이 많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60여년간 주한미군의 본거지가 된 도시로 시 총 면적중 절반에 육박하는 48%가 군사보안지역이었다. 2006년 이후 미군 부대들이 단계적으

로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반환된 기지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제28보병사단의 본부와 제26기계화보병사단의 일부 부대가 동두천에 있다. 옆의 양주시 은현면이나 남면 지역은 제25보병사단 위수지역이다.

전 토지의 66.9%가 임야이고 경지는 10%에 불과하다. 경지 중 논이 161ha, 밭이 417ha로 밭이 전 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은 쌀 이외에 배추·무·시금치·오이·호박, 복숭아·배 등이 생산된다. 젓소·돼지·닭 등의 축산업이 발달했다. 밤·대추·잣·은행 등의 임산물도 생산된다.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8% 정도였는데, 주요 분야는 식품·금속 공업이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군사기지로 시작한 시는 특히 기지촌을 중심으로 식품 및 위락시설업이 발달했었으나 미군의 철수로 일반 소비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다.<sup>10)</sup>

## 가. 송내동 안골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송내동의 면담 참여자는 동네 슈퍼에서 소개를 해 주어서 만나게 된 송옥영 씨였다. 면담 참여자는 안골을 “니 것, 내 것이 없이. 아주 화목하고 누구의 폐품 안 하고 한 마디로 잔잔하죠.”라고 말하면서 “때 안 낀 마을”이라고 표현했다. 안골은 반촌이라고 말하는데, 목씨와 이씨, 어씨, 윤씨가 한

---

1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두천시”

마을을 이루고 있다. 네 성씨 중에서 어씨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목씨와 이씨, 윤씨가 이어서 차례로 들어왔다. 어씨가 처음 들어온 시기에 대해서는 면담 참여자도 모르지만, 시향을 이 마을에서 지낸다고 하며, 시향 모실 재사도 지었다. 안골에 거주하는 어씨는 함종 어씨이며, 파는 문정공파이다.

안골 마을에 과거에는 50집 정도가 살았지만, 현재는 인구가 늘어서 100집 정도 된다. 안말, 양짓말(현재 마을), 옷말, 응당 말, 아랫 말이다. 현재는 옷말이 가장 크고 예전에는 응당말이 더 컸다.



<그림 1> 동두천시 송내동 안골 마을 입구

논은 개울을 따라 가운데에 있었다. 개울 건너편이 응당말이었다. 예전에는 ‘물싸움<sup>11)</sup>’을 많이 했다. 천수답이 많았던 관계로 물은 개울을 막아서

---

11) 날이 가물면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싸우는 것.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개울 가까이에 있어야 물대기도 편하고 생활하기도 편했다. 결혼해서 왔을 때 웃말 쪽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지만, 차차 우물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빨래터는 겨울에 물이 얼지 않는 곳에(저 아래) 있었고, 그 우물을 웃말 먼우물이라고 불렀다. 뒤쪽에 있는 산은 천보산인데, 개울물이 천보산에서 흘러 내려온다.



<그림 2> 동두천시 송내동 안골 전경

마을 근처에 무당(만신)이 없었다고 기억되고, 직접 굿을 해 본 적이 없다. 마을에서는 음력 2월 초하루나 초이튿에 산제사를 지냈다. 주로 남자들이 유교식으로 산에서 지냈는데, 제당은 없었고, 신당에 큰 나무들이 많았다. 음식은 과일, 복어포를 준비하고, 백설기를 찌고 술을 산제사 장소에서 만들어 준비한다. 술은 당일 준비해도 금방 되었다. 산제사는 새벽에 지

내는데, 저녁에 재료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만들고 난 뒤 새벽에 지냈다. 3명이 산에 올라갔다. 산제사 때 돼지는 안 잡았고, 고기를 일체 쓰지 않는 제사였다. 현재는 지내지 않은지 3년 정도 되었다.

외지인이 많이 들어와서 줄어든 여타 마을과 달리 마을 주민 수는 대폭 늘었다. 팔린 집터(원주민들이 사정이 어려워서 판)를 사서 은퇴 후 전원주택 처럼 집을 짓고 사는 외지인들이 많다.

60~70년대에는 밭에 보리, 콩, 수수, 논에는 벼를 심었다. 밀과 보리는 수확이 어려운 탓인지 현재는 잘 심지 않는다. 면담 참여자의 천 평 정도가 논이었는데 그 한가운데로 길이 나는 바람에 논이 반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한 쪽에는 벼를 심고, 다른 한쪽에는 깨를 심는다. 깨가 과거에는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기도 하고, 수확도 여타 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어서 요즘에 이 마을에서 많이 심는 편이다.

## (2) 송내동 안골 토박이의 삶

동두천 안골에서 면담에 선뜻 응해준 면담 참여자는 송옥영 씨이며 1941년 생이다. 여산 송 씨 정가공 과 25대손이며 항렬이 영자 돌림이다. 면담은 날씨가 좋았던 관계로 면담 참여자의 집 앞에서 이루어졌고 면담에 솔직담백하게 응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추천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논리적인 말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1959년도 19세에 여산 송씨 집성촌이며 반촌인 왕방리에서 역시 이 지역에서 반촌으로 인정받는 안골 함중 어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남편 어윤모 씨는 일흔아홉에 죽었다. 친정에서는 4남 1녀의 셋째로 태어나서 오빠가 두 명이고 남동생이 두 명이다. 친정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아

버지가 노름을 좋아하셔서 빚이 많았다. 아버지가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서 허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43세라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0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때가 나이 93세였다.



〈그림 3〉 동두천시 송내동 안골의 면담 참여자 송옥영 씨

장만해서 가져가지 못하고 시집을 가야 할 친정의 처지를 생각하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시집가는 것이 낫다고 친정의 당숙이 주장해서 19세에 본인을 시집보냈다고 한다. 행복 하자고 한 결혼인데 본인은 한 많게 살았다고 면담 참여자는 말한다. 남편이나 시부모가 본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면담 참여자는 말한다. 오히려 자신을 집안의 일꾼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그는 담담하게 결혼 초기 생활에 대해서 회고

한다. 결혼 1년 뒤에 남편이 복무 기간이 3년인 군대에 입대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그런 대로 잘 산다고 말한다.

면담 참여자는 “교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학력을 표현했다. 남편은 국민학교까지 다녔다고 한다. 결혼한 후 시부모님을 따라서 농사를 했는데, 딸감은 산에서 구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나무를 해다가 난방을 해결했는데, 나뭇잎을 모아서 딸감 위에 쌓아서 눈을 맞지 않도록 했다. 나무 베는 것은 시아버지가 했는데, 시아버지가 매우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

시댁의 부자 관계가 화목하지는 못했던 편이어서, 부자간에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 그럴 경우 본인이 꼭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부분도 면담 참여자가 결혼 생활을 회고하면서 불편했던 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시아버지가 작고하였고, 48년 만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은 위암 때문에 돌아갔다고 한다.

한 날은 오빠가 오셨다가 잠깐 그런 저 것을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석 달 있다가 또 친정에 갔는데 밤새도록 내 두 손목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집안에는 아직까지 이부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일부종사를 했지, 이부종사는 없데. 내가 만약에 좀 비딱하게 나갈 까봐. 그렇게 충고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나의 운명이고 나의 팔자로구나 하고서 그냥 참고, 참고 살아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집 온지 20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48년 만에 돌아가시고 또 남편도 48년 만에 돌아가셨고.

경제 사정은 시댁이 조금 더 나았는데, 밭 300평 논 1000평이 있었다. 남편은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가 있었다. 어 씨 친척들이 이 마을에

12~13집 정도 되었었는데 현재는 거의 없다.

친정에서는 학교를 가지 않고 일을 했다. 첫째 오빠는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다니지 못하고 나무를 팔았고, 동생은 4학년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졸업을 하지 못 했고, 막내 동생만 유일하게 졸업을 했다. 특별히 여자라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은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가지 못한 것이다. 결혼하기 전은 그래도 행복했다. 시래기죽을 잘 먹으면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였다. 할머니는 6.25 사변 때(본인 9살 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본인 6살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노름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식구들을 전부 먹여 살렸다. 큰 오빠는 데릴사위로, 둘째 오빠는 증조부의 양자로 들어갔다. 밑의 동생은 이모 밑에 머슴살이를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다가 세상을 떠났다. 면담 참여자의 친정은 전에는 포천면 탑동리(왕방리)였는데, 안골에서 왕방리까지 20리이다.

### (3) 송내동 안골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아이를 출산할 때에 본인은 혼자서 시댁 집에서 낳았다. “남편도 없어야 한다. 아무도 없어야 낳을 수 있다.”라고 했다. 초저녁에 낳으면 3일 후에는 일하러 나갔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삼만 간다’고 했는데, 삼을 가는 것은 송옥영 씨에 의하면 “탯줄을 묶어서 그걸 잘라서 이렇게 헤실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며, 삼을 잘 갈지 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나로 말하면 나는 남편도 없어야 되고, 아무도 없어야 애를 낳지 누구라도 있으면 못 낳아요. 밤에도 낳고 낮에도 낳았는데, 최소한 못 낳는 거야. 그런데 말을 이렇게 애를 낳으려면 입이 딱 묶여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베개를 집어가지고 후려 쳐요, 남편한테. 남편을 베개로 후려치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래. 그럼 나가라고, 이 말이 안 나와. 손짓만 하는 거지 문 쪽으로. 근데 나가면 낳아요. 그렇게 낳으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한 집에서 사시니까. 이제 삼 갈르는거 아시지. 그건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삼을 갈르세요. 그렇게 낳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새벽에 (아이를) 낳으면 날이 기니까 그 이튿날 나오라고 그러세요. 아무 일 할 것 없어도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초저녁에 낳잖아. 그럼 짹짹 그럼 3일 날 어김없이 일하러 나가야 되고.

태는 시아버지가 당일 밤에 태웠다고 하는데, 비가 올 때는 그칠 때 바로 태웠다. 삼신상은 차리지 않았지만, 삼신상 차리는 집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3개의 방이 있는 집의 한 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낳을 때는 아이들도 방에서 내보냈다. 아이는 앉아서 낳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3일이 지나야 목욕을 시켰고, 아이 옷은 미리 시어머니가 사 놓았다. 포대기로 아기를 썼다. 출산 후에는 미역국을 먹었는데, 미역도 시어머니가 미리 사놓는다. 미역국에 소고기는 들어가지 않았고 들기름을 넣고 끓였다. 쌀밥은 이틀 동안 먹고, 삼일째부터는 보리밥을 먹었다. 아이 저고리는 두 개를 사다놓고, 번갈아서 입혔다. 바지는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입혔다. 돌상과 백일상은 모르고 지냈는데, 돌상을 차린다면 송편과 백설기, 수수팥떡을 놓는다. 음식으로는 국밥을 손님에게 대접했다. 돌에 아이를 앉혀놓고 사진 찍는 경우는 50퍼센트가 안됐다.

## (나) 혼례

중매는 당숙이 썼다. 원래 택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었지만, 면담 참여자의 경우 신랑 쪽에서 사주와 날짜를 함께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은 동두천 시장의 작은 옷가게에서 보았다. 만나서 얼굴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약혼식이었다. 선보러 갈 때 증조할머니가 함께 가셨다. 남편의 첫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으나 선 본 다음 날에 사주가 와서 좋다 싫다 할 세가 없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송옥영 씨는 신랑이 “아주 몽태질을 하게 싫었다”고 하며 “오늘 가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내일 사주가 와. 그래 뭐 좋아요, 싫어요, 할 새도 없어 그냥(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선보고 2달 만에 결혼했다. 함은 잔칫날에 시아버지 친구가 들고 왔다. 이때 함을 지고 오는 시아버지의 친구를 안부쟁이라고 했다. 신랑과 사촌 시아주버니, 시아버지 친구가 결혼식에 왔다.

잔칫날 온 함 속에 들어있는 필로 된 옷감으로 바로 치마를 지어 입고 대례를 지냈다. 저고리는 색시 집에서 미리 준비하고, 치마만 바로 만들어서 입었다. 그때는 가난해서 저고리도 증조할머니가 해주셨다. 저고리는 노란색, 치마는 빨간색이었다. 치마는 본견유땡, 저고리는 홍콩양단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다른 것 없이 저고리와 치마, 족두리를 착용했다. 족두리는 동네 공동 소유였다. 볼에 연지곤지도 짜고 화장도 했다. 화장품 살 돈이 없어서 동네 화장품가게 아줌마가 화장을 해주었다. 방에서 나올 때는 친정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데리고 나오셨다. 바깥쪽으로는 신랑이 서고 안쪽으로는 신부가 섰는데, 다시 말해서 대문 쪽에 신랑이 섰다. 신랑이 들어오자마자 한 번 절을 한다. 상을 마주보고 서면 신부가 절을 네 번 한다. 그 후에 신랑이 절 네 번을 한다. 상에는 배, 사과, 복어포를 놓았다. 닭은 올라

가지 않았다. 잘 사는 집은 호화롭게 차려놓았겠지만, 본인 혼례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 증조할머니가 술을 만들어서 한 병 주셨다. 원래는 신랑이 술을 가져와야 하지만 본인은 색시가 해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례를 한 후에는 상월을 했는데, 상월은 신랑 신부만 10~20분 정도 한 방에 함께 있게 하는 것으로, 마을 풍속이다. 상월을 하고나서는 국수를 먹지만, 본인은 국수를 준비하지 못하고 당숙모가 가져온 쌀 두 되박으로 만든 밥과 무국을 해서 먹고 사람들을 대접했다. 윗동네 사람들만 잔치에 왔다. 신랑은 3일째 되는 날에 장인장모에게 인사를 한다. 결혼 첫 날에 시부모에게 인사한다. 친정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차(자가용)을 타고 신랑 마을로 왔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비포장도로에서는 300~400미터 가량 전통 가마를 타고 들어갔다. 가마에 내려서 시댁으로 들어갈 때 열 바가지를 대문턱에 얹어놓고 밟아서 깨뜨렸다. 폐백은 결혼 후 3일째 되는 날에 했다. 결혼 첫날은 가만히 앉아있었다. 신랑집에서는 잔치를 크게 했다. 부주가 9그릇이 들어왔다. 목 세 그릇. 국수 부주도 많이 들어왔다. 손님들을 모두 대접하고도 남았다. 첫날밤을 신랑집에서 지냈다. 둘째 날에도 신부는 혼례복을 입고 긴 손수건을 가진 채로 손님들의 인사도 받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면담 참여자는 이를 “그냥 그림같이 앉아 있어.”라고 했다. 3일째가 되어서야 인사를 하고 폐백을 했다. 폐백음식은 술, 술안주(고기를 빻어서 떡갈비처럼 한 것)을 친정에서 준비해갔다. 시부모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전부 했는데, “의례히 드레이 뭐 된다는 사람에게는 전부 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신랑 친척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물이나 예단은 해오지 못했다. 3일째부터는 부엌에 들어가 계속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계속 밥하고 집안 치우고. 옛날에는 마루걸레 쳐야하고 (...) 식모야.”라고 표현했다.

그것도 증조할머니가 당신네 집에서 술을 만들어서 한 병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했어요. (...) 신랑이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냥 안 가지고 오게 하고 그거 색시 집에서 해야 돼.

그냥 그게 풍속이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음식먹지, 국수를 먹지. 그런데 나는 국수도 못 했어요. 밥 그것도 당숙모가 쌀 두되 박을 가지고 와서 밥하고 무국을 끓여서 이웃 사람들. 먼데 사람들 청하지도 못했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오니까 그렇게 무국 밥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어요.

3일째 다시 친정에 갔다. 친정을 갈 때는 떡을 오봉에 담아서 신랑과 함께 갔다. 신랑집으로 돌아갈 때에 증조할머니가 돈을 주셨다. 마을까지 10리 정도 되는데, 가게들이 많았다. 그 돈으로 연시나 정종을 샀다. 친정에서 신랑을 달아매지는 않았는데, 친정해서 해온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다) 상장례

시아버지가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방 안에 시신을 모셨다. 방에 옆으로 모셨고, 3일장을 치렀다. 비닐을 깔고 칠성판을 깔 다음 그 위에 시신을 놓았다. 술이나 떡, 부침개를 모두 집에서 준비해서 차렸다. 염은 집안 먼 촌 아저씨빨 되는 분, 시아주버니 되는 분이 오셔서 해주셨다. 수의는 아는 포목점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대로 삼베를 골랐고, 동네사람들이 와서 수의를 꿰맸다. 관은 나무를 사다가 직접 집에서 짰다. 3일 안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상여로 나갔고, 종중산에 매장

했다. 친정이나 시댁이나 모두 입관하여 모시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시 아버지 시어머니는 탈관을 했다고 한다. 탈관한 관은 그 자리에서(매장하는 한 쪽에서) 태웠다. 상여는 남편 친구들이 댔고 상여소리가 있었다. 상계가 있어서 상이 나면 쌀 한가마를 받았다. 시부모 장례는 부조로 충당하고도 남았다. 삼일 째에 마을 사람들 전부 먹고 갈 수 있을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 일도 모두 도와주었다. 마을 사이의 품앗이에 대해 송옥영 씨는 “가면은 자연히 (역할이) 짜진다. 앞말은 뭐하고 응당말은 뭐하고.. 말 안 해도 짜져요.”이라고 표현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따라갈 수 없었고 인사만 했는데, 요즘에는 따라갈 수 있다.

## 나. 안흥동 도곡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마을 이름은 한자로써는 도곡(陶谷)이라고 쓰는데 도자기 도, 골 곡자를 쓴다. 마을은 원래 광주 정씨 집성촌이었지만, 현재는 몇 남지 않았고 조금 떨어진 안흥리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

전국에. 서울에도 도곡동 있고 양평에도 도곡동 요 근처에도 많은데 전국에 도곡이 많은데 뭐 여기 도곡이라는 게 무슨 도자기 뭐를 했을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모르죠 뭐 전국 도곡이 다 그런 것이지. 도곡이야.

인구가 한참 많을 때는 마을에 강씨와 정씨 두 성씨가 살았는데, 예전에 30호 정도 살았다. 30호가 받은 정씨, 받은 강씨였다. 강씨와 정씨네 아래

에 마을일을 주로 하는 상인(상민)들이 몇 집 살았지만, 지금은 모두 마을을 떠났다. 마을 근처에 농지가 넓은 편은 아니어서, 재산이라고 하면 소였다.



<그림 4> 동두천시 안흥동 도곡리 전경

면담 참여자는 마을의 정씨 집안 얘기를 많이 해 주었는데, 과거에 노비가 집안에 많았다가 점차 줄어들었다고 한다. 집안 경제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쇠락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마을의 정씨 가문은 양반 지위를 꾸준히 유지하였고,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았다고 한다.

세상이 이상한 것이 우리 호적을 보면 서울에 사실 때 보면 호적에 집안 식구보다도 식구는 몇 사람 없는데 종이 노가 그렇게 많아 노비가. 노비는 한 20명 쪽 나온다 말이

야. 그런데 여기 내려오신 뒤부터는 아주 줄어든다 말이죠, 살기가 힘들어서.

(생업이)농업인데 직접 농사를 안 짓고 인제 머슴들 두고서 농사짓게 하고 한편으로 그저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 공부를. 그래도 글자는 알아야 반가 행세를 하니까. 그 글자를 그렇게들 지낸 것 같아요.

광주 정씨 경과 16대에서부터 면담 참여자의 아버지까지 산소가 전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 광주 일가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이 지역으로 9대 조상이 내려 왔는데, 집안에 보관되어 온 호적단자와 분재기 같은 것들을 재실을 짓고 그 안에 넣고 보관하고 있는데,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육이오 전쟁 때는 마을 자체에 피해는 별로 없었다. 마을 내에 정씨 중에 좌익이 있어서 그 중 몇몇은 월북을 하기도 했다.

(월북)간 사람들이 뭐 그렇게 월북한 사람들이 몇 있지만 괜히 6.25 때 뭔가 인민위원회 들어갔다 어쩐다 그래서 군대들이 와서 총살 한 게 많아. 그런 것도 많고.



〈그림 5〉 동두천시 안흥동 도곡리 전경

38도선이 가까이 있었다. 8.15 해방 때 사령관으로 있었던 육군 대령 (당시 국무장관)이 38도선을 그었다는 것을 들었다. 당시 마을 근처는 미군과 소련군의 관할이 대립하고 있었다. 마을 근처에서 육이오 전쟁 당시에 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전포고를 하고 청진 폭격을 하고 일부 상륙을 했어 소련군이 상륙을 했으니까 조선반도 그때는 조선반도에서의 권익이 상당히 소련 쪽에 무게가 갔어. 하여튼 8월 15일에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하는데 지금 애기들은 뭐 무슨 여기 사령관으로 나왔던 육군 대령 그때 국무장관을 했던 누군가 그때가 국무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인데 38선을 가지고 그냥 짝 줄을 그었던 말이야. 아마 무슨 무장해제라고 그럴까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아마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38선이라는 것은 뭐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38선인지 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금방 국경선 비슷하게 되어서 뭐 거기 그냥 길거리 그 길에 38도선이라고 페인트로 적어 놓은 그거 그것인데 딱 막혀서 이북은 소련군 관할이고 이쪽은 미군 관할 그러다 6.25가 터졌는데 여기 바로 6.25가 터진 이 자리인데 아주 격전이었어, 이 지방이. 격전이었는데 우리 집은.

마을 인근에 군부대가 있었고 한 개 연대 정도가 38선의 수십 킬로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단장도 없어지고, 6월 23~4일부터 연대 전체가 휴가를 가버렸다. 따라서 6.25 발발 당시 국군의 대응이 엉성했다고 기억한다.

6월 25일에도 육군 뭐라고 할까 군부의 상층부에서 육군회관을 했더니 하고 사단장도 전부 없어지고 여기 군 잘 모르긴 하지만 한 개 연대 정도가 38선 수십 킬로를 담당했는데 6월 23~4일부터 왜 그랬는지 전부 휴가를 내 보내고 외박 내보내고 그랬어요. (...) 이북에서 침공을 해 들어왔을 때 그 방어한 국군의 사기라는 게 이를 때 없이 엉성하거든 그냥 외출 무슨 외박 다 나가고 상층부도 전부 그날 밤에 술을 먹고 뒹아떨어지고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소요산 아래가 북한 인민군들의 침공 길목이었다. 근처의 초등학교가 전부 타버리고 6월 25일 오후 3시쯤 인민군이 점령했다. 당시에 북한 대학생들도 지역 선무 작업을 위해 역에 내렸던 것이 기억난다고 면담 참여자는 말한다. 현재의 동두천시가 있는 곳이 동두천시의 본부였는데(이단면, 우편국과 주재소, 면사무소가 있었던 곳.) 그곳에도 포를 쏘아서 모두 불타버렸다. 1.4후퇴 당시에는 유엔군이 관할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을 감시하러 돌아다녔다.

## (2) 안흥동(도곡리)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그림 6〉 동두천시 안흥동 도곡리 면담 참여자 정기호 씨 덕

면담 참여자 정기호 씨는 동두천 문화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인하대 명예교수로 퇴임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적절한 면담 참여자가 아니라고 면담에 대해 완곡하게 거절하시다가 살아 온 얘기도 소중한 민속이라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도 면담에 응해주었다. 그는 1931년생이며 이 마을의 대성인 광주 정씨이며, 부친의 생업은 농업이었다. 머슴들을 두고 농사를 지었고, 선친은 서당을 다니면서 한문 공부를 했다. 선친은 향교를 출입하며 고목(통지를 보내는 것)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지 향교죠. 주로 향교 가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향교에서 통지를 보내는 게 고목이라고 그러나 고목으로 뭐 보내고 그런 건 좀 남아있어요. 몇 월 며칠날 뭐 석전을 올릴 테니까 나오시라든가.

조부와 부친은 먹고 지낼 만한 정도로 농사를 지었다. ‘소작이라고 뭐 내는 게 조금 있었다.’라고 했다.

집안이 원래는 여기가 집성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가끔 서울에서 오는 집이 한 두 집이 있고, 몇 집 안 남았고 저쪽으로 가서 안흥 진짜 안흥리가 거기가 많이 집성촌이죠. 우리 시조가 나한테 21대조인데.

형제가 일곱이고 그 중의 맏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면담자가 6살 때 타계해서 생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계모 밑에서 자랐다. 혼례를 올렸을 때 면담 참여자는 서울에서 학업을 계속 했고 1957년도에 졸업을 했다. 아내는 전주 덕양군 중종 아래의 전주 이씨 종가 출신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 강사를 하다가 일본의 천리대학의 조선어학과에서 4년 동안 가르쳤다. 인하대학이 종합대학이 되고나서 인하대로 왔다. 인하대에서 정년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다. 현재는 마을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다.

그 천리교의 대학인데 그게 천리교의 조선학과 일제시대 때 조선어학과라는 게 있어요. 조선어학과는 뭐라 그럴까 포교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일제시대 때 한국어 못 쓰게 하려고 조선어 폐지를 할 때에도 그것은 살렸으니까 해방되고 나서 여기 한국 경성제국대학에 있던 다카시 뭐 유명한 교수들이 돌아가서 갈 때가 거기 밖에 천리대학 조선어학과 밖에 없거든. 전부다 거기 모여서 있을 때 거기 또 좀 와서 있으라고 그래서 한 4년 거기가 있었어요.

동두천국민학교를 나왔고, 학교는 걸어다녔고, 중학교는 일제강점기 때 경성공립농합교를 다녔는데, 졸업은 성동중학교에 가서 했고, 1회 졸업생이

었다.

지금 시립대학. 농업, 농가니까 그때 뭐 일제말기에 일제 뭐 일제 말기에 아주 험할 때 아니에요. 전부 동원되고 그럴 때이니까. 공립농업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가서 거기 가서 기숙사에서. 그 학교가 그냥 농업학교 지금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넓은 학교예요. 그게 아마 대지가 공식으로 집만 지은 데가 한 9만평쯤 되고 학교랍이니 뭐 이런 것 합치면 상당히 넓은 학교 지금 서울시립대학이 전부 거기 들어가서 하고 있는 데인데 그러다가 농업학교 나와 가지고는 갈 때 없어서 나중에 졸업은 또 성동중학교에 가서 졸업을 했어. 성동중학교가 다시 중학교가 설립된다고 해서 그곳으로 옮겨가서 5학년인가, 졸업은 성동중학교 제1회 졸업생이야.

거주하는 집 옆에 문중 재실이 있는데, 재실이 있는 곳에 원래 집, 광이 있었다. 그 옆에 면담 참여자가 대학교 교수 재직 시 연구실에서 쓰던 책 같은 것을, 요즘에는 책을 도서관에 갖다 주어도 반가워하질 않아서, 조그만 연구실을 만들어 두고 전부 넣어 놓았다. 면담자는 조부모가 쓰던 문갑, 벼루집 등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 쓰시던 거 이게 전부 우리 할머니 쓰시던 것 저거 전부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문갑이고 그 위에 것은 벼루집이에요 사랑방에서 벼루집이고 그것 몇 개 밖에 안 놔두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없어지고 전부 우리 할아버지 일하시던 것 같은 걸 내가 내려오면 이렇게 한 데 모아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우리 동생들이 맡아 가지고 있다가 다 불 태워 버리고 그랬어. 남은 게 없어 이 몇 개도 이거 억지로 끝까지 남은 것을 이것만 갖다 놓고 옛날 이렇게 살았는데.



<그림 7> 정기호 씨 덕 재실 옆 개인 도서관의 내부

6.25 때 미군이 민간인들을 멀리 소개해서 실어다 날랐던 때에도, 조부는 집을 계속 지키면서 버텼다. 부친은 피난을 다녔는데, 참여자는 이를 ‘피해서 다녔다.’라는 표현을 썼다. 6.25가 끝나고 박정희 집권 이후 정씨들이 뿔뿔이 서울로 흩어졌는데, 학생으로서 서울로 떠난 경우가 많았다. 3.8선이 가까워서 더욱 그런 것 일지도 모른다. 참여자는 서울에 있다가도 항상 제사 때나 가족의 생일 때면 마을로 돌아왔다.

우리 같은 민간인 괜히 돌아다니다가 서울 뭐 어찌고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도 나는 항상 제사 때 와야 되고 무슨 가족의 생일 때 이런 때 여기서 하고 그래서. (...) 아까 얘기한 대로 6.25 도중에 미군이 실어다 내던진 못 살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림 8〉 면담 참여자 정기호 씨의 얼굴이 새겨진 문패

6.25 전쟁 발발 하루 전 6월 24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면담 참여자는 그 즈음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대학입학 시험 때문에 한 동안 마을에 내려오지 못하다가 입학시험이 끝나고 대학 등록 수속이 있어서 6월 24일 밤에 마을에 내려왔다. 그때는 입학이 6월 19일 이었다. 다음 날 첫 새벽부터 마을에서 하루 종일 격전이 벌어졌다.

6월19일 입학식 하고 나는 6월 24일 날 오래 간만에 그것도 문리대 배지를 달고 내려 오니까 아주 으스스대고 빠기고. (...) 2~3회쯤 되었는데 서울대학 이게 문리대거든 서울 대야 이쪽에서 법과대학은 법전 무슨 농전 다 해서 문리대에서는 아주 무시를 했다고 문리대만 대학이라고 써 붙이고 여기를 내려왔는데 6월 25일 첫 새벽, 여기 하루 종일 격전.

아버지가 눈을 보러나갔다가 새벽 5시쯤 피난민이 몰려오고 포탄이 떨어

지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지하실로 피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집에서 우리 집이 농가니까 우리 집에 농사를 지은 논이 아까 보았던 그 소요산 쪽에 거기 밖에 여기가 아주 좁았어. 농사지었던 거기가 좀 물도 좋고. 새벽에 첫 새벽에 5시쯤 밝았을 거야 날이 밝을 때인데 모를 다 내고 모 내면 그 벼가 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물꼬를 본다고 그래 우리 선친이 선대가 저 아래로 물꼬를 본다고 내려가시다가 도로 올라오셨다 말이야 새벽 5시쯤 왜 그랬냐면 뭐 피난민이 밀려오고 포탄이 막 떨어지고 들어오신 뒤에서 부터 진짜로 포탄이 터지고, 우리 집 옆에 조그만 지하실 그 지하실이라는 것이 겨울에 김장해 넣고 그러는 조그만 지하실인데 식구가 전부 거기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여기서 전투를 했어. 제일 격전이 인민군 몇 고지라고 그러더라.

6.25 발발일 종일 참여자와 참여자의 가족들은 계속 지하실에 숨어있었는데, 조부가 만류해서 피난을 가지 못하다가 이튿날 면담자의 선대 선친과 면담자의 동생과 참여자는 산 위로 해서 산 위의 산지기 집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피난을 가려 했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38선을 수리해서 기차가 넘어왔는데 선무공작대와 김일성대학 학생들이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가르쳤다.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도 공작이 이루어졌다. 이후로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의용군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선대 선친하고 내 동생하고 나하고 셋이서 거기는 무서워서 못 가니까 저 쪽을 이 산 쪽으로 가는데 능선으로 통해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날이 밝아 내려다보니까 벌써 인민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뭐 더 갈 수가 있어야지 산 위에 마침 산지기가 한 집 조그만 집이 거기도 내외가 살았는데 우리를 잘 아니까 아침밥도 해주고 앞으로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거기서 6월 26일이 되었는데 산에서 보니까 이 끊어졌던 38선에 기차가 넘어와. 기차가 넘어와서 사람이 일꾼들이 내려서 철로 수리를 하고 조금 와서, 기차가 넘어오는 것 (...) 그게 누가 왔느냐면 기차타고 김일성대학 학생들이 나왔더라고 선무공작 때문에 선무공작대가 나와서 전부 그냥 무엇인가 마을 돌아다니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르치고. 벌써 뒤따라라 나온 거야. 그 인민군은 아직 서울을 점령도

안 했는데 아주 그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들.

1.4 후퇴 당시에는 백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발진디푸스에 걸렸다. 사경을 헤맬 때 유엔군이 발견해서 면담 참여자를 대전충남도립병원에 입원시켰다. 발진디푸스에서 회복하고도 병원에서 몇 달간 지내고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을로 다시 올 기회가 있었다. 유엔군이 마을 주민들을 잡아서 전부 남쪽으로 보냈다. 참여자는 유엔군이 당시 마을 주민들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등 ‘못살게 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자는 유엔군에게 붙잡혔는데 젊은 사람이라서 남쪽으로 보내지지 않고 북쪽 국군 부대의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학생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증을 본 헌병이 면담 참여자가 민간인인 것을 확인하고, “어차피 민간인은 돌아가도 다시 잡혀온다고” 함께 군 복무를 하자고 설득하려고 했다.

유엔군이 여기 지배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주민들을 못살게 해요. 주민들을 이게 여기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남쪽으로 잡아 전부 보내고 못살게 하는데 들어왔어. 주민들은 낮에는 산에 가서 그저 뭐 밤도 따고 산에 가서 자고 유엔군한테 걸리면 또 실려 가니까. 재수 없게 내가 외국군한테 걸렸거든 잡혔단 말이야. (...) 나는 젊은 놈이라서 그런지 이 수상하다고 남쪽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저 북쪽 국군부대에 가서 조사 하라고 국군 부대에 갔다 내 던져서 국군부대에 가서 그 헌병대의 조사를 받는데 헌병대에서 그때 학생증을 가지고 다녔는데 보더니 아이, 반갑다고 그리고 그 헌병대에서 당시 도로 가 봐야 또 잡혀 오고 그 일반 민간신분이라는 게 여기서 문관으로 우리하고 같이 살자. 그 사람들도 사람을 대하지 못 하니까 군인들이 일반인들이 반갑다 말이야 반갑고. 그래서 그 헌병대에서 군복도 주고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있자.

그 헌병대는 참여자가 간지 2-3주 후에 후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곳이 광릉이었다. 광릉에는 지금 광동산림고등학교인 광동중학교가 있었다. 광동

중학교는 원래 봉선사라는 유명한 절이었다. 봉선사에 이광수의 사촌 혹은 형이 이광수를 광동중학교에 데려왔다. 그곳에서 이광수가 조그맣게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그러다가 광동중학교를 만들자 이광수가 국어선생을 했다. 6.25 이후 복구중인 광동중학교에서 참여자가 교장의 권유로 대학생일 때 국어선생으로 1년간 일했다. 그 때 능골의 유림에게 가서 한문을 일 년 간 읽었다.

근데 그 양반이 영의정을 지냈는데, 그 양반 산소가 있는 그 동네에 그 양반 종손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 동네를 능골이라고 그래. 왜 능골이냐면 그 양반 그 영의정을 지낸 분의 능은 아닌데 높여서 능골이라고 그래. 거기 종손이 그래도 한문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갖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문을 읽었어 그때. 내가 한문 맹자를 읽고 좀 뭐 아마 한 1년, 1년까지는 안 되는 데 조금 읽었다 말이죠.

그런 동안에 서울대 문리대가 정식으로 개학을 했다. 50년도에 입학해서 53년에 복학을 하여 57년에 졸업을 했다. 53년에 복학을 해서 광릉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했다.

서울에 가서도 복학을 해 살면서 뭐 집에 경제적인 여력이 있나 등록금이 있나 뭐 있나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 그러면 지금 옛날에 광문중고등학교인데 지금 무슨 중 고등학교인지 그 광문중고등학교 선생으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복학을 했다 말이에요.

전쟁 후에 결혼을 한 다음 졸업을 하고 대학교수가 되었다. 정년을 하고 마을로 돌아와서 고향을 지키며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 (3) 안흥동 도곡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예전에 참여자의 동생들까지도 돌상을 했고, 그 후로는 음식점이나 같은 곳에 가서 돌잔치나 백일잔치를 했다. 면담 참여자도 돌상을 받았으며, 돌잡이로는 연필, 붓, 실타래, 국수 등이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집에서 낳았다. 큰아이는 처가에 가서 낳았고, 그 후로는 서울 집에서 낳았다. 조모가 출산 때 아이를 받으며 뒷바라지 했고, 집안 어른들이 함께 뒷바라지를 했다.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이 출산하는 자리에 근접을 하지 않았다. 아이가 오래 살기를 빌거나, 삼신상은 차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참여자의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는 집의 대문에 금줄을 걸었다.

## (나) 혼례

참여자는 1954년도에 할아버지 주도로 선을 보았다. 면담자의 할아버지의 지인의 손녀가 과년해서, 서로 신랑신부감을 찾다가 중매가 성사되었다. 당시 ‘선 본다’는 뚜렷한 개념도 없었고, 집안 어른(할아버지)끼리 혼담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전쟁 통이어서 예식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구식으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양주 유양리에서 십리가량 떨어진 광적면의 신부 덕으로 갔다. 학교 다닐 때에 혼례를 치렀고, 대학은사 선생님도 멀리 오셨다. 전반적인 혼례절차는 거의 잊어버렸다.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어 잘 모른다 말아야.”라고 했다. 제사상을 차리듯이 상을 차리고 그 양쪽으로 신랑 신부가 서서 맞절을 하는 정도로 기억한다.

양주 유림의 대표인 이박림이 있었는데 (...) 그야말로 우두머리 노릇을 이박림씨라고 아주 양주에서는 유림계의 최고인데 이 양반이 면담자가 한문을 할 때 거기 와서 하룻밤 주무셨는데 거기는 송씨 종손이고 하니까 서로 가까워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손녀가 있는데 나하고 같이 하룻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뭐 어떻게 이 손녀를 보내야 할 텐데 마땅한 나이도 괜찮고 신랑감도 괜찮잖아요. 그러니 점을 찍어서 중매가 되었어. (...) 조부가 서로 아시니까. 또 우리 자라는데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계시면 그분들 말씀에 어긋나게는 못 살거든, 뭘 해도 결혼을 해도 뭘 해도 하여간 그 분들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지. 안된다든가 뭐 그러니까 뭐 그 뭐라고 할까. 요즘은 뭐라고 그래. 서로 보는 것을 서로. 그런 건 없이 할아버지들끼리 얘기 하면 그만이야 그걸로. 그래서 하라고 해서 한 번 했죠. 그때는 난리 때이니까 뭐 제대로 예식장이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옛날식으로 신부 댁에 가서.

그 밑에 그 문리대 들어가서 뭐 공부도 안 하고 우리 맨날 아르바이트 난 그때 그렇게 지냈지만 다른 것은 없어도 이희승 이승용 선생 아래에서 지냈다는 것은 참 그게 뭐 인생에서 제일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양 두 분들, 용 선생도 그때 오셨어. 그때 옛날식으로 차려서 하는 것이지.

대례를 치루고 나서 큰 상을 받은 기억은 없다. 원래 큰 상이라는 것이 없었는지, 전쟁 중이라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른다. 모든 것을 간소하게 했다면 “나 때는 모든 것이 간소하고 뭐 대강대강 그저 한 거 정도”라고 표현했다. 신방은 그날로 이 마을(신랑가)에 와서 했다. 면담 참여자는 차를 타고 왔으며 신부는 가마를 타고 왔다. 말은 타지 않았다는데, 은사(이희승 선생)는 그때 지엠씨라는 차를 타고 왔다. 결혼은 음력 9월 가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택일을 해서 결혼식 날을 잡았다. 신부집으로 무언가를 써서 보낸 기억이 있다.

일요일 아닌 것 같애 무슨 날 받았던 것 같아. 소위 택일이라고 하나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뭘 써서 보내는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신부 집에 써서 보내는 것도 쓰라고 그러셔서 내가 써서 보낸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날도 택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함을 보냈을 것이다. 함진애비가 있었으나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 신부를 따라오는 후행도 있었는데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 면담 참여자가 갈 때는 아버지가 따라가셨고, 조부는 따라가지 않았다.

함 보내줬죠. 함 그때는 함진애비라는 말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함진애비가 나를 따라간 건가 나하고 같이 간 건가 함진애비라는 게 있었어. (...) 그것도 좀 잘. 그리고 무슨 후행이라는 것도 있었고 신부 따라오는 것이 후행인가 있었고 신부 후행 신부 누군가가 아마 따라왔던 것 같기도 하고.

처가에 3일 만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번 가기는 갔었다. 처가에 가서 신랑 달아매기는 거의 없었다. 신랑이 들어갈 때 콩 같은 것을 깔아 놓고 장난치고 넘어뜨리는 것이 있었지만, 발바닥을 때리는 것은 없었다. 잔치음식으로는 국수를 먹었을 것이다. 마을 큰일에는 국수를 하곤 했기 때문이다.

부조가 있었다. 부조는 면담자의 아버지가 관리를 해서 면담자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 마을 부조를 기록한 것은 없다. 마을 내의 부조는 잘 몰라도, 대학에서 학생들이나 선배들이 부조한 것은 기억한다. 돈을 내거나, 시계, 은수저 등을 주었다. 돈으로 한 부주는 얼마 없었다. 잔치도 아마 했을 것이고 떡 부주도 있었을 것이다. 신혼여행은 당시 있기는 했으나, 면담자는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집안에서 신식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 신혼여행은 신식 결혼 풍습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우리 선배 뭐 우리 내가 1학년 들어갔을 때 4학년의 강한열씨 같은 분은 은수저를 하 시기도 하고 동창들은 내가 기차 통학을 다니고 그래서 기차통학이 어려울 것이라고 시 계를 보냈고.

그때 또 신혼여행이라는 거 있다는 건 알았지. 근데 우리 뭐 형편이 신혼여행 갈 만한 형편에 안 되었고. 그때 우리가 살던 그런 집안들끼리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 신 혼여행이. 좀 신식들에서 했지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례를 치를 때는 면담 참여자는 양복을 입고, 신부는 한복을 입었다. 사 진은 찍지 않았다. 정전 되었을 시기이긴 하지만, 난리 후라 사진을 찍을 여유가 없었다. 사진사를 부를 수도 있었으나 부르지 않았다. 신방을 차리 고 살다가 신부 처가에 한 번은 갔었다. 가서는 거기서 잤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가 서울로 갔다. 신부는 조석 문안 인사를 한 달 가까이 했다. 신 부가 마을에서 3년 정도를 살았다. 종손 종부의 집안 시집을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안의 법을 익히느라고 3년 동안 있었을 것이다. 신부는 3년 동안 부엌 출입을 하며 부엌일을 했다.

여기(도곡리) 와서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신부는 조석 문안 인사 아침저녁으로 그것 때 문에 그 문안을 아마 한 달 가까이 했을 거야. 나는 서울에 가 있었지만 신부는 여기에 서 한 3년 살았어요. (...) 하여간 나는 종손 종부이니까 집안 법을 익히고 그러느라고 야마. 그거 다 집안끼리 다르고 이 집에 야마 가법이라는 말 많이 쓰고 그랬는데 요즘 에 안 쓰지만 그 가법을 익힌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참 신부들은 고생스러운 것이지. 지금 생각을 하면 옛날 신부들 어떻게 그렇게 참고들 지냈나 생각이 나요. 그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하고 뭐 한 3년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 (다) 축수연

부친과 조부의 환갑잔치를 했다. 잔치를 할 때는 큰 상을 차렸는데, 집에서 집안사람들이 상을 차렸다. 상을 차려 드리고 자손들이 절을 했다. 아버지 대까지는 거의 다 집에서 잔치를 했다. 기생을 불러서 풍악을 하거나 하지 않는 않았다. 술을 올리고 절을 했으며, 손님들을 청해서 식사와 술을 대접했다. 상은 되는대로 큰상, 조그만 상을 모두 썼다.

## (라) 상장례·제례

조부의 장례를 참여자가 36세인 60년대 때 치렀다. 상복1을 입고 5일장을 했다. 선대의 산소들을 모아놓은 고문서를 토대로, 묘터를 정했다. 그 고문서는 지관이 쓴 것일 수도 있다. 지관이 와서 향좌, 좌향 등 자리 잡는 것을 전부 했다. 매장을 하고 회를 쳤는데, 선친이 주관을 했고 상여를 썼다.

장례는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장수 하셔서 그때는 80이 장수인데 내가 36인가 그때 돌아가셨는지, 그것 무엇인가 전부 상복을 다 차려입고 5일장을 했는데 그때 저 고문서가 거기 있는데 우리 여기 선대에 산소들이 여기저기 있는 걸 지금한 데에 모아 놨어요. 저 쪽에 모아놔서 여기 있는데 그때는 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산소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다 쓴 거 기록, 산소 쓴 기록이 다 있는데 난 몰라 읽어도 몰라 그건 뭐 깊이가 얼마 뛰가 얼마 (...)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도 모른다 말이야. 근데 이제 다 옮겨서 그 문서가 소용이 없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지관이 쓴 건지 모르겠어. 하여간 지관이 와서 물론 자리 잡고 뭐 이런 거 전부 하고, 향좌 좌향은 전부 이렇게 지관이 정하고 그리고 회를 다지고 그랬어.

선친은 집에서 타계했는데, 참여자가 환갑 때(91년도)가 되어서 영구차로

산소까지 모셨다. 3일장을 했는데, 시신을 사랑채에 모시고 집안사람들이 모여서 염을 하고 빈소도 집에서 했고, 손님들도 집에서 맞이했다. 인천대학교 교원대학에서 조문객들이 매우 많이 왔다. 집에서 차일을 쳐서 일가 친척들이 손님들을 전부 대접했다. 그 당시 선소리는 없어졌던 것 같다. 상여는 과거에 상민들이 땀지만, 신분 차별이 사라져 상민들이 상여를 메려고 하지 않아서 상여를 집안에서 땀고 선소리도 없어졌다. 조부상 때는 앞에서 종을 흔들면서 간 것 같고, 만장도 꽤 있었다. 어머니는 면담자가 6살 때 일찍 타계했는데 조부가 보아두었던 자리에 묘를 썼다. 집에 관 짜는 나무가 있어서 직접 집에서 관을 짰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지도는 없었다. 수의는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들이 전부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해두었다. 퇴관(탈관)을 많이 했다. 증조부 때까지(면담자가 4세 때)는 관을 옷칠을 해서 그대로 입관했고 탈관은 조부 때부터 했다. 선산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10대까지의 묘가 그곳에 있고, 이 이후로는 마을 너머에 있다. 장례 음식은 특별한 것 없이 국, 밥 정도로 차렸다.

그렇지. (조문객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병원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걸 전부 집안 식구들이 대접을 하고 그랬으니 집안 그 일가친척들이 와서 전부 같이 손님들 대접하고 그거 참 큰일이예요. 요즘 장례식장이 좋은 거지 뭐.

기제사는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대로 하는데, 어물은 북어를 포로 썼고, 참여자가 어렸을 때는 조기를 많이 썼다. 어적은 비늘이 있는 생선을 썼는데, 이제 구하러 나가지가 어려워져 잘 쓰지 않는다. 육적은 닭, 소고기, 돼지고기를 전부 썼고, 닭은 요즘에 많이 쓴다. 예전에는 문어도 많이 썼으며, 문어를 잘 다듬어서 장식품처럼 썼던 것 같다고 했다.

제사는 참여자가 어렸을 때까지는 4대까지 했지만, 현재는 3대만 한다. 생

일제는 지내지 않았고, 차례는 추석과 설에 지낸다. 예전에 성묘는 한식 때 했는데 예전에는 자손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성묘하기가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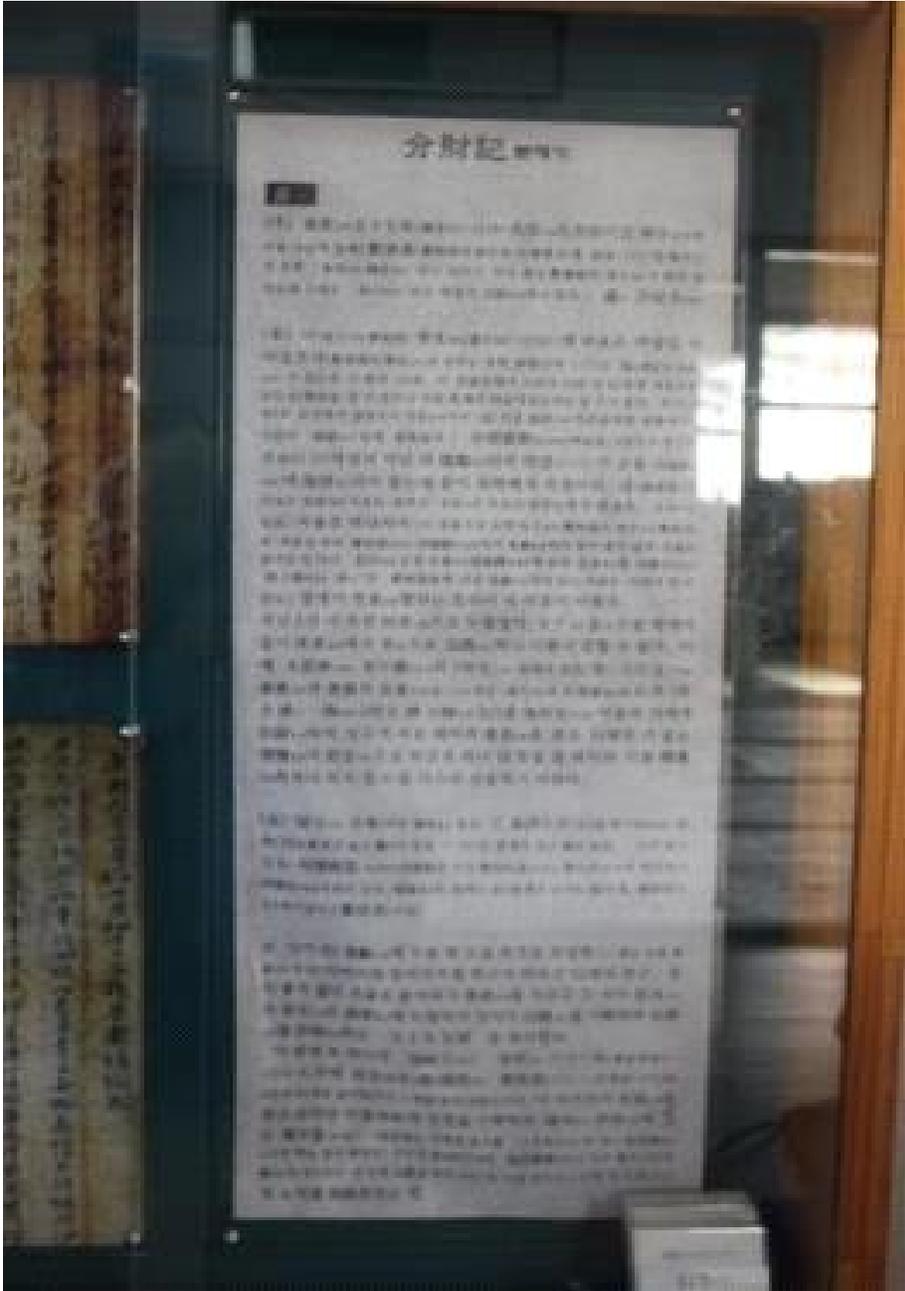
나 어려서 전부 할아버지 아버지 4대까지 하셨는데 나는 3대만 해요. 4대가 하기도 어렵고 뭐 요즘 제사를 해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우리 할아버지 손자가 일곱인데 요 근처에 사는 하나도 안 오고 그런 시대인데.

시제와 시향을 지내는데, 직계 10대까지 지낸다. 면담자 집의 재실에서 한 번에 지낸다. 요즘은 위토를 하는 사람이 없다.

요즘은 위토 누가 그거 하는 놈도 없고 짚어지고 산에 가는 놈도 없고 예전에는 다 짚어지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묘를 한 데다 모아서. 예전에는 위토 딱 잘 하고 그랬죠.



<그림 9> 재실 내의 제단



〈그림 10〉 재실 내의 문기류



〈그림 11〉 재실 내의 문기류(분재기)



<그림 12> 고목 문서



<그림 13> 재실 옆 창고 내의 서고



<그림 14> 재실 옆 창고의 도자기와 책들



<그림 15> 재실 내의 고문서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양주시

## 양주시

### 지역개관

면적	310.34 km <sup>2</sup>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1읍 4면 6동
인구	2019년 1월 기준 217,679명
인구밀도	696.99명/km <sup>2</sup>

양주시(楊州市)는 대한민국 경기도 북부에 있는 시이다. 동쪽은 포천시와 동두천시, 서쪽은 고양시와 파주시, 남쪽은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북쪽은 연천군과 접한다. 평지는 적은 편이고, 감악산, 불곡산, 찰봉산 등이 이곳에 위치한다. 주요 하천으로는 조선시대 양주목의 중심 하천이었던 유양천(維楊川). 서울로 연결되는 중랑천(中 川), 양주시의 남북을 길게 가로지르는 신천(莘川), 장흥면을 굽이쳐 흐르는 곡릉천(曲陵川) 등이 대표적이다.

양주시는 삼국시대부터 한강유역의 군사요충지이자 수도에 근접한 거대 행정구역으로서 이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양주읍 일대는 고구려시대 때 매성(買城), 물골이라 불렀는데, 양주읍이 위치한 양주분지는 지금도 물이 풍부해 쉽게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본래 '양주'는 서울 사대문 일대를 가리키던 고려시대의 명칭이었다. 이후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한강 북부의 한양부를 새로운 수도로 선정하면

서, 한양부 가운데 수도에 편재되지 않은 지역을 옛 양주를 계승하는 지역이라 하여 그대로 양주라 이름 붙였다. 양주는 오늘날의 양주시를 비롯해 서울 일부·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고양시일부·연천군 일부를 포함하는 거대한 행정구역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경기 북부 대부분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지칭되었다.

19세기 말과 일제강점기 시기 대대적으로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 기간동안 당시 양주군 소속의 32개면 중 영근면과 고양주면은 각각 연천군과 고양군에 편입되었다. 나머지 30개 면은 16개 면으로 통합되었으며, 다른 군에서 양주군으로 편입된 지역들도 있었다. 광복을 거쳐 파주군 남면이 양주군에 편입되는 개편이 있었다가 1963년에는 양주군의 의정부읍이 시로 승격·분리되고, 노해면과 구리면 서부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됨과 동시에 화도면의 3개리, 진접면의 1개 리, 가평군 외서면의 3개 리가 합쳐져 수동면이 신설되었다. 이후 1983년에는 은현면 상패리가 동두천시로, 백석면 기산리·영장리가 파주군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파주군 광탄면 기산리 일부가 야유타군 백석면에 재편입되고 주내면이 양주읍, 백석면이 백석읍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거쳤다가, 2003년에는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되었다.<sup>12)</sup>

## 가. 장흥면 일영리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일영리는 양주시 최남부 장흥면의 서부에 위치한다. 장흥면은 동쪽으로는

---

12) 양주시청 (<http://www.yangju.go.kr/>)

의정부시, 서쪽으로는 고양시, 남쪽으로는 고양시 및 서울시와 접해있다. 양평시의 7개 읍면 가운데서 가장 크며, 도봉산과 개명산 사이에 위치해 산수가 빼어나다. 계곡물을 따라 유원지 시설이 발달해있다. ‘장흥’이라는 땅 이름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오래도록 길이 흥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있다.<sup>13)</sup>



<그림 1> 경기도 양주시 일영면 절골 마을 어귀

일영리는 절골, 구만이, 셋말, 당청이, 산서, 응달편, 높은골, 꽃바위, 함정버리, 능안이라는 10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sup>14)</sup> 일절골이라는 부락에는 밀양 박씨들이 모여 있었는데, 절골은 단경왕후가 폐위가 된 후 친정집안 사

1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1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람들이 있는 이곳으로 들어와 절을 짓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절골은 5~6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삼 정승 마을'이라 불리는 것처럼 세 명의 유명한 정승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모두 중종반정의 공신(성이한, 신수근, 박근)들이었다고 한다. 이 중 신씨네는 단 한 가구만 살았다. 일제 강점기에는 15여 가구가 절골에 거주하였으며, 당시 절골 대신 '일령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일령리 경로당이 위치한 마을은 구만리라는 명칭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구만리라는 명칭의 유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홉 부자가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락의 모양이 거북이를 닮아 거북이 구(龜)자를 썼다는 것이다. 구만리에는 20여 호가 살았다.



<그림 2> 경기도 양주시 일영면 구만리 나무

만석꾼이 아홉 부자가 살아서 구만리가 되었다. 또 한 설에 의하면 어 거기 지형이 말이죠. 그 부락에 들어오면서 거기가 형태가 거북이 형이에요. 거북이 형으로 생겼는데 그래서 거북 구자를 써서 구만리라고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좁은 골짜기에 천석꾼이 부자 아홉이 살 수가 없어. 구만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붙인 건데 거북이 형태로 되어서 구만리가 되었다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데 거기 머리가 요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서 산의 줄기에서 쪽 내려 와가지고서 여기 동네에 딱 들어와 가지고서 거북이 머리형으로 만든 것이 순 바위 덩어리가 싹 이렇게 되어서 거북이형이야. 그것을 보고 구만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그 자연 부락단위는 구만리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

밀양 박씨와 성씨, 신씨가 살던 절골은 반촌으로 양반 행세를 했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다. 산촌이라 농작지가 협소할뿐더러,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밥을 굶어도 먹은 척들 하고 살던” 시절이었다. 자녀들은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서당보다는 양주 시내의 학교에 보냈다. 당시 어른들의 생업은 농사와 나무장사였다. 집 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서울 서대문 영천의 장터에 나가서 팔았다. 영천 시장은 일영리에서 50리쯤 되었는데, 경기도 고양을 통해서 구파발을 지나 서대문으로 이어지는 넓은 마차길이 있어 마차를 끌고 등짐을 지고 그 길을 걸었다고 한다. 그 마차길이 구파발에서부터 양주까지 오는 교외선 기차길이 되었다가 현재에는 그마저도 유원지를 찾아 관광객들이 방문하였던 시간은 잠깐이었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 당초부터 (일영면은) 양주죠. 양주에서도 이쪽으로 서쪽으로다 우리가 맨 끝에 면이야 여기가. 그런데 이상스럽게 서울에서 오면 양주 오는 구파발로 해서 첫 관문이 되는데 제일 뒤떨어지고 양주 중심지가 저 중앙에 저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흥면은 아주 산골이면서 유원지화 되어서 조금 반짝하다가 그것도 교외선 없어지고 저 그냥 뭐 와서 봐야 큰 볼 마당은 없으니까 유원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뭐.

**면담자** 이 마을에서는 왜정시대 때는 이 마을 주민들 다 농사를 짓고 살았겠네요?

**면담 참여자** 주로 농사이면서 부업이랄까 하는 거는 나무 서울에 장에 나무 해다 파는 것, 그것을 뭐 그냥 우리 선조들은 웬만한 양반들은 거의 다 나무 장사를 했지.

**면담자** 여기는 나무를 해서 어디다 파는 가요. 장은 출입을 어디를 했나요?

**면담 참여자** 서울. 서대문 영천까지 들어가는 거지.

**면담자** 여기서 영천까지요. 몇 리가 되는가요?

**면담 참여자** 오십리.

**면담자** 오십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면담 참여자** 걸어만 가면 되는데 짐을 지고 가는 거지, 마차를 끌고. 여기서 고양으로. 지금으로 치면 고양시지. 여기 이리 그때 도로가 이리해서 가는 게 서울 가는 길이야 마차길로 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지금 올라오신 그 길로 넘어가면 고양시거든요. 그리고 해서 대자리로 해서 통일로로 해서 서대문까지 들어가는 거야.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갔죠.

**면담자** 짐을 지게로 지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면담 참여자** 지계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기서 또 이리로 저 구파발로 직통으로 걸어서 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고.

절골에는 논이 밭보다 조금 많았지만, 거의 50:50으로 비슷했다. 골짜기 논이었기에 크기는 작았지만 깨끗한 물이 풍부해 산골치고는 농사가 잘 되어서 자급자족은 가능했다고 한다. 서울에 사는 토지소유자가 삼선리에 마름을 두고 소작을 놓아 가을이면 수확물을 챙겨갔다. 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다. 먹고살기 빠듯했던 까닭에 고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하나 있었다.

**면담자** 논농사 짓기는 어땠던 가요 예전에?

**면담 참여자** 그전에는 뭐 그 논들이 골짜기 논이 되어서 크기가 못해서 한테요 앞에 보이는 뜰 저기만 해도 좀 나아서 그저 이 산골로 처서는 농사지어서도 겨우 식생활 해결은 되었어요. 겨우 밥들 먹고 살고 그것만 해도 크게들 알은 거지 뭐 밥만 먹고 사는 거.

**면담자** 그럼 예전에 왜정 때는 여기 지주가 따로 있었나요, 마을 분들이 자작을 하셨나요?

**면담 참여자** 그냥 소작인들이 주로 많았지. 결국은 저 토지소유자들이라는 사람은 마

름을 두고서 가을이면 수확을 해드리고 그랬죠.

**면답자** 이 마을에도 마름이 있었나요?

**면답 참여자** 마름이 없었어요. 저 아래 여기서 떨어진 동네에서 마름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삼선) 리에. (토지소유주는) 거의가 서울 사람이죠.

## (2) 일영리 토박이의 삶

면답 참여자 박성희 씨는 1931년생이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서 나고 자랐다. 보조연구원 전미영이 전화로 미리 허락을 받아 둔 상태에서 맥으로 찾아 갔다. 박성희 씨는 밀양 박 씨(密陽 朴 氏) 규조공파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때 4년제 의정부국민학교에 다녔다. 학교에서는 공동으로 땅을 개간해 고구마 등을 심는 등 학생들에게 경작을 시켰다. 10리가 넘는 등곳길을 매일 걸어나며 고무신이 닳을까봐 품고 가기도 하였다. 박성희 씨의 아버지는 농사일은 하지 않고 글을 읽는 데에만 열중하였다고 한다. 그는 서울에 소재한 중등학교에 진학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바로 고향집으로 피난을 왔다.

아, 옛날에들은 논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벼는 신고 가서 논두렁에 가니까 되겠나 안 되지. 농사짓는 사람이 그때 배불러. 나도 어려서 어떻게 배가 고프는지. 왜놈들이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은 그냥 일을 시켜가지고 운동장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밭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심고 그러거든. 그거라도 시켜 그냥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냥 해가 다 떨어져야 집에 보내. 집에 와도 먹을 것도 만만치 않은데 배는 고프고 그런 세월을 살았지 우리는.

박성희 씨는 수복 후 1년 뒤에 영장이 나와 입대하였다. 함께 입대하였던

동기들 중 전사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제대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한 마지기에 3가마, 흉년이 들면 2가마가 나왔다고 한다. 밭에는 콩, 보리, 밀, 조 등을 심었다. 일영유원지로서 외부에 알려진 것은 1960~70년대 장흥역 교외선이 생겼을 때다.

혼인은 27세 때 한국전쟁 이후에 했다. 아내는 남양주 별내 사람인데 집 안사람 중 어느 분이 중매를 해주셨다. 중매를 할 때는 아버지가 미리 신부 네 집에 가서 신부 얼굴을 보고 왔다고 한다. 양주 일영리에서 남양주 별내 까지 바로 가는 교통이 없어서 교외선을 타고 가다가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 (3) 일영리의 일생의례

#### (가) 혼례

박성희 씨가 1956년 결혼할 당시 전통적인 혼례 방식을 따랐지만, 그로부터 1년 후부터 의정부 시내의 예식장에서 하는 신식 혼례 방식이 빠르게 퍼졌다고 한다. 박성희 씨는 혼례 전 잠깐 집안 어른과 함께 신부 얼굴을 보러가는 선을 보았다. 그로부터 1년 후 혼례를 올렸다. 신부 측에서 혼례식 날짜를 정하는 택일을 하였고, 또 신랑 측에서 보내는 함은 대례식 당일 날 후행이 지고 갔다. 박성희 씨의 경우 자가용을 빌려서 신부 집에 타고 갔다. 그보다 몇 년 전 결혼했던 분들이 말을 타고 결혼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옛날 거기서 처가에서 묵고 오는 것 없었어요. 우리 갈 때만 해도 구풍이 거의 없어질 시기야. 그냥 하여튼 웬만하면 다들 예식장에서 하니까 가서 할 시절인데 그래도 나도 어떻게 구식으로 하고 또 우리 또래 되는 사람은 예식장에 가서 조금 나중에 했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들 해 가지고 구식으로 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지 뭐 그냥. 우리 대까지만 하고 없어.

신랑이 신부 댁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두 손에 목기러기를 안고 간다. 신부는 족두리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며 신랑은 목기러기를 장인어른께 드리고 술잔을 올린다. 그러면 장인어른은 역시 술잔을 신랑에게 건네며, 신랑은 그것을 마신다. 대문을 마주보고 신랑은 오른쪽, 신부는 왼쪽에 서서 대례식을 올렸다. 식이 끝난 다음에는 신부 쪽 집안사람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였다.

이상스럽게 메밀은 안 심어요. 되지 않는 건 아닌데 메밀이라는 곡식은 수확량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다가 모를 늦게까지 못 내었다고 그랬을 때 다른 것 심을 것 작물이 없을 때 최후로 메밀을 가는 거야. 그래야 그거는 늦게라도 심으면 그것을 먹지만 다른 것은 심어야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흑간 그럴 경우에 메밀들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양적으로 많이 안 하니까 어떤 주식으로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메밀로다가 양식으로 삼는 것은 이 지역에서 별로 없어요, 아예.

혼례식 때 집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3일 쯤 잔치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루를 하고 끝냈다. 혼례식 잔치 음식으로는 국수가 나왔다. 메밀국수는 잘 먹지 않고, 그냥 밀국수를 삶아 먹었다. 혼례식을 마치고는 그날 오후로 바로 신랑집으로 돌아왔다. 신부 측에서는 이부자리와 농(가구)을 보내왔다. 신부는 폐백 음식을 짜와 신랑집에서 폐백을 하였다.

삼일도배기는 가지 않았으며, 정초에 세배를 드리러 다녀오는 것이 첫 재행이었다.

**면답자** 여기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올 때 신부가 준비하는 것이 있었나요 시댁에 오려고?

**면담 참여자** 그것은 그때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바리바리 해가지고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의례 이부자리에다가 그 여자들이 재주 있고 한 사람이면 수 같은 것을 많이 놔서 해 가지고 오고 준비 한다는 게 여자들은 주로 수공예 뭐 하는데 저 기본적으로다 몇 가지씩 해 가지고 왔겠죠.

**면답자** 그때 시댁 어른들한테 뭐라도 선물을 가지고 오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가요?

**면담 참여자** 그때, 외래 시방들 그게 야단이지.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시부모한테는 근데 어려워서 그렇겠지 넉넉하지 못하고 부자들은 뭐 다르지.

**면답자** 그렇죠. 그럼 신부가 시댁에 올 때 농을 해 오는 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면담 참여자** 그거는 당연히 해 와야지 그때.

**면답자** 그것은 기본으로 해 오고?

**면담 참여자** 아주 기본이야 뭐 이부자리 몇 벌 해 왔다고 그런 소리들은 하고.

**면답자** 이부자리하고 농이라고 그러면 요만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면담 참여자** 장롱이라고 그랬어. 거기다가 이불도 싸고 옷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큰 세간 밑천이지.

신혼방은 한옥구조였던 신랑집의 안방 건넌방에 마련되었다. 어른들은 행랑채나 사랑방에서 지냈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부는 건넌방에서 살았다. 아이들이 태어나 방이 좁더라도 “으레 어른들은 행랑채에 계시려니” 하고 좋은 방에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면담 참여자** 깨끗하거나 마나 그냥 옛날에 우리 한옥들이야 안방 건넌방 사랑방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다 잘 사는 사람이라야 행랑채에 프락방이 있는 정도인데. 그때야 의례 언제든지 장가 든다고 그러면 건넌방 하나 내 주는 것이지 뭐. 그것 무슨 칸 반이면 큰 집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게 한 칸 집이지 뭐.

**면답자** 그럼 두 분이서 건넌방에서 계속 아이들 장성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사

신 것인가요?

**면담 참여자** 그럼요.

**면담자** 여기 풍습은 언제 자식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사랑으로, 다 돌아  
가시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면담 참여자** 그럼. 시방은 집이 주택이 이렇게 짓고 살지만 그때는 행랑채가 있었잖아  
요. 의례 어른은 행랑채에 계시려니 기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안에서는 어  
머니나 할머니는 안방에서만 사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3  
대 4대가 살아도 그렇게 살았지.

## (나) 축수연

박성희 씨는 부모님 환갑상을 따로 차리지는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을 초대  
해 잔치만 열었다. 환갑잔치에서 상 앞에 앉는 분은 환갑이 되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분 보다 더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을 포함하였다. 환갑을 맞은 주  
인공이 웃어른께 먼저 잔을 따라 드렸다. 형편이 괜찮아질 때에는 여자를  
불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 환갑잔치 때에도 봉투에 넣은 현금으  
로 부조를 받았는데, 그보다 조금 이전에는 현금 부조는 없었고 죽과 같은  
음식으로 대신 받았다고 한다. 환갑 때는 약주 한 병, 국수 한 관 정도를  
부조했다고 한다. 기록을 잘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부조로 받았는지 세세하  
게 기록하였다고 한다.

노인네들 생신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대개들 보면 그냥 그때나 지금은 거의 정말  
봉투를 갖다 모시는데 그전에는 약주 한 병을 사 가지고 들고 가고 국수 한 관정도 사  
서 들고 가고 그런 정도로 해서 답례품을 그것으로 많이 했죠.

## (다) 상장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엮을 할 때, 남자 분일 경우 그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잘 한다는 분을 데려와서 맡겼지만, 여자 분일 경우는 집안사람들이 직접 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여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매주었으며, 박성희 씨도 마찬가지로 상여를 매었다. 일제강점기 때 까지만 해도 밀양 박씨 사람들은 상여를 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변화하는 사회풍습에 따라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따지지 않고 매었다고 한다. 상장례와 같은 큰 행사는 외부 사람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절골의 경우 구만리까지 같은 부락으로 간주하였을 만큼 마을의 범위가 넓었으며, 집안의 대소사가 마을 사람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면답자** 그러니까 여기 분들이 양반은 양반이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상여는 매었나 봐요?

**면담 참여자** 같이들 뭐 정말 그런 풍습이 사라져 간지가 한참 되었으니까 그저 가서 같이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면답자** 예전에 어떡셨어요, 왜정 때?

**면담 참여자** 왜정 때들은 주로들 안들 뻗지. 그게 풍속이 고쳐지려니까 자꾸 서로들 그것으로 해서 부딪칠 적이 많이 있지. 거기가 왜정 말엽이야 그것도. 왜정 말엽에 주로들 그렇게 하고. 해방이 되고 자꾸 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뭐 풍습이 자꾸 변경이 되었다고 그럴까 사라져 가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그냥들 공동행사 하는 것이지. 부락단위로다 그 행사는 꼭 부락단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타 부락에서 와서 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 동네에서 일은 그 동네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면답자** 누가 상사가 나면 그 동네에서 알아서?

**면담 참여자** 그냥 그 동네에서 모든 일을 다들 맡아서 해주지. 타 동네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을 해 주어도 그 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해.

**면답자** 여기는 누가 가령 절골에 누가 죽으면?

**면담 참여자** 여기 동네 저 아래 구만리 동네까지도 한 부락이니까. 요 동네만 하더라도 사람들 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래 동네하고 여기하고 다 옛날에는 만사부락 그것도 부락 단위로 만사부락 부락 단위로다가 큰 행사는 다 부락 단위로 다.

같은 마을 내에서도 관을 통째로 매장하는 입관 풍습이 있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관에서 시신을 빼서 따로 매장하는 퇴관 풍습을 가진 가족도 있었다. 밀양 박씨의 경우 주로 퇴관을 했다. 퇴관을 할 경우 관을 태웠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었다. 집안에서는 관목을 미리 구비해 두었다가 고인이 돌아가신 날 관을 짚다. 직접 짜지 않고 구입할 경우와 관이나 삼베와 같은 장례 용품들은 의정부의 삼포궁전이라는 상점에서 구입하였다. 삼베천을 끊어오면 집안 여자 어른들이 한 방에 모여서 바느질을 해 수의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를 전하며 간단하게 사례를 했지만 현금을 건네거나 하지는 않았다.

**면담 참여자** 좀 뭐한 양반들은 정말 거의가 아주 우리 할아버지 때 시절을 생각하면 거의가 그때는 관을 짜 놓는 것도 아니지만 관목을 구해놔. 관목을 장만해 놓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를 그냥 지금은 재제소나 있지만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다 켜서 그거를 만드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석관을 쓰는 사람이 있어. 석관을 쓰는 사람이 결국은 그게 좀 나았다고 그래서 석관을 하는데 그 석관을 하면 습기가 차서 나쁘다 그래가지고서 주로들 안 썼던 거야.

**면답자** 석관이 습기가 오히려 차나 봐요?

**면담 참여자** 나무관은 습기를 빨아들이지만 석관은 그냥 거기서 습기가 다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물이 되지 그래서 나쁘다고 그랬어.

**면답자** 관목을 준비해 두는 경우에는 무슨 나무로 주로 준비를 하나요?

**면담 참여자:** 대개 소나무였어요.

**면답자** 그럼 부친 돌아가셨을 때는 관을 사 오셨겠네요?

**면담 참여자** 사 왔어요. 여기는 주로 의정부로 갔죠. 의정부가 거기 가면 삼포궁전이라 그러지. 상을 당했을 때는 삼포궁전만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거기 가면 다 가서 그냥 베도 거기서 끊어다가 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대개 그런데 가서 하면 관은 다 주문을 받아서 갖다 쓸 수가 있었죠.

**면담자** 주문 해두면 거기서 관을 짜서 갖다 주겠네요?

**면담 참여자** 거기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죠.

**면담자** 옷은 살 수는 없고 감을 끊어 와서?

**면담 참여자** 그때는 우리 시절에는 전부가 집안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걸 바느질을 손으로 그냥 전부 그러니까 3일장에는 바빠서들 야단하고 그랬지. 5일장쯤 해야 편하다고 그랬지.

**면담자** 그분한테 조금 사례를 하나요?

**면담 참여자** 사례는 조금 뭐를 할 수가 있죠. 사례는 대개들 고맙다는 인사로 사례를 조금 하죠.

고인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칠성판을 깔아 그 위에 시신을 두었다. 수의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염을 시작하였다. 염을 할 때는 물에 향나무를 담가서 마련한 향물을 사용하였다. 솜에 향물을 묻혀 얼굴과 손발, 겨드랑이 등에 간단히 문혔다. 형식적으로 발랐을 뿐이지 정말 깨끗하게 ‘뉘는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여자인 고인의 얼굴에 따로 화장은 하지 않았다. 고인의 시신은 윗목에 모셨는데, 아랫목은 따뜻해서 시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퇴관 풍습이 있을 경우 시신을 아주 단단히, 힘껏 묶었는데, 그래야 퇴관을 하는 과정에서 흔들리거나 묶어놓은 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관을 한 후에는 관에 따로 못질을 하지 않고 흙을 만들어 나무 못과 접합시키는 전통적인 목공 방식을 선호하였다.

복상제들이 상여를 집 밖으로 모실 때 아무 탈이 없게 해달라는 의미로 문턱에 바가지를 놓고 깨면서 나갔다. 그 다음 영구를 상여 틀에 놓고 세 번 묶었다. 그 위에 화려하게 치장한 상여 뚜껑을 덮고 상주는 잔을 올리며

발인제를 지냈다. 발인은 영구가 살던 집에서 출발하여 묘소로 인도되는 과정을 말한다. 발인제를 마치고 상여는 고인이 살았던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의미로 세 번 절을 한다. 과거에 여성들은 장지까지 따라가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모두가 따라간다. 집에 남은 여자들은 장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였다.

못자리를 파기 이전에는 ‘지관’을 불러 미리 적당한 자리를 정해 두었다. 그러나 자신이 죽기 전 미리 장지를 정해 다섯 자 정도 광증을 파 두었던 고인도 있었다. 광증을 팔 때는 단순히 흙만 파두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판 자리에 단단히 회다지를 해 둔 다음 모래로 메꾸어 짐승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장지가 미리 준비되어있을 경우 고인이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노고를 크게 덜어 주었다.

**면답자** 예전에 그 묘를 파는 것은 그거 이제 지관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면답 참여자** 옛날에는 지관을 꼭 불렀죠.

**면답자** 3일 동안에 한쪽에서는 지관 불러서 묘 자리를 봐야 되고 미리 봐두면 괜찮은데?

**면답 참여자** 근데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여유 있고 하면 거의가 다 봐 놓고 미리 광증을 파서 완전히 만들어 놓죠. 완전히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면 가서 흙만 짝 견어내면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시방들은 누가 그것을 해요 안 해놓죠.

**면답자** 광증은 여기서는 몇 자나 봤는가요?

**면답 참여자** 대개 하여간 뭐 여섯 자들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들 파나, 한 다섯 자 정도 파면 잘 파는 것이지.

**면답자** 미리 파서 두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 두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묘를 써 놓나요?

**면답 참여자** 그거 이렇게 미리 광증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과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달이까지 다 해서 짝 이렇게 못으로 빼 놔. 그러니까 회달이를 해서 다 해 놓았으니까 튼튼하지 뭘 그게 튼튼해요 굳어서요. 그걸 거기다가 원칙

은 모래로다 싹 메꾸는 거야. 모래로 갖다 싹 메꾸면 일이 필요하지 않고 모래만 싹 파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시방 그것 해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년엔가 여기 95살인가 잡순 양반 돌아갔을 적에 그 양반은 자기가 해 봤다가 그냥 그것을 쓰고 갔죠.

상여는 마을 공동의 자산이었다. 오늘날에는 잡일이 많아 상여를 잘 쓰려고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상여를 마을의 큰 보물이라고 여겼다. 부잣집에 장사가 났을 때 마을 상여로 고인을 잘 모시면, 그 집안에서 큰돈을 기부하거나 ‘채일(차일)’과 같은 공동 물품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차일은 잔치 등이 있을 때 마당에 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요긴한 물건이었고, 그것을 빌려주는 것은 반가운 부조가 되었다. 또한 소상과 대상을 치를 때도 마당에 차일을 치는 등 잘 활용하였다. 삼년상을 치를 때에는 소상과 대상을 중요한 의례로 쳤었다. 소상이란 조상이 죽은 후 만 1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대상은 조상이 죽은 지 만 2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유가족이 소상과 대상을 치를 때에도 마을 사람들은 조문을 와서 인사를 하고 다녀갔다.

**면답자** 상여는 마을 재산으로 있었던 가요?

**면담 참여자** 그럼요. 부락 재산이죠. 공동재산으로다가 그냥 저 기금을 마련해서 옛날에는 그게 아주 부락에 큰 재산이고 보물이거든요. 그건 왜냐 여기에다 해가지고 부잣집에 장사가 한 번 났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잘 모셔드리면 그 집에서 상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채리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천막이지 뭐야. 채리 같은 걸 그 사람이 그 부락에다 기증을 하나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면 3년 상은 분명히 소대상을 치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상 치를 적에 그 채를 쳐서 놓고서 마당에다 쳐 놓으면 그 집에서 소상 치르는 날 제사 지내고 사람들이 다 와서 조상하고서 재물 풀어서 거기서 대접하고 하느라고 채를 쳐 놓는다 말이야 마당에다 그게 큰 부조였었고 그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동네에 하는 것이 풍습이었죠. 많이들 했죠.

**면답자** 소상 대상 치를 때 항상 마을 사람들 대접을 했었나 봐요?

**면답 참여자** 그리고 또 의례 조상을 가지들. 뭐 먼 데 있는 일가도 물론 오지만 일가는 먼데 있어도 소제상에는 전부 지내러 가고 이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도 뭐 한 부락 사람이면 당연히 가고 그 외에 발 넓은 사람은 먼 데 있어도 언제든지 소대상은 초상 날 적만큼은 못 오지만 많이들 와서 인사를 하죠. 그 기억을 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적어 놓았다가 오늘 누구네 소상이다 그러고서는 (저기다들) 조상 드리러 오는 거죠.

마을에서는 공용 유기그릇을 마련하였다. 뱅뱅두리라는 놋으로 만든 국수 그릇이 대표적이었다. 사기접시도 있었다. 그러나 상여가 없어지면서 놋그릇, 사기접시도 모두 사라졌고 마을 공용 그릇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뀌었다.

**면답자** 부락에서 그럼 그릇도 갖고 있었나요?

**면답 참여자** 그럼요. 동네 유기 뭐 다 있었지.

**면답자** 접시 같은 것은 뭐로 썼었던 가요?

**면답 참여자** 접시는 그대로 사기 접시로 썼죠. 뱅뱅두리나 이런 것은 놋대접은 그 옛날에 있던 것인데 도저히 관리나 이걸 닦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저절로 없어진거야 그제.

**면답자** 스텐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그랬겠네요?

**면답 참여자** 그렇죠. 그 스텐으로 이제 바뀌었었죠. 그것도 없어지고 전부다 그냥 상여 없어지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말았죠.

**면답자** 뱅뱅두리라는 것은?

**면답 참여자** 국그릇이야. 옛날에 놋그릇에 그리고 국그릇보다 좀 큰 뱅뱅두리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큰 대접, 국그릇보다 더 위야. 뱅뱅두리 같은 데에는 이렇게 저 집단생활 식사들 하는데 여럿이 다 먹고 나서는 공동으로다가 송넵이나 물, 뱅뱅두리에 떠다 대접을 하는 것이지.

**면답자** 그럼 거기서 떠서 이렇게 자기가 먹는단 말이네요?

**면답 참여자**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다들 사람들 많이 식생활들 가족들이 할 적에는 각자 물을 떠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뱅뱅두리에 떠와라 그러면 그때는

술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송늬를 만들어가지고 뱅뱅두리에다 큰 거에다 떠다 놓으면 거기다 그릇 하나 띄워 놓으면 거기다 퍼서 각자들 퍼서 먹는 것이지.



<그림 3> 밀양 박씨 공간공파의 시제를 지내는 사당

제사음식으로는 북어포, 조기, 닭고기 적, 돼지고기 적, 나박김치를 올렸다. 밀양 박씨 공간공파는 시제를 연중 음력 시월 초이튿날 일영리 사당에서 모신다. 입향조 박 건은 500여 년 전 일영리에 들어왔다고 한다. 종손인 박성희 씨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족보를 정리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일을 도맡아 했고 현재도 이를 하고 있다.

## 나. 남면 매곡리(맹골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매곡리는 양주 남면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동쪽으로 신산리·구암리, 서쪽으로 파주시 적성면, 남쪽으로 광적면 효촌리, 북쪽으로 신암리와 접해 있다. 매곡리는 매골, 맹골, 매곡이라고도 불리는데, 땅이름 유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① 높은 산 밑에 자리 잡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 ② 마을이 ‘매화가 떨어지는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 ③ 마을이 매의 모습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혹은 마을 북쪽에 있는 매봉재에서 유래), ④ 과거에 큰 매화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 ⑤ 이곳 출신인 백인걸을 맹자와 같은 성현으로 칭송한다 하여 ‘맹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sup>15)</sup>

매곡리라는 땅이름이 문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대한제국기이다. 구한 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이곳을 적성군 남면에 소재한 매곡리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적성군 남면이 모두 연천군 남면으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매곡리에 양주군 석적면의 효촌리 일부를 합하여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 실려 있다. 행정 구역 개편 당시 남면의 면소재지가 이곳(311-1번지 일대)에 있었다. 일본의 군사측량지도(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발행, 1915)에 이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이후 1945년 9월 미군정 포고령 제22호에 따라 파주군에 속하였다가, 1946년 2월 남면 주민들의 요청으로 양주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마을 앞으로 비룡천이 흐르며 뒤로는 산지가 자리잡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북구리, 맹골 등이 있다. 북구리는 사촌리 북쪽 골짜기에 있

15) 양주시 남면의 역사 흥범기 저 2004 대화인쇄소

다 하여 북곡리라 불리던 것이 발음이 변화한 것이다. 맹골은 매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이며 큰말이라고도 한다.<sup>16)</sup>

마을 호수가 가장 컸을 때가 50호 정도였다. 큰말(매곡리)이 현재는 60호, 과거에도 100호보다 적었다. 매곡리 세대수는 100세대 정도 되는데, 북구리(부곡) 근처에 있다.

맹골마을(큰말)은 백씨 양반마을이었다. 마을에 수원 백 씨(水原 白 氏) 선조의 묘가 20대까지 있으며 20대 선조는 백학면에 묻혔다. 마을의 역사는 약 500~6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동안 백 씨집안만 살았고 타성은 몇 호 없었다. 입향조가 마을에서 살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선산은 마을 주변에 전부 있다. 예전에는 마을 주민 중 대부분이 백 씨였으나 현재는 백씨가 절반이 안 된다. 젊은이들이 특히 취직 등의 이유로 외지로 나갔다. 마을에 사는 백 씨는 별자공파와 휴암파이다. 휴암파는 몇 집 정도이며, 별자공파가 대부분인데, 면담 참여자 백영렬 씨도 별자공파이다. ‘백수현 가옥’은 별자공파인 백수현이 지은 것이다. 그는 서울대 수의대를 나와서 농사를 짓다가, 남문중학교의 교사를 하다가, 화주 양주 선거구 공화당 사무국장을 지냈다고 한다.

마을은 사람들은 대부분 생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같은 성씨 내에서도 소작농이 있었다고 한다. 논과 밭의 비율은 60:40정도였다. 예전에는 천수답이 많았으나 현재는 없다. 땅 밑에 샘물이 있는 옥토였지만 경지정리 이후에는 빠지는 논이 없다. 매곡리에서 가장 높은 산은 감악산이다. 그러나 감악산이 깊은 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라고 한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비가 와야만 모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정부에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다. 남

---

16) [네이버 지식백과] 매곡리 [Maegok-ri, 梅谷里] (두산백과)

면에만 저수가 총 3~4개가 되어서 현재는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을뿐 더러 홍수도 잘 나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

못은 없었는데 대개 지역 지역에 물 나는 데가 있어요. 우물이 나가지고 우물이 있어서 그것을 인력으로 펴서도 내고 자연적으로 나서 내. 그런데 가물면 자연적으로 그제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자주 펴서 적시고 이려고. 옛날에 농사를 짓는 것은 한 마지기에 두 섬 나면 아주 크게 잘 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한 마지기에서 4섬 5섬까지 나는 데요. 옛날 농사야 정말.

여기 앞에 도랑이 있는데, 우리는 산이 큰 높은 긴 산이 없어서. 감악산이 제일 높고 그 감악산이 골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관광지 같은데 장흥 같은데 골짜기가 깊어서 물이 내려 흐르고 그러니까 개울 옆으로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지 지역은 산이 바터가지고 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수지를 막아주었잖아요. 그래서 저수지가 우리 남면에 많아요. 감악산 밑으로 동쪽으로 하나 있죠. 또 효천지라고 그 앞으로 있고 저수지가 우리 남면에 이쪽에 하나 있고 저 동쪽에 하나 있죠. 또 여기 효촌리라고 그 앞쪽에 있고 그러니까 저수지가 우리 남면에 3개 4개가 되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마을 당제로 산제사를 지냈다. 음력 3월, 10월 초순(3~5일)으로, 일 년에 두 번 지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은 뒷산에 마련된 작은 제당인데, 과거에는 산 위 쪽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절 가까이로 옮겼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지내며 마을 굿은 없었다. 제사 음식으로는 생 소머리, 삼색 과일(사과, 배, 대추, 밤), 밥, 시루떡 한 시루, 술(제주, 청주)을 쓴다. 소머리는 제사를 지낸 후 삶아서 마을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밥은 생쌀로 올리지 않고 술 찌로 밥을 미리 해서 가져오며 떡은 시루에 올려서 가져온다. 음식은 마

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각각 준비해 온다.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 제사 날짜를 잡은 날로부터 제사를 지내는 날까지 외부 출입을 금했다. 제사는 밤 11~12사이에 지낸다. 음식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끼리 나누어먹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챙기지는 않는다. 마을에서 일 년에 한 번 있는 회의 때 제사 경비(회비)를 돈을 걷어서 제사 비용을 마련한다.

정월대보름, 단오 때 놀이는 없었으며, 척사대회만 있었다. 단오 때 그네 매기가 있기는 했으나 다른 마을에 비해서 작은 규모였으며 현재는 사라졌다. 농악도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이 없다.

## (2) 매편리(매편골마을) 토박이의 삶

일정 때는 농사지은 곡식을 전부 집안을 뒤져서 가져가기 때문에(공출), 많은 사람들이 쌀가마를 산에 숨겨서 보관했다. 일정 때 백씨 살림은 어려웠다. 면담 참여자인 백영렬 씨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소개한 매편마을 총무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덕으로 찾아가서 면담하였다. 그는 1932년생이며 이 마을에서 태어나 공직 생활과 농업을 병행한 분으로 면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쳤으며, 솔직 담백하게 지난 생활과 일생의례에 대해 말씀해주었다.

백영렬 씨 증조할아버지가 한학자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면담 참여자의 집이 '선생님 덕'이라 불리곤 했다. 면담 참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정성 신씨) 슬하에 큰형님과 둘째형님, 자신 이렇게 3형제가 함께 북구리에 살다가, 면담 참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현재 매편마을의 집으로 옮겼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남면 서무소 서기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징집을 안 당

하기 위해 도망 다녔는데, 그 와중에 장티푸스를 앓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어머니에게 장티푸스가 옮겨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큰 형님은 파주 경찰서에 재직하였으며, 어느 날 아침 참모회의를 하다가 고혈압으로 58세에 별세하셨다. 작은 형님은 포천 영북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면담 참여자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경북 합천에서 총알 파편을 맞고 병원에서 일주일동안 치료받다가 다시 경주 비약산에 파견 돼 사흘 밤을 새워 싸웠다. 전진 중 총알 파편을 손가락에 맞고 부상당해 넷째 손가락을 잃었으며, 1952년 제대하였다.

상이군인으로 전역하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이후로부터 남면에서 공무원 생활을 정년퇴임 시기까지 했다. 그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는 1952년 서울 수복 후 면사무소가 불타있는 상황이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부곡리 개인 사랑방에 면사무소를 새로 차려 일을 보곤 했다. 업무는 퇴비, 피사리, 논두렁, 잡무지도가 대부분이었다. 당시의 월급은 크게 넉넉하지는 않아서, 아내가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면서 생계에 보탬이 되었다.

30여 년 동안 면사무소에서 일을 보던 와중 상사로부터 사표를 쓰고 면장직을 맡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곧 1980년 7월 12일 면장으로 발령받았고, 신산리 전주 이씨 종손 총무로부터 1200평 땅을 시사 받아 1981년 새로운 양주 남면 사무소를 세우는 데 크게 역할을 하였다. 따지고 보면 그는 1953년 4월부터 1992년까지 38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셈이다. 백영렬 씨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남한테 욕먹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친구에게도 이눔, 저눔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야, 자 소리를 하며 말을 낮추지 않았다고 한다. 슬하에 3남 1녀를 낳았으며, 외증

손을 봤다.

**면담 참여자** 수복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가 타 버려 가지고 부곡리 개인 사랑방에다 면사무소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일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주민 남면 면민들이 그래도 면사무소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전부 조금씩 조금씩 내어가지고 그냥 목재로 해가지고 그전 면사무소 자리에 지었죠.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내가 이제 계장 되고 부면장이 되었는데 한번 별안간 군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사표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사표를 쓰냐고 그랬더니 써야 된다고, 내가 사표 쓰게끔 된 뭔지 잘못된 것을 알아야 쓰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중에 웃으면서 사표 쓰면 군수실에 들어가서 면장 발령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실제 면장을 한번 해 본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계장을 하는 것도 직원에게 양보까지 다 했어요, 한번. 나 계장 시키는 것을 나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을 시키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양보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계장하라고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장까지 했는데. 면장이라는 것은 해 볼 생각도 안했는데 면장 발령을 딱 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실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그래도 준비라도 좀 하잖아요. 별안간 발령 받고 나오니까 여기 오라, 저기 오라, 가면 인사만 해라 뭐 해라 하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되었다가 별안간 발령을 받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한 반 년 동안 혼났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일은 또 많이 했어요. 발령받고 나니까 그전에 지은 면사무소가 그냥 흠뻑으로 외벽을 쳐서 만든 거니까 겨울에 춥죠. 또 오래되니까 낡아서 비도 새지. 거기에서 그전에 뭐 잉크 짚어서 했던 때인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나가면 잉크가 다 얼어있어요. 그래서 녹여서 쓰고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면장 발령 받고 군수한테 가서 면사무소 지어달라고 했더니 그래 지어줄게, 부지만 선정하라고 해서. 부지 선정하면 해준다고 해서 내려 와서 그 즉시 여기 심산리에 전주 이 씨네가 땅이 많아요.

**면담자** 거기는 전주 이씨가 많이 사나요?

**면담 참여자** 네. 거기 종손 총무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야, 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지만 마련하면 면사무소를 지어준다고 하는데 너희 땅이 많은데 여기 좀 다오, 회사 좀 해라. 글썽 그게 어렵다 어렵다 자꾸 그래. 친구가 하나 총무예요 전주 이 씨네 종중에. 그래서 내일 올게 하고 와 가지고 또 장소도 마련하고 어느 장소 좋은데 택해야 되겠고 장소 뭐 이런 거 좀 생

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이튿날 또 가서 얘기 했죠. 어디 쓰지 못하는 땅인데 농사도 못 짓는 땅 있지 않냐, 거기 한 1500평만 내 놓아라. 그래가지고 얻었어요. 그 친구가 야, 네가 면장이니까 내주지 그렇지 않으면 줄 택이 없다. 그래서 그 종종 종손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받아서 제출을 했더니 예산을 딱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80년 7월 12일자로 면장을 발령을 받았는데 그 해에 착수를 했어요. 81년에 준공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현 위치가 양주군에서도 그런 장소가 없어요. 남면 사무소처럼 이렇게 장소 넓게 잘 지은 게. 그때 1500평 회사를 받아 가지고 면사무소 짓고. 그리고 또 홍우준 씨라고 의정부 ( ) 거기 얼마 전에 돌아간 분 홍우준 씨라고. 홍우준 씨가 그때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인데 그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나를 찍어주어서 1등하는 면은 내가 1억 상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면장 얘기를 주민들이 잘 들었어요, 내 얘기하면. 지금은 뭐 어렵도 없지만. 그래 가지고 얘기했더니 주민들이 해 보자 해서 정말 남면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억 받아가지고 남면 중고등학교 그때 체육관을 그 자금으로 지은 것이예요.

### (3) 매곡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면담 참여자 백영렬 씨의 아내(송영의 씨)가 아이들을 낳을 때는 시어머니와 친엄마가 산파역할을 하였다. 큰 아들의 경우 산달 근처에 친정으로 가서 낳았지만 그 아래 다른 아이들은 평소 사는 집에서 낳은 다음 친정에 데리고 갔다. 태줄은 잘라서 장작으로 불을 내 태웠다. 아이가 출생하면 금줄을 매달았다. 남자아이의 경우 숯과 고추, 소나무를 넣어 왼새끼를 꼬았다. 여자아이의 경우 다른 것은 동일하게 하였으나 고추를 뺐다. 면담 참여자는 따로 100일 잔치를 챙기지 않았다. 돌잔치는 했는데, 백설기, 수수팥

떡, 명주실 한 타래, 공책, 연필, 돌 사진을 상에 올렸고 집에 있던 카메라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카메라가 없는 이웃들의 경우 보통 사진사를 불렀다.

## (나) 혼례

백영렬 씨는 1951년에 제대를 하고 1954년 혼례를 올린 후 맹골마을에서 계속 살았다. 어느 날 외사촌 형수가 불려서 가보았더니 장인, 장모가 이미 와 계셨다. 형수가 증매를 서 준 것이다. 그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바로 혼담이 오갔다. 장모님이 아름다우셔서 “딸이 엄마를 닮았겠지,” 생각하고 승낙하였다고 한다. 혼담이 오가고 6개월 이후에 혼례를 치루었으며, 그 사이 왕래는 따로 없었다. 더욱이 면담 참여자 또한 면사무소에 취직한지 얼마 안 되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약혼식은 따로 없었으며, 신랑 측에서 사주를 보내면 신부 측에서 날을 잡았다.

결혼식 당일에는 아침식사를 하고 신랑집에서 출발하였다. 둘째형님을 후행으로 세워서 같이 갔다. 가마를 메는 남자 둘도 함께 따라왔다. 함재비와 사모관대를 지고 가는 사람도 하나씩 따라갔다. 가마는 집에서 떠날 때 조금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걸어서 갔다. 신부집 근처에 도착해서는 다시 가마에 탔다. 말이 있는 집에서는 신랑이 말을 타고 갔지만, 백영렬 씨네 집에서는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가마는 마을에서 대여를 했으며,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사모관대도 마을에서 대여할 수 있었다. 명석과 채일, 교자상 또한 몇 십 개씩 빌렸다. 다른 집처럼 함을 지고 갈 때 장난치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아침에 신부집에 가서 예를 올렸다. 처가는 파주 적성면으로, 고개를 넘으면 바로 나왔지만 6km 정도로 꽤 거리가 있었다. 사모관대는 처가네 마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마련한 가림 공간에서 갈아입었다. 사모관대를 지고 가는 사람을 하인이나 샌님이라고는 부르지 않았고, 따로 이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 기러기를 가지고 가면 아주머니가 초례청을 차려 그곳에 올려다주셨고, 예를 드리는 곳으로 가서 준비를 하면 신부가 방에서 나왔다. 이웃 아주머니가 반절, 절하는 것 등등을 안내해주었다. 예는 앞마당에서 올렸으며, 대문 쪽에 남자, 집 쪽에 여자가 섰다. 수탉, 암탉을 도와주는 분들이 잡고 있고, 상 위에는 과일, 생쌀, 떡 등을 올렸다. 남자는 두 번 반 절을 올렸고, 여자는 절을 한 번 더 했다. 예를 마치고 장인, 장모께 큰 절을 드렸다.

교배례, 합근례가 끝나고 사모관대 옷은 벗고 점심을 먹었다. 신랑은 처남들 등 신부네 가족들과 함께 상을 받아 식사를 했다. 후향으로 따라온 형님은 색시의 큰오빠와 함께 앉아 다른 상을 받아 식사를 했다. 혼례식의 부조는 떡 한 그릇, 막걸리 한 통 등 물건으로 받았다. 잔치음식으로는 국수와 반찬이 차려졌고, 4명씩 앉을 수 있는 교자상에서 식사를 했다. 잔칫날에 먹었던 국수는 밀가루 반죽을 기계를 돌려 면으로 민 것으로, 공장에서 만든 것을 구입해 조리했다. 국수 공장은 우시장으로 유명한 상수리 시장(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 있었던 입암시장, 혹은 갯바위 시장으로 추측됨)에 위치하였다.

잔치에 온 친척들한테는 따로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신랑집으로 돌아왔다. 신부는 신부네 마을에서 준비한 가마를, 신랑은 신부집에 올 때 타고 왔던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오후 신랑집에 도착하니 오후 세네시 쯤 되었다. 신랑집에 도착하여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부가 준비한 음식으로 폐백을 했다. 시부모님께서 신방은 따로 준비 해두셨고, 신부가 가구, 이부자리, 입을 옷(치마, 속옷) 등을 구비해 와서 신방을 채웠다. “버선을 열, 스무개 많이 해가져 왔죠. 옷을 오래도록 입을 수 있게 한 가지 옷이라도 여러 개, 봄, 가을, 겨울용으로 몇 개씩 해서 해오고 그랬죠.” 신랑 신부가 맞는 첫날밤은 이웃들이 문구멍을 뚫어서 구경하는 풍습이 있었다. 첫날밤을 보낸 바로 다음날 신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혼례식 이후 한 달이 지나기 전 면담 참여자의 아내는 친정으로 근친을 다녀왔다. 삼일도배기는 다녀오지 않았다.



<그림 4> 백영렬 씨 처조카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1960년대)



<그림 5> 백영렬 씨 처조카 부부의 대례상 (1960년대)



<그림 6> 백영렬 씨 처조카 대례식 모습 (1960년대)



<그림 7> 백영렬 씨의 육촌 시누이 대례상 (1960년대)

## (다) 축수연

환갑잔치 때는 마당에 상을 펴 과일을 쌓아놓고, 아들이 잔을 올려 절을 했다. 환갑잔치 상에는 부모님 뿐 아니라 다른 친척 어른들도 함께 앉을 때가 있었다. 외부에서 행사 진행을 돕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한 명 불렀다. 부조금을 음식으로 받았다. 환갑잔치를 하면 칠순잔치는 안하고 팔순잔치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덤으로 산다고 해서 부조를 받지 않았다.



<그림 8> 백영렬 씨 작은 할머니 칠순잔치 (1970년대)



<그림 9> 백영렬 씨 본인 칠순잔치 (2000년대)

## (라) 상장례·제례

대개 몸이 아파 돌아가실 분은 임종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족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백영렬 씨의 아버님이 1976년 돌아가실 때, 숨소리가 끊어지는 것이 나타나 고인의 죽음을 마음 속으로 준비하였다. 고인이 사망한 직후에 사자밥을 헌 소쿠리에 7그릇 차렸다.

백영렬 씨의 가족은 집안 사람들이 직접 염을 했는데, 아버님의 경우 6촌 동생 중 잘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분께 맡겼다. 숨을 하기 전 발이 벌어지지 않게 끈으로 단단히 묶었던 것이 기억이 남는다고 한다. 옷을 벗기고 솜으로 몸을 살짝 닦은 후 수의를 갈아입혔다. 염을 마친 다음에는 관 안에 칠성판을 깔아 그 안에 모시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그 앞에 병풍을 쳐놓

은 채로 사랑방에 빈소를 차렸다. 손님 대접은 장사지내는 날까지 하였으며, 밥과 술과 부침개, 반찬거리 등을 차렸다. 국수는 대접하지 않았다.

발인을 하러 관을 마당으로 옮길 때 상여는 머리부터 나갔으며, 나갈 때 바가지를 부수는 풍습이 있었다. 발인 후 노제를 지냈다. 손서래꾼은 마을에서 잘 하는 사람이 담당하였는데, 회다지 노래를 불렀다. 상여꾼은 옛날에는 아랫사람들이 와서 해주었지만, 백영렬 씨 부친 장례 때에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 구별 없이 참여하였다. 여자들은 못자리까지는 따라가지 않고 발인한 후 집 앞에서 헤어졌다. 아주 옛날에는 관을 잘 짜고 곁에다 회칠을 해 썩지 않게 하였는데, 백영렬 씨 때는 퇴관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상청은 집안 마루에 매일 아침에 한 번, 밥과 술 한 잔으로 올렸다. 3년상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신주단지를 마련하였는데 신주단지는 마루 한 쪽에 자리를 만들어 모셨다.

기제사는 4대 봉사를 했으며, 고인이 돌아가신 날 뿐 아니라 명절날에도 지냈다. 산적, 약과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두부와 소고기 적이 올랐으며, 물고기는 통으로 된 북어포와 조기 자반을 한 마리 구워서 올랐다. 탕은 육탕, 어탕, 소탕(다시마 육수) 세 가지가 올랐다. 김치와 장이 상에 올랐다. 떡은 시향에는 편으로 올랐으며, 기제사에서는 인절미 등으로 올라왔다. 제사상의 음식은 관략이라 해서 차곡차곡 쌓았다.

백영렬 씨의 가족은 5대 봉사까지 시향을 지낸다. 1년에 한 번 10월 중에 시향을 지내며, 포, 대추, 밤, 사과가 필수적으로 상에 올랐다. 시향(시제) 때에는 20대 이후 선조들의 제사를 각각의 묘 앞에서 지낸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종손 50~60명 정도 모여서 지낸다. 종손은 마을 근처에도 있고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연천군

## 연천군

### 지역개관

면적	676.32km <sup>2</sup>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2읍 8면
인구	2019년 1월 기준 44,542명
인구밀도	66.14명/km <sup>2</sup>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연천읍과 청산면이 포천시와 접하고 있다. 서쪽은 장남면이 파주시, 북쪽은 신서면이 황해도의 금천로 및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전곡읍 간파리가 동두천시와 경계를 이룬다. 차탄리, 양원리, 통현리, 학곡리 일대에서 고인돌이 다수 발견되어 연천읍에는 고인돌 공원이 조성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3대 성이라고 알려진 은대리성, 당포성, 호로고루(장단석벽 위에 조성된 성터)가 중요한 유적지로 손꼽힌다. 연천의 한탄강, 임진강 유역에는 포구와 나루들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으로 장남면에 고랑포는 조선시대는 물론 한국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임진강변에서 가장 번창했던 포구로서, 1930년대에는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임진강 수운의 종점을 이루어 문산(汶山)과 함께 농산물을 운반하는 주요 항구의 기능을 지녀왔다. 고랑포가 있는 임진강 중하류 지역의 강가 곳곳에는 절벽이 많고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였다.

고려시대 현종 때 대대적인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따라 연천의 장단현(現 장남면)이 개성현과 더불어 최초의 경기제를 구성하는 중심지역이 되었다고 한다. 1309년(충선왕 1)장주의 이름이 바뀌어 오늘날의 지명인 연천(漣川, 漣州)으로 개칭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에 수차례의 행정개편 끝에 1907년에 철원군의 일부가 병합되어 연천군이 되었다.

토지의 60.9%가 임야이고 19.8%가 경지로 경지 중 논은 5,537ha, 밭은 7,852ha로 농업용수는 백학저수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쌀·보리 등 주곡 이외에 잡곡·고추·담배·배추·무 등이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용암대지를 개발하여 사과·배·복숭아 등과 같은 과수재배와 인삼재배가 활발하다. 연천은 예로부터 콩과 소의 집산지로 이름나있었으며 특히 콩은 연천태라 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23.4%이고 제조업 인구는 2.9%이다. 과거에는 석탄·강옥 등이 생산되었으나 최근에는 폐광되었으며, 현무암을 원료로 하는 돌절구·멧돌 등이 연천읍과 전곡읍에서 생산되고 있다. 주요 광산물로는 규석과 석회석이 생산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로 도시 지역 내의 산업이 교외지역으로 이전되면서 한탄강 주변으로 많은 수의 공장이 이동, 입지하였다. 주요 공업은 비금속 공업·식품 공업·조립 금속 공업·섬유공업 등이다.

상업 활동은 연천장이 2·7일, 전곡장이 4·9일 등 5일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쇠퇴하였으며 전곡과 연천에는 상설시장도 열리고 있다. 정기시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도시에서 생산된 일용품·의류·해산물·곡류 등이 교류되고 있다. 전곡에는 우시장이 4·9일에 열리고 있으나 매매량은 많지 않다.<sup>17)</sup>

---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가. 백학면 두일3리(발악동)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연천군 백학면은 연천군의 남서부에 위치한다. 동쪽은 미산면, 남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하여 파주시 적성면, 서쪽은 북한 지역에 속한 장단군, 북쪽은 왕징면과 경계가 된다고 한다. 두일리 · 통구리 · 노곡리 등 21개 법정리를 관할하며, 우금리 · 오음리 등 8개 면은 휴전선 북쪽에 위치한다. 백학면(白鶴面)은 본래 적성현(積城縣) 지역으로, 옛 적성관아에서 북쪽에 위치하므로 북면이라 하여 8개 리를 관할하였다.<sup>18)</sup> 현재 21개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13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 수복지역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주민이 민통선 남방에 거주하며 6개리 260여 가구가 민통선 북방 지역에서 출입 영농을 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콩·보리·채소 등이다. 두일3리(발악동)에는 한국전쟁 전에도 12여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수복 후 몇 집이 더 들어와 20여세대가 살게 되었다. 수복 전 살던 사람들은 모두 나갔으며, 조씨네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모두 새로 들어온 집들이다. 두일리는 3리까지 있는데, 조한선 씨가 거주하는 두일3리는 농협이 위치한 두일리의 중앙이다. 발악동은 ‘필 발’에 ‘뫼뿌리 악’자를 쓴다.

---

18) [네이버 지식백과] 백학면 [白鶴面, Baekhak-myeon]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12.,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1> 두일 3리 마을 전경



〈그림 2〉 두일 3리 마을 전경

두일리 옆에 중학교가 있고, 조금 올라오면 어린이집이 있다. 구장거리는 옛날에 장이 섰던 곳이라 해서 구장거리다. 장거리는 과거에 임진강물이 범람하던 침수지역 이었다. 구장거리에 있다가 침수가 잦자 유아원 앞으로 장터가 옮겨갔고, 한국전쟁 전까지 그곳에 있었다. 우전마당이 과거에 아주 컸다. 이북(황해도)에서부터 와서 한양으로 가는 데까지 가장 큰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이북에서 소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한번 쉬 다음, 갓바위(양주)에서 한 번 더 쉬고 한양으로 넘어갔다. 두일리는 과거에도 인구가 많았다. 옛날 노인네들이 이야기하기를, 장단거리는 고려 말에 소나기가 와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기왓집이 많았다고 한다. 그만큼 성황 했고, 두일장터로 이름이 나 있다. 지금은 3~4km거리에 삼팔선이 걸쳐 사라졌다.

**면담 참여자** 저수지로 넘어왔으면 왼쪽 동네 거기가 장터야 옛날에. 거기 우전 마당이 컸어요. 왜 컸냐하면 이북에서 소를 사 가지고 넘어와서 한양으로 가는데 여기가 길목이야. 황해도 어디라고 그러더라. 노인네들이 그러는데, 거기서 이북 소를 끌고 나와서 장사꾼이 여기 와서 쉬고 갓바위 그러니까 양주 거기 가서 쉬어서 서울까지 간 거야. 장사꾼들이 소를 몰고. 남면에 갓바위가 우시장이 컸어, 그전에. 그래가지고 그때 성동인가 어디로 나간거야, 소시장으로. 그러니까 황해도에서 소를 끌고 여기 와서 한번 팔고 쉬고 넘어가서 거기서 서울로 나가는 그런 여기가 요지였어요. 그전에 우시장 최고 컸다고.

**면담자** 여기 옛날 인구가 많았겠네요?

**면담 참여자** 여기 인구 많았지, 그전에도. 예전에도 컸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쪽으로 개성 넘어 가는 길이 있어요. 장단 넘는 고개라고 옛날 노인네들 걸어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옛날 노인네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장단 넘어가는 고개라고 여기서 넘어가려면 한 4기로 안될 거야 한 3기로 되는데 고려 말 때 거기가 소나기가 와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여기 장에 왔다가 넘어 갔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기와집으로 아주 짝 깔려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장에 왔다가 거기 가더라도 비 한 방울 안 맞는 거야 추녀 밑으로만 다녀도. 그렇게 성황했던 동네라고. 두일장터가 이름이 난 거야.

**면담자** 이렇게 잘 살던 동네가 언제부터?

**면담 참여자** 그렇게 되면서 인공시대가 되었지 이북. 그전에는 왜정 때, 내가 그때 6.25 날 때가 아홉 살이니까. 내가 지금 일흔 여덟이야, 41년생이야.

두일리 사람들은 개성 부자들의 땅을 많이 소작하였다. 개성부자 박문규, 박성규, 한유동의 땅이 이곳에 많이 있었다. 타작을 할 때 노인네들이 "저놈새끼들, 우리들은 고기도 잘 못 먹는데, 배때기가 불러서 고기를 씹어서 국물만 먹고 건더기는 내 버린다"라고 욕하고는 했다. 수확물은 3-7제(3을 주고, 우리는 7을 먹었다.)로 배분하였다. 산비탈이니 밭도 많았다. 밭 또한

개성 부자들의 땅이 많았으며, 개인 소유도 있었다. 1950년대 경지정리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수복되고 나서 6.25가 나고 나서 삼팔선 이북 땅이었기 때문이다.

두일리 사람들은 농약을 쳤다. 젊은 사람들이 선생을 불러다 일을 하고 나서 들어와서 1시간, 2시간씩 배웠다. 농약은 10여 년 전까지 있었다. 현재 부녀회에서 행사 때마다 나와서 농약을 친다.

수복 후 발악동에 22세대가 살았는데, 조씨, 정 씨, 밀양 박 씨 이렇게 3개 성이 같이 모여 살았다. 한국전쟁 전 부터. 조한선 씨가 농사를 지을 때 쯤에 동네에서 두레를 만들었다. 모내기, 벼 타작, 추수 등이 모두 공동 작업이었다. 일을 못하는 할머니가 밥을 지었다. 반장이 몇 일 날 누가 나왔는지 기록해 일이 끝나고 품 계산을 하였다. 모두들 품 하나라도 더 나가려고 했다. 탈곡기는 처음에는 밭로 밟아서하는 수동식이었으나 다음에는 발동기를 걸어서 사람들 둘이 잡고 터는 식으로 했다. 세를 주고 사용했다. 소 달구지로 끌어와서 마당에서 세워놓고 새벽 3시면 나와서 타작을 시작하곤 했다. (빌렸기 때문에 그날 끝날 때까지 했다.) 그 다음에는 논에다 벼까리를 쌓아놓고 했다.

## (2) 두일리 토박이의 삶

백학면 부면장의 소개로 면사무소에서 만난 면담 참여자가 조한선 씨인데, 친절하게도 상세하게 본인의 생애사와 지역의 역사, 일생의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면담 참여자 조한선 씨는 1941년생인데, 그의 삶은 이 지역 토박이들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 조씨(平壤 趙氏)로, 이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5만 정도

밖에 안 된다. 두일리에는 평양 조 씨가 100여 세대 살아서 조가촌 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여기 넘어 북쪽으로, 현재 못 들어가는 곳, 갈현리 근처 방축골에는 한양 조 씨가 살았다. 갈현리를 3.8선이 잘라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 구미지, 새 등지마을 지나서 나루터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배로 건너다녔다. 두일리 사람들은 장사보다 벼, 보리, 콩 농사를 주로 생업으로 했다. 그 전에는 밀도 조금 심었다고 들었다. 이조시대 때 수도를 세우려다가 물이 적어서 못 했다고 전해지는 한양들이 근처에 있다. 밀양 박씨의 박진장군 묘도 두일리 땅에 소재한다. 옛날에는 조 씨가 양반 축에 들어서 집앞에 말을 타고 지나가면 혼쫓을 내곤 했다고 집안 어른들이 말하고는 했다.



<그림 3> 조한선 씨(1941년 생)

조한선 씨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1차 때는 노곡리에서, 2차 때는 백령리에서 피난생활을 했다. 1차는 강 건너 노곡리에다 집을 지어서 1년 살았고, 2차 때는 백령리에 집을 지어서 살았다. 백령리에서는 캐나다 군인이 주둔했는데, 학교라고 천막을 쳐 놓고 아이들을 가리키고는 했다. 높은 동네에 집을 치고 있다가 다섯 칸짜리 학교를 지어주었는데, 그곳에서 몇 년 살다가 조한선 씨가 그 학교를 졸업했다. 그가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초등학교가 두일2리로 이전해서 새로 지어졌다. 백령리에서는 10여년 살았다. 이후 원래 살았던 곳에 다시 돌아와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1.4후퇴 때 피란을 나갔는데, 조한선 씨와 어머니는 동생들과 함께 무건이라는 산골짜기 동네로 갔다. 형님과 아버지는 서울로 피난을 가서 나중에 서울에서 만났다. 당시 동생을 낳던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피난 간 송씨네 방 한 칸에서 동생 둘과 함께 머물면서 아이를 낳았지만,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다. 집 밖에서는 밤새도록 통탕거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나가 보니 중공군이 깔려있었다. 당시 조한선 씨는 아홉 살이었다. 그 날의 싸움이 파평산 전투라고 전해졌다. 겨우내로 눈길을 따라 할아버지를 쫓아서, 할아버지 등에 업혀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후 그 당시 모두가 철수를 해서 한 동네 다섯 가구가 모두 나갔다.

조한선 씨는 현재 부천 소사역 근처에 있는, 지금 무슨 은행 옆에 위치한 빈 집에서 근근이 살다가 아버지를 서울에서 찾아다녔다. 아버지가 이화여대 노무자에서 근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다. 한강 얼음판을 걸어서 서울로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 끌려나오기도 했다. 서빙고 파출소에 들어갔다가 얼마 안 되어 풀려났다. 아현동 이모네를 찾아가 며칠 있다가 공덕동37번지 삼촌네로 찾아 갔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삼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조한선 씨를 그곳에서 초등학교에 넣었다. “구구단을 외

위보라 해서 외웠더니 4학년에 넣었어.” 이후 조한선 씨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를 마지막으로 조한선 씨는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후 농사일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고, 다녀 오고 나서도 농사를 지었다. 큰 외삼촌 네가 형편이 아주 넉넉하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대대로 논 900평, 밭 900평 정도를 자작으로 지으셔서 그 땅을 물려받아 지금까지도 경작하고 있다. 5남매 중 조한선 씨만 혼자 못 배우고 고향에 남은 덕분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고향에서 모셨다고 한다. 27세에 결혼을 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조한선 씨 가족의 문중 토지 중 10만 평이 선산이며 12대가 묻혀있다. 선산이 워낙 넓어 꼬박 3일을 지냈는데, 초삼일부터 시제를 지내면 위에 다 지내고 발악동에 내려와서는 음력 10월 17일이 되는 식이었다.

### (3) 두일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두일리에 산부인과는 없었고, 산과 역할을 했던 보모 할머니가 계셨지만 조한선 씨는 4남매를 모두 직접 탯줄을 잘라주고 아이를 직접 받았다. 첫째 아들만 동네 의원에 가서 낳았다. 산모의 몸에서 나온 태반과 탯줄은 돌을 괴어놓고 나무, 짚 등을 불쏘시개로 하여 불을 놓아 태웠다. 태운 다음 개울에 가져다 뿌렸다. 조한선 씨의 어머니는 비위가 약해서 못하셨다. 탯줄을 10cm 정도 남겨두고 잘랐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금줄은 왼 새끼를 꼬아서 아들이면 고추와 숯을, 딸이면 솔가지를 걸어

매달았다. 귀신 들지 말라고 가시달린 나뭇가지를 꺾어 가로로 걸었다. 아내가 몸을 풀 때 동네 아주머니가 축하의 의미로 미역국을 끓여다 주기도 했다. 삼신할머니에게 아들을 점지해 달라 비는 것은 하지 않았다. 아이들 백일이나 돌은 모두 챙겨 잔치를 열어주었으며,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차리고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었다. 돌잡이도 했다. 마을에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밥 한 끼라도 잘 차려서 다 같이 먹었다고 한다.



<그림 4> 조한선 씨의 아들 돌사진(1968년)

## (나) 혼례

조한선 씨의 아내는 청송 심씨로 고개 너머 미산면에서 왔다. 중매는 그 집 오라버니가 작은어머니의 동생이어서 그 분을 통해서 했다. 오라버니와 작은 어머니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신랑에게 소개를 한 다음, 신랑이 색시를 보러 신부집에 갔다. 처음에는 부모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는 길에 신부 얼굴을 봤다. 밥을 먹고 가라고 했을 때 밥을 먹으면 혼인을 수락하는 의미로, 안 먹으면 거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밥 한 숟갈 먹고 데려왔어. 나는 우리 마누라가, 나 좋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1년을 기다린거야. 장인어른이 안 보낸다고 한 걸, 좋다고 해서 시집 보낸거야." 신부집에서 택일을 하면, 신랑집에서 생년월일이 적힌 사주를 써서 저고리를 하나 해서 사주단자에 넣어서 신부집에 보냈다. 함은 보통 잔치하기 전날이나 잔치하는 날 가져가는데, 조한선 씨는 장가가는 날 친구들이 함을 메어 주었다.

혼례식 날 조한선 씨는 아침밥을 일찍 먹고 친구들과 신부집으로 출발하였다. 그 마을에서는 흔히 빌릴 수 없었던 헌병대 짚차를 빌려 타고 갔다. 한 겨울인 1월 12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개울을 건너가다가 얼음이 꺼져서 차가 빠져 친구가 개울로 들어가 끌어냈던 것이 기억난다고 한다. 후행 샌님으로는 큰삼촌이 따라오셨다. 사모관대는 마을에서 빌려가서 신부집에서 갈아입었다.

오전 11시 쯤 대례식을 올렸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차에 내려서 가마를 탔는데, 가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네 조무래기들이 재를 몽쳐서 던졌다. 신부집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상이 차려져 있었고, 장모가 기러기를 가지고 나왔다. 그 때 신랑의 친구들은 함을 가져와 집안 어른께 전달하였다.

안방 마루에 있는 떡 시루 위에다 지고 간 함을 올려둔 다음 남자 어른이 속을 보지 않고 손에 잡히는 천을 뽑아 부부의 길운을 점쳤다. 대례상에는 과일, 생선, 닭 한 마리를 올렸다. 신랑은 두 번 반, 신부는 네 번 절하고 합헌주를 마셨다.

대례 후 식사는 한 상에 여럿이 모여서 같이 먹었다.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잔치는 양쪽에서 하루씩 열었다. 주요 상차림 음식은 국수였는데, 계란을 노랗게 부쳐놓고 썰어서 고명으로 올렸다. 떡, 과일, 고기안주 등도 함께 차렸다. 교자상을 20개씩을 폈는데, 교자상은 4명이 기본이지만, 5명도 앉고 6명도 앉았다. 숙수관이라고, 잔치음식을 상에 놓을 수 있게 접시에 담아주는 사람들이 주방의 업무를 도맡아 주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신랑은 양복을 입었고, 신부는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그림 5> 조한선 씨 결혼식(1967년)

식사를 마치고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랑집으로 갔다. 조한선 씨의 경우 운전수와 신랑과 신부, 몇 명만 지프차를 타고 오고 공간이 좁아 타지 못한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돌아왔다. 신부는 친정어머니가 마련해주신 폐백음식과 장릉, 솜이불을 마련해왔다. 집에서 심은 목화솜으로 만든 이불이었다. 8자 장릉은 서울시 장안동 전곡시장에서 구입했다고 했다.

삼일 뒤 신부의 친정집에 함께 가는 삼일도배기를 했다. 삼일도배기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음식을 싸 주셨는데, 반대로 신랑집으로 돌아오면서 친정어머니가 또 음식 보따리를 싸 주셨다. 그 때 신랑은 동네 젊은이들에게 발바닥을 맞았다. 신랑과 신부의 위치는 기억이 안 난다. 결혼식 대례 때 미처 하지 못했던 인사를 주변 친척들에게 했다.

#### (다) 축수연

조한선 씨는 아버님 환갑잔치와 어머니 팔순잔치를 집에서 해드렸다. 대추, 밤, 사과, 배, 감 등과 유과류, 약과, 옥춘, 호두, 잣 등 18가지 음식을 두 자 약 60cm 정도 괴어서 차렸다. 진편, 찰떡, 시루떡, 골무떡 등 떡도 두 어 가지를 준비했다. 골무떡은 상에 놓기 좋아 집안에서 상을 차릴 때마다 준비하였다고 한다. 백설기는 아이들 돌 때나 준비해서 놓지 않았다.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자식들이 순번대로 절을 한번 씩 했다.



〈그림 6〉 조한선 씨 장인(심씨) 회갑잔치(1974년)

## (라) 상장례

고인이 돌아가시면 처음에는 흥대라는 넓은 판에 몸이 뒤틀리지 말라고 붙들어 매놓아 모셔놓았다. 염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요를 놓고, 두루마기를 펴놓은 다음 그 위에 옷과 속옷을 놓았다. 옷 입는 순서에서 거꾸로 올려 쌓은 것이다. 7피, 7매듭을 묶었다. 옷으로 시신을 다 싰 다음에는 양쪽에서 발로 대고 잡아당겨야 했다. 베를 두 겹으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두꺼워 꽤 많은 힘이 들어갔다. 장인어른 염을 할 때는 이종 처남과 함께 했다. 보통 아들들은 염을 직접 하지 않았다. 판은 오동나무를 준비해서 상을 당한 날 마당에서 직접 짜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구입을 하기도 하였다. 옷감은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돌아가신 날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모여

서 옷을 지었다. 이들이 꼬박 걸렸다. 문상은 보통 입관을 하고나서 받았지만, 가까운 집안사람들은 그 전에도 와서 고인께 인사를 드렸다.

발악동에 상포계는 따로 없었지만, 쌀계들은 많았다. 상가집에 쌀 한말씩 들고 가서 점심 한 끼를 먹고 돌아오곤 했다. 상여를 메어주는 계는 따로 없었다. 상여는 수복 후부터 양반과 평민을 구별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끼리 함께 메었다. 많으면 열 사람 (한 쪽에 5씩)이 메었다. 상여놀이를 했으며 선소리도 매기고 달구질도 하였다. 발악동은 주로 퇴관을 많이 하지만 관을 좋은 것을 쓰는 경우 입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림 7> 조한선 씨 부친 상여 운구 행렬(1979년)



<그림 8> 조한선 씨 아버지 장례 매장 모습(1979년)



<그림 9> 조한선 씨 아버지 장례 매장 모습(1979년)



<그림 10> 조한선 씨 아버지 장례 매장 모습(1979년)



<그림 11> 발악동 꽃상여 보관 모습(2018년)



<그림 12> 발악동 꽃상여 장식(2018년)

## 나. 미산면 유촌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개관



〈그림 13〉 연천군 유촌리 전경

연천군 미산면은 북쪽은 왕징면, 서쪽은 백학면, 동쪽은 군남면에 각각 인접하고 남쪽은 임진강을 넘어 전곡읍과 마주보고 임진강 남안의 일부는 파주시 적성면과 경계한다. 농업이 주산업이며 쌀·두류·잡곡·서류 등을 산출한다. 특히 콩은 질이 좋기로 유명하였다. 전통적으로 교통은 지방도와 시·군도가 연천·전곡·적성 방향으로 통하는 데다가 임진강의 주운(舟運)이 있어 편리하였다. 조선시대 이후 마전군(麻田郡)에 속하다가 1914년 당시의 동면(東面) 전부와 서면(西面)의 3개리를 통합하여 연천군 미산면으로 개

칭하였다.<sup>19)</sup>

미산면 유촌리는 마을 중앙에 큰 버드나무가 있었다 하여 유촌리라 하였다. 본래 마전군 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구촌말(具村), 김촌말(金村), 남세미(木三洞, 木森洞), 다락말(樓洞), 두개모듬(二川洞), 두루갈이, 법흥동(法興洞), 사거리(四巨里), 삼포동(蔘浦洞), 작은장재울, 지내울 등의 자연부락이 있다. 구촌말은 미산면사무소 동쪽에 있던 마을로, 약 400년 전부터 능성 구씨(綾城 具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김촌말은 도룻말이라고도 불리우며 안동 김씨(安東 金氏)가 24대째 세거하는 곳이다. 두개모듬은 다락말 북쪽에 있는 마을로, 두 개의 개울이 한데 합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백석리의 독벼루개울과 왕징면 노동리에서 내려오는 개룽지개울이 이 마을 앞에서 합류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현재 김씨와 신씨가 섞여 살고 있다. 지내울은 두리산에서 길게 뻗어내린 산의 형상이 지네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인삼을 경작했던 삼포가 있던 마을로 영산 북쪽에 있었던 삼포말에는 송씨가, 지내울 이씨가, 두리방굴에는 최씨가 주로 살았다. 이 중 두개무덤은 윗마을, 사거리는 중간 마을, 두루가리는 아랫마을을 지칭한다.<sup>20)</sup>

## (2) 유촌리 토박이의 삶

면담 참여자 심재학 씨는 1952년에 유촌리에서 나고 자랐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을 나가 양주 남면 경신리, 덕도리 등지에서 살았다. 피난을 가던 시절에는 농사는 짓지 못해 품팔이를 하며 장사를 하거나 7사단

---

19)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2008

20) [네이버 지식백과] 유촌리 [Yuchon-ri, 柳村里] (두산백과)

장안 삼거리에 위치한 미군부대(심재학 씨는 ‘양놈부대’라고 표현)에서 근무하였다.

1955년에 연천이 수복된 후 백학면에는 1953년도부터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하였는데 유촌리에는 1962년부터 사람들이 다시 살기 시작하였다. 백학면은 수복된 연천 지역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귀환이 시작된 곳이라고 한다. 백학면으로 다시 돌아와 심재학 씨의 가족은 처음에는 군인들과 교섭을 해 농사지 경작을 하다가 움막을 짓고 살다가, 그 이후에 아예 들어와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그림 14> 면담에 참여해주신 미산면 유촌리 주민들: 이병창 씨(1937년 생), 심재학(1936년 생) 씨, 신동직(1945년 생) 씨, 송영우(1939) 씨, 정용재 씨(1943년 생), 신상섭 씨(1961년 생), 구본표 씨(1945년 생)

### (3) 유촌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유촌리 토박이 정용재 씨에 따르면, 아주 옛날에는 혼례 후 처가에서 3년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아이도 처가에서 키웠다고 하는데, 심재학 씨와 정용재 씨가 아이를 낳았던 195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풍습이 사라졌다.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몸풀기가 있었으며, 첫 아이 때는 친정에서 낳아오라고 해서 아내가 친정에서 삼칠일을 지내고 왔다. 금줄은 고추와 솔잎, 숯. 딸은 솔잎과 숯을 넣어 흰 새끼를 꼬아 만들었다.

백일상과 돌상에는 돌떡이 올라왔다. 수수팥떡은 액을 면한다는 의미를 담았고, 백설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잘 살라는 의미를 담았다. 돌잔치는 집 안끼리만 모여서 했으며, 아들을 낳으면 다 했지만 딸을 낳으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다. 백일 떡으로는 백설기를 만들어 이웃에게 돌렸다.

#### (나) 혼례

면담 참여자 송영우 씨는 서른 가까이의 나이였던 1970년대에 구식으로 혼인하였다. 연천읍 처가에서 대례를 올렸는데 화물차를 대절해서 신부집에 타고 갔다. 사모관대를 빌려서 입고 대례를 치른 다음 그날로 집으로 돌아왔다. 신부네 마을에서는 숯검정을 던지기, 돛자리 밑에 콩을 넣어 신랑이 넘어지도록 하기, 잣봉지에 고춧가루 섞어서 던지기 등의 장난을 했다. 정

용재 씨의 경우, 깻봉지에 똥을 섞어 던지려고 하자 신랑이 그것을 던지면 때린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던 청년들이, 신랑 신부가 나갈 때가 되자 우마차로 마을 입구를 막아서 난처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동네 큰 어른이 나서서 청년들을 꾸짖어 일을 원만히 해결 해주었다.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을 선별해서 신랑을 따라가는 신랑 친구들을 데려갔는데, 그들이 신랑을 업고 대청 앞까지 업고 들어갔다. 함은 결혼식 전날 지고 갔는데, "함 사세요!"를 외치고는 했다. 신랑 친구들은 가까우면 동네로 돌아오고, 멀면 동네 여관에서 잠을 잤다. 함을 팔 때 신랑이 함께 가기도 했다. 그 경우에도 가까우면 집에 돌아오고, 멀면 여관에서 잤다. 목거리기 등은 동네에서 장만하고 있었다.

마을마다 대동계장이 관리하는 대동계가 있었는데, 쌀 한 뒷박씩을 받고 관리하였다. 범루 2층 창고에 교자상, 사모관대, 낫그릇, 가마 등을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썼다. 마을 공동그릇은 가져가지 못하게 구멍을 뚫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면에서 대동계를 관리하면 세금을 깎아주기도 했다. 난리나기 전(한국전쟁 전) 마을에서 신랑이 말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송영우 씨의 누이 영옥이라는 분의 남편(매부)이 큰 말을 타고 들어왔다고 한다.

대례를 올릴 때, 신부는 양쪽에서 여자들이 부추기고 나온다. 부축하는 사람들은 친척들이다. 남자는 동쪽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동쪽에 서서 서쪽을 봤으며, 대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에 섰다. 남자는 상에서 우측, 여자는 좌측에 섰다. 남자는 기러기를 안고 들어가서 기러기를 건넌 후 먼저 절을 한다. 그 다음 여자가 두 번 신랑을 향해 절을 한다. 깻은 기러기를 상에 두지만, 수탉(남자쪽), 암탉(여자쪽)도 두었다. 남자가 먼저 절을 하고, 더

많이 절을 한다.

유촌리에서는 대례를 마치고 신랑집으로 올 때 많은 신부들이 마을에서 대여해주는 가마를 탔지만, 진산고개 근처 도르래라는 마을에서 온 정용재 씨의 고모 한 분은 가마를 못 빌리고 걸어오기도 하였다. 1968년 송영우 씨 결혼 당시 대례가 끝나고 관대를 다 벗은 다음,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양복을 맞추어주어서 그것으로 갈아입었다. 그때 입은 옷의 크기는 양복집에서 재었지만 옷은 처갓집으로 배달되었다. 정용재 씨는 신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고 한다.

신부는 밤, 대추 등의 폐백음식과 함께 요강, 장롱, 수숫대, 대야를 마련해왔다. 시부모님이 닭을 예쁘게 삶아서 안주로 올렸는데, 술을 한잔 올리면 닭고기를 찢어서 입에 넣어주었다. 신랑집에서 폐백을 한 후 큰아버지 등 가까운 어른들을 불러 절을 받게 하였으며, 절을 하면 "아들 삼남매 낳아라" 등의 덕담을 하며 밤, 대추를 던졌다. 절값 문화는 없었다.

잔치가 열릴 때 동네 사람들이 부조를 해주었다. 절편이나 찰떡(인절미) 등을 가까운 사람들이 해주었고, 조금 먼 이웃들은 국수 한 봉지 등으로 간편하게 부조를 했다. 힘 좋은 젊은 사람들이 마당에 가마솥을 걸고 국수를 삶았다. 과방을 보는 사람들은 '끝발이 쨌 사람'으로서, 반찬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잔치 때 사용하는 그릇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매해 관리하였으며, 유기그릇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15>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릇

혼례를 올린 지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삼일도배기를 갔다. 신부의 친정집에서 사위가 온다고 안주를 넉넉히 장만해주었고, 동네 또래 청년들은 인사 겸 놀러와 술을 마시며 신랑의 발을 달아매었다. 이 때 발은 하나만 묶였으며 다듬이 방망이로 아프도록 때렸다. 신부의 가족이 대례를 치른 신랑에게 나무막대기를 잘라서 젓가락을 만든 다음 국수를 잔뜩 말아서 입이 미어터지도록 억지로 먹이는 풍습도 있었다. 삼일도배기 때는 친정집에서 부부가 하룻밤을 자고 왔다.

신부는 신랑집에 처음 들어온 뒤 아침저녁으로 집안어른들께 문안인사를 하고 따로 부엌일을 하지 않았다. 부부가 삼일도배기를 다녀온 이후에야 신부가 부엌에 들어갔다. 집안의 광 열쇠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첫 아들 난 기념으로 주거나, 자신이 죽은 이후에 물려주었는데 집집마다 상황이 달

랐다. 혼례를 한 이후 신부는 친정아버지 생신 등 큰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께 보고를 드린 후 허락을 받고 친정에 다녀올 수 있었다. 노부부는 대개 맞아들과 함께 살았으며, 작은 아들은 몇 년 동안 함께 살다가 따로 세간을 차려 나가 사는 경우가 많았다.

#### (다) 상장례·제례

고인은 돌아가신 방에 칠성판을 놓고 모셨다. 아랫목에 모셨다가 불을 때서 방이 뜨거우면 윗목에 옮겨두었다. 상주들이 방을 지켰기 때문에 아랫목에 불을 조금은 때거나, 혹은 아예 안 때기도 하였다. 엄은 집안사람들이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잘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혹시라도 맡기지 않았을 경우 “양반이 돈을 아끼고 싶어 안 맡긴다.”고 안 좋은 소문이 돌까봐 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엄 뿐 아니라 동네에서 술선수범해서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서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사람들은 동네의 “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렸다. 돌아가신 날은 자축신묘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퇴관하는 집안에서도 관을 썼다. 관은 집안에서 나무를 장만해서 목수를 불러 제사상과 관을 짜게 하거나 따로 구입하였다. 퇴관을 하더라도 관은 좋은 것을 썼는데, 100년 이상 된 오동나무 등을 미리 켜서 보관하는 집도 있었다. 자신의 산이나 땅이 없으면 아무 때나 가서 나무를 베지 못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미리 관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한국전쟁 중 생활이 어려운 시절에는 거적, 명석을 써서 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아주 과거에는 관에 회칠을 해서 묻기도 하였지만, 시신은 썩어야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수의는 삼을 키워 직접 짠 베를 가지

고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상을 당한 가족들은 가마에 물을 붓고 삼을 찌서 만든 베잠방이 등의 삼베옷을 입고 다녔다. 일제 강점기부터 유촌리에서도 뽕나무와 함께 누에를 키워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았다.

**면담 참여자** 그러니까 있는 집은 준비하는 동안에 동네 분들이 와서 며칠씩 계시는 거야. 옛날에는 관( ) 미리 해다 두셨어.

**면담자** 관을요, 그 나무도 비쌌을 거예요?

**면담 참여자** 그전엔 비쌌겠지. 사 오는 것은 비싼데 옛날에 있는 사람은 내 산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서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내 산이 있는 사람들.

**면담자** 수의도 그때 사람 죽고 나서 준비하고 그런 거잖아요?

**면담 참여자** 수의는 미리 해 놓기도 했지. 미리 많이 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는 여기도 왜정 때에는 키워 가지고 삼을 짜는 사람도 있었어, 여기서도 베들 짜고 그랬어.

**면담 참여자** 그전에는 많이 짰어, 내가 보기도. 베들을 놓고 짜고 그런데 삼을 키워서 삼을 찌다고 그러나 가마에 찌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가마도 베 같은 것 만들어서 물을 붓고 끓여가지고 하고. 마당에서 풀들 먹이고 그렇게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을 놓고 돌을 달구어서 개울가에 가서 그래가지고 물을 퍼다 끼었어. 돌을 시벌정계 달구면 그러면 그 물을 부우니까 그 김에 올라가서 찌서 그렇게 하고. 개울 바닥에 이렇게 오목하게 파 가지고 그렇게도. 나 다 보았어. 그렇게 만들어서 베잠방이라고 해서 그것들 다 입고 다녔어.

**면담 참여자** 그전에 사오는 게 어디 가서 사와. 옛날에는 지금은 사다 하지만 그전에는 사 오는 것이 별로 없었어. 다 이렇게 짜서 해 입고. 아니 뭐야 모시, 누에에서 실을 내려서 그런 것도 키워서 하고 다 했어. 모시는 그래도 양반집, 예뻐 하는 양반이나 입고 다녔지.

**면담자** 여기 누에도 키웠었나 봐요?

**면담 참여자** 많이 키웠어요. 명주실 뽑잖아.

**면담자** 그것이 70년대 키운 것 아니에요, 60년대 늦게?

**면담 참여자** 60년대 이전에 키웠어요. 왜정시대부터 키웠어요. 70년대에도 여기 길렀잖아요.그거는 일본으로 수출을 해서 누에를 해서 돈 벌고 그랬다고. 누에고치로 해서 가지고 가서 제사공장으로 갔고. 옛날에는 이런 솔에다 그것을 넣어 불을 밑에다 때면서 고치를 넣고 하면서 휘휘 저어서 끈을 잡아당기면 그게 다 풀어서 실이 되었어. 할머니들이 앉아서 실을 만들었어. 그러

면 손주들은 옆에 앉아 있으면 거기다 번데기가 나와 동동 뜨거든. 불을 때니까 그것이 익어 그래서 그걸 건져서 먹어. 실이 다 명주실이 나오면 나중에 번데기들이 나와. 그 번데기가 그렇게 맛있는데.

**면답자** 이 마을에서 명주도 하고 삼베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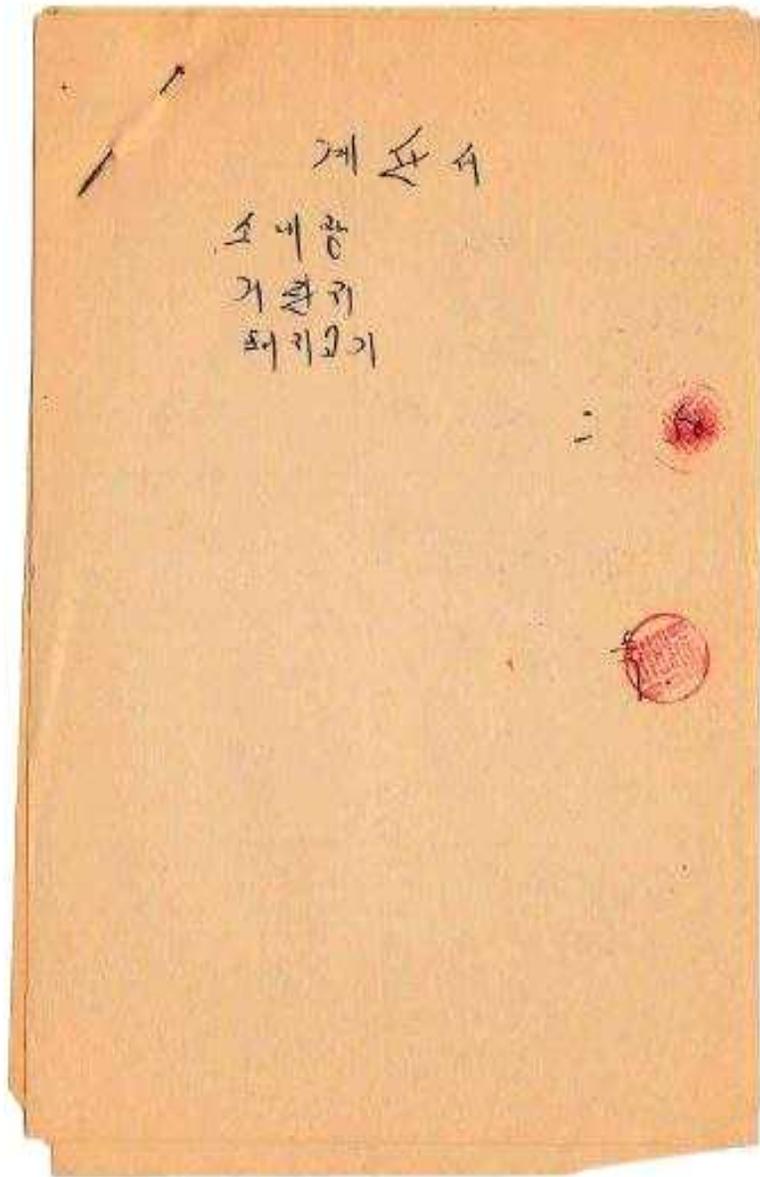
**면담 참여자** 다 했어. 대부분 집집마다 다 있었지 베틀이니. 베틀이 다 있었지. 그 물레가 이렇게 커. 모닥불이라도 켜놓고 베 삼는데 이렇게 풀질을 해 가지고 텅글텅글 감아. 여자들이 무릎을 탁 올리고.

장례는 형편에 따라 5일장을 지내기도 하고 길게 하면 9일장도 지냈다고 한다. 과거에는 집 옆에 가묘를 마련해 3개월 동안 장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초상집에서는 따로 국밥을 차렸다. 무국(소고깃국) 혹은 시래기국을 차렸다. 옛날에도 읍, 면 시내에서는 고기를 팔기도 하였다. 돼지고기로 국을 끓이지는 않았고, 돼지고기 편육은 만들었다. 초상집에서는 철상 후 상 위에 올려두었던 편(떡)을 나누어 먹었다.

상여는 동네 청년들이나 하인들이 메었다. 잔치집과 초상집에서는 하루세 끼 밥과 국을 주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일을 도우러 갔다. 유촌리에는 상여소리, 상여메기, 선소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대동계에서 상여소리 매기기도 관장을 했다. 유촌리에서는 여자들이 못자리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드물었고, 집안 마당까지만 나와서 인사를 했다. 나중에 남성들이 못자리에서 혼백을 가지고 돌아 올 때, 곡을 하면서 집안에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였다. 집에 있는 옷을 포함한 고인의 유품은 모두 태웠는데, 태우지 않고 아이들을 입힌 집도 있었다. 관은 모내기를 위해 번지에 달거나 하였다.

대청마루에 3년 동안 상청을 놓았다. 정용재 씨의 큰댁할아버지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큰아버지가 어물흥정을 하러 가는데 곳감 한 자에 쌀이 한 섬이었다. 어물을 넉넉하게 쓰지 않으면 동네 어른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쌀 세 섬을 팔아 초상, 소상 대상을 위한 꽃감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땅이라도 있으니 조상을 모셨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대로 상을 차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할 만큼 유촌리에서는 제사를 통해 조상을 모시는 일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림 16> 장례식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 영수증 (신동직 기증, 1973년)

No. \_\_\_\_\_

# 書

西紀1973年 6 月 27 日

연천군영곡1리18번

費下

下記와 如히 합니다

보통  
수카시  
감미  
일이  
복합  
화발  
매

## 대 동 상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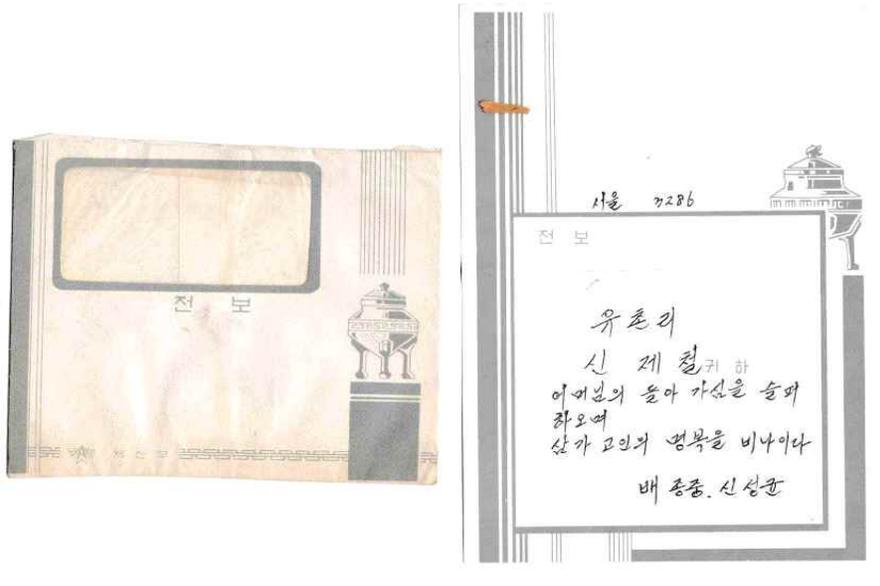
이 병 증  
권화 123 번

合計金 ₩ 4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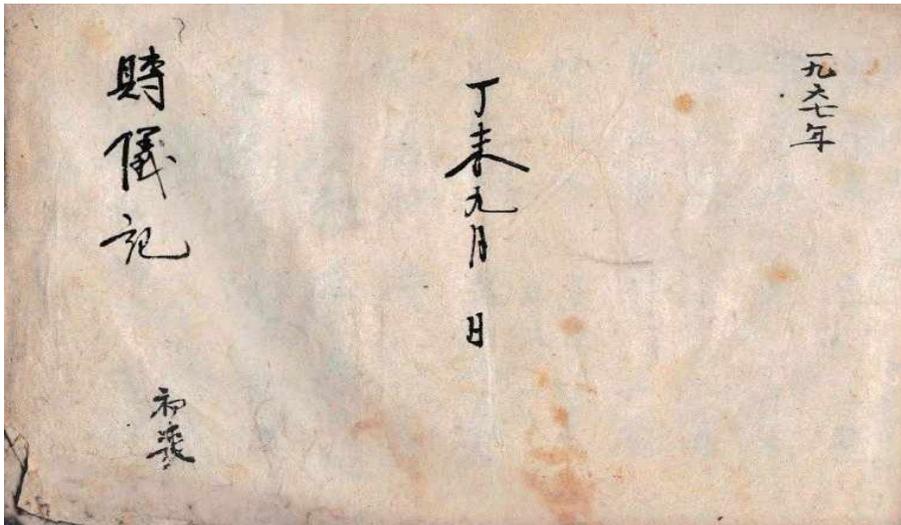
月日	品名	數量	單價	金額
6.27	생 계	21화	2400	26,400
	망 옥	11화	1000	11,000
	망 옥	2화	1000	2,000
	망 옥	2화	1400	2,800
合 計				42,000

大體의 感謝 합니다

<그림 17> 장례식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 영수증 2 (신동직 기증, 1973년)



<그림 18> 부고 소식을 알리는 전보(신동직 기증, 1973년)



<그림 19> 부조 내역을 기록한 부조록(신동직 기증, 1967년)

## 다. 미산면 아미2리(답동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아미리는 본래 마전군 군내면 지역으로, 1454년(단종 2)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답동리(畓洞里)’라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 후기에 아미산의 이름을 따서 ‘아미리’라 개명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접해 있는 장양리(長楊里)와 냉정리(冷井里)를 병합하여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아미 1리, 아미 2리), 6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1)</sup>

### (2) 아미2리(답동리) 토박이의 삶

면담 참여자 왕영일 씨는 1936년생으로 강릉 공파의 후손이다. 아미2리 마을 회관에 가서 소개를 받고 댁으로 찾아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친절하게 면담자 일행을 맞아 주고 소상하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면담 참여자는 경기도 연천군 아미 2리에서 나고 자랐다. 한국전쟁 전까지 연천군 아미리에는 왕 씨 성을 가진 100여 가구가 모여 살았다고 한다. 왕영일 씨의 어린 시절 아미리에서는 전통적인 신분은 낮아도 경제적 형편은 양반집이었던 자신의 집안보다 넉넉한 이웃이 있었다고 한다. 왕영일 씨

---

21) [네이버 지식백과] 아미리 [Ami-ri, 峨帽里] (두산백과)

는 집안 대소사의 잡무들을 하인 혹은 몸종에 맡기면 그들의 의식주 등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왕 씨 집안의 재산이 모이지를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왕영일 씨 집안 어른들은 전통적인 신분 관념이 확고해서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에도 여전히 원색적으로 마을 이웃들에게 하인과 상민 대우를 했다고 한다. 왕영일 씨는 한국전쟁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양반이었던 가문의 사람들도 고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외지였던 아미리에 와서는 상민 취급을 당하였음을 회고하며, 조선시대로부터 잔존하게 된 신분제가 20세기 초중반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시공간적으로 상대적인 기준이었음을 증언하였다.

잘 살아도 반상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조선조 때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예우를 안 해줘. 무조건 하인이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 땅 몇 떼기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팔고 나가면 또 부러운 사람 자기들하고 연결되는 놈을 하나 집어넣고 가. (...) 그런데 그 사람들 성을 보면 상놈이 아니야. 왜냐면 과평 윤 씨도 있고 해주 오 씨도 있고 다 양반인데 자기들 뿌리를 못 찾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면 하인이지.

면담 참여자 왕영일 씨는 당시로는 북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의 상황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며, 정확하게 당시를 기억하였다. 임진강 건너에서 북한의 경비대들이 38선을 대열로 하여 서 있는 것을 늘 봐왔는데, 1950년 6월 23일까지 파란색 판이던 경비대의 복장이 6월 25일에 붉은색 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미산면의 큰 길 가에는 소련의 고위급 군인들이 돌아다녔고, 정예 인민군대가 마을 여기저기에서 노숙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음식 등의 생활필수품을 구하러 다녔다. 연천군은 과거에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도에 속해있었고, 원산에서부터 오는 경원선 기차가 들어오는 역이 연천군 전곡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강원도 지역과 교류가 잦았다. 원산에서 많이 잡힌다고 해서 동태, 북어를 ‘원산말뚝’이라 불렀는데, 원산에서 잡힌 동태들이 하루면 기차를 타고 연천에 도착했다고 한다.

38선이 생기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인 5년여 동안 연천 사람들은 38선 이북의 강원도 사람들과 왕왕 교류했다. 국경경비대가 안 보는 틈을 타 이북에서 열린 장에 다녀오는 일이 흔했다. 그 동안 국경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에서는 서로 박격포와 소총을 쏘는 등 군사적 행위를 했지만 실제로 어린 면담 참여자가 보기에 희생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박격포 소리에 두려워하는 주민들에게 관공서 직원이나 군인들이 “동요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우리는 5년 동안 맨날 그거에 시달리면서 살았어. 산에까지 쏘는 거야 그냥 강 건너에서 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 겁내지 마라. 쉽게 말하면 관공서나 군인들이 다 그래요. 겁내지 마라 저거 박격포 하나를 포알 하나를 사오려면 미국에서 소 한마디 주고 사오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소 한 마리를 주고 사왔는데 소 한 마리 주고 여기 떨어졌는데 뭐 상상된 사람이 있냐 뭐 누구 죽은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까지 것 괜히 쉽게 말하면 어떤 비용만 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

1950년 6월 즈음 농민의 옷을 입은 인민군들이 마을 곳곳으로 들어와서 동네 반장들을 통해 전쟁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쯤 북한이 남한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소련제 탱크가 백학면 고랑포를 통해 들어오면서 그 일대를 지키고 있던 맹호부대를 뚫고 그 이후 남쪽으로 진격하는 과정을 인민군은 연천군 일대의 면사무소나 학교 광고판에 크게 알렸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미산면의 아이들은 평소처럼 학교에 다니며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당일을 제외하고는 수업이 매일 열렸

다. 왕영일 씨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한국전쟁 발발 시점부터 9월 까지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9월에 국군이 후퇴를 해서 다시 연천군으로 밀려오면서 서울 천호동과 경기도 양주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 미군이 북진을 하면서 인민군을 상대로 비행기 폭격을 하는 와중에 아미리의 집들도 다수 불탔다고 한다. 집 안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어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지원을 나온 중공군은 당시 마을에서 ‘인민해방군’이라고 불렸다. 1.4후퇴 당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두 달 동안 국군·미군과 중공군이 대치하였다. 그 기간 동안 중공군이 민간인을 겁탈하는 등의 사고는 없었고, 음식을 가져갈 때도 쓰지 못하는 중국 돈이나마 두고 갔다고 한다.

여기서 중공군들이 두 달 동안 같이 지냈는데 절대 여자한테 눈길을 주거나 무슨 뭐 이렇게 군인은 기본적 아니야 그게. 왜냐면 승리하는 군대를 보면 어느 나라 옛날에 역사 이래도 몇 천 년 동안 다 그렇잖아. 우선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야. 왜냐면 민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들 양식이라고는 뭘 가지고 왔냐면 견대로 다가 메고 나왔는데 미숫가루를 견대에 해 가지고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물에 타 먹는 거야. 그것을 해서 메고 나왔는데 전부 그걸 가지고 있어 그것이 양식이야. 오다가 저기 만주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보행으로 내려왔으니 오다가 도중에 뭐 폭격 맞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래도 견대로 메고 나온 거 나머지 있는데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아쉽게 이 지역에서 먹을 것을 조달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조달을 하면 쌀 같은 것은 좀 달라고 그러는데 달라는 게 아니야 팔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돈이든지 북한 돈이든지 돈을 줘.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대가를 지불하고 달래. 현지에서 그렇게 하고.

왕영일 씨는 1951년 서울 천호동과 경기도 양주로 피난을 가 있다가 1957년도에 백학면으로 들어가 미군부대 군속으로 근무하였다. 3년 동안 미군부대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짬짬이 틈을 내어 동네 친구와 함께

서당에 다니며 한문 공부를 했다. 도박에 빠지셨던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한다.

일 하면서 배웠어요. 밤에도 나가 배우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책도 조달을 해 주는 거야. 우리는 남의 동네에 가서 사는 바람에 그 집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땅도 배정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거 이것을 좋아하셨어요. 도박을 좋아해서서 아버지가 다 해 먹으시고, 내가 어린 몸으로 미군 부대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다 해 드시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거야. 아버지한테 충격을 받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그것을 느꼈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색잡기는 안 한다. 어렸을 적부터 주색잡기는 안 한다 이것은 한문에서 나와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우리 아버지 가는 길을 안 가겠다 딱 그거를 각오했어. 그다음에 미군부대 다닐 때 미군 부대 가니까 개들 타임 이즈 골드, 시간은 금이다 내 영어도 통달을 했어.

당시 어려웠던 집안 사정도 왕영일 씨가 공부에 매진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한문 훈장으로 지내며 벼슬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근처에 사는 해주 정씨네 양반가에서는 초시에 합격을 한 진사가 몇 명씩 나왔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왕영일 씨의 할아버지에게 “노잣돈만 대주면 총독부에 가서 잘 아는 배경 좋은 사람한테 참봉 임명장을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당시에는 거금이었던 쌀 세가마니를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정 진사는 쌀만 가져가고 실제로 참봉 임명은 시켜주지 않았으며, 그 뒤에도 몇 번 같은 방법으로 쌀을 가져갔고, 할아버지는 본전 생각이 나 속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거진 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한문 선생님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참봉을 하시려고 못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참봉을 하려고 그러니까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자가 독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또 서적은 안 줘 쉽게 말하면 거기 덤벼 보지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뭐 그래도 그 사람은 못 줘. 그런데 정통파에서 낳은 사람이어

야 돼. 그 사람이 그걸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못하고 집안이 망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한 30 정도 되면 이미 학문에 다 끝나고 30정도 되면 딱 그걸 하고 싶는데 참봉을. 명에도 얻고 봉급도 타고 가사도 쉽게 말하면 어떻게 잘 일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다 욕망을 가졌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어떤 과거 시험모양으로 시험을 쳐서 뽑으면 좋은 데 그것이 아니고 임명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이 거 왕가도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여기 씨족이 두 개 씨족이 살고 있었는데 해주 정씨인데 그 사람들도 양반이야. 거기는 진사가 몇 명 나왔어 진사, 초시에 합격한 거야. 이 진사가 되어가지고 일반 벼슬에 못 나가면 그 사람은 이제 건달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뭐 농사일을 하겠어요? 진사 정도 되었으니까 초시에 합격을 했으니까 관 쪽에 줄이 닿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워라고 그러냐면 와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서 바람을 넣는 데 요 내 노자돈만 대주면 당신 총독부에 가서 내가 줄 잘 아는 배경 좋은 사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임명장을 받아주겠다고 딱 그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는 가족이 못 먹어도 쌀 몇 가마 정도 주어야 될 거 아니야 쌀. 처음에는 조금 주는 거지 딱 쥐. 그런데 3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주는데 한 2달이고 3달이면 임명장이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주는 거야 노자 돈을 딱 주면 그걸 이 놈 술집에 가서 내 버리고 다 처리하고 엉뚱한 사람이 임명 받을 거 아니까 그래서 라이벌 의식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걸 내가 눈으로 봤어. 그래서 임명을 못 받았잖아. 하지도 않았는데 뭘 어디서 받아요. 이 집어넣은 사람은 본전 생각 날 것 아니야 노름하는 것 하고 똑같아. 화투하는 것하고 똑같아. 일단은 처음에 걸려들지 말았어야지, 처음에 걸려들면 본전 생각이 나잖아. 갖다 집어넣고 쌀 한 세 가마 줬다 하면 그 시절에 쌀 세 가마면 얼마나 어렵게 만든 거야. 비료도 없는 시절에 얼마나 본전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와서 뭐라고 하나면 내가 가져가서 그거를 하다보니까 로비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정 진사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으니까 알아. 요만한 손주를 놓고 “우리가 망한 것은 그 정 진사야.” 정씨인데 진사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쌀 세 가마로 줬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로비로 하다가 이번에는 놓쳤는데 조금만 더 올려주면 자꾸 그런다고 와가지고. 조금만 올려주면 이번에 가서는 틀림없이 임명을 받아온다. 그러니까 먼저 솔직히 말해서 갖다 내버린 것이 아까워서라고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는데 다 팔아서라도 하고 싶는데 내 그 내 버린 게 억울하잖아 지금 정치하는 것 하고 똑같아. 억울하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조상님 것 땅을 팔고 뭐 또 준 거야.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임명을 못 받아오는 거야 또. 그래서 우리 조상님한테 유산을 받은 것, 밭이고 뭐고 산이고 뭐고 할아버지가 다 팔아먹고도 못 받았어요. 우리가 걸려서 그래, 머리 잘 돌려야 되고 요령도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 로비 잘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아주 좋지 않은 말로 권모술수야. 권모술수 잘 쓰는 놈이 하는 거야. 그거한테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해. 같은 일가면 뭘 해, 속적이

야. 정치하는 것하고 똑같아.

### (3) 아미2리(답동리)의 일생의례

#### (가) 혼례

왕영일 씨는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인 1961년도에 입대를 했고, 입대하기 직전 혼례를 올렸다. 아내는 백학면에서 만난 이복출신으로, 중매로 만났다. 왕영일 씨의 아내는 이복사람으로, 부모님과 일가친척 모두 이복으로 돌아가 손주딸 둘(아내와 아내의 여형제)과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게 된 처지라고 하였다. 장인어른부부가 안 계신 상황에서 혼례는 간단히 올렸다. 아내의 처고모 부부가 도와주었다. 신혼여행은 특별하게 가지 않았지만, 드라이브는 했다. 미군들이 타고 다니는 트럭을 개조해 아미리 사람들을 양주에 있는 시장으로 실어 나르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임대 해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 함에는 혼서지를 넣었는데 동대문 시장 한복점에서 그 원문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사이 사이에다가 신랑의 신상정보에 대한 글자를 집어넣는 식이었다. 잔치 음식으로는 국수를 차렸다. 하지만 신부 집 잔치에서는 흰 떡국을 차렸다고 한다. 신랑은 한복을 입고 대례를 올렸으며 기념사진도 찍었다. 왕영일 씨의 함을 메어 준 사람은 마을에서 한 명을 지정했는데, 해방 전 하인신분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왕건 태조의 왕손이고 보시다시피 송의전이 여기 있어 가지고 송의전에 왕건 태조를 모신 사당이야 왕건 태조만 모신 것 아니야. 고려의 왕이 네 분이고 그다음에 고려의 500년 동안에 유명한 충신들이 16분을

모셨어. 춘추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조선조부터 여직까지 600년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위의 할아버지를 내려오면서 조선조에서 양반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하인을 서른 집을 팔려 보냈어. 그 하인이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하인이 해방되는 거 북한 시절에 된 거야 한 30집이 같이 살았어 하인들이. 6.25 전쟁 날 때까지 같이 살았어. 여기서 같이 살다가 그 반상의 차이 인간의 반상의 차이를 없애 버린 것은 북한에서는 없애버린 거야. 거기에서 하인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 독립해서 살았는데 피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그 사람들도 고향이니까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중간에 다 떨어졌는데 또 팔려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옛날식으로 그것을 어떤 옛날의 법도대로 지키려고 거기 백학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하고 마음이 좋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정환경이 좀 좋지 않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이가 위이건 딸건 우리는 무조건 '해라'하고 무조건 '야'자야 이름 부르고 그렇게 아주 느끼면서 보면서 살았어. 30집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무조건 그 양반집에 복종을 해야 되고 같이 살아도 지역에서 같이 살아도 그런 사람이 하나 백학에 있었는데 몇 집 있었지 있었는데 그 노인네를 딱 지정을 해 가지고 내가 장가를 갈 때.

## (나) 상장례

연천 아미리 왕 씨는 탈관을 하는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 전까지 가마와 상여는 양반가에서 직접 메지 않고 하인들이 거들어주었다고 한다. 제사상을 차릴 때도 양반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별도의 상막(喪幕)을 차려 삼년 동안 상청을 올렸다. 이 때문에 가난한 형편에서도 남을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지출 되어 가정경제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씨 가문에서는 돈이 없으면 상민인 박 씨와 김 씨 성을 가진 지주에게 빚을 저서라도 양반가의 의례들을 따르고자 했다.

**면답자** 이 마을에 왕 씨 성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100세대가 되면 땅이 얼마나 넓어서 다 지주로 살 수는 없고 땅을 가진 분들도 좀 있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면담 참여자** 어렵게 살았죠. 어렵게 살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100세대가 무지하게 어렵게 살았어. 그때 어렵게 살아도 그때는 예법이 있기 때문에 또 양반이라는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또 잘 모셔야 돼. 장사는 또 잘 지내야 돼 빚지고 하잖아. 3년 동안 해야 돼. 3년 동안 보름 상막을 지내야 되고 그거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3년 동안 보름상막을 지내야 되고 그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기제사도 연연이 빼 놓지 않고 지내야 되고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 좁은 국토에 땅은 좁은 토지에서 그러니까 빚지잖아. 빚지면 솔직히 말해서 자기 토지 지주한테 넘어가는 거야 대지주한테. 대지주한테 다 넘어간 거지.

**면답자** 대지주는 왕 씨 성 가진 분이었나요 외지에서서?

**면담 참여자** 박씨 김씨 그런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고.

**면답자** 왕씨 이 마을 주민들은 양반임에도 소작을 많이 하셨나 봐요?

**면담 참여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랬어요 다 그래요.

아미리 왕 씨 가문은 최소 5일장을 지냈는데, 7일장, 더 길게는 9일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다. 딸이 멀리 시집을 갈 경우 부고 소식을 받고 문상을 오는 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다. 30여 가구정도 되는 이웃집 하인들이 음식을 마련하고 잔치를 준비할 때 도움을 주었으며, 그 대가로 잔치기간동안 온 가족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가들에서는 그들을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기도 하였다.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온 가족은 파평 윤 씨 등 양반가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하인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왜 그러냐면 저기 지금은 교통이 발달을 해서 부산에서도 하루에 오지만 그 시절에는 멀리 딸이 시집을 갔잖아. 부모님이 돌아가면 자녀들은 일단은 와야 되니까.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저 쪽에 왕진면 쪽으로 저 너머로 우리 외갓집도 그러는데 거기 권 씨야 우리 어머니가 안동 권 씨인데 아주 자기가 뭐 우리나라 최고가는 양반이라고 그래 양반을 얼마나 따지는지. 왕 씨한테 와서도 자기가 최고가는 양반이러는데. 그런데 여기 산 고개를 열두 개를 넘어야 친정에 가. 열두 개를 걸어서 넘어간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가마 타고 오고 뭐 시집을 올 때는 왔겠지만 그다음에는 걸어서 온다고 치면 하루 이틀에 하기 힘들 거야. 거기에 걸리는 거야.

왕영일 씨의 기억에 따르면, 아미리에서 신분이 낮은 집안들은 3일장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집안에 고인을 둔 하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양반가에 가서 청하면, 양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몇 천 평의 산지 중 일부를 무상으로 떼어주어 못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일제강점기 때 토지에 대한 세부 측정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증여된 땅은 공식적으로 하인의 소유가 되었다.

한 3일장 하더라고. 그 다음에 3일장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있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집터 죽어있는 집터 우리에 딸린 터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보면 어떠한 한 가족에 예속된 것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자기 땅이 없는데 하인으로 들어와서 그럼 어디다 갖다 물어. 한 구덩이에 이렇게 땅을 잘라주었어. 그런 거는 쥐, 묘 자리는 쥐. 왜냐면 가족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산이 많으니까 왕 씨들 한 가족이 몇 천 평씩 이렇게 산을 가지고 있는데 데리고 있는 하인한테 요만큼 잘라 주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부 측량을 할 때 이 산수 위주로 해서 경계를 자른 거야. 일본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산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덩어리로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경계 관념이 없었어, 조선 조 때. 근데 일본사람들이 세부 측량을 해서 그때 하인이라도 거기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잘라줘.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의정부시

## 의정부시

### 지역개관

면적	81.54km <sup>2</sup>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15동
인구	2018년 12월 기준 447,026명
인구밀도	5,457.58명/km <sup>2</sup>

경기도 중앙에 위치하여 동쪽은 남양주시·포천시, 서쪽은 양주시, 남쪽은 서울특별시, 북쪽은 양주시와 접한다.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속하여 잔구성 산지가 동쪽과 서쪽에 발달했고, 중앙으로 지나는 추가령구조곡에는 길고 좁은 곡저평야가 발달 되어있다. 해발고도 100m 이하의 저지대가 전체 면적의 60%를, 해발고도 100~500m 사이의 구릉지가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했다. 동쪽에는 수락산·부용산·용암산·깃대봉 등의 산이 있고, 서쪽에는 도봉산·사패산, 북쪽에는 천보산이 있다. 이 산지에서 발원한 부용천·백석천·화룡천 등의 강이 중랑천에 합류하며 하천 주변지에는 하안 평야가 발달했다.

1963년까지 양주군의 일부였다.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양주군 시북면과 둔야면을 시둔면으로 합쳤고, 1922년 주내면에 있던 양주군청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군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맡게 되었다. 1942년에는 의정부읍으로 승격되었다. 해방 이후인 1963년에 '의정부시'로

승격되어 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

회룡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다른 곳에 비해 특별한 동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체 토지의 59.6%가 산지이고 8.58%가 경지이다. 그 밖에 대지가 10.6%, 도로가 4.8%, 하천이 2.2%를 차지한다. 산지가 많은데, 도시화로 인해 경지면적이 줄고 있다. 경지 중 논이 245ha, 밭이 455ha로, 논이 밭보다 적다. 주요 농작물은 쌀 이외에 무·배추·고추·들깨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량은 줄고 있다. 밤·은행·대추 등의 임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야산이나 구릉지에서는 잣소·닭 등의 목축업도 발달하였다.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0.89%이고 제조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0.6%이다.

군부대 지역이 발달해있었는데, 특히 과거에 용현동에는 육군 3군의 신병 입대를 관할하던 306 보충대대가 있었고, 호원동에는 경기북부 병무청과 도봉구 지역 예비군훈련장이, 금오동에는 5, 6, 7군단 지역의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제2군수지원사령부 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의정부역 양편에 주한미군 부대가 자리 잡았을 정도로 미군과 국군을 막론하고 군부대가 많았다. 현재는 미군을 평택시 쪽으로 재배치하면서 미군 점유지는 줄어들었다.<sup>22)</sup>

## 가. 가능동 입석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의정부시”

입석마을은 과거에 옷선돌(마을)이라 불렸다. 시내에서 가장 꼭대기 동네였다. 입석은 설 립(立)자에 돌 석(石)자를 써서 선돌과 같은 뜻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가능1동이다. 예전 사람들은 옷선돌이라 부르고 새로 온 사람들은 입석이라고 부른다. 양씨와 이씨, 정씨가 모여 사는 각성밭이 마을이다. 세 성씨 중에서는 양씨가 가장 많다.

예전에 23~24호 살았던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떠났고, 젊은이들은 시내로 나가서 산다. 현재는 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이 7~8세대 정도 된다. 원주민들이 떠난 자리에 외지인들이 들어 와 자리를 잡아서, 외지인까지 포함한 전체 호수는 이전보다 조금 늘어 난 27~28호 정도 된다. 초, 중, 고, 대학생들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노인들만이 살고 있다. 예전에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소를 길렀는데, 이 마을에서 당시에 소 한 마리만 길러도 부자였다.



<그림 1> 입석마을 입구

이제 아들들은 농촌에서 살려고 하지 않잖아. 전부 시내에 나가지. 그러기 때문에 본 바닷에 사는 사람들 지금 몇 분 안 계세요. 다들 나가고 나 하고 우리 친구 양씨 하고 또 피난 나와서 사시는 분들 6.25때. 6.25 난지가 벌써 한 65년이 되었으니까. 그때 나오셔서 사는 분들이 몇 가구가 여기서 살고 있고.

마을의 논농사와 밭농사 비율은 반반 정도였다. 마을 자체의 논은 많지 않았지만, 마을 너머 시내인 논양동에서도 논농사를 짓기도 했다. 지역에 물이 많지 않아서 논에 물을 대기가 어려웠다. 큰 하천이 마을에서 떨어진 쪽에 있었는데 하천에서부터 곡괭이와 삽으로 수로를 마을로 만들어 논에 물을 대었다고 했다. 따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대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우물을 깊이 파야 지하수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우물을 깊게 팔 수 있는 기술과 돈이 없어서 지하수 이용도 어려웠다.

물 대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여기 큰 개울이 하천이 저쪽에 있는데 여기를 뚫어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곡괭이 삽으로 파 가지고 이리로 물을 대었다고, 동네 분들이. 그래서 이 앞뜰이 전부 논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수로를 파 가지고 물을 대었던 거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전에는 물을 판다고 하더라도 우물 같은 거를 제대로 못 팠잖아요. 깊이 팔 수가 없으니까, 어렵게 산 것이죠.

마을 뒤에 호명산이 있는데, 예전에는 골짜기로 불렸으며 마을에서는 황골, 마을 건너는 승지골 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골은 다시마골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예전에 소나 지계를 지고 다니던 큰 길이었던 아사비 고개를 넘어가면 복지리 흥복마을이 나오며 양주시로 이어지게 된다.

이쪽 산이 그전에는 여기 골짜기로 그 저것을 불렀는데, 이쪽에는 황골이라고 하고 저쪽에는 승지골이라고 그때는 그 아마 옛날 사람들이 아마 승지가 살았는지 승지골이라 그러는지, 이쪽에서는 황골이라고 황씨가 살아서 황골이라고 그랬는지. 또 저쪽에는 다시마골이라고 길게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우리 지명을 부르면 이 위에 큰 산을 갖다가 호명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올라 오다 보면 호명빌라라고 있죠. 한 220세대 사는. 호명빌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전에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이 골짜기대로 부른 거를 황골이다, 뭐 승지골이다, 이쪽은 다시마골이다. 또 이쪽에 넘어가는데 아사비 고개라고 고개가 이게 그전에는 큰길이었어요. 근데 차는 못 다니고 우마 소라든가 사람이 지계를 지고 다니면서 했던 길이거든 이 위가. 그랬다가



<그림 2> 입석마을 회관

일정기 때 마을 주민들은 소작을 많이 했다. 해방 전 50년대 토지개혁 전까지는 서울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배받은 땅은 1000평(5마지기), 800평, 600평 정도의 크기였다. 마을의 땅은 비옥한 편이지만, 땅에 돌이 많아서 가뭄이 잘 들었다. 밭에는 콩, 보리, 조, 감자 등 식량으로 자급자족할 작물을 심었다. 옥수수는 많이 심지 않았다. 쌀은 귀해서 부유한 사람이나 먹을 정도로 입석 마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였고, 교통도 편리하지 않은 “오지마을이지 뭐.”라고 했다. 현재는 고추, 배추, 들깨(기르기가 가장 쉽다) 등의 특수작물만 기른다. 현재 마을은 시장마을(취락지구)이라서 자기 땅이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마을은 부대지역으로, 한국군부대, 미군부대가 차례로 있었다. 일정기 때

도 일본군이 주둔했고, 그 후에는 한국군 7사단이 있었고, 6.25 때는 미군 부대가 들어왔다. 호부대, 제 2청사, 추부대의 대대 병력 사단이 있었다.

미군 부대가 여기 뺨 둘러 다 있으니까. 그게 막혔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더. 이제 부대가 뜬다고 그러니까 모르지 어떻게 될지. (...) 부대지역이야. 그러니까 7사단이 여기서 창설을 해서 6.25사변 때 전쟁을 여기에서 했으니까 여기 있고, 뭐 호부대라고 호랑이부대가 거기 있었고. 또 저쪽 제2청사 있는데 그 앞에 거기는 추부대라고 있었고.

6.25 때 일부 마을 사람들은 고개 넘어서 피난을 갔다. 이 마을에 인민군이 이틀 만에 들어왔다. 그래서 피난을 못 간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피난 간 사람도 있고 못 간 사람도 있고. 나는 피난을 못 갔어. 금방 들어왔는데 뭐. 가기는 뭘 가, 못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고개 너머로 가고. 시내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오고.

1970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마차가 겨우 다니던 길을 도로로 넓히고, 80년대 들어서 주택개량을 했다. 면담 참여자가 제대 후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생활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석조를 쌓고 도로포장하고 지붕을 개량했다. 그때가 20대 중후반이었다. 길보수를 마을기금 100만원으로 했고, 전기를 가설하고 땅을 사는 것도 마을기금으로 했다. 마을기금은 벼 한 말씩 받아서 조성한 것이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합동으로 퇴비증산을 매우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탈곡기도 받았다. 당시에 청년회 조직도 있을 정도로 마을 조직도 활성화되어 있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마을 기금은 없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산제사를 지냈다. 돼지와 닭, 소 등 가축을 잘 기르고 농사를

잘되도록 지냈는데, 현재는 사라졌다. 70~80년도까지는 산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마을 산제사의 희생물은 소였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소를 잡아서 했었다. 이후에는 소 부위들(머리, 내장 등)을 조금씩 사서 지냈다. 지인이 죽었거나, 병을 앓거나, 다쳤거나 등의 부정이 없는 사람이 화주가 되었는데, 같이 산제사를 모시는 사람들을 지역에 따라 앉은 화주와 선 화주로 구분했다. 추등 안쪽 사람들은 앉은화주(하주)가 되고 바깥쪽 사람들은 선화주(하주)가 되어서 일을 했다. 선화주가 앉은화주를 도왔다.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들만이 산에 올라갈 수 있었다.

앉은화주 선화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지. 선화주가 앉은화주 와서 일을 해 주는 거야. 깨끗한 사람만이 부정 타지 않고 그런 사람만이 산에 올라가게 된다고.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다쳤다든가 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정을 탄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짝수가 아니고 홀수가 올라가는 거야. 5명이 되든가 7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그 축문을 읽고 제사를 올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 술을 해놓는다고, 며칠 전에 그 산 위에. 술을 해놓고 그 술을 따라서 산제사를 지냈어.

산에는 짝수가 아닌 홀수(5, 7명)가 올라가서 축문을 읽고 제사를 지냈다. 산에 며칠 전에 술을 해 두며, 그 술을 제사에 쓴다. 10월 초순(초하루)에 밤 9~10시에 지내는데, 그 이유는 “깜깜해야 하니까”라고 했다. 절은 선화주(하주)가 3번 먼저 하고, 술도 세 번 올린다. 축문의 내용은 가축의 이름들은 전부 읽고, 고기를 잘라서 산신령에게 준다.

거기에 축문은 어떻게 되냐면 소 돼지 이런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있잖아. 그 이름을 전부 댄다고. 그리고 뭐야 고기든가 해서 잘라서 산신령한테 준다고 지내고.

음식은 시루떡과 사과, 감, 밤(삼색 과일), 소의 각종 부위들(소머리, 천엽, 간 등)을 쓴다. 신촌마을을 포함한 3개의 부락이 함께 지내는데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온다. 산제사에서 쓴 음식들은 재수가 좋다고 하여 그것이 팔리기도 했고, 이렇게 경비도 조달했다고 한다. 소는 직접 도축하다가 금지가 되면서 부위 별로 사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 부근에서 모든 마을이 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근처 다른 동네에서는 돼지를 잡아서 쓰기도 했다.

이만큼씩 떡이라든가 소머리라든가 이것들을 조금씩 다 저거 해서 짜 가지고 그것을 팔러 다녔다고 그 전에는. 그러면 큰 제사를 산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잘 사먹어요. 재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서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없어져 버렸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음복을 하고 내려왔고, 그 이튿날에 동네잔치를 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약주를 대접했다.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몫을 잡아서 주었다. 당집은 없었고 큰 소나무가 있었다. 예전에는 나무 주변을 깨끗하게 보존했다. 마을에 두레나 농악패는 없었다. 정월대보름 때에 마을 주민들은 달맞이 햇불을 들고 소원을 빌었다.

## (2) 입석마을 토박이의 삶

면담에 선뜻 응해 준 이순용 씨와 김순근 씨 부부는 입석 마을 마을회관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순용 씨가 주로 면담을 하면서 김순근 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였다. 이외에도 마을 회관에 계시던 한 두 분이 더 간단한 보충 답변을 해 주기도 했다.

이순용 씨는 전주 이씨 경평군과 11대라고 한다. 양주시 광적에 전주 이씨 경원군과가 살았었는데 광적면 광성리가 수용이 되면서 마을 원주민들은 사실상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수용이 되면서 그곳에 묻혔던, 면담 참여자에게는 7대 조상인 경평군의 손자 되는 동원군, 청농군의 묘를 이장했다.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흥복마을에 경평군 묘를 비롯한 조상묘가 있다. 경평

군의 어머니도 묻혀있다. 조상묘는 한 곳에 모여 있지만, 그 후손들은 전부 흩어져서 집성촌을 이룬 경우는 없다.



<그림 3> 면담 참여자 이순용 씨와 김순근 씨 부부

입석 마을에서 38년생을 제외하고 면담 참여자의 나이가 가장 많다. 마을에서는 2018년 올해 101세 되시던 분이 죽었다. 면담 참여자의 경우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초등학교를 나왔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 초등학교 정도 나왔다고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것은 본인의 아들 세대부터였다.

면담 참여자가 20살이 되던 1960년에 혼인을 했다고 한다. 늦은 편은 아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을 서둘기도 했다. 6.25 사변 때 어머니가 포에 맞아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동생 둘이 함께 살았다. 누나도 있었지만

시집을 가서 본인이 밥을 해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해야 했다고 말한다. 농사와 목장운영(젖소, 돼지를 기름)을 해서 자식들은 대학에 보냈다.

6.25 전쟁의 발발은 면담 참여자가 양주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학교는 마을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피난은 전쟁 초기에는 하지 못했고, 1.4 후퇴 때 미군들이 마을 사람들을 피난시켰기 때문에 그때 남대문까지 가서 남대문 초등학교에 잠시 있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 왔을 때, 집은 “다 타고 변소간 두 개만 있었다고”서술할 정도였으며, 움막살이로 상당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심지어 닭장에서 몇 개월을 살았다.

그럼 다 알지. 그러니까 4학년 때 났으니까 학교에 그날 가니까 선생님이 빨리 집으로 가라고. 다음에 연락하면 오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포알이 시내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탱크가 포를 쏘니까 시내에 막 떨어지는 거지.

### (3) 입석마을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아이는 집에서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받았다. 태는 마당에서 태워버렸다고 한다. 출산 할 때에 삼신상을 차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출산할 때에 미역국을 먹었는데, 미역국은 들기름을 넣고 시어머니가 끓여 주었다. 소고기 등을 미역국에 넣지 못했는데, 미역국에 쌀밥을 먹었다. 미역은 시아버지가 사왔지만, 친척들도 선물로 주기도 했다.

시아버지가 금줄을 쳤는데, 아들을 낳으면 고추와 술가지를 달았다. 원새끼

를 꼬아서 금줄을 만들었다. 산모는 산후 일주일 정도는 쉬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3일 만에 일을 하기도 했다. 아이는 평소 자던 방에서 낳았다.

아이에게 차려주는 돌상이나 백일상에 백설기, 수수팥떡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미역국과 밥을 놓았다. 백설기를 마을 사람에게 돌렸는데, 떡을 받은 사람들은 실 같은 것을 사다가 주었다. 돌은 사람을 많이 초대하지 않고 식구끼리만 지냈다. 돌상에 쌀, 연필, 공책, 실, 돈 등을 놓았다. 쌀과 돈을 집으면 부를, 연필 공책은 공부, 실은 명을 의미했다.

## (나) 혼례

이순근 본인이 결혼했을 때, 신랑이 신부를 업어서 신랑집으로 갔다고 한다. 당시 6.25사변 때문에 가마가 타버렸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모두 그렇게 결혼했다. 아내는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아내의 언니(처형)가 이 마을에 살았다. 언니가 중매 비슷하게 소개를 해서 결혼했다. 면담 참여자가 처형 집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동네 사람이니까) 아버지 상 때문에 언니 집에 와 있던 아내를 보게 되었고 후에 소개로 이어졌다.

중매쟁이(친구의 아버님)가 춘천까지 사주단지들 들고 갔다. 택일은 신랑 쪽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결혼식은 신랑집에서 했다. 가마가 타버려서 없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업어서 왔다고 한다. 심지어 육이오 때에 결혼식 상도 불타버려서 없었다. 잣나무를 베어서 지은 집에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때는 아버지만 있었다. 신랑이 결혼한 뒤 3개월 만에 입대를 했고, 아내는 많은 시댁식구들과 함께 살았다.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그 충청도에서 광주리에 이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충청도에서, 실 뭉 가위 그런 거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충청도에서 여기 올라오시면 여기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서도 많이 주무시고 여기 시택에 할머니하고 또 할머니가 마음이 좋으세요, 시택에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러면 여기서도 많이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도 많이 주무셨는데. 이제 군인을 가셨잖아요. 3개월 만에 군인을 가신 거예요. (...)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가 많으니까 밥그릇을 이렇게 부뚜막에다가 많이 차려 놓아요. 그러니까 광주리장사 할머니 말이 도망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가씨 같이 신랑 없이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고, 그래서 이제 정말 도망갈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어디로 가냐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 홍복산으로 해서 가면 된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청실, 홍실을 결혼식 상에 걸었고, 암탉과 수탉을 상에 묶어놓았다. 암탉 수탉을 서로 절을 시킨 이후에는 닭을 날려 보냈다. 신부가 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들을 낳았던 여자이지만, 절한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집을 배경으로 놓고 보았을 때 신랑은 상의 오른쪽, 신부는 왼쪽에 있었다. 폐백은 신부의 언니가 해주었다고 하는데, 음식은 준비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국수잔치를 했는데, 메밀이 아니라 밀로 된 국수를 먹었다. 국수나 인절미, 송편, 절편 등의 떡, 막걸리, 잡채, 묵, 전, 돼지고기 삶은 것을 잔치 음식으로 내왔다. 시루떡은 쓰지 않았고 돼지 잡는 것은 부유한 집에서만 했다.

이 마을에서는 함잡이가 신부집에 들어설 때, 바가지를 발로 밟아서 깨고 들어갔다고 한다. 신부는 노란 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고 족두리를 썼고, 신랑은 한복과 사모관대를 착용했다. 족두리와 사모관대는 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결혼 당시에 사진을 찍었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다.

## (다) 축수연

아버지 환갑을 해드렸는데,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식사(국수, 막걸리, 묵, 떡) 대접을 했다. 환갑 때도 음식 부주를 했는데, 여러 사정상 환갑상이라는 것은 차리지 않았다. 그릇이나 숟가락이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오는 등 마을 사람들이 생일을 함께 했다. 환갑잔치에 기생을 불러서 여흥을 돋우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다고 면담 참여자는 말한다.

## (라) 상장례.제례

이 지역에서는 5일장을 많이 지냈다. 산이 없는 사람들은 3일장을 하고 공동묘지를 썼다. 조금이라도 사정이 허용하면 남의 산을 빌려서라도 산에 매장하라고 했다. 예전에 장례과정은 모두 품앗이로 이루어졌다. 관을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삼베옷만 입혀서 매장하는 경우(탈관)가 많았다. 관이 있는 사람은 나무를 켄 정도로 부유했던 사람이었다. 엄은 집안에서 사위가 주로 했다고 하는데, 시신을 칠성판에 놓고 윗목에 모셨다. 시신을 모신 후에는 병풍을 치는데, 병풍이 없으면 돛자리를 펴서 세워서 가려놓는다. 병풍도 부유한 사람들만 사용했다. 돛자리를 쓰는 것이 “(돛자리 펴서 가리는 것이)보기 싫지.”라고 표현했다.

수의는 필로 끊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팔죽도 쑤는데 역시 품앗이로 이루어진다. 동네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도와주었는데, “요 동네는 스물 몇 호 밖에 없지만은, 신촌이라던가 그런데서 오잖아. 그전에는 멀었어도 사랑방에 와서 주무시고 하니까.”라며 옛 인심을 회상했다.

요 동네는 그렇게 20 몇 호가 있지만 신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 다들 같이(와서 상가집 일을 도왔다). 그전에는 멀었어도 그 사랑방이 상칸 우리 사랑방이 있지만 여기 와서 주무시고 그러고 하니까.

뭇자리를 파는 것도 삽과 곡괭이로 동네 사람들이 직접 했다. 상여는 한 쪽에 8명씩 총 16명이 들어가거나, 한쪽에 6명씩 총 12명이 들어가기도 했다. 상여를 매는 데에도 규칙이 있어서 짝수가 들어가야 했다. 마을에는 선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을 바깥에서 불렀는데, 자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선소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조금 주기도 했지만, 선소리를 대가없이 해주기도 했다. 상여가 나갈 때 상주가 낸 돈을 마을기금으로 했고, 상여를 멘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이라도 주었다. 하지만 품앗이를 했기 때문에 잘 받아가지는 않았다. 대가를 크게 바라지 않고 품앗이를 해주던 인심을 이순용 씨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선소리하는 사람에게)사례는 뭐, 그래도 얼마 주지, 돈을. 돈 주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와서 해 주는거지. (상여 나갈 때 모인 돈) 많으면 마을기금도 만들고 또 상여를 멘 사람들 일한 사람들에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주고 그렇게 했지. 돈이 많이 남으면. (...) 근데 그전에는 받아가질 않았어. 품앗이니까 서로가. 옛날이 더 좋았다니까 지금은.

상여를 이 마을에서 만들어서 신촌과 함께 썼다. 상여가 흉하게 생겼기 때문에 동네 바깥에 따로 상여독을 지어서 그것을 관리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들 도갓집이라고 한다. 도갓집에 혼인 때 쓰이는 늦그릇들도 함께 있었다. 6.25로 타버리기 전에도 마을 재산으로 그릇도 있었다. 현재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상여독이 사라졌다.

상여에 잣나무가 쓰였다. 상여계가 있었는데, 쌀계라고 불리기도 했다. 쌀

한 가마씩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외에 떡이나 술을 가져오기도 하고 묵이나 팔죽을 쑤어오기도 하는 방식으로 계가 이루어졌다. 장사치를 때는 밥과 국, 나물, 두부를 대접했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에는, 상여를 가지고 선산(광적면)까지 갔다. 약 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상주들이 매장하는 곳까지 상여 뒤에서 따라갔다. 영정이나 만장 등도 모두 함께 가지고 갔다. 산에까지 명석과 밥술을 전부 지고 가서 일꾼들에게 밥을 먹였다. 상여가 나가서 매장지에 가기까지 여러 차례 쉬었는데 반드시 홀수 번으로 쉬었다.

(여상주들도) 다 따라 가는 거지, 그 상여 뒤에 따라서. 동네 분들도 따라 가고. 영정, 만장 같은 것 그거 들고 벼, 또 이름 쓴 것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쪽 서서 들고 가죠. 없는 사람은 없고 이제 식구가 많고 좀 산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жат밥을 놓고 지붕 꼭대기로 가서 초혼을 하는데, 적삼을 흔들면서 이름을 부르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하며 ‘저승에’ 알렸다. 장례 부주를 할 때 이름을 기록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부주를 돈으로 하지 않고 음식(주로 죽, 떡 등)으로 주로 했다.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사돈집에서는 떡(절편=골미떡)을 꼭 해 와야 한다는 점이다.

시신 모양대로 못자리를 파서 시신을 둔 다음 흥대를 올리고 이름을 쓴 종이를 올린 뒤에 흙을 덮는다. 흙에는 회를 치기도 했다. 봉분을 올릴 때 세 번 정도 다졌는데, 선소리에 맞추어 마을 사람들이 달구질을 했다고 하며 보통 6명이 달구질에 참여했다. 기제사에 닭고기나 문어는 많이 쓰지 않았고, 삼색과일, 소적, 조기, 복어, 나물을 썼다.

## 나. 장암동 동막골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마을 이름은 장암동 동막골이지만, 현재의 행정 명칭으로 하면 장암동 몇 통으로 불린다. 경로당 이름은 동막경로당이 된다. 동막경로당은 원주민들만 모이는 경로당이었고, 찾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 마을은 없어진 셈인데, 과거에 마을이 있었을 때에 마을 호수가 많지 않아서 20 여호 되었다. 해방되었을 당시에는 약 27세대 정도가 있었다. 요즘도 원주민 가구 수는 30호가 되지 않는다. 전쟁 이후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 늘어났지만,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주택 건설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발 직전에는 약 40세대가 넘었는데 세 들어 사는 사람까지 약 60세대 가까이 있었다. 1980년대에 개발제한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기존 주택에 세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 개발하기 직전에는 아마 그래도 세대 수가 꽤 많았지, 그때가. 대강 한 40세대 넘어.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그렇죠, 그때는 한 60호 가까이 되었죠.

개발제한구역에서 여기 풀린 것도 그때 몇 년쯤 됐나. 회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풀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가 회사 들어오고서도 못했어, 우리 집 지을 적에 몰래 지었는데 단속반들이 와가지고 집 헐고 짓는 데도. 그게 풀린 지 얼마 안돼요, 그렇게. 70년도 더 되어서 풀렸어, 늦게 풀렸어요.



<그림 4> 동막골의 현재 모습

1967년경부터 방위선이 놓였고, 김신조 사건이 발생한 1968년도 이후에는 마을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마을은 농사를 짓는 시골 동네였다. 앞뜰에 논이 조금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농지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 일제 때는 마을 주민 대부분 소작을 했다. 토지개혁 이후에는 토지 분할을 받아서 면담 참여자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 토지개혁은 유상분배로 이루어

어졌다. 마을 땅을 가졌던 지주는 서울사람이었는데, 서울집과 면장댁이었다.

서울집하고 면장 댁이지 뭐 더 있었어요? 면장 댁은 땅 사가지고 소작을 안 하고 서울 집에서 하고 영택이네 거기 조금 있었고 서울집에서 거의 다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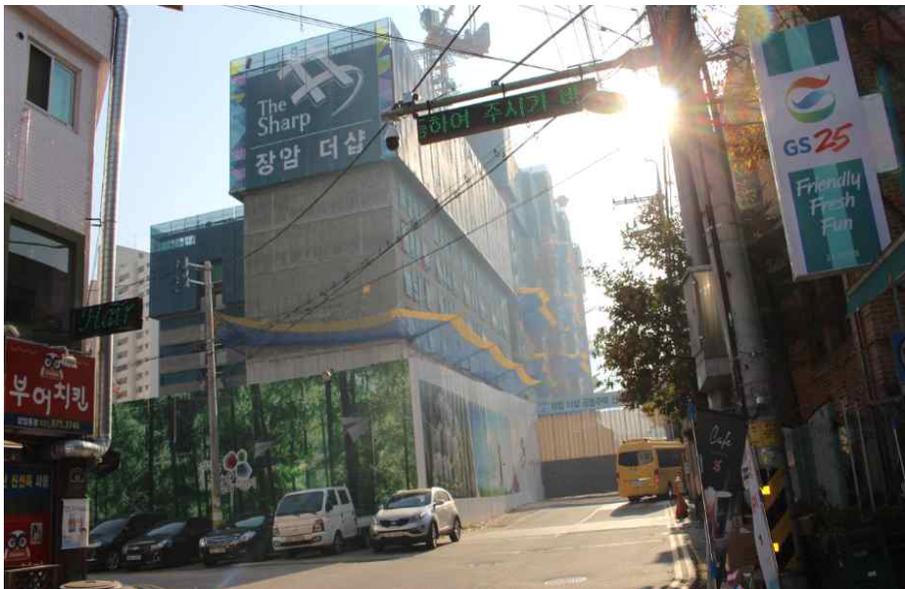
예전에 서울집에서 서울 지주의 마름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다음해에도 소작을 받기 위해서 마름에게 잘 보여야 했다. 마름은 신씨(신현배, 참여자와 동창)였다. 마름집은 열 몇 칸이 될 정도로 컸다고 하는데, 안채와 바깥채가 있는 기억자의 우물집이었다. 바깥마당에 탈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마름과 면장집이 크기는 컸지만, 이 두 집을 포함한 모든 집이 초가집이었다. 마름집에서 관리하는 땅에서 나는 쌀이 백석이 넘었다. 쌀은 한 마지기에 벼 두 가마(양석)가 나왔다. 쌀로는 한 가마가 나왔다.

서울집이라고 서울에서 왔는지 우리 어려서부터 그 마름을 보고 있었어요, 관리. 마름이라 그러죠, 관리하는 분들. 그래서 그 양반들은 소작을 하면서 상전이죠, 아주. 뭐 탈곡하고 타작이라고 그러는데 탈곡하는 것을 옛날에. 그거 하는 날이면 뭐 구경 못 하던 우리네 먹어보지 못한 반찬을 특별히 요렇게 해서 갖다가 집에까지 갖다 바치고 노인네가.(그다음 소작을 받으려고)

60년대에 양수시설을 짓고, 다수확 품종 개발을 하고 마을 논에 직접 모를 내러 오는 등 박정희 대통령과 마을이 직접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면담 참여자는 박대통령이 농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기억한다. 특히 양수시설은 자주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수락산에서 직접 땀나무를 해 와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연탄

개발을 하고 연탄 값을 올리지 못하게 해서 생활이 나아졌다. 산에 성장이 빠른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가시나무 등을 심었다.

박정희가 이 농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잊지를 못해요. 제일 못 사는 시대에서 살았거든요, 해방 이후에 사변 나고 못 사는 시대에 살다가 지금 이렇게 고속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는 양수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물 때문에. 박정희가 여기 와가지고 모 내는 시기에 가물어가지고 걷어 부치고 이거 하는 거 기념으로 그 하천에 물이 말랐으니까 파면 물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 하는 것을 와서 하고. 화방직에 밤나무 밭이 컸거든요. 그 밤나무 밑에 와서 그 당시 읍에서 와서 나무 소독을 짝 하루 전에 다 해 놓고 그 밑에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양수장을 굉장히 농민들 이 서민들한테 상당히 신경을 쓴 게. 다수확 품종 개발을 하고 통일벼.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우선 밥 먹어야 된다.



〈그림 5〉 동막골의 현재 모습

일제강점기때 천수답이 대부분이었는데, 중랑천을 가래 같은 것으로 다섯에서 아홉 사람이 도랑을 쳐서 대략 막으면 수문으로 물이 들어왔다. 수문으로 들어온 물은 논 옆의 수로를 통해 농지로 들어왔다. 일제 강점기 전부터 제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물이 충분했던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물었고, 1960년대가 되어서야 농촌 관정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하수 개발이 되었다. 이 근처에 농수를 확보해 줄 저수지는 없었다.

밭은 많지 않았지만 주로 야채, 조, 수수, 참외를 심었고 수확량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팔 수 없었고 자가소비를 했다. 식사는 주로 밀밥이나 보리밥, 밀수제비(수제비 막가리), 쌀겨, 보리겨로 된 음식을 주로 했다. 쌀겨는 쓰고 일주일간 먹으면 어지러울 정도로 영양이 충분하지 않았고, 보리겨는 쓰지 않고 여러 날 먹으면서 견딜 수 있었다. 참여자가 17세 일 때 밀밥을 먹었는데, 6.25 의정부 폭격 당시 타버린 누룩 공장에서 밀을 가져다가 먹었다. 마을 주민들은 6.25 때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피난을 갔다. 참여자는 광주로 피난을 갔다가 5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 광주에 있을 때 매형의 모내기를 도와주었는데, 그 때 바가지에 담긴 콩보리밥(콩보리밥)과 간장을 먹었다.

광주에 가서 뭐 했냐면 거기 모내기 한참이더라고요. 모내기가 한참 하는데 우리 식구가 우리 누님 네 인제 식구 매형 인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도 우리아버님 우리형님 나 거기 가서 모 내주었어요. 모 내줄 때 무슨 밥을 먹었냐면요. 보리밥 팥보리밥, 보리 삶아 놓은 것 거기는 또 그릇이 뜰에 나오는 게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지 바가지에요, 바가지 밥이야 거기다 해서. 그저 간장 한 가지 정도 그런 식으로.

수제비 막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찌꺼기를 체로 거르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반죽을 합니다. 갈아가지고 꺾떼기 같이 갈아가지고 땃돌에다 갈아가지고 그것으로다 그냥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해 먹어요, 감자를 넣고 이려고. 어려웠죠, 여기가.



〈그림 6〉 동막골 경로당이 있는 건물

마을 산제사는 음력 10월 1일이다. 수락산제가 이 마을에서만 남아있어서 의정부시에 지방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아직 하지 못했다. 산제 회비는 예전에는 쌀 한 되박이었다. 현재는 현금 만원이다. 예전에는 산제사에 마을사람들만 주로 참여했지만, 현재는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참여의사가 있으면 제사에 참여한다. 초하룻날 새벽에 마을 관리자가 하주를 다섯 집 정도 선정했다. 하주가 될 집은 정결해야 하고 부정해서는 안됐다. 하주를 선정한 후 날택을 해서 산제를 지낼 날짜를 받았다. 두 사람을 선정해 한 사람을 선하주, 다른 한 사람은 앓은 하주로 정했다. 선 하주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앓은 하주는 자신의 집에서 일을 했다. 부정한 사람들은 선정된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날을 받아 하주로 선정된 집 양쪽 대문에는 황토를 뿌려서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까다로운 게 금방 내가 까다롭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들도 부정하면 거기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 날 받아 와가지고 그 선정이 되면 황토 흙을 파다가 양쪽 대문에다 갖다 이렇게 뿌려 놓아요. 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요.

산제사의 장소는 산꼭대기가 아닌 산 입구 쪽의 개울 우측에 있는 나무가 많이 있는 돌담이 있는 곳이다. 그 장소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 번 무너졌던 것을 다시 쌓았다.

산 입구에 따라가면 올라가다보면 개울 우측으로다가 나무가 많은데 이렇게 돌로 다가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게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 그 10년 넘는 것 같아, 10년 넘었죠. 그것을 다 다시 해체해 가지고 쌓았는데 보기 좋게 쌓았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는 부정을 피하기 위해 당일 새벽부터 준비해 당일에 마친다. 술은 사지 않고 술을 직접 담가서 썼다. 이를 조로술 이라고 한다. 조로술을 담가 향아리에 넣고 주저리를 씌워서 산제사 터의 큰 나무 아래에 놓았다. 술은 밀술을 조금 넣어서 담그기 때문에 당일에 만들어졌다. 산

제사는 예전에는 밤 11시 넘어서 지냈다. 닭이 울기 전 11시경 당일에 만든 떡 시루를 지고 올라갔다. 떡은 팔 시루떡을 썼는데, 동네 절구 3~4개에 한 뒷박씩 곱은 쌀(총 스무 되, 두 말)을 저녁때까지 빵아서 시루에 썼다. 떡 만드는 과정은 앓은 하주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만들어지는 팔 시루 떡은 매우 두꺼웠다.

앓은하주 집에서 그 안에서 하죠. 앓은하주 집에 불을 그냥 안방에다가 계속 때니까 불이 날 정도로 이게 막 타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면 그 전에는 세수대조 이렇게.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거기다 놓아요. 그럼 열 전달이 물로 전달되어서 덜 뜨겁게 한다고.

과일은 삼색과일인 대추, 밤, 감을 썼다. 다른 과일은 쓰지 않았다. 제사에 북어포를 반드시 올렸다. 수락산은 소산이라고 하여 고기 비린 것을 먹지 않아 소머리 같은 것은 쓰지 않았다. 대신 다시마와 북어를 넣은 무국, 탕국을 끓였다. 제사를 지내듯이 술 석 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한 잔 올리고 절을 하는데, 절은 두 번씩 했다. 산제사의 대상은 산신령님이라고 불렀다. 제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갔지만,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선하주였다.

음식이 준비되면 종이를 태워 숙원을 하는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예전에는 마을 전문 만신이 하기도 했다. 부락의 무탈을 비는 대동소지를 한 후, 각 대주의 이름을 읊으면서 축원을 했다. 소지를 올린 다음 내려와서 마을의 커다란 나무에 축동을 했다. 축동은 마을의 재난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현재 축동은 사라졌다.

축동이 또 있어요. 축동이라고 마을 입구에 이제 그 모든 재난을 막아준다고 하는 게 해가지고. 나무가 커다란 소나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나무 전나무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도가도 또 시루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지내고.

그 후 앓은 하주의 집으로 내려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가져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국도 많이 끓여서 주전자에 담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떡 가져가라고 하면 전부들 오세요. 그러면 국도 많이 끓여 가지고 떡 먹으면서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전자도 가져오고 이레가지고 떡 가져가면서 주전자에 국도 좀 떠 가지고 가서 저녁에. 또 그 전에는 어려우니까 밤에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야, 떡 먹어라 그렇게 해서 국물하고.

현재는 만신을 부르지 않고, 떡도 회비를 만원 씩 걷어서 떡집에 맡겨서 만든다. 그리고 마을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7~80명이 참여한다.

( ) 月中行事表			SCHEDULE OF THE MONTH			備考
日	曜	6 行한조준비	16			備考 과 ... ... ...
1	6/6	나기순 5-8/63 함의한/10차	17		산 제	
2	7/6	이경자 5번 14/18 반양호 5주 1박스	18		회비 1만원	
3	"	경자순 5- 11/3 정혜심 팔4K	19		11월 1일 까지 내시기	
4	"	순덕희 5	20		받습니다.	
5	"	혜영희 5	21			
6	"	김복영 5	22			
7	"	김정실 5	23			
8	"	김민중 5	24			
9	"	정호선 5	25			
10	"	구영숙 5	26			
11	"	한익준 5	27			
12	"	최우희 5	28			
13	"	최은달 5	29			
14	"	이광선 3번	30			
15	"	이길성 5번	31			

<그림 7> 동막골 경로당 회관에 걸려있는 산계 게시판

제각이나 명단을 보고 아무개 씨네 몇 식구 하면서 소지를 올리며 축원을 했는데, 축원을 위해서 불렀던 만신이 오지 않은지는 30년이 넘었다. 예전에 대동굿이라는 동네 굿이 있었는데 대동굿을 위한 날은 따로 받았다. 대동굿은 규칙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고 마을에 무슨 일이 있거나 불길한 일이 있을 때 했다.

마을에 특별한 단오행사는 없었고 그네를 땀다. 예전에 큰 참나무와 뒤뜰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들에 그네를 매고 뛰었다. 그네는 마을에서 직접 짚으로 동아줄을 틀어서 석줄 땀다. 초파일 즈음 매서 단오까지 뛰었다. 그런데 예전에 이 마을에서는 그네를 끊지 않고 계속 뛰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그네를 뛰었다.

그때까지 뛰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그거 원래 우리가 아는 걸로는 끊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동네는 그렇게 끊지를 않아 계속 땀 걸로 알고 있어요. (...) 초여름에도 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월보름날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회를 매기도 하면서 달맞이를 하고 아낙네들은 널뛰기를 했다. 달맞이에 대해서는 “애들하고 뭐 어른들하고 같이 달맞이를 회를 매가지고 나가서 저 들에 가서 달맞이를 하고 햇불 피고 소원 빌고.”라며 회상한다. 씨름은 크게 하지 않았고 율놀이를 많이 했다. 회는 다북떼라는 들초를 나이만큼 매서 불을 붙였다. 마을 들판에 다북떼가 많았는데 불에 잘 탔다. 추석 때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동지 때는 각자의 집에서 팔죽을 쑤어먹었다.

다북떼는 갈대하고 틀러요. 쑥과류 같이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아주 요게 잎사귀도 잘고 꽃 피웠다고 열매 꽃망울 진 것이 잘게 쯤쌀 모양으로 땡글땡글한 게 그게 아주 잘 타요.

마을에 농악패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다. 농악패가 사라진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동막골 경로당 내 게시판에 걸린 경로당 행사 사진



〈그림 9〉 동막골 경로당 내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시는 주민들



<그림 10> 동막골 산제사 터 가는 길



<그림 11> 동막골 경로당 입구



<그림 12> 동막골의 한 묘터



<그림 13> 동막골 산제사 터



<그림 14> 동막골 산제사 터의 돌무더기



<그림 15> 동막골 산제사 터 전경



〈그림 16〉 제사 용 물을 걸렀던 우물

## (2) 동막골 토박이의 삶

면담 참여자인 함의한 씨는 1934년생이고 강릉 함씨이다. 해당 마을에서 태어났다. 보조연구원인 전미영이 동막 경로당에 전화해서 연결된 면담 참여자로, 매우 친절하면서도 기억력이 비상한 분이였다. 함 씨는 단본이었다가 현재는 양건 함 씨와 강릉 함 씨로 갈려 있다. 족보는 두 분이 함께 쓰고 있다.

원래 단본이었다가 그전에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 양건 함씨 강릉 함씨로 갈려 있어요. 근데 족보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한 할아버지 자손이니까. 본은 인제 그렇게.



<그림 17> 면담 참여자 함의한 씨

마을이 언제 생겼는지, 함씨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른다. 이 마을은 각 성밭이 마을인데, 손씨와 최씨가 많았고 함씨, 이씨, 고씨도 몇 집 살았다. 큰집이 창동에 있었고 조상 묘는 하계동, 양주 샘내에도 있다.

참여자는 의정부 끝에 있는 양주국민학교(현 중앙초등학교)를 다녔다. 의정부 읍이 되기 전에는 시둔면 이라고 했다. 참여자는 중학교는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3년 채 못 다녔다. 후에 서울의 한영중학교를 조금 더 다녔다.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후에 농사를 짓다가 35세 때 건축(목수, 대목)을 하기 시작했다.

대목은 참여자의 형의 사돈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사돈은 의정부에서 유명한 대목이었다. 사돈 밑에서 일을 주로 배웠는데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빨리 터득했다. 예전에는 대목은 ‘오야지’를 따라다니면서 대목 일을 배우는 것이었다. 처음 배울 때는 쉬운 일을 하다가 자기 기술이 생기는 등 능력이 커지면서 일이 자주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대목이 되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그게 뭐 그야말로 키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 그때 배울 때는 그 대목을 보통 부르는 오야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인제 연관으로 누구 연관으로 가서 일을 하잖아요. 초보 적에는 조금 쉬운 일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재능이 뛰어나면 이제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기 기술이 생각하는 것도 깊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일도 잘하고 하면 자기가 대목이 자진 되는 거예요. 일을 잘 하면 집을 지어달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꾸 하다 보면 대목이 되는 것이죠.

면담 참여자는 한옥보다는 양옥을 주로 지었다. 신성통상의 사옥 촌(사후 촌)을 노량동 쪽에 21세대(단독 18개, 연립 3개)를 단독으로 맡아 지었고 후에 혜화동에 학생 하숙집을 지었다. 건축(설계)만 하고 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분야별로 외주를 주었다. 한옥을 하는 대목들은 주춧돌을 놓고 쪽 건축을 진행하지만, 양옥을 하는 대목은 집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이나 문틀 하나하나를 설계하는 등 전체적인 건축설계 관리를 했다. 참여자가 대목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한옥이 드물 때였다. 주로 의정부에서 활동을 했다. 65세에 다리의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

지금은 문 같은 거 문틀 같은 게 다 공장에서 나오죠. 그 전에는 다 나무 이런 거 제재소에서 사다가 다 이거 그러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 문 하나 짜는데 자로다 재 가지고 해가지고 요거 맞추는 것까지 다 그러요. 그것을 해야 대목이 되는 것이죠. (집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요. 많이 신경을 하여튼 뭐 집을 짓기 시작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 누워서도 기와집을 짓고 있죠, 드러누워서도. 한 천장 쳐다보면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참여자는 5남매를 낳아 기르고 부모님 모시면서 총 아홉 식구가 살았다. 농사는 참여자의 아버지가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참여자가 낮에 대목일을 하고 돌아와 밤과 새벽에 지었다. 나중에는 논농사를 많이 지었다.

하루는 그러시더라고 얘야, 내가 이제 어지러워서 눈에 못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농사 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물고 봐주시고 논두렁 조금씩 깎아 주시고 할 때인데 못 가시겠다고, 네 가지 마세요, 제가 할 게요. 일 갔다 와서 밤에 다니고 새벽에 다니고.



<그림 18> 면담 참여자 고영수 씨

고영수 씨는 1937년생이고 장흥 고씨이다. 원래는 제주 고씨였으나 떨어져 나와서 장흥 고씨가 되었다. 양주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14세 때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가 편참으셨는데 휴전이 될 무렵에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고영수 면담 참여자가 직접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다가 1967년도에 섬유회사(신성통상)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1년 동안 창고 일을 하고, 2년 동안 보일러실에서 일을 하다가 폐수관리 관련 환경 일을 했다. 1995년도까지 회사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현재는 그 농토가 개발되어서 전부 사라졌다. 현재 경로당이 있는 땅도 집터였다. 예전 마을 사진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6.25때 마을이 폭격을 받아서 집들이 전부 타버렸다. 나무가 많아서 인민군, 중공군이 많았고 서로 싸우는 난리통이었다. 9.28 수복 때 수락산 계곡과 바위에 숨어 있었는데, 그 바위와 개울에도 폭격이 있었다. 고영수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도 여기서 얼마 안 올라가서 바위 밑에 있었는데 그걸 군인들이 깨 버렸어, 마당바위를. 마당바위라 그래가지고 바위가 이렇게 큰데 폭대기가 마당 같이 이렇게 생겨서 마당바위인데. 우리 그 밑에 가서 돌을 이렇게 쌓고 그 밑에 있었는데. 포탄이 새벽에 그 바로 뒤에 와서 떨어진 거야. 벼락을 치더라고 뭐 그냥 조금 있더니 또 개울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락산 그 계곡에 그쪽으로 많이 와 있으니까 또 구경을 간다고 서는 저 산 등에 가서 서울 쪽이 다 내다보이는 등에 수락산 이렇게 능선에 가서 거기를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뭐. 그런데 참 전쟁구경 했어, 우리가 보니까.

폭격 때문에 마을은 불타서 없었고 주변에 움집을 지어서 살았다. 집을 제대로 지은 것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이후이다. 당시는 개발 규제가 풀리기 전이라서 단속반이 나오기도 했다.

### (3) 동막골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예전에 아이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낳았다. 출산을 잘 아는 마을 할머니가 아이를 받았지만 혼자 낳는 경우도 있었다. 함의한 면담 참여자의 아내도 혼자서 자식들을 낳았다.

우리 어머님 계실 때인데 우리 몇 째 아이인가 혼자 낳았어요, 우리 식구가. 왜 혼자 낳았냐면 어머니가 아침을 잡수시고 개울에 가셨어요. 그때는 걸레 빨로 빨래 조금씩 하는 것 개울에 가서 했는데. 개울에 가셨는데 혼자 낳은 거예요. 나는 없고 혼자 낳아 가지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처리를 하고.

태는 면담 참여자의 어머니가 끊어서 적당한 야산에 묻었다. 태우는 것은 못 보았다. 금줄을 쳤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금줄에 숯과 고추를 달았다.

예전에는 어려워서 참여자는 돌상이나 백일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자의 자식에게는 돌상을 해주었고 돌잡이도 해주었다. 돌잡이에는 돈, 연필 등이 올라갔고 무엇을 잡아야 좋다는 것은 특별히 없었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재산을 좋아하면 돈 잡아야 되고 이름을 날리고 그러려면 연필을 잡고.”라고 했다. 돌상에는 수수팥떡과 백설기를 올렸다.

#### (나) 혼례

함의한 씨는 1959년도에 구식결혼을 했다. 당시는 전쟁이 끝나 안정이 되

어 농사를 지을 때였다. 참여자의 작은 아버지의 건너 지인의 중매로 이루어졌다. 선을 보았다.

중매는 우리 작은 아버님이 그때 의정부에서 식당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아버님이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해 가지고서.

면담 참여자가 저녁에 직접 신부의 얼굴을 보았다. 신부는 강원도 평강 출신으로 의정부에 피난을 와서 살고 있었다. 중매를 선 할머니가 안내를 했다. 방에 들어가서 장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에서 나와서 중매인에게 이야기하면 되었다. 음식을 주고, 먹으면 혼약이 성사되는 그러한 방식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면담 참여자의 경우 신부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절차를 진행했는데, 여름에 장모와 신부의 고모가 참여자의 집을 보러왔다. 당시 참여자의 집은 세 칸이고 다른 집에 비해 높고 번듯한 데다가, 우물이 부엌문 앞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을 승낙했다. 면담 참여자의 어머니도 함께 나가서 이야기했다. 신부는 따라 나오지 않았다.

(선을 볼 때) 시내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처갓집에도 이제 조그만 집에 원래 강원도 이북이예요. 평강이예요. 거기 피난을 와서 살림하다가 조그만 집에 있었는데 저녁에 가서 봤어요. 저녁에 왜 그랬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내가 봐야된다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오라고 해서 저녁에 가서 보았어요. (...) 와가지고 보시고서는 무엇을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장모님이 우물이 있나 봐야 된다고. 물 길러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물이 참 좋았거든요, 우리는. 부엌 문 앞에서 나오면 이게 우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양가에서 승낙이 되어 가지고 했지.

혼약이 성사된 후 얼마 안 된 9월에 대례를 치렀다. 대례 전에는 사주를 보내고 날을 잡는데, 어느 쪽에서 잡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날짜는

한쪽에서 잡으면 서로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결혼식은 아침을 먹고 처가댁으로 가서 했다. 처가댁에는 차도를 걸어서 갔다. 마을 어른 중 결혼식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한 분이 따라갔다. 신부 옷감을 보냈던 것으로 함에 넣어서 보냈다.

그때는 이제 뭐냐면 또 어르신이 한 분 가요. 저 뭐냐, 마을에서 저거 하시는 분이 이런 거에 밝고 하신 분이 가지. 가서. (...) 그런 것은 보낸 것으로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보냈겠지, 안 보낼 수가 없지. 그제 옷감 같은 거 보내는 게 함에다 넣어서 보내는데.

대례 날 아침에 참여자는 양복을 입고 신부는 한복을 입었다. 족두리, 사모관대 등의 관복은 그 위에 입었다. 신랑이 어느 쪽에 섰었는지, 상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큰상은 당시 사정이 어려워져 받지 않았다. 대례를 마치고 나면 동네잔치를 벌여 밀국수를 먹었다. 결혼식 부조는 주로 국수나 동이술로 했다.

당일 오후에 신랑집으로 가서 잔치를 또 했다. 택시를 탔던 것으로 추정한다. 가마는 6.25 때 타버려서 없었다. 신부가 폐백을 신랑집에 온 당일 날에 시부모에게 했다. 첫날은 신랑집에서 보낸다. 신랑집에 어느 정도 살다가 신부집에 인사를 하러 갔다. 처음으로 신부집에 가는 것을 마을에서 ‘첫푸레기’라고 불렀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얼마 첫푸레기라 그래가지고 처음 가는 것을 첫푸레기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살다가 가는 걸로 알거든요. 첫푸레기라고 그런다고 그걸, 처음에 가는 걸.

신방은 예전에 지은 별채가 있고, 어른들이 밖에 상칸을 또 지어주었다.

경제력이 있으면 집을 지어주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남의 집을 가거나 같이 살았다. 제재 때문에 방을 덧대서 지을 수는 없었다. 집터도 다른 사람 소유였고, 참여자가 현재 소유한 집터도 뒤늦게 살 수 있었다. 결혼식 때 사진은 찍었으나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마을의 땅은)판 사람 남의 터죠. 남의 터인데 우리 집터도 남의 터였었는데 그때 농사 짓는 데 가서 일 년에 3일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농사지으면서.

#### (다) 축수연

참여자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이 환갑을 맞았는데, 환갑상을 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갑잔치를 할 때 상을 차렸다. 환갑상에는 과일, 사탕, 은행, 잣 등이 올라갔다. 환갑상을 차리는 사람들이 따로 와서 상을 차리기도 했다. 기생을 부르는 풍습은 없었다.

#### (라) 상장례·제례

면담 참여자 함의한 씨의 아버지는 90세까지, 어머니는 85세까지 살았다. 부모의 장례도 구식으로 치렀다. 예전에는 마을에 상여가 있었으나 현재는 쓰지 않아서 없었다. 상여 하나를 문화재국에서 가져갔다.

(상여가)지금은 없어요. 있었는데 그냥 안 쓰니까 없애 버렸어요. 다 부서지고. 그거 아마 누가 가지고 갔을 거야. 왜 가지고 가냐면 그것은 문화재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

으로 가져갔어. 여기 회관에 갔다 뒀었는데, 회관 지하실에.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할 줄 아는 마을사람(보통 둘)이 염을 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 상주측에서 부탁을 했다. 수의 등은 사후에 준비하기도 하고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옷감을 사서 동네 할머니들이 직접 만들었다. 여러 명이 부분별로 만들어서 수의를 만드는데 하루 정도면 충분했다. 관은 사서 쓰기도 하고 짜서 쓰기도 했는데, 주로 퇴관(탈관)을 했다. 퇴관하는 관(의지라고 부른다)은 비싸지 않았고, 입관하는 관은 원목으로 만들어진 좋은 것이었다. 대개 퇴관을 했지만 입관하는 집안도 있었다. 관도 마을사람들이 전부 짜주었다. 참여자의 아버지의 경우에도 동네에서 짰다. 주로 소나무 판자를 사다가 썼다. 3일장을 주로 하고 큰 장례는 5일장을 했다. 3일장 첫날에는 수의와 관을 준비하고 다음날에는 입관을 한다. 발인은 아침에 하는데 날짜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면담 참여자는 참여자의 매형이 관리하는 산에 시신을 모셨다. 마을 사람들은 선산이 있으면 선산에, 동네 지인이 있으면 지인의 산에 모시기도 했지만 모실 곳이 없으면 공동묘지에 묻어야 했다. 당시에 산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실 데 없으면 공동묘지에 가야죠. 선산 있는 사람은 선산에 가고, 동네 친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산에다 우리 아버지도 여기 웅이네 산에다 모셨잖아, 거기 이렇게 친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산주들이 동네 분이니까 그냥 우리 어디에다 모실만한 데 있으면 좀 한 자리 주시오 그러면 대개 많이 그렇게 얘기 해가지고 많이 모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산을 산 사람들도 있고.

상여는 그릇과 함께 마을 재산이었다. 그릇은 놋쇠 뱅두리였으나 닦기 불편하여 후에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바꾸었다. 빌릴 때 돈을 내지는 않았다. 동네잔치나 장례 같은 큰일에 쓰이도록 했다. 60년대에 마을에서 천막도

마련했다. 6.25 전까지는 가마가 있었고 이후에는 타서 없어졌다. 장관틀 위에 관이 올려 고정시키고 그 위에 상여 외장을 올린다. 상여 외장은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다. 상여 외장은 매년 조립해야 했는데 조립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길게 있는 건 장관틀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다 모시고 이것을 인제 고정시키는 것, 이것을 장관틀에다 뚫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양쪽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무를 깎아요. 단단한 나무로다가 이렇게 마주 끼죠. 끼고 고정 시키죠. 끈으로다가 고정 시키죠. (...) 이것(상여 조립)도 처음에는 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초상이 나면 주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제자리 제자리 찾아서 조립을 해야 되니까. 관이 이렇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맞는 것을 주워 다가 조립을 하는 것이죠. 고정시켜가지고 휘장을 하는 것이죠.

상여는 한쪽에 6명씩 총 열두 명이 댔다. 마을에 상여가 나가고 회달이를 할 때 선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김이봉 씨이고 현재 90세가 넘었다. 현재는 회다지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포크레인으로 한다. 참여자는 현재 방식을 “나이롱 식”이라고 평가한다.

지금은 그거(회다지) 하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은 매장도 포크레인이 와서 파 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인제 하관하면 흙 조금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포크레인이 다 떠다가 넣어 놓고 포크레인으로 꼭꼭 눌러요. 지금 진짜 나이롱 식이야.

광중은 넓게 파 놓고 그 안에 시신이 딱 들어가도록 속광중을 팠다. 동네사람들 중 잘 하는 사람이 했다. 퇴관은 밖에서 하고, 양쪽에서 네 명이 시신을 잡고 들어 올린다. 머리는 굳어있기 때문에 따로 잡아주지 않는다. 시신을 위에서 내려주면 밑에서 받아 앉히고 횡대를 올린다. 횡대 위에 명정이 올라가고 흙을 서너 삽씩 넣는다. 그 후에 회대로 덮고 세 번에서 다

섯 번 다진다. 호상이면 다섯 번을 다졌다.

광정 그거 보통 이만큼을 파죠. 거기 또 속광정이 있대. 속광정이라고 그러죠. 요거 딱 들어가게, 이렇게 넓게 파 놓고 그 안에다 시체 딱 퇴관 하니까 딱 들어가게 모양을 그대로 그림니다. 이 정도면 들어가요.

장례 부조로 팔죽과 술을 했고 묵은 하지 않았다. 묵은 잔치집에서 했다. 국수대신 쌀밥을 주는데, 맑은장국(무국)과 함께 주었다. 소고기는 어려워서 쓰지 못했고 북어 정도 썼으며 그것도 없을 때가 있었다. 쌀밥은 당시에 도 흔하지는 않았지만 장례날은 특별한 날이기에 먹었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반드시 가야 한다고 여겼다. 장사가 난 집에 일하러 가서 음식을 먹고 왔다.

그전에 어려워서 소고기 없어요. 북어 정도나.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참 어려운 세대이죠. 우리는 진짜 어렵게 살아가지고 우리 세대가 제일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 (...) 초상집에 쌀밥을 먹고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 그리고 동네에서 초상집에 안 가면 안 되죠.

초상계(상계)가 있었다. 쌀로 한 뒷박씩 거두었다. 예전에는 팔죽 한 동이, 술 한 동이를 부조로 서로 번갈아가며 했다. 팔죽 한 동이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먹었다. 팔죽을 하는 이유는 미신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했다. 현재 상계는 사라졌다.

뒷박으로 했을 거야. 한 되 박씩인가 뒷박으로. 그전에 초상에는 팔죽을 부조로도 했어요. 부조로 하는데 그게 그 집에 한 동이 해다 주면 이쪽에서 또 상을 당하면 또 해주고 서로 이렇게. 술 막걸리하고. 팔죽하고 술이 그전에는 동이에요, 동이 이고 다니는 동이에다 거기다가 하나씩.

기제사의 경우, 제사상에는 특별하게 올리는 것은 없다. 복어, 적, 조기는 필수였고, 고기는 구하기 힘들어도 소고기만 썼다. 예전에는 소고기가 없으면 아예 고기를 올리지 못하기도 했다. 소고기는 의정부에서 사왔다.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파주시

## 파주시

### 지역개관

면적	672.83km <sup>2</sup>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4읍 9면
인구	2019년 1월 기준 452,564명
인구밀도	670.33명/km <sup>2</sup>

파주시는 동쪽은 양주시, 서쪽은 남부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북부는 임진강을 경계로 개풍군, 남쪽은 고양시, 북쪽은 연천군에 접하고 있다. 마식령산맥의 말단부에 속하고 북서쪽에는 임진강이 서남류하고 있어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주요 하천으로는 서남쪽을 흐르는 한강이 있다. 임진강 지류로 서남류하는 남월천과 북서류하는 문산천, 서류하는 곡릉천 등이 있는데, 이들 하천이 지나가는 시의 서쪽에는 해안 평야가 넓게 전개되어 곡창지대를 이룬다. 임진강 하류지역은 만조 때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탄현면과 장단면의 하안가에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고 있다. 해수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홍수 시에는 만조시기와 겹치면 문산읍까지 해일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나 인공방조제의 건설로 피해가 많이 감소되었다.

전 토지의 41.3%가 임야이고 경지는 19.3%이며 하천 7%, 도로 2.6%,

공장용지는 0.9%이다. 임진강과 한강 하류의 유역평야에 입지한 파주시는 기름진 곡창지대의 하나인데 경지 중 논은 8,848ha, 밭은 4,558ha이다. 이들 농경지에 연풍·오산·곡릉저수지 등이 관개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감자·콩 이외에 채소류로 배추·무·파·마늘·호박·오이·참외·수박 등이 생산되고, 특용작물로는 인삼·참깨·들깨, 과실류로 사과·배 등이 생산된다.

예로부터 임진강을 통해 서울의 북쪽에서 관북, 관서 지방으로 연결되었으므로 임진강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도(渡), 진(津), 포(浦)가 발달하였다. 관북의 서수라로와 관서의 의주로가 분기되던 곳으로 임진강의 대표적 나루였던 임진나루를 비롯해 낙하나루, 반석나루, 덕진나루 등 많은 나루가 있었다.

상업시설로는 정기시장·상설시장 등이 있다. 금촌장이 1·6일, 문산장이 4·9일, 법원장이 3·8일, 봉일천장이 2·7일, 신산장과 적성장이 5·10일에 열린다. 이곳에서는 나물류와 채소류, 그리고 토산품·생활필수품이 거래되고 있다. 상설시장으로는 금촌시장·문산시장·선유시장·파주시장·연풍시장·자유시장·봉일천시장·광탄시장이 있다. 파주의 장시는 입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수운의 활용을 위해 포구에 입지한 형태로 문산포장, 고랑포장, 이장포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사행로인 의주로 변의 주요 지역에 입지한 형태로 원기장, 광탄장, 판문장 등이 있다. 셋째는 관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읍치, 능침 부근에 입지한 형태로 봉일천장이 이에 해당한다.

항일운동에 있어 경기 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또한 정치적 변화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파주를 비롯하여 장단, 적성, 교하, 풍덕 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임진강 유역 일대는 강

화를 중심한 서북부 지방과 경원가도의 관문인 양주를 중심한 삭녕, 철원 등의 동북부 지방과 함께 당시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항일 의병 운동의 주요한 격전지였다. 주요 의병부대로는 풍덕·교하·파주를 잇는 파주의 서남부 지역은 원수부 좌군장인 정용대 부대가, 파주를 중심으로 적성·양주 등지는 원수부 우군장인 윤인순 부대가, 장단·연천·마전·금천 등의 파주 동북부 지역은 원수부 선봉장 김수민 부대가 활동하였다.

## 가. 파평면 장파1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은 파주시의 북부에 있는 면이다. 덕천리 · 두포리 · 마산리 등의 7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파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파평면(坡平面)은 파주군 소속으로 읍에서 동북쪽으로 30리에 있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 파평면은 북으로는 파평산을 경계로 적성현(積城縣)과 접하였고, 동으로는 양주군과 접하였다.<sup>23)</sup> 파평면은 울곡 이이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또한 임진강 어업권에 해당하였고, 뚝나물을 서울 마포에 보내는 금파리 나무터가 위치하였다.

---

23) [네이버 지식백과] 파평면 [坡平面, Papyeong-myeon]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12.,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1> 파주 장파리 지도

장파리는 파평면의 서쪽에 위치하는, 파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다. 본래 적성군 서면 지역으로 긴등마루에 마을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이 긴 능선은 금파리에서 고랑포쪽으로 약 2km 정도를 말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장파리에 도장동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장파리라 하였다. 이때 연천군 적성면에 속하였다가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고,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파평면에 편입되었다. 1리 지역을 아랫장마루라 하고 2리 지역을 웃장마루라 하며 긴등마루·장마루·장파라고도 한다.

마을 서쪽에는 임진강(臨津江)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동쪽의 낮은 구릉지를 제외하면, 마을에 전체적으로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자연마을로는 도장골, 버선거리, 봉우재, 붉은재, 송곳말, 안골, 양능굴, 양역골, 여음포, 장마루, 적성말, 주막거리, 천석굴 등이 있다. 봉우재는 마을 뒤에 봉화를 올리던 산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이후 사람이 살지

않는다. 붉은재는 마을 뒷고갯길에 붉은 흙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 지역 역시 현재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 양역골은 과밭마와 군마를 사육하던 곳으로, 마을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이고 수양버들이 많았으며 역원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여음포는 장단면 서포나루로 건너다니던 나루이다. 과평 윤(尹)씨 시조 윤신달이 과평산 밑 금강동에 살면서 개성을 오고갈 때 이곳에서 말에게 물을 먹였다 하여, 또는 말이 이곳에 도착하면 물이 말랐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적성말은 마을 주위에 성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의 흔적은 없고 주위 야산들이 첩첩이 드리워져 있어 마치 성으로 둘러싸인 듯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sup>24)</sup>

과주시 과평면 장파1리 마을 주변, 임진강 건너에는 DMZ(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미군부대가 많았다. 미군과 관계된 일을 하는 이웃들이 부대에서 나오는 컵과 같은 물건으로 부조를 했을 만큼 미군부대와 장파리 주민들의 삶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미군들의 전용클럽 역할을 했던 ‘럭키바’, ‘라스트찬스’, ‘DMZ클럽’ 등의 건물들이, 비록 그 쓸모는 다 했을지라도 아직까지 건재하다. 특히 DMZ클럽은 조용필이 무명시절 노래를 불렀던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sup>25)</sup> 이들 미군 클럽은 장파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당시 장파리의 인구가 크게 불어나고 서울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고속버스가 위치하는 데 기여하였다. 7분 간격으로 장파리에서 나간 고려여객 고속버스가 금촌, 봉일천, 문산을 거쳐 안성까지 갔다.

마을 토박이 정운춘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62년도부터 장파리 근처에 미군들이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KCC라고 불리는 미군

24) [네이버 지식백과] 장파리 [Jangpa-ri, 長坡里] (두산백과)

25)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노무자들과 근석들이 장파리에 많이 거주하였으며, 이들은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장파리의 원주민은 아니었으며, 미군부대와 관련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1971년 미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이들도 함께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1973년도 임진강 건너의 땅이 수복된 이후 강 건너 지역이 개간되면서 사람들이 (미군 부대가 있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모이게 되었다. 수복된 땅 중 일단 임자 없는 땅을 찾아 농사를 짓고 살다가 혹시 자기가 임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개간비를 조금 받고 돌려주는 식이었다. 당시에는 산이던 땅들이 평당 20원씩으로 아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에는 논이 되었고 가격도 높게 뛰었다. 오늘날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 대부분은 1970년대 이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대부분이 고령의 농민들로 오전에는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모여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면답자** 미군들이 출입하는 댄스홀이 마을 쪽에 있었나요?

**면답 참여자** 여기 홀이 5-6개 이렇게 있었는데 다방들도 많고 술집들도 많고. 그러면 미군들 토요일 일요일 그들이 나오죠. 동네사람들 미군 섹시들 미군 상대하는 여자들 나오고 자우지간 길이 그때 비가 오면 땅이 상당히 질어요. 논산 땅보다 더 질어요. 그냥 전부 달라붙는데. 아스팔트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길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50미터가 보이지 않는 거야. 중앙에서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 짝 차 가지고 한 50미터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때 당시 통일로가 길이 정식으로 되기 통일로가 되기 전에 그게 편도 2차선씩 1차선이란 말이야. 여기서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거짓말 같은 것인데 실제로 내가 60년대 들어왔을 때 고속버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가는 차가 문산에 안 서. 문산은 그때 당시에 고속버스가 거기도 있었는데 여기가 우선권이야. 여기 차가. 여기 그때 당시 고려여객이라고 해가지고 버스를 돈 있는 사람들이 한 대씩 대 가지고 일류 진짜

베테랑 운전수를 하나씩 두었던 말이야. 그게 여기서 나가게 되면 그 통일 로가 지금처럼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문산을 꼭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고속버스가 또 있으니까 거길 서질 못하고 거길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서 구 도로로 해서 그냥 가는 것을. 여기서 서지 않고 금촌 가서 한번 서고 바로 서울로 뛰는 것이. 염천교로다가 거기가 이제 종점이에요, 여기서 가는 게. 그때 그 도로로 2시간을 내야 염천교를 대는 차니까 상당히 빠른 차인 거야. 구도로를 그렇게 좁은 도로를 그렇게 달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7분 간격으로 뛰었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면답자** 아주 많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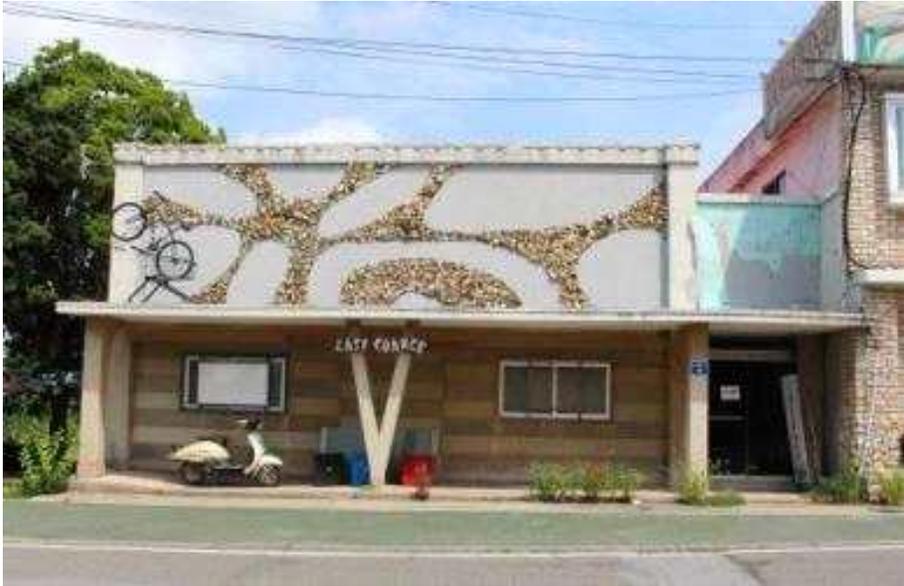
**면담 참여자** 상당히 많았죠. 지금 그게 그 버스 정류장이, 진짜 내가 생각해도 무척 베테랑들이야 그 기사들이.

**면답자** 군부대가 컸나 봐요?

**면담 참여자** 이 안에 여단 본부가 있고 거기 여단본부에서 JS부대까지 모두 해서.

**면답자** 그 미군 부대가 돈줄이죠, 거기서 돈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면담 참여자** 그럼요. 미군들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미군 부대가 71년 뜨면서 다 풍지박산 되고 다 달아나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농사꾼들만 들어오고. 전에 6.25 사변에 여기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없었다고 드문드문 몇 집이 있었고.



<그림 2> 미군들이 주로 출입하였던 댄스홀 '라스트 캔스'



<그림 3> 장파리 마을 한 가운데 나있는 넓은 2차선 도로



<그림 4> 파주의 주요 도시들로 이어지는 장파리 앞 리비 사거리

## (2) 장파리 토박이의 삶

정운춘 씨는 장파리에 들어가서 마을회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만났다. 대부분 외지인들이라고 하며 면담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면담 참여자는 1940년에 파주시 금촌동에서 나고 자라다가 1960년대에 군복무를 마치고 장파리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본래 황해도 연변, 어머니는 파주 장단리 출신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살던 부모가 아버지의 고향으로 도보로 걸어가던 도중에 어머니가 발목을 다치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사흘 정도 일손을 도우며 파주 금촌동에서 머물었는데, 일머리가 있고 사람 좋았던 어머니를 눈여겨 본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라고 두 칸짜리 집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파주 금촌동에서 돌아가셨고, 그 후에 홀로 장단

리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나마 고향과 가까운 장파리에 머물고자 하셨고, 정운춘 씨는 그 뜻을 따라 1960년 초에 군복무를 마치고 장파리로 집을 옮겼다.

정운춘 씨는 파주 금촌동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20세이던 1959년 8월 26일 군대에 갔고, 제대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며 삶의 터전을 꾸려나갔다. 미군부대의 학교를 지을 때 일을 도우며 받은 나무로 집을 확장하고, 남은 방은 방세를 놓아 생활비로 썼다. 반장을 6년이나 도맡을 정도로 마을 일에도 열심이었다. 반장의 역할로 가가호호를 발로 뛰어 비료와 석유 등을 집집마다 배분해주었다. 당시에는 비료나 석유 등을 반장이 직접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반장을 위한 수고비를 마을 사람들이 따로 책정해주었다. 정운춘 씨는 경작할 땅이 마땅히 없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

면담자: 여기는 사람이 하여튼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정운춘: 많았단니까요. 집이 한 집이라도 저렇게 집이 하나라도 거기 한 집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방마다 가구가 다르니까. 내가 여기 와서 맨 처음 반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 오면 반장을 찾아와. 우리가 이장을 찾아가면 이장이 어느 지점하면 이장이 안단 말이야. 그쪽으로 방을 놓고 온다. 그러면 거기 누구 반장을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반장한테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만들어주면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장이 올린다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주민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하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우리한테 처음 들어올 때는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무슨 방송 같은 것을 해서 무슨 알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하다못해 이번에 무슨 비료가 나왔다. 동네에 비료가 나온다 말이에요. 비료, 석유 이런 것이 그때는 등잔불을 켜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방송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석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단을 적어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 개인적으로 직접 종일 돌아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걸 나누어 주는데 석유 같은 거 한 드럼 가지고 나누어 주다가 이게 맨 처음에 그게 남는 것은 괜찮은데 모자라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정종 병중에도 좀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와 두었다가 그게 되박이야. 되박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대어가지고 또 따라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어 주고. 보

면 어떻게 되면 또 남아요. 남은 것 또 가지러 오라고 또 돌아다녀야 돼, 집집마다. 그런 반장을 여기서 한 6년 넘게 했어요. 비료 같은 것이 나오면 그때만 해도 지금은 포대 단위로 다가 마이크로 한번 떠들고 비료 가져가라 그러면 갖다 실어다 놓은 거 여기다 각자 가서 몇 포대 가져가라고 그러면 되는데. 포대 단위지만 그때는 포대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포대를 나누어서 누구네 몇 근 몇 량 중, 누구네 몇 근 몇 량 중으로 저울질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 번 포대를 가지고 와서 그거 나누어주는 것도 한 나절이 걸리지. 그때는 그런 식으로.

면담자: 그리 하다보면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을 다 아시겠네?

정운춘: 아주 피곤했어요. 한집에 저렇게 한 집이 누구네 집이다 그렇게 못하고 누구네 집에 누구누구 살아 그러면 가구 방마다 다 그렇게 사니까.

1967년 장파리 마을 근처에서 만난 첫 아내와 연애 후 결혼하였다. 첫째 아내는 병으로 사망했다. 슬하에 딸이 하나 있다. 1968년도에 홀로 서울에 가서 여러가지 일을 해보다가, 1971년에 서울에 위치한 시계부속회사 사니 전기라는 회사에 취직하였다. 좋은 직장이었고 장파리에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며 만족스럽게 일했지만, 1974년 유류 파동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아야 했다. 실직한 이후 면담 참여자는 서울 주소록을 경기도로 옮겨 경기도의 운전학원에서 1달 동안 교습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운전면허학원에 취직하였다. 운전면허 강사 이후 홍익대 앞 삼성 대리점에서 1-2년 타이탄 처리를 하고, 또 동네에서 차가 필요할 때 운전하는 일 등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 중부고속도로(전주-남원 확장공사) 건설 현장에서 하던 작업차 운전 일을 마지막으로, 면담 참여자는 장파리로 돌아와 2010년까지 버스 운전기사를 하고 은퇴하였다. 정운춘의 어머니는 1989년에 장파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묘에서 유골을 가져와 같이 화장한 다음 임진강에 뿌렸다.

### (3) 장파1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정운춘의 아내는 집안에서 딸을 낳았다고 한다. 병원에 가려면 문산에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시어머니(정운춘씨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아내의 순산을 돕고 태를 직접 끊는 일은 어머니가 했고, 옆에서 물을 데우는 것과 같은 허드렛일을 남편인 자신이 도맡았다고 한다. 아이의 출산 이후에는 원새끼를 낳은 지푸라기에 솔과 숯을 끼워 넣어 대문에 금줄을 쳤다. 딸아이에게 따로 돌상을 차린 기억은 없으나, 어머니였던 아내가 따로 마련해주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 (가) 혼례

정운춘은 1967년 마을 주변에서 아내를 만나 중매가 아닌 연애를 통해 혼례식을 올렸다. 대례를 하기 전 신랑 측에서 사주단지를 신부 측에 보냈고, 이에 대한 답례로 여자 쪽에서는 가을로 날을 잡아 보냈다. 함은 서로 보내거나 받지 않았다. 대례는 신랑 집에서 치루었으며, 집안 사정이 어렵고 아버지가 안 계셨던 상황을 배려하여 동네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었다고 한다. 장파리에는 상여계와 유물계 등이 있어서 상여세, 유물세를 내고 잔칫날 필요한 그릇이나 가마 등을 대여할 수 있었다. 품삯을 조금씩 받고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운영되었다고 한다. 상여와 가마 또한 마을에서 빌려주었기 때문에,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혼례를 치를 수 있었다.

대례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해 총합 3번의 절을 올렸다. 식을 올린 이후 신랑과 신부가 한 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으며, 결혼식 잔치 음식은 국수에다 콩나물 무침과 같은 반찬 몇 가지, 그리고 술이었다. 잔치가 끝나고는 사진관에 직접 가서 부부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저녁때는 마을 사람들이 신랑을 달고 장난치며 놀았다. 정운춘의 혼례식과 잔치는 형식상으로만 하루 동안 간소하게 치루었으며, 방 하나 따로 있는 것이 다행이었던 시절이었기에 신혼여행이라는 것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잔치 때 수합한 부조는 신랑, 신부 측에서 별도로 받아 관리하였다. 부조는 아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현물부조도 있었는데, 국수 두 어 봉, 정종 1병, 떡 조금 정도로 주로 잔치 당일에 필요한 물자로 구성되었다. 큰어머니는 치마저고리를 해 주기도 하였고, 6촌 누나도 의복을 부조로 해 준 것을 볼 수 있다. 의복의 경우에 가까운 친인척이 담당했다고도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끼리 잔칫집에 필요한 물자를 수소문해 서로 간 품목을 조정하고 충당하는 식으로 부조가 진행되어 혼례라는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면담자** 집에서 혼례식을 할 때 누가 절차 같은 것을 도와주셨나요?

**면담 참여자** 그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동네 어른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을 밭아주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식을 순서를 밭아주는 사람이 있지.

**면담자** 근데 이 동네에는 신식도 많이 한 것 같던데 구식으로 하셨어요?

**면담 참여자**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다르게 했겠지만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부조 같은 것은 그러나 저러나 다 물건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당시들은.

**면담자** 구식으로 하는 것이 가격, 뭐라고 할까 비용이?

**면담 참여자**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없는 거지. 동네사람들이 모아주는 음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동네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지금들은 동네사람들이

고 뭐고 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예식장을 가는데. 그때는 예식장 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까. 누구 네가 하든지 집에서 일단은 하는 거예요.

**면답자** 잔치는 집에서 하는 것이죠?

**면담 참여자** 그럼, 잔치는 집에서. 동네잔치가 되는 거지. 그래야 저 아래네 얘기를 들어보면 며칠씩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당일 날 딱 끝나고.

**면답자** 처가가 같은 마을이었네요?

**면담 참여자** 예.

**면답자** 그때 여기도 옷 같은 것이 있었나요, 사모관대?

**면담 참여자** 당연히 그건 동네에서 유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빌려다 쓰고 갖다 두었다가 다음 사람 또 하면 하고. 유물로 동네에 있으니까.

**면답자** 동네에 옷하고 상, 그릇 다 있었던 거죠?

**면담 참여자** 그렇죠, 동네 유물계라고 해서 일절 그릇이고 뭐고 다.

**면답자** 다 빌려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면담 참여자** 동네 것이니까. 유물세라는 것을 해마다 동네에서 걷어요. 보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뭐 조금씩 주어야 하나까. 그런 것들 관리하는 사람들. 동네에 유물계라는 게 있어서.

**면답자** 일 년에 쌀로 치면 한 말이나 걷었었나요?

**면담 참여자** 그렇게 안돼요. 조금씩. 이세 같은 것들 옛날에 받고 지금도 이세들이 여기서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면답자** 이세가 뭐예요?

**면담 참여자** 동네마다 이장들 수고 한다고 걷는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세라고 올해부터 없어진다고 래 그것도.

**면답자** 유물세, 이세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면담 참여자** 그럼요.

**면답자** 내는 사람은 이용하고 안 내면 이용 못 하고?

**면담 참여자** 웬만한 사람은 조금씩 다 보태고.

**면답자** 그거 지금은 없죠?

**면담 참여자** 지금은 없죠. 유물세라는 것도 없어요. 동네 그릇도 없고 다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하고.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다 밖으로 나가서 하나까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됐죠.

목요일

1967. 11. 23(일) 11/22 1980

1. 김 권 원	1000	토	나	300
2. 은 순	2200	김	윤 외	100
3. 아 팔 영	2000	김	경 현	100
4. 김 태 병	300	강	계 봉	200
5. 김 태 산	300	김	희 권	300
6. 김 대 준	200	한	복 우	300
7. 주 수 순	200	경	규 만	400
8. 박 화 식	300	김	태 산	200
9. 최 분 기	200	곽	상 각	200
10. 김 목 충	300	김	재 들	200
11. 갈 상 진	300	박	상 봉	200
12. 강 상 희	300	김	필 인	200
13. 최 순 로	500	허	경 철	200
14. 김 복 순	200	차	진 환	400
15. 윤 영 승	300	이	재 안	300
16. 이 상 옥	500	김	희 진	200
17. 김 경 래	200	김	집 희	300
18. 김 재 용	300	김	철 현	200
19. 김 영 철	200	노	규 순	약주술 3병
20. 김 형 순	100	신	문 철	탁주 1말
21. 아들 소리 사	200	6촌 누님	이비넷 제마피리	1벌
22. 안 진 흥	200	오은경	속내복	1벌
23. 권 관 흥	300	큰어비넷	제마피리	1"
24. 권 능 우	500	김 배 숙	숙 수	1봉
25. 박 지 면	300	목 르 심	목	1그릇
26. 정 태 복	200	시 희 준	양 주	2병
27. 정 태 순	300	유 진 우	숙 수	1근
28. 정 태 옥	500	정 윤 경	숙 수	10관
29. 정 순 흥	300	이 종 권	" "	1봉

1,270  
2,700

<그림 5> 1967년 정운춘씨의 혼례식 당시 받았던 부조 물품을 목록으로 작성한 부조록

## (나) 상장례

정운춘 씨는 1989년에 어머니 장례를 치렀다. 어머니는 정운춘 씨가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다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 면담 참여자는 전라도에 3년 파견돼 중부고속도로 여주-이천 공사장에서 공사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장파리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집에서 돌아가셨고 면담 참여자는 어머니의 임종을 직접 봤다. 다른 사람들은 숨을 코 가까이 대고 확인한다고 하지만, 정운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다고 한다. 어머니 사망 직후, 이를 증명해야 하는 의사 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모두 끝난 이후에 면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만 했다.

임종이 확인된 후 정운춘 씨는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했다. 옆은 장사 지내기 전날 방에 벽을 쳐 놓고, 아들인 자신이 직접 했다. 당시 5촌 정도의 먼 친척분이 도와주셨다. 알코올 솜으로 형식적으로만 몸을 씻겼으며, 면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수의를 구입해 갈아입혔다. 평소에 어머니가 수의를 잘 만드셨지만 막상 돌아가셨을 때는 본인 것이 없어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했다. 고인의 시신 앞에 벽을 쳐 놓고 그곳에 절을 할 수 있는 구도로 빈소가 차려졌다.

문상객들을 위한 차림 음식은 소고기 못국과 같은 국밥이었다. 국은 고춧가루 없이 간장만 조금 넣어 맑게 끓였다. 3일장을 치른 후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냈다. 화장은 벽제 화장터(현재 서울 시립승화원)에서 했다. 기존에 매장되었던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화장하여 임진강에 뿌렸다.

## 나. 탄현면 금산리(조집동)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본래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금산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금산리라 하였다. 보현봉과 선무봉, 문필봉 등의 기암절벽과 임진강의 경관이 뛰어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미·금의라고도 한다. 금산1리에는 새재비·조집동(鳥集洞)·사갓리·사잠리·사잡이 마을이 있다. 이중 사잠리는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의 명당자리라고 전해진다. 뽕나무를 많이 심어 물레로 실을 뽑아 명주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여 사잡동(絲擣洞)이라 하였는데, 일제시대에 조집동으로 바뀌 불렀다고 한다.

옛날에 있었죠. 집안끼리, 나머지 아닌 사람들은 유학계를 묶어 가지고 이제 뭐야 그것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것, 아까 얘기 하신 그런 것을 했죠. 품앗이. 같이 품앗이 하고 큰일에도 같이 하고 뭐 결혼식 때도 예식장에 가서 할 때도 반찬을 여기서 준비 다 해서 나가고 품앗이.

자연부락인 조집동에는 조씨 성을 가진 가구가 약 30호 정도, 그 외 성을 가진 가구가 그보다 조금 적은 27~28가구 정도 있었다. 현재에는 총 85호가 살며, 그 중 외지에서 이사를 온 주민들이 절반이다. 현재 인구는 150명 ~ 200명이다. 마을에서는 조씨가 아닌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유학계가 있었으며, 조씨 집안에서 하는 계는 품앗이 성격을 지닌 것이 따로 있었다. 일 년에 몇 번 정도 큰 일이 생기면 쌀 한 뒷박씩 모으는 정도로, 큰 부담은 아니었다고 한다. 정월대보름에 농악, 지신밟기를 했다. 정월 초순부터 보름까지 농악패가 집집마다 다니며 술상을 받았다. 세시풍속에

따라 마을 집단이 참여하는 놀이를 옆 동네까지 가서 했다.

금산리 민요보존회는 1946년 금산리 두레농악으로 출발한 유서 깊은 단체로 탄현면 금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산리는 1995년에 농요보존마을로 지정되었고, 2000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 금산리 민요 보유 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매년 정기 공연과 지역 축제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교하 두레농악 보존회는 교하 지역에서 전해 오던 두레농악의 전수와 보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집동에는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지내는 산제사(산치성)가 있었다. 과거에는 행정구역이 금산2리와 통합되어있어서 함께 지냈다. 산제사 지내는 사람은(이름이 올라간 사람) 날을 받아놓은 후에 부정 타지 않기 위해 3일 동안 비린 것, 고기를 일체 먹지 않거나 외출을 하지 않았다. 외출을 하면 들어오지 못했다. 도갓집에서 목욕을 일주일 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황소(수컷)를 잡아서 고기를 놓아놓으면 호랑이가 집어가기도 했다. 돈이 없어서 돼지를 잡은 해에는 마을이 흥흥해서 다시 소를 잡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이 있었기에 3일 동안 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날을 주로 잡았다. 제사를 지낼 때는 군부대에 통보를 해야 했다. 밤12시에 시작해 새벽 2~3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현재에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동제 지내는 시간을 조금 이른 시간으로 앞당겼다. 곳은 따로 하지 않고 제만 지냈다. 조라술이라는 술을 마을에서 따로 담갔다. 1980년대 중반까지 살아있는 소를 제사 지내는 산속까지 끌고 올라가 제단 앞에서 잡았는데 특별한 장비 없이 모두 인력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현재에는 금산 1리 주민들 중 절반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마을 토박이들은 이 분들을 설득해서 동제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군사지역이니까 그것을 시간을 좀 땡겨서라고 우리가 의식만 이어가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시에 하다 보면 한 3시 2시 정도에 끝나요. 예전에는 굶을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제사만 지냈잖아요? 제만 지냈는데 그게 좀 까다로왔어요. 왜냐면 거기서 술도 담가야 되고 상단에 술이 조라술이 되어야 되고 소도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잡아야 되고 생으로. 그 다음에 그대로 갖다 놓고 끝나고 나서 그걸 저 너머하고 여기하고 85인데 그걸 나누어야 되잖아요. 장비가 뭐가 있어요. 도끼로 전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불 켜놓고 나누어야 되니까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골고루 잘 되어 하는데 저쪽 너머는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마을에는 큰 무당, 작은 무당이 많았다. 하지만 무당집이라 부르지는 않고 ‘만신집’이라 불렀다. 큰 만신이 있어 다른 마을에서도 유명했다. 면담 참여자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 “재 아버지가 좋은 데로 가라고” 큰 굶을 해드렸다. 옥수 그릇 등을 만신집에 사 놓아서 항상 쌀을 담아놓거나 물을 떠다두었다. 옥수 그릇들을 모시는 무당을 ‘신딸’이라 불렀다.

굶을 할 때는 조상신이라 불렀는데, 옛날 할아버지의 혼이 그 무당에게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병이 들었을 때는 병굿, 부잣집에서 경사를 기원할 때는 경사굿을 했다. 경사굿은 부자집이 여는 일종의 놀이 같았다. 이틀 동안 굶을 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초대 받은 사람들은 밤새껏 구경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말을 해주었다. 춤도 추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깃발도 뽑으면서 축원을 받았다. 축원 받는 것을 ‘공수 준다’라고 했다. 아이들이 클 때는 오래 살라고 명다리를 걸었다.

조상신이라고 그래, 굶을 하면 옛날 할아버지가 왔다고 그 혼이 무당한테 왔다고 무당이 대신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이게 혼이 들어왔다고 막 하면 그럴싸해요, 그게. 그 혼을 가지고 무당도 자기 가지고 자기 저거로는 안 되는 거거든. 뭐가 씩위야지 자기가 말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여기 굶 하는 것 내가 엄청 많이 봤거든. 우리도 굶도 했지만 경사굿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이 나서 병들었을 때

병 낫으라고 병긋이 있고 경사긋은 부자집이 긋을 하는 것야, 잘 되라고 그냥 놀이 한번 하는 거야, 놀이. 동네사람들 모아놓고 음식을 차려 놓고 이틀을 한다고 긋을. 그러면 좋은 소리 무슨 소리 다 하잖아. 이게 경사긋이야 경사 낫다고 경사긋을 하는 게. 동네사람들이 다 와요. 구경할 것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경할 게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 다 와서 밤새껏 구경하고 먹고 음식 다 해먹이고 너도 춤도 추라고 그러면 또 옷도 한번 입혀보고 춤도 추고. 깃발을 뽑으라고 그래, 내가 교회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해. 교회가면 부흥회 할 때 깃발을 뽑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무당들하고. 빨간 기, 파란 기 이런 걸 뽑으라고 그러면 아. 좋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무당도 긋 할 때 보면 기를 도로록 말아, 하얀 기 노란 기 한 일곱 가지 될 거 같아. 도로록 말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끝에 대를 하나 뽑으라고 그런다고. 하나 뽑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가 어떻다 고 막 축원을 해 준다고 그러잖아. 공수를 준다고 그러지요. 교회에 가니까 똑같이 하니까. 야, 이 사람들 여기서 이것을 배웠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깐요. 다른 것이 뭐가 있나 우리는 조상님이 들어가서 할아버지 오셨네, 오셨네 막 이렇게 하면서 돈도 내고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신을 모시는 것이지 예수님 보지도 않은 예수님 보다 내가 본 할아버지를 믿는 건데 나는 그게 더 나쁘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 (2) 금산리(조집동) 토박이의 삶



〈그림 6〉 권옥순(1933년 생) 씨와 그의 아들 이창무 씨

권옥순 씨는 1933년생이다. 금산리 이장집을 찾았다가 면담에 응해 주셔서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친절하게 예날 일을 차분히 말씀해 주셨다. 면담 참여자의 아들인 이창무 씨가 옆에서 여러 일에 대해 기억을 보충하기도 하고, 본인의 얘기도 함께 들려주었다. 남편은 한국전쟁 때 참전해 부상을 입고 1951년도에 제대하였다고 한다. 1953년 음력 3월 초 엿새 날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당시 면담 참여자는 20세였다. 면담 참여자의 남편은 1969년에 교통사고로 타계했다. 그는 선산에 매장되었다가 2017년 다른 곳으로 재 안장 되었다. 면담 참여자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으며, 그의 남편은 국민학교까지 나왔다.

면담 참여자의 고향은 안동 권씨 집성촌인 경기도 과주시 탄현면 낙하리이다. 낙하리는 임진강변의 대표적인 나루터이기도 하다. 낙하리는 안동 권

씨 집성촌으로, 개성 임진강 옆 문산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낙하리 사람들은 배를 타고 비정동에 달래 등의 나물을 캐러 다녔다. 하루는 배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나 스무 명이 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의 형제는 언니 한 명, 오빠 두 명, 남동생 두 명으로 총 여섯 남매 중 딸로는 막내로 태어났다. 첫째 남동생은 한국전쟁 때 지뢰를 밟고 사망하였다. 여섯 남매 중 현재(2018년)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뿐이다. 부모님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를 “보통 농사”라고 표현하였다. 밭과 논을 포함해 땅은 꽤 많았으며, 소도 거느린 중농 정도의 규모였다. 어린 시절 대식구가 다 같이 살면서 힘들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다. 형제의 기저귀로 쓸 천이 부족해 부모님이 고초를 겪기도 하고, 미군기지 근처의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구해먹었다. 면담 참여자의 아들이창무 씨가 일곱, 여덟 살 즈음에는 미군들이 총을 쏘고 지나가면 바닥에 떨어진 탄피를 주워 엇과 바꾸어 먹었다. 미군기지 주변에서 버린 것들을 뒤져다가 ‘꿀꿀이죽’을 먹었던 기억도 선명하다고 한다.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미군들이 있었거든요, 미군들 쓰레기통에 가서 주워먹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총을 두두두두...탱크가 막...총알 연습하느라 쏘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거 주워다가 엇 바꿔먹고요..씨레이션에 먹다남은 것 주워오잖아요. 커피, 설탕, 소금..다 써 있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까만거는 커피, (맛이) 쓰니까 그냥 버리고...단 건 먹고.

우리 어려서 여기 구들 놓고. 군인들 짬밥 먹으러 친구들끼리 우리 7살 이때 있잖아요, 짬밥 먹으러 갔어요. 짬밥 통 가서 앞으로 엎드려서 짬밥 통 손을 대면 휘휘 뒤져가지고 닭다리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퍼다 먹고 그랬어요. 그게 꿀꿀이죽이에요.

면담 참여자가 혼인할 때 중매는 신랑의 어머니가 했다. 예비 신랑집

에 방문해 그 집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곧바로 혼담이 오갔다. 시댁 식구는 12명으로 대가족이었으며 움푸리 집에서 살았다. 본래 조 집동에 가지고 있는 땅이 전쟁 중에 미군부지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은 곳이 움푸리 집이라고 한다. 전투가 끝나고 본래 집터에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집은 이미 불타 없어졌고 집 마당 땅속에 묻어놓은 벼까지도 누가 파먹고 없었을 만큼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가 우리 어머니 저기는 낙하리 그 동네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피난을 거기서 불과 한 20킬로 된 데로 피난을 가신 거예요. 근데 피난 간 집은 움푸집을 해 놓고 사시다가 시집을 왔는데. 여기 역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았어요. 요 동네가 원주민들이 많았는데 논농사도 많고 우리 집이 제일 컸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6.25가 끝나고 피난 갔다가 들어왔는데 미군들이 들어와서 차지를 해 버린 거예요. 불을 다 질러버리고 다 차지를 해 버린 거예요, 이 땅을.

원래 금산리 집터를?

예. 다 우리 본토예요, 여기가. 불을 내고 타 버리니까 이 양반들이 저 건너로 요 동네로 임시로 다른 데를 못 가고 그냥 터를 잡아서 피난 움푸리 집을 다 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곧 가겠지 하고. 그래서 막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가 피난 나갈 때 땅을 파서 벼도 묻어 놓고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 와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파먹고 꺼내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움푸리집에서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는 불 질러 버리고 다 타 버린 것이죠.

움푸리집은 바닥에 거적대기를 깔고 주변에서 잘라온 나무로 막 지은 집이다. 그곳에서 살면서 네 번 정도 허물고 짓고를 반복하였다. 조집동 마을 가운데에는 날깃동산 이라고 부르는 야산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산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그 집터 또한 현재 군인 소유지가 되었다. 날깃동산은 평소에 마을 어르신들이 멍석을 깔아 무말랭이나 벼 같은 것을 널던 곳이기도 했다.

나무를 베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몽토성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나무로 바닥을 이렇게 해 놓고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끼로 이렇게 엮어. 그리고 짚을, 짚단 있잖아요. 짚을 갔다 돌려요. 여기서 이만하게 집하나, 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문고정문 달아 놓고 이게 이제 움막. 그렇게 사시고 제가 어려서 7살 기억이 우리 집이 못 들어가니까, 피난 나와서 사는 집이 군인들 천막 같은 것 이런 걸로 대고 나무로 영성하게 해서 비 가림 해가지고 사시더라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면담 참여자는 신랑의 집안이 부자라고 해서 시집을 왔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아 실망했다고 한다. 배는 굶지 않았지만 밀을 갈아 먹을 정도로 겨우 겨우 끼니를 이어갔다. 아버지의 형제들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한 달에 세 가마씩 쌀을 먹어도 부족했다. 당시 쌀 세 가마면 상당히 많은 양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식구가 나누어 먹기 위해서 대부분 김치 죽, 끓인 밥을 먹었다. 땅은 많아도 소출은 얼마 안 되었고 대부분 바로 바로 소비되었다. 김치를 담글 때는 적은 양으로 많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짜게 했다고 한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면담 참여자의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예컨대 마을에서는 복날 개장 먹는 풍습이 있어 복날이면 돈을 조금씩 모아 개를 도리로 잡았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의 남편은 그렇게 마련한 개장을 먼저 자신의 아버지께 드리는 효자였다. 또한 매일같이 논두렁에서 소죽을 만들 풀을 두어 지게 베어놓은 다음에야 다른 일을 보러 나가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 (3) 금산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포함해 모두 받았다. 남편은 아내의 출산을 특별히 돕지 않았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의 아들 이창무 씨는 자신과 9살 터울이 나는 막내동생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가 농사일을 마치고 ‘농지천하지대본’이라 적혀있는 꿩털 달린 농깃대를 들고 별판에서 돌아오시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이창무 씨에게 “엄마 또 뭐 낳았냐?” 물어봐서 “아들이요” 했더니 “에이, 또 아들이냐.” 했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는 동짓달에 안방에서 막내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랫목 짚풀을 깔아놓은 자리에 눕혔는데, 그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그만 아이의 엉덩이 피부가 다 벗겨졌다고 한다. 솔을 올려두지 않은 채로 불을 때고, 또 짚풀 위에 놓을 요 포대기가 없어서 그런 사단이 난 것이다. 아이가 울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몸을 씻기면서 살갓이 벗겨지자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가서 피부가 완치된 후 퇴원하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배냇저고리를 집에서 만들어 입혔다. 실을 길게 달아서 웃고름으로 하면 명이 길다고 전해 들어 그렇게 해주었다고 한다. ‘두레이 끄나풀’을 허리춤에 달아서 저녁이면 배를 가릴 수 있도록 웃고름을 채워 주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대개 아랫도리를 벗겨 놓았다. 뛰어다니다가 오줌, 똥을 싸면 빨랫감 느는 것이 없이 바로 치우고 씻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냇저고리 그냥 만들어서 입혀. 그냥 사는 것도 없이 집에서 그냥 만들어서 실 길게 달아서 웃고름을 하고 명이 길다고 그렇게 해주었어요. 두레이 끄나풀 달고 여기 허리 달고 요만하게 해서 배에다 채워줘. 저녁이면 배 가리라고. 배냇저고리 하나 입히고 무슨 바지나 하나 입히고 그렇게 길렀지 뭘. 나는 이렇게 애들 걸어 다닐 때, 아이가 다

섯이고 시누이 시동상이 그렇게 많고 한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애들은 아랫도리 벌거벗겨 놓았어. 뛰어들다나 오줌 똥 막 싸고, 치우고 씻기고 그렇게 기른 게 많아요. 이것들은 괜찮데 끄트머리가서 그렇게 했어. 시방도 애들 기저귀 갈아 채우고 하는 거 보면 부러워. 나는 저렇게 한번 못 해 봤구나. 아이 그래도 애들만 잘 자라고 그랬는데 뭐.

아이를 낳으면 대문에 금줄을 쳤다. 숯 두 개, 고추 두 개 왼새끼로 꼬아서 달아 놓아서 사람을 못 들어가게 했다. 아이 백일 때 이웃들이 늦주발을 선물로 주었다. 선물 받은 늦주발에 쌀을 뜨고, 실을 걸어 놓았다. 수수팔떡, 백설기를 돌상에 올렸다. 여건이 되면 아이 둘 사진을 찍어주었다. 이웃들에게 돌상에 오른 떡 등의 음식을 돌렸다. 이웃들은 음식을 보낸 그릇을 돌려줄 때 그 안에 쌀이나 실을 넣어주었다. 실을 넣어주는 것에는 아이의 명이 길어지라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면담 참여자 경우 백일상은 따로 차리지 않았고 국과 밥을 해서 삼신할머니한테 올린 다음 가족끼리 나누어 먹었다. 돌잡이는 따로 하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삼 일 되는 날 미역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떠다 놓고 축원의 말을 올린 후 먹었다. 당시만 해도 미역 한 앞에 쌀 한 말이 비쌌기 때문에, 면담 참여자는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상을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아주 좋은 분이라 생각했다. 넷째를 낳을 때 까지 조금씩이라도 꼭 소고기를 챙겨서 한동안(3~4일) 끓여주셨다. 큰 아들인 이창무 씨를 낳고는 너무 힘이 들어 일주일동안 몸을 풀었다고 한다. 그러자 얼른 몸 풀고 나와서 일 하지 않는다고 시아버지와 큰 시누가 한 소리 하는 것을 건너서 들었다. 다른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3일을 쉬었다.

애 낳고는 미역 한 앞에 쌀 한말이 비쌌어. 그래도 미역 사서 국 끓여주고 우리 시어머니가 잘 해요. 좋아 아주. 꼭 소고기를 넷째까지 요만큼씩이라도 넣어서 끓여 주더니 다

섯을 낳으니까 한 두번 뽀여주고 안 뽀여줘. 그때는 지쳤나봐.

애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일주일 있고.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큰 시누가 뭐라고 뭐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말을 안 하지. 얼른 안 나온다고 그렇게 있다고 그랬나봐.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3일 날도 나오고. 동생들이 모두, 윗사람들이 있으니 드러누워 있을 수도 없어. 애들이 있어서. 애도 하나 낳아서 조리하지 많이 낳으면 조리 못해.

## (나) 혼례

면담 참여자는 한국전쟁 와중에 혼인을 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자 친정아버지가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딸의 혼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 시기 혼례를 치르게 되었는지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한다. 피난을 나간 와중 무덤굴이라는 동산 꼭대기에 간이로 집을 지어 살던 중이었다. 당시 권옥순 씨는 바느질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웃이던 점순 엄마가 사주를 나무 상자에 넣어 가지고 왔다고 한다. 그 사주함을 받고 어머니는 곧 혼례 잔치를 준비하였다.

신랑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신부집에 왔다. 집안사람 몇 명도 따라왔다. 신랑은 나무 기러기를 가슴에 품고 왔는데, 집안사람 누구에게 주었는지 권옥순 씨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신랑의 후행이 함도 지고 왔다. 붉은색 함에는 육땡 치마저고리라는 옥색 본견(비단) 옷과 저고리를 맞춤으로 한 벌이 담겨 있었다. 면담 참여자가 받은 함은 재영업마에게 빌려주었다.

대례상에는 과일 몇 종류와 산 닭 한 마리가 올랐다. 닭은 대례식을 하는 동안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금방 날려 보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세 번 절했다. 신부가 신랑에게 먼저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한 후에 함께

맞절을 했다. 대례를 마치고 신랑은 신부의 부모님께 큰절을 하며 인사했다. 신부도 자신의 친정 부모님께 큰 절을 했다. 그 다음에는 식사를 했다. 잔칫상에는 삶은 국수가 올랐는데, 국수는 문산장에서 사왔다. 면담 참여자의 잔치 때 부침개나 떡은 올리지 않았다. 음식도 품앗이를 해서, 이웃들이 음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무덤굴에서 조집동을 오는 길 중간에 위치한 산비탈에 면담 참여자 가족의 피난처가 있었다.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 가마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친정아버지가 그 와중에서도 다른 마을 어딘가에서 현 가마를 구해주어 가마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 가마는 두 사람이 메었다. 신부집에서 대례를 지내고 점심식사를 한 후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은 자전거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갔다. 권옥순 씨는 친정집을 출발할 때부터 신랑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마 안에서 몇 시간이 되도록 올었다.

사주함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받았나 봐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잔치를 거기서 했어요, 피난을 나가서. 그래가지고 시방 통스고개라는 데가 있어. 여기 오는 데가 저 산비탈에. 그리해서 거기서 그때만 해도 가마도 못 구해. 근데 우리 집이 좀 있었어. 그 래 가지고 가마를 어디서 현 것을 해다 갖다 줍니다. 그것을 타고 우리 할아버지는 하얀 두루마기. 얼굴이나 보고 했나, 못 보고 했지. 두루마기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왔어. 그래서 거기서 대례 지내서 그 가마에 태워 갖고 여기를 왔어. 거기서 여기 다 오도록 올었어.

장롱도 못 해가지고 와서 이만한 궤짝을 발라서 주더라고. 그렇게 왔어요, 나 우습게 시집왔어. 결혼사진 하나 없어. 나 억울하게 시집을 왔는데 난 잘 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걸어왔어. 그래도 난 가마타고 왔어. 그때만 해도 뭐 갖추고 할 수 없나봐. 피난통이라고 해서 그냥 한 벌로 해 왔더라고. 나 이불도 못 해 가지고 온 색시야. 여기 오니까 무명예다 왜 그전에는 빨간 깃 하얀 깃 검은 것에다 그렇게 달았어요. 얇다란 이불을 하나 해서 주더라고, 여기 시집에서. 나 그렇게 시집온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번성하고 살아요.

신랑집에 도착하고서 신부는 3일 동안 안방에서 색시놀음을 했다. 폐백은 신랑집에 도착한 다음날 드렸다. 사당이 있는 종갓집의 경우 사당에 삶은 국수를 올려 절을 하는데, 권옥순 씨의 시댁의 경우 종갓집이기는 하지만 사당이 불타서 사당차례는 하지 않았다. 신랑집 부모님한테는 3일 뒤 부엌에 들어가기 전 정식으로 문안인사를 드렸다. 면담 참여자는 경험한 바가 없지만,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색시도 잘 들어가야지 잘 못 들어가면 큰 일”난다고 해서 부엌에 들어가기 전 예방 의례를 시켰다고 한다. 솥 안을 열어서 새색시가 그것을 밟게 한다거나, 붉은 치마를 해다 입히고 치맛자락 일부를 잘라 태운 후 그 재를 먹게 하는 등이었다.

#### (다) 상장례

면담 참여자의 가족 중 돌아가신 분들 모두의 장례를 집안에서 치렀다. 이창무 씨의 기억에 따르면, 열 살 때 할아버지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와중 문득 “돌아가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렀다고 한다. 이창무 씨가 눈치를 챈 덕분에 가족 모두 할아버지가 운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고인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굵은 밭을 펴고 손을 짝 펴서 눌렀다.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을 한 후 동네 주민 중 경험 많은 사람이 염을 하러 왔다. 수의는 파주 금촌장에서 베를 끊어다가 직접 바늘로 꿰어서 만들었다. 가짜 베옷을 쓰면 썩지 않아서 옷이 그물처럼 된다고 해서 꼭 삼베를 직접 구했다. 마름질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마름질 한 천을 동네 할머니들이 꿰어주셨다. 관은 고인이 돌아가신 직후에 구입하였다.

동네의 아버지 친구나 할아버지 또래들 중 경험 많은 분이 집에 방문하여 염을 했다. 시신에 두루마기나 흰 옷을 갈아입히고 칠성판 위에 모셔놓았다. 상위에 물동이 떠놓고 명석을 깔아놓고 상복(거성)으로 갈아입고 돌아가면서 그 주변을 빙빙 돌며 동서남북 방향으로 절을 했다. 이를 성복제라고 한다. 그 후에서야 시신을 윗목에 모시고 사갓밥을 차린 후 조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날 해 넘어가기 전, 점심을 먹은 이후에 입관을 했다. 초상 때는 손님상으로 장국밥을 냈다. 떡은 편을 했다. 손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은 성복제를 지낸 후 상을 차려 대접하였다.

마을마다 상여가 있었다. 대문에서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상여놀이를 하며 장난을 쳤는데, 상주에게 받은 돈은 장례에 참여하며 고생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 대문을 나서기 전 상여를 두고 온 가족이 큰 절을 올렸으며, 상주들끼리도 맞절을 했다. 상여는 열에서 열두 사람이 메었는데, 제일 앞에는 상여소리를 메기는 사람이 섰다. 상여가 나갈 때는 상주들도 따라갔으며, 여자들도 남자 뒤를 뒤따라 산소까지 갔다. 금산리(조집동) 면담 참여자의 집안에서는 보통 매장 직전 탈관을 하였다. 탈관을 할 때 땅을 판 모양이 시신의 형태와 잘 맞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시신을 들어내 땅을 판 모양을 손질한 다음 다시 넣었다. 시신 위에는 혼비를 얹었다. 광중은 1.5미터 정도 봤다. 달구질은 세 번 하였다. 8~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돈을 걸고, 달구질하러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수건과 담배 등을 사주었다. 달구질을 할 때 생석회를 섞어, 달구가 끝난 뒤에는 못자리 땅이 매우 단단해졌다. 매장이 끝나면 봉분 앞에서 제사를 지낸 후 상주와 집안 식구들이 봉분을 한 바퀴 돌았다. 관을 포함하여 가지고 간 모든 장례 물품들을 그 자리에서 태웠다.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한 후에는 일을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앞으로 차릴 상청 상을 만들었다. 기제사 음식은 과일, 떡(인절미, 동부와 팥을 섞은 떡), 편, 소고기 돼지고기 적(거의 소고기를 쓴다.), 북어, 머리가 붙어있는 통째로 삶은 닭이 기본이었다. 상청 상은 상다리가 길고 마루 한쪽에 위치하였으며 광목천으로 앞을 가렸다. 찬밥, 한 끼니 지난 것 등 묵은 밥은 안 되고, 아침저녁으로 매 끼니 새로 지어서 올려야 했다. 3년 내내는 못하더라도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했다. 국은 맑은 다시마 장국으로 끓였다. 김치, 간장, 밥, 포, 향불을 “있는 대로” 올렸다.

우리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계시니까 3년을 못 두는 거예요. 돌아가실 까봐 또 빨리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상청을 한 쪽에 상 높은 다리해가지고 마루 한쪽에다 해가지고 앞에 광목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 해드렸죠.

## 다. 서패동 돌곶이 꽃마을 토박이의 삶과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과주 서패동은 심학산 밑 평야지대에 있는 마을이다. 돌로 된 곶이라 하여 돌고지, 돌곶 또는 석곶이라고도 하였다. 또는 석곶면의 서쪽이 되므로 서패라 한데서 서패라는 명칭이 생겼다. 자연마을로는 가운데말, 심학나루 등이 있다. 가운데말은 서패리 중심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심학나루는 심학산 밑 한강변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며 서울, 인천, 김포, 강화 등지로 왕래할 수 있는 나루터였다. 현재 가구 수는 100호가 조금 넘는다. 40여 년 전에는 외지인 주민들을 제외하고 ‘해주 최씨’ 성을 가진 토박이 가구 수가 37호였으나 현재에는 완전한 각성반이 마을이

되었다.

2010년경까지 마을에서 ‘꽃 잔치’라고 하여 논 주변에 꽃을 심는 행사를 하였는데, 그 때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마련해 함께 먹었다고 한다. 또한 치막산 만신이 주재하는 도당곳이 있었다. 도당곳은 동네의 안녕을 빌기 위해 옆 동네인 동패동과 일 년에 한 번 열었다. 이틀 동안 굿을 준비하고 파주군(당시에는 파주시가 아니라 파주군이였다.) 차원에서 지원하는 해님이 행사를 함께하여 굿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 도당곳을 할 때는 돈을 얼마씩 걷고 돼지 대가리(머리)를 놓고 했다. 현재도 10월에 집안고사도 지낸다. 10월에 지내는 이유는 좋은 날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떡을 한 말 밖에 하지 않는다. 면담 참여자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동네 편안하라고. 젊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죽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면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했어 만신이. (...) (도당곳은 일 년에) 한 번 했어. 그래서 난 그때도 열무김치를 이런 들통으로 하나 해 갔어. 아주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냥 하여튼 나는 누구 주는 것을 좋아해.

마을에서는 논과 밭이 비슷한 비율로 있었다. 논은 천수답으로 마을에서 수리조합을 구성하여 관리하였다. 수리조합이 처음 생겼을 때는 물세가 비쌌지만,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물세를 아예 내지 않을 정도로 운영 사정이 좋아졌다고 한다. 수리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매년 보를 만들어서 모내기를 할 때 트는 식으로 물을 댔었다. 큰 밭들은 논으로 개간해서 벼를 재배했다. 작은 밭에는 보리, 밀, 콩을 재배하였고 현재는 들깨, 고추, 콩 조금을 심는다. 1960년대와 70년대 노지에서 딸기와 참외, 비닐하우스에서 부추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딸기는 농산물 직판장에 판매되었다.

사람도 없고 소득이 안 돼 그러니까 안 심지. 우리 애들 자랄 때 딸기 따려면 얼마나 힘들었어. (...) 지금은 그게 노상이니까 하는 것이죠, 지금은 다 비닐하우스에 해야 되니까. 시국 따라 짓는 거야 농사도 옛날에는 비닐이 없어, 지금은 비닐이 있어 농사 짓기도 좋잖아요. 풀도 덜 나고.

근래에는 사라진 마을 두레가 있었으며 농약도 썼다. 인근의 동네들에는 농약단이 제법 규모가 있었지만 서패동은 부락 자체가 크지 않아서 두레도 크지 않았고 농약단도 조직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 (2) 서패동 토박이의 삶

면담 참여자인 서OO 씨는 1940년생이며 파주 광탄 용미리에서 자고 자랐다가 혼인 후 남편의 고향인 서패동으로 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일을 도우며 살다가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던 23세에 결혼하였다. 6년 개근을 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면담 참여자는 중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집안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였다.

## (3) 서패동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면담 참여자가 네 아이들을 낳을 때는 윗집에 살던 시어머니가 내려와 아이를 받았다고 한다. 출산 즈음이면 시어머니께 미리 말씀을 드려 위급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를 낳은 뒤에 시어머니는 안방 구석에 미역국과 밥으로 삼신상을 차렸고, 상을 바친 후에는 산모가 그 상을 받아 밥을 한 그릇씩 먹었다. 상은 놓기만 하고 절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출생 의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 번씩 치렀다. 돌에는 돌떡을 해먹었는데, 백일상은 형편이 어려워서 따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돌은 외갓집, 큰집 식구를 초대하여 송편, 백설기, 수수팥떡을 차려 나누어 먹었다. 돌잡이 물건으로 연필과 돈 등이 돌상에 올랐다.

## (나) 혼례

면담 참여자의 증매는 남편의 누이와 언니가 해 주었다. 택일은 신부 측에서 했으며 함은 결혼식 당일 대례 전에 미리 받았다. 함이 도착한 후 신랑이 얼굴에 검은 것을 칠한 채 사모관대를 입고 신부 집의 대문으로 들어왔다. 대례는 신부집 마당에서 올렸다. 신부는 마을에서 마련해 준 새 옷을 입고 연지곤지를 발랐다. 여자는 집을 뒤로 등지고, 남자는 바깥 대문을 등지고 서로 마주섰으며, 가운데 차려진 대례상에는 수탉 두 마리가 올랐다. 신부가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맞절을 했다. 신랑은 신부집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는데, 상에 오른 음식들은 하님이 잘 포장하여 신랑집으로 들고 갔다.

대례를 마치고 면담 참여자는 택시를 타고 신랑과 함께 신랑집에 갔다. 장롱을 실은 큰 차도 택시 뒤를 따라갔다. 막오빠가 후행으로 따라와 하룻밤을 자고 갔다. 신부는 큰 상은 받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만 하였으며, 그날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잔치를 열었다. 그 다

음날 시부모와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폐백을 하며 첫 절을 올렸다. 폐백 음식으로는 닭 한 마리와 술이 올랐는데, 이는 신부 측에서 마련하였다.

혼례를 올린 지 며칠이 지나 부부가 신부집에 방문하는 삼일도배기를 다녀왔다. 옷기를 엮지 않은 모지리떡(골무떡)을 해 가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이 때 신랑을 달아 매 발바닥을 때리는 풍습이 있었다. 신부는 신랑집에 온지 사흘 째 되는 날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갔다. 신방은 신랑집에 마련되었으며, 부부는 혼인한 지 3년이 지난 후 세간을 얻어 나가서 살았다.

#### (다) 상장례·제례

서패동에는 호상일 경우 춤을 추고 농악을 치며 상여가 나가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장구와 북을 치고 소리꾼이 따라붙어 흥을 돋우었다. 면담 참여자의 말에 따르면 호상은 “아들딸 고스란히 두고 돌아가는 것(죽는 것)”이고 악상은 “젊은 사람 돌아가는 것(죽는 것)”이다. 상여는 바로 산소자리로 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가며 돈을 모으는 상여놀이를 하면서 장지로 갔다. 호상을 맞은 장례 풍경을 면담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한 20-30년 전에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신 거라고 그래갖고 호상이라고 그래서 그때 보면 상여 메면서 북치고 장구 치고 춤추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컸으니까, 왜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축제해 주는 분위기가 그때 막 북치고 장구 치고 그때 했었어요. 정식으로 동네에 팽과리 그런 것은 거의 안 했어요. (...) 장사 지낼 때도 상여 메고 춤추고 그랬어. 예 외할아버지 돌아갈 때는 내가 셋째 딸인

데 애 아버지가 상여 장강틀 있지, 옛날 그 큰 상여. 그것 붙들고 춤을 춰. 그래서 어마 저이가 무슨 춤을 춰 그러니까. 동네 알만한 노인네가 가만히 놔둬, 호상이 돼서 춤춰도 돼 그때 그랬어. 호상은 그런 거래. 호상에 가서는 먹어도 탈이 안 나.

면담 참여자의 집안은 4대를 모시는 차례를 매년 정월과 추석에 모신다. 안방에 병풍을 세우고 대추, 밤, 사과, 배, 꽃감, 제주, 소고기적을 상에 올린다. 돼지고기는 쓰지 않으며, 추석 때는 송편이 추가로 오른다. 제사상은 집안의 사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에 받혀 죽은 사람이 있는 집안에서는 소고기를 쓰지 않는 식이다.

응. 지금도 돼지고기 쓰는 집이 있대. 근데 내가 절약해 쓰고 조상님께는 좋은 걸 바쳐야지. 근데 소 받혀서 돌아간 집은 소고기 안 써. 우리 동네 한 사람은 옛날에 소 황소 이렇게 무섭잖아 그 받혀 돌아갔어. 근데 그 사람은 소고기적 안 쏘대.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포천시

## 포천시

### 지역개관

면적	826.57km <sup>2</sup>
광역시도	경기도
하위 행정구역	1읍 11면 2동
인구	2018년 12 기준 150,676명
인구밀도	183.28명/km <sup>2</sup>

경기도 동북단에 위치한 시로, 동쪽은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서쪽은 연천군·동두천시·양주시, 남쪽은 의정부시·남양주시, 북쪽은 강원도 철원군과 접하고 있다. 광주산맥의 지맥이 지나고 있어 동북쪽에는 500~1,000m의 산지가 발달했으며, 많다. 동쪽에는 광덕산·백운산·국망봉·강씨봉·현등산·수원산·주급산 등이 화천군·가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한탄강과 포천시의 양안에는 넓은 하안 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경기도 내의 자치시, 행정시 중에서는 가장 크다. 다만 시로 승격된 역사는 길지 않아 동 지역과 소흘읍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농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쪽으로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가평군, 남쪽으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서쪽으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맞닿아 있다.

전 토지의 69.1%가 임야이고 경지는 17.6%였는데, 논과 밭의 비중이 비슷했다. 주요 농산물로 쌀 그리고 감자·콩이 생산되고 무·배추·고추·파·오이·수박·참외, 특용작물로 참깨·들깨·황기·땅콩, 그리고 사과·포도·배 등이 생

산된다. 목축업으로 젓소·닭·돼지 등이 사육되고 있다. 산지가 많아 임산물이 풍부하며 주로 잣·밤·대추·도토리·표고버섯이 생산된다. 특히 잣이 많이 생산되었다.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정기 시장은 신읍장이 5·10일, 송우장이 4·9일 동안 열렸고, 운천장·내리장·기산장·이동장·관인장이 있었으나 쇠퇴하고 있다. 포천 우시장 또한 매매량이 많기로 유명했으나 점차 쇠퇴하고 있다. 과거 포천읍에는 상설시장이 열렸었다.<sup>26)</sup>

6.25 당시 인민군이 포천을 하루 만에 함락시키고 이틀째에 의정부를 함락시키고, 사흘째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포천시는 5군단, 6군단 등 2개의 군단사령부와 6사단, 8사단 그리고 7개의 여단이 주둔하는 군사 요충지이며 총 4개소 1,030만평의 사격장이 소재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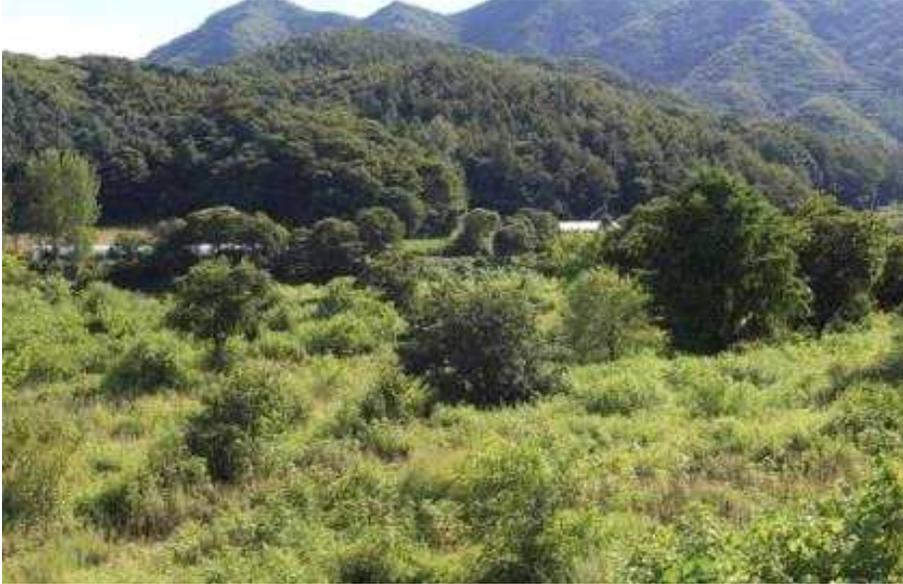
## 가. 관인면 지장산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지장산 마을은 포천시 관인면 신흥동에 위치해있으며, 예전에는 ‘시냇골’로 불렸다고 한다. 관인면 소재지가 위치한 탄동리와 접해 있으며, 임금이 하사한 동래 정씨 가문의 야산들이 많다. 육이오 전쟁을 혹독하게 겪은 마을이며, 수복 이후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살았다. 한탄강 댐 건설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 마을 외부로 떠나서 살았지만, 지장산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포천시”

마을에 대해 소상하게 말해 준 정균 씨(이하 면담 참여자)는 마을에 머무르기를 원해서 수몰되지 않은 조상터에 자리를 잡았다.



〈그림 1〉 지장산마을 전경

신흥동(시냇골)에 동래 정씨 풍천공파 10대조의 아들이 3명이 살았는데, 신흥동에는 차남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이웃한 관인면사무소 소재지 근처에는 장남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 금초에 자손들이 모여서 시향을 지낸다. 선조 할아버지의 귀향으로 인해 흩어졌던(성을 바꾸어 살던) 정씨 가문이 다시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집안 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들려준다.

우리 할아버지가 귀향을 가게 되어서, 저 이복으로 귀향을 가서 돌아가셨어. 그 산소를

이순신 장군이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 사건도 안 나고 다 편안하게 세월이 났을 것이다 라고 다 역사에 그제 나와, 역사책에 나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임금한테 고했어, 이순신장군이. 뭐라고 고 했냐하면, 그때는 역적으로 몰면 3대를 씨를 말렸어. 그래 가지고 자기 씨를 말리게 되니까 그 자손들이 성을 바꾸어서 다 잊어버린 거야. 정씨네 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남의 성을 가진 거야. 자기 살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그때 우리 정씨네가 그렇게 나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했냐하면 임금에게 들어가서 세월이 편안해 지고 그제 다 역사가 나오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서 임금한테 이렇게 충성을 하고 아주 충직하신 분을 역적으로 몰아서 돌아가시게 했으니 이 죄를 어떻게 사 하시겠습니까 해서 임금한테 얘기를 했더니. 임금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더니 그의 자손이 있으면 자손을 데리고 오너라 했어. 그래가지고 자손을 뒤지려고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 자손이 손주가 공부를 서당을 하나 조그맣게 해서 공부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어. 그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하니깐 임금이 영을 내려 보냈어. 영은 웬만해서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영이라는 것이 임금이 타고 다니는 것을 영이라고 그래. 그리고 사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사륵계라 그러고. 영을 내려서 그것을 타고 오라고 해서 타고 오니까 임금이 사위를 삼아 버렸어, 우리 할아버지를. 그래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뜨게 되니까 그 자손들이 성을 바꾸어 살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 성을 찾은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이미 그제 역사가 나오는 것이지.

관인면에 거주하는 동래 정씨를 모두 합치면 현재에는 30여 집이 된다. 시냇골(신흥동)에 정씨들이 살았었는데, 모두 잘 못 살았고 그런대로 행세할 만 한 집은 면담 참여자의 집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때는 초가집이지. 여기는 한수로 이북 이쪽으로는 집 한 채 없어. 여기 전쟁이 나면서 다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다 때려 부셔서 초가집 하나도 없이 아 한수가 이북은 다 불을 나서 집 한 채 없었어. 그래서 피난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움집 토담집 같은 것을 이렇게 짓고 그러고서는 억지로 억지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사는 것이지. 먹고 살다가 이렇게 살다보니까 자기 생활이 좀 나아지고 하니까 집집마다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지. 그러니까 돈들을 조금씩 모았으니까 집을 짓기 시작해서 집을 지은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런데다가 여기가 다 댐이 되어버린 거야. 한탄강 댐이 되니까 여기 농토가 물에 잠기게 되니까 보상을 받게 된 것이지. 그때 땅을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자기 땅

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기 터에 집을 짓고 살고 없는 사람은 나가고.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자식새끼들 따라서 나가고.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그런데 나는 이 터가 그대로 댐에 안 잠기고 조금 남게 되는데다가 옛날 이 집터가 우리 조상대대로 고조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 7대조 할아버지가 다 여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림 2> 지장산마을 집터

육이오 전쟁 전 마을에는 약 130호 있었고 댐 건설 전에도 약 80호 있을 정도로 마을이 매우 컸으나, 댐을 막으면서 인구수가 크게 줄었다. 6.25 전쟁 전에는 이북 땅이었는데, 오가리 개울이 3.8선이었다. 삼정호수 저수지에 김일성 별장이 있어서 김일성이 작은 자가용을 타고 오기도 했다. 이북 통치를 몇 년 동안 받았던 관계로, 몇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면담 참여자는 북한 통치 시절에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밤에 ‘자유 비판’을 시키기도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 여기가 북한 땅이었지. 이북 땅이고. 38선은 이 앞에 오가리가 있지, 오가리 개울이 38선이야. 여기는 다 이북 자리지. 그래서 삼정호수 있지, 삼정호수에 김일성 별장이 있어. 그 여기에 삼정호수에 저수지에 북판에 김일성 별장이. 김일성이 거기 자가용 조그만 자가용 있잖아, 그것을 타고서 가끔 오곤 그랬지.

(...) 그때 이북 정치를 내가 여기서 다 그 학교 다니면서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전쟁이 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 정치를 받았지. 이북 정치를 받고. 그때는 말도 못 하지. 밤이면 회의에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 놈들이. 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회의에 나오면 모아놓고서 자유비판 있지. 자유비판을 하라그러고 막 그래. 아주 그냥 밤에는 붙잡아 다 거기에서 회의해서 저거 하고 그랬어.

북한 통치 하에서도 사유지는 있었으며 토지분배는 없었다고 기억한다. 이때에도 일제 강점기와 동일하게 국가의 공출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마을에는 소작도 있었고, 자기 땅으로 농사를 짓는 자작농도 있었고, 산에 불을 놓아서 조를 심는 화전민도 있었다. 대부분 소작농이어서 사유지를 가진 자작농은 약 20~30호 정도에 그쳤다.

이북 놈들하고 반타작을 한 것이지. 공출을 해가지. 자기 땅이라도 공출을 해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3분의 1이면 1 이렇게 타작을 해 가는 거야. 명의를 내 땅이고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공출을 해 가는 거지.

일제 강점기에 이 마을에는 논보다는 밭이 많았으며 주민들은 주로 보리, 귀리, 조, 밀을 심어 밭농사를 지었다. 밀은 털어서 뚜더기 같은 것을 해 먹었다고 한다. 논은 개울을 막아 만든 것이나 산골 논, 골짜기 논들이 조금 있었다. 당시에는 논이 너마지기만 있어도 부자라고 불렸다.(\*1마지기 = 200평) 마을에서는 물이 잘 나지 않고, 산에서 조금 내려오는 물을 가두거나 빗물을 받는 방식으로 물을 구했다.

아니, 산골 골짜기에서 샘이 나와서 조금씩 졸졸졸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을 가두어서 산골 논들 그런 것을 해가지고 비가 오면 내고 비가 못 오면 못 내고 천둥지가지. 그런 것들 해 먹어도 그래도 그 논이라도 그걸 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산다고 그랬지.

6.25 전쟁 발발 당시에 주민이 대부분 피난을 갔다고 한다. 마을이 ‘전쟁마당’ 이어서 마을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6.25 전쟁이 나자마자 면담자는 피난을 했고 전쟁의 상황을 겪었다. 미군 경찰기가 매일 빙빙 돌면서 망을 보다가, 민간인으로 위장한 빨치산을 죽이기 위해 무선을 치고 마을을 폭격했다. 주민들은 산에 숨어 있다가 미군들에 의해 차에 실려서 내보내지고, 남아있는 일부 주민들은 인민군들이 이북으로 데리고 갔다.

6.25나서 피난 다 나갔지. 여기 전쟁 마당인데. 여기 전쟁 마당이고 폭탄이 막 떨어지고 광광광 하고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어디 여기서 붙어 있어. 그리고 이북 사람들 막 쏟아져 나오고 여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아군이 막 쳐들어오고 비행기가 위에서 썩썩이가 막 돌면서 사람만 보면 폭격을 하고 기관총 막 들어오는데 어디 여기 그대로 있어. 나도 여기서 요 뒤에 산에서 잣나무 밑에서 잣나무 안고 살았는데.

민간인들한테나 마나 그때는 이북 애들이 빨치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빨치산 애들은 우리 민간인들하고 똑같아. 개네들은 들어와 가지고 민간인들 집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빨치산들 때문에 폭격을 하는 거야. 그 빨치산이라고 있어. 김일성이가 빨치산패 뭐 어찌고저찌고 그러잖아, 그게 그거야. 빨치산들 나쁜 놈들이야. 그것들이 길 안내 잡이를 잘 해요. 빨치산이 나와서 민간인 붙잡아서 앞에 길 안내 잡이로 나서게 해 가지고 여기서 어느 동네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는 또 다른 놈 붙잡아 가고 그 사람 보내고 그렇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막 두들겨 패고 총으로 찌르고 그래. 여기 뭐야 철원에 노동당사무실 있잖아. 거기 끌려가서 거기 가서 총살당하고 그러는 거야.

마을에서는 오랜 기간 산제사를 지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지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네에서 모은 쌀 너덧 가마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산제사를 지낼 수는 있다고 한다. 최근에 와서 산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는데, 댐이 생긴 후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는데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생겨서 부정을 탄다는 이유에서 있다. 이전에는 정씨 종중산에 상을 모셔놓고 일 년에 한 번씩 산제사를 받드시 지냈다.

산제사를 지내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산제사를 지내기 전날 낮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해놓고, 불을 해 놓고 밤 10시 경에 불 속에 향아리를 문고 술을 해 놓는다. 산제사는 밤 10시 반 정도에 상을 차려서 지계에 짚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밤 12시 경 지냈다. 산제가 끝날 때까지 마을에 들어온 손님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 전날 담아 둔 술은 걸러서 상에 모신다. 동네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원을 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 농사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지(산신의 응답)도 올린다. 지내고 난 후에는 저수지에 가서 저수지 물을 따라 동네 축원을 했다.

다 차려 놓고 동네 축원도 하고 동네사람들 하나하나 호명 불러 가면서 다 편안하게 해달라고 선종도 하고 그리고 짐승 같은 것 그 동네에 소 돼지 같은 것들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축들 잘 되게 번성해서 부자되게 해 달라고 다 축원을 하고 그러고서 다 지내고 난 다음에는 여기 저수지, 거기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까지 맞는 물이 가득해가지고 저수지 물을 따라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축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동네에서 그렇게 축원도 하고 동네 그 뭐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도화산 산신령님한테 모든 것은 도화산 산신령님한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잘 잡수셨으면 잘 잡수셨다고 응답을 하시라고 소지를 또 올려. 소지를 올려서 올라가는 것 잘 타고 후 올라가면 고맙습니다라고 절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소지도 올리고.

산제사는 일정 때도 지냈으며, 굶은 하지 않았다. 산제사를 지낼 때, 당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크고 붉은 수탉 한 마리 정도만 삶아서 올렸으며, 면담자도 직접 닭을 보러 다녔다.

삶아서 수탉 있지. 수탉 큰 놈, 아주 시벨건 수탉을 갖다가 그런 수탉을 써.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수탉을 사도 시벨건고 아주 큰 놈으로 보기 좋은 닭을 하나 사다가 재물로 바치지.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 여러 번 다녔어. 몸이 아프기 전에 여러번 다니고 내가 가서 그 소지도 다 올리고 그 백성들 철원 우리 동네 주민들 있잖아. 소지도 내가 다 올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했걸랑.

산신당을 모시는 산계(산정계)가 있었고, 현재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밀천이 쌀 3가마 정도가 있다. 산계에 들어가 있는 쌀은 제주도 먹지 못하게 되어있다.

마을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전설이 있다. 지장산(지장보살을 모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에 얽힌 전설은 돼지부처 이야기가 있다. 돼지부처 전설은 연천에 있었던 ‘석돼절’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다. 6.25 때 군부대에서 ‘석돼절’을 허물고 관인에 옮겼는데, 그 절이 심은사였다. ‘꿈에 부처가 나타나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겠다고’ 하여 연천군과 조계사가 함께 연천에 새롭게 절을 지었다. 석돼절에 얽힌 돼지부처 전설은 다음과 같다.

보과산인데 역사로 말하자면 아주 무척 역사가 깊어. 옛날에 여기에 그 뭐야 돼지부처가 왔다는 거야. 돼지가 사냥꾼이 어디서 사냥을 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돼지가 크게 이쪽으로 똥 거야. 그 돼지를 추적해서 옛날에는 먹충, 불을 댕겨서 는 총 있잖아. 이걸 매고 돼지를 잡으러 다니는 포수들이 그러고서 그 돼지를 따라 다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 산중에서 그 돼지가 골짜기에서 막 똥 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댕겨서 쏘았는데 그 놈 돼지가 맞았다는 거야. 맞고서 뛰어서 산을 넘더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포수가 돼지를 한 번 보면 며칠이고 따라다닌데. 한 번 먹고 나가면 30리를 나간대. 30리를 나가서 먹고는 또 30리를 나간대. 사흘 동안 먹고 30리를 나가고 사흘 동안 먹고 30리를 나가고 그런데 그 돼지가 거기서 이제 여기 와서 먹는 것을 보고 쫓아갔는데 총으로 쏘았는데 산을 넘어가니까 산을 쫓아가서 보니까 돼지가 샘 통에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쪽쪽 들이 키더라. 그러니까 풍덩 빠져버리더라는 거야. 거기 웅덩이가 있는데 빠져서 쫓아가서 보니까 그 웅덩이에 부처가 되어서 앉아 있더라는 거

야, 돼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그것을 보고서 그 포수꾼이 평평한 돌이 있는데 그 돌에 내일 아침에 내가 올테니까 이 돌에 올라와 앉아 계시라고 그 포수꾼이 절을 하고서 해가 다 넘어서 동네에 와서 주막집에서 자고 그러고서 아침에 들어가니까 그 돌에 와서 냉큼 앉아있더라, 그 부처님. 그 돌 바위 위에 절을 지었다고 해서 석돼절이야. 돌 석자 돌바위 위에다 암자를 지은거야.

이 마을에서 논농사를 제대로 짓기 시작한 것은 자유당 이근 내무장관 때 저수지가 생긴 이후부터이다. 경우에 따라 저수지 물이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이한동 집에 양수기가 2대 있어서 한탄강에서 물을 퍼 올리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머지 양수기 한 대를 이한동에게 받아서 물을 퍼 올려 썼다. 저수지가 생겨서 “여기 산골에 장작불에 이밥을 먹는 데는” 이 마을밖에 없었을 정도였다.

## (2) 지장산마을 토박이의 삶

관인면사무소의 소개로 만난 정균 씨는 친절하고 소상하게 자신의 생애와 마을사, 관혼상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준 적극적인 면담 참여자였다. 그의 생애는 삼팔선에 인접한 마을에서 성장한 한국인이 보여 줄 수 있는 극단적이지만 전형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균 씨는 부림소까지 가지고 있고, 먹고 살 만큼 되는 토지를 소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양친을 6.25 전쟁 중에 여의게 되는데, 그의 나이 9살 때였다. 할아버지마저 전쟁 중에 사망하여서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되었다. 그는 누이와 함께 미군에 의해 포천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어렵게 지냈다. “(나는)깡통 차고, 누이는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다고 한다. 당시 포천(당시에는 연천지역이었다.)은 불타지 않은 땅이 없었다. 면담자는 길거리 움

막에서 자다가 군인에 의해 민간인의 집으로 이동했고 다시 미군에 의해 서울 용산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 이를 없애는 디디티약을 뿌렸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머리도 감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그림 3> 면담 참여자 정군 씨

깡통 차고 깡통 하나 둘러매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밥 한 숟가락 달라고 그래서 밥 한 술 얻어먹으면서 살고 그러다가 누이는 남의 집에 애 봐 주러 가고 포천의 어떤 집들 그 사는 사람들. 그래도 포천은 거기는 그래도 옛날 집들이 많아요. 거기는 불 안 났어. 이쪽으로는 동네마다 다 불을 놔버렸어. 이 철원 일대가 다 불바다가 되어 버린 거야. 집 한 채도 없어. (...) 혼자 산 것이 아니고 이려고저려고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움막 같은 데에서 쭈그리고 자고 그러는데 군인이 한 사람 오더니 밤에 자는 데 발길로 툭툭 차더라고. 그러더니 꼬마 일어나 그러더라고 내가 자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어떤 민간인 방에다 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고 나니까 아침에 여군이 주먹밥은 이만한 거 한 덩어리 가져와서 주더라고 (...) 미군 차가 미군 제무시 있잖아. 그것이 오더니 빵빵대고 서더니 다 타라고 그래서 타니까 서울로 가. 그러더니 저

용산 있지, 용산 미군 부대 있는 거기 가서 내려 가지고 그냥 온 몸에 디디약을 허영게 뿌려 주더라고. 이가 버글버글 하잖아. 그냥 이가 별만한 이가 몸에 버글버글 하니까 머리를 감아서 뭐 했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한 고아원으로 이동 후, 다시 서울 삼해 보육원으로 분리 이동했으며 그곳에 300~500명 넘게 아이들(고아)이 있었다. 그 고아원에서 9년 동안 지냈다. 면담 참여자는 고아원(삼해 보육원)에서 서울 청계 국민 학교 까지 다녔다. 보육원 노래가 보안 노래였는데, 그는 그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전쟁통에 보육원 생활이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청계국민 학교, 종로 옆에 청계 국민 학교 있지 거기 고아원에 있을 때 남산국민 학교에서 남산 국민 학교 위에 우리 고아원이 삼해 보육원이야. 그 고아원 노래가 점잖은 저 모습을 아버지모습 아늑하니 남산은 어머니 품안 그 각을 바라보면 남산에 한 겨울 우리들은 자라난다 무럭무럭 터지자 3.8선 우리 힘으로 산에 산에 내산에 이게 고아원 (...) 보안 노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라서 3.8선을 깨 부시고 우리가 나라에 충성을 하자 그 노래야 고아원 노래가. 그 고아원 노래도 잘 지은 거지 남산은 아늑한 어머니 품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고 한다는 그 고아원 노래 잘 지은 거야.

후에 14~15살 쯤 되었을 때 의정부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갔다. 고모를 만나 고모의 상점 일을 도왔다. 수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을 찾으라는 고모의 조언을 듣고 고향(마을)에 들어왔다. 그곳에 있던 작은 할아버지가, 면담자 소유의 논너마지기(약 800평), 밭 “이틀같이”(하루같이 1500평)를 경작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작은 할아버지 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서 산에 파묻힌 탄피나 쇠 파편을 주워 고물장수에게 팔면서 돈을 벌다가 21세가 되었을

때 입대했다. 당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참여자처럼 파편을 주우러 많이 다녔다.

고물 캐러 다닌 거야. 그때 미군들이 산에다 막 폭격을 하고 쏘고 그랬잖아. 그런데 산에 맨 폭구덩이 투성이야. 그리고 한국군들 들어가서 총 쏘고 그런데 가서 뒤적뒤적하고 뒤지면 그렇게 탄피가 나와. 그 옛날 총을 쏜 탄피,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와. 그것을 주워 모으면 꽤 많아. 그걸 하루 주워 다 모으고 모으고 해서 고물 장수한테 팔면 무척 비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4일장이 있어. 4일장에 거기 가서 파편을 주우러 사람들 많이 다녔어.

군복무 35개월 후 철원에 고모(고모부가 논농사를 몇 만 평 씩 지으며 넉넉하게 사심.)가 한 분 더 계신 것을 알고 고모 댁에서 4년간 일을 하다가 고모부 집안의 손주 딸과 1968년에 결혼했다. 결혼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할아버지가 부치던 땅을 경작하면서 신혼살림을 차렸고, 절약하고 저축하여 황무지로 버리는 땅 약 5000평을 사서 논으로 개발했다. 정균 씨가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논을 메워서 집을 지은 지는 8~9년 정도가 되었다.

(버리는 땅을 사서) 밀어서 논을 딱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야 흙을 몇 수십 차 실어다 짝 부었지. 그 위에다 펴고서 논을 만든 거야. 한 5000평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개울이 물 막 내려가는 것 그걸 한전에 가서 전기 신청을 했지 그래서 모터를 하나 사서 개울에서 펴 올렸지. 그래 가지고 펴 올려서 논을 제대로 해 먹게 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다 부러워하는 거야 그 논을 보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여기 댐 나가지 않았어. 댐 나가니까 그 값 받은 거지 뭐. 그래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지. 살면서 보상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집이 옛날 터인데 이것도 논 했었어. 논 만들어서 해 먹다가 이 집터도.

슬하에 아들 두 명과 딸 두 명이 있으며 모두 출가해 외부에서 산다. 현

재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 면담자는 현재 대상포진을 오래 앓고 있다. 그는 면담 중에 재미있는 전쟁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군이 생물학 전을 펼쳐서 엽병균포탄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본인도 엽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예전에 여기 전쟁 나고 그럴 적에 엽병인가 그런 것이 있었어. 엽병인가 그게 뭐냐면 이북 애들이 지금 말하자면 원자탄 비슷하게 총알에다 무슨 그 약 병균을 넣어서 쏜다 말이야, 이북에서. 그래서 여기 그것을 이북 애들이 폭탄에다 그걸 넣어서 쏘면 그 동네 거진 다 그 병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병이 걸려 가지고서 그때 그 병이 와서 돌아가셨지.

면담 참여자의 어머니는 전쟁 중 방공호에서 총알에 맞아 며칠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숨진 후에 작은 어머니가 오시고 그 자리에서 염을 했다. 이후 작은어머니와 함께 다니다가 포천에서 헤어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총알에 맞아서 돌아가셨어. 이북서 애네들하고 전투를 하는데 산에 방공호를 파고서 방공호에 있는데 방공호에다 들이대고 쏘거야, 개네들이. 미군이 쏘았는지 애네들이 쏘았는지 몰라. 미군이 쏘 것 같아. 그런데 그거 맞고서 방공호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 맞고서도 사흘은 살아계셨었어. 그랬는데 한번은 나보고 오강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다 드렸더니 피를 한 오강 쏟더라고, 어머니가. 그때 나 아홉 살, 여덟 살 그때니까 내가 쏟아버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를 보고 오늘 저녁에 작은엄마가 올 거니까. 잘 따라다니라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작은엄마 말 잘 들어 그러고서 스스로 눈을 감고 아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있는데 저녁에 작은엄마가 왔어. 작은엄마 붙잡고 내가 막 울면서 엄마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들어가서 붙잡고 형님 형님 하고서 막 울더라고, 작은엄마가. 그러더니 애들을 왜 나한테 맡기고 돌아가셨냐고 막 울더라고.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염을 한 거야, 작은엄마가. 그래가지고 지게 꼬리로 매가지고 억지로 문지방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내려놓고서 땅바닥에 시체를 끌었지, 어머니를. 그래 나하고 작은엄마하고 억지로 끌면 요만큼 밖에 안 오는 거야, 한 번 끌면. 그렇게 해서 저만큼 끌어다가. 거기 목정논이 하나 있었어, 산골. 거기다가 끌어다가 놓고서 호미장 호미로 흙을 끌어서 뿌렸지 그렇게

해 놓고서.

가매장한 어머니의 시신은 수복한 뒤에 귀향해서 잘 수습한 다음에 장례를 치렀다고 말한다.

그럼, 들어와 가지고 내가 다 뼈 추러가지고 다 칠성간과 있잖아. 칠성판 나무 아까 얘기 했잖아, 그거 갖다가 거기다 쪽 깔고서 베 놓고 그러고서 신채 산에 뼈 쪽 맞춰서 놓고 그거 베로 싸냈지. 싸매가지고 딱 둘러메고 가서 그대로 갖다 모셨지.

1953년에 휴전협정 맺으며 연천의 관인면 일대가 수복되었는데, 현재는 수복된 지 50여년이 되었다. 작은 할아버지는 수복되자마자 들어와서 면담자의 땅으로 농사지었으나 면담자는 서울의 고아원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늦게 들어왔다. 그 당시 드문드문 초가집, 움집들만 있었을 뿐 마을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수복된 다음에 마을의 가구수는 약 50호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부대에서 산을 깎고 장작을 패서 팔고 살았다고 한다. 결혼 후 왔을 때 마을 가구수는 100호 정도였으며 토박이도 많았다. 부대는 위쪽에 있기에 군인가족은 별로 없고 경상도에 올라와서 화전을 해먹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 (3) 지장산마을 토박이의 일생의례

면담 참여자가 남성이었던 관계로 출생과 출산 의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 못하였지만, 지관 역할을 오래 수행하여서 상장례에 대한 이야기는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신식 결혼식을 수행했지만, 혼례 절차 일반

에 대한 이야기는 무리 없이 수집되었다.

### (가) 출생의례

수복 후에 살림에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 돌상은 여유가 없어 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차려 주더라도 특별히 크게 차리지 못했다. 논이 4마지기 있었지만 용처가 많았기 때문이다. 돌상에는 미역국, ‘수수망생이’(수수가루를 몽쳐서 삶아 만든 것) 정도만 올렸다.

돌상이나 마나 그때만 해도 어렵게 살고 먹고 살기 곤란한 시절인데 그렇게 애들 돌상 차려주고 그럴 것이 있어 못 했지. (...) 그까짓 논 4마지기 해도 그때만 해도 중고등학교도 학교비도 다 내고 저거 할 때인데 그걸 가지고 뭘 집에 가정 쓰고 뭐 하고 농사 지어봐야 애들 신발 사주고 뭐 하고 뭐 차비, 여기서 관인 다니는 차비 주고 맨날 그러는데 뭐 그까짓 논 4마지기 얼마 나와서.

첫 아이는 철원에서 낳았고 아이의 외할머니(장모)가 자신의 집에 와서 받았다. 삼신상은 차리기는 하지만 본인이 차리지 않기에 잘 모른다.(장모님이 뒤에서 차렸다.) 신흥동으로 와서는 산과 없이 부부가 스스로 아이를 받고 태를 잘랐다. 출산 후 몸조리는 동네 노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며칠간 맡겼다고 한다.

그리고 동네 노인네들 보고 와서 다 나올 때까지 밥 해다가.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해 주고 난 다음에 돈을 주어야지. 며칠 동안 해주고 나면 밥 해주고 나면 미역국을 산모 해 먹어야 될 거 아니까.

### (가) 혼례

면담 참여자는 결혼을 신식으로 예식장에서 현재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 철원에 예식장이 있었다. 당시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구식결혼을 했다. 신랑 신부는 관복, 족두리를 입었고 상 위에 팔, 복어, 닭 같은 것을 차리고 상의 양쪽에서 수탉 하나, 암탉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신랑과 색시가 서로 절을 했는데, 절을 몇 번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잔치는 집에서 상을 차리고 국수를 삶아서 손님들을 대접했다. 면담 참여자는 오촌 당숙 댁에서 잔치를 해주셨다.

구식이야, 족두리 쓰고 신랑 관복을 입고 그러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앞에다 상 채려 놓고 팔, 복어, 닭 같은 것 이렇게 갖다 양쪽에 수탉 하나 암탉 하나 이렇게 들고 서 있고 그리고 신랑 절하게 하고 색시 절하게 하고 그리고 축 읽고 그러는 것이지.

잔치는 집에서 다 차려 가지고 집에서 국수 삶아 가지고 손님들 다 오라고 해서 하고 예식만 거기서 하고. 그리고서 관광차 하나 대가지고 집으로 실고 오고. 그 잔치에 갔던 손님들 다 같이 와서 집에서 국수 먹고 그러는 것이지.

면담 참여자는 철원에서 6년 동안 살았다. 수자원공사에서 원래의 2층집을 헐어버렸다. 이 마을에는 70년대에 왔다고 한다. 1960년대 후반에 예식장이 있었고, 일부가 이미 예식장에서 신식 결혼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을 면담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나) 상장례

이 마을에서는 시신을 매장할 때에 집안에 따라서 관을 묻기도 하고 탈 관하기도 한다. 입관할 경우의 관은 일반적으로 비싸고 좋거나, 관을 짜는데 쓰인 나무가 옻나무나 소나무 등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탈관을 하는 관계로 관은 좋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시신을 매장한 후에 태워버린다.

다 털구서 신체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관이 좋은 것, 관이 비싸고 좋고 나무가 두껍고 맞추고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옻나무 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관째로 쓰는 사람들이 있지, 돈 비싼 것들 그런 거.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털고 써. 그래 짜구려 이런 데서 사가지고 가서 그 시체만 부딪치지 않게 넣어 가지고 가서 털어버리고 송장만 갖다 묻어. 그리고 불 놔버려.

시신을 묻을 때 6자를 파고 시신이 들어갈 자리를 다시 판다. 그리고 나무나 돌로 만든 흥대로 덮고, 다시 흙을 덮는다. 흥대 위에 보자기를 깔기도 한다. 하지만 집집마다 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 달랐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썩기는 다 마찬가지로인데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송장이고 뭐고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는 것인데 그까짓 것 뭐 써서 다 없어지는 건데 뭐.

흙으로 전부 채우고 보통 달굼질(달구질)을 3번이나 4번 반복한다. 흙을 부어서 밟아놓고 다시 흙을 붓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떼를 입힌다. 달굼질을 예전엔 전부 가래로 했고, 떼를 입힐 때까지 약 반나절(3시간) 정도 걸렸다. 발인은 보통 아침 일찍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하관하는 하관시에 맞추어서 출발을 하였다.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산에 묻는 매장을 하였다. 마을에 상여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상여는 8명이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댔다.

그럼. 내가 한 터 메고 가면 힘들면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댔게, 뒤에서 쉬어. 그리고 교대 교대하는 거지.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교대해주고 사람 없으면 그냥 맨 사람이 또 메고.

면담 참여자가 주로 지관(묘터잡기)을 담당했었다. 특별히 배웠다고보다는 본인의 눈썰미로 지관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본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묘터를 잡아 주었다고 한다.

묘 터 잡는 거. 그걸 내가 많이 했지. 그래서 아침에 날 보고 차 타고 빨리 쫓아가라고 그리고 빨리 가서 산소 자리 잡으라고 그리고 내가 쫓아가서 내가 대게 잡았지. 그 방향을 보고 그 산소 자리 그 방향을 보고 그러고서 이제 나침반 가져가서 동서남북 보고 방향보고 딱 파라고 금 굵고서 잣대하나 띄워 주면 거기 파기 시작 하는 거야.

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은 당일에 잡으며, 터가 험한 경우는 나무뿌리를 미리 뽑는 등 미리미리 터를 다듬는다. 구덩이는 당일에 판다. 장사 치르는 날에 (시신이 들어갈 자리를)사람이 직접 파서 횃가루를 섞고 다듬는다. 구덩이는 미리 파놓지 않고 장사 치르는 당일에 파는데, 땅의 영험한 기운이 나가기 때문이다. 정균 씨는 묘 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물이 나는 뿔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관은 일반적으로 새롭게 만들기 보다는 짜놓은 것을 구매해서 사용한다. 염은 약 솜에 그릇에 따라놓은 소독약을 적셔서 시신을 닦아내면서 시작한다. 입고 있던 옷은 칼로 찢어버리고 삼베옷으로 갈아입힌다. 시신의 허리를 끈으로 잡아매는데, 메는 횃수는 기억하지 못한다. 시신을 고정시키기 위해 손을 붙잡아 메고 턱을 괴어주며, 눈을 쓰다듬어서 감겨준다.

염하는 거는 신체 갖다가 다 놓고서 소독약 여러 병 갖다가 이런 등그런 사발 같은 거에 갖다 놓고 팔팔팔 부어 버려. 붓고서 약솜 갖다가 담귀서 짜. 짜서 싹싹싹 문대는 거지 뭐. 그걸 닦는 거지 송장을. 싹 닦고 그래가지고서는 옷 같은 거는 칼로 다 찢어 버려, 뺨스 같은 거. 다 찢어버리고 새로 갈아입히는 거야.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염하기 시작하는 거지. 염이라는 거 옷 다 갈아입히고 그 삼옷 있잖아 그거 입히고.

염을 하고 난 다음날 관에 시신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방 윗목 응달에 놓는다. 관은 머리부터 나간다. 칠성관은 사람이 죽은 순간에 바로 시신을 올리는 관이다. 칠성관은 태우기도 하고, 농기구로 쓰기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당시 나무가 귀해서 썼다. “나무가 귀하니까 갖다 쓰는 거지. 농촌에서 사람들 그런 거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런 걸로 쓰는 거지 뭐 좋고 나쁜 게 있어.”라고 했다.

사후 3일 만에 발인을 하는데, 상여가 나가기 전에 마당에 명석을 깔고 멀리서 온 손님이나 동네 손님을 대접한다. 상여가 나가기 전날 밤에 상여놀이 등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매장할 때에 특정 띠(나이)를 가진 사람들은 ‘살을 맞는다’고 하여 하관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는 지관이 정해주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따랐다.

지관이 저기를 보고 그 선수자리 명의를 그걸 보고 책을 보면 그게 나와. 몇 살부터 그 하관시에. 하관이라는 거 송장을 땅 속에 집에 넣는 것을 하관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하관 할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 하관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 그거 안 보려고 다들 피한다고 그걸 보면 살 맞는다는 거야 그거 재수가 없으면 송장 그런 거 보고 살 맞으면 나만 병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 나는 그렇게 유명하게 책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냥 가서 이렇게 방향보고 자리 보고 잡아주면 그냥 그랬어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 나보고 잘 잡았다 그리고 자리 좋은데 잡았다 그리고 내가 좀 안다고 청룡백호 그것만 딱 알려주는 거야 그것만. 어찌구 해서 산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이 송장이 그 안에 이렇게 딱 감싸게 되잖아 그

리면 청룡백호가 양쪽에 이렇게 감싸주고 말하자면 옛날에 미신이라고 그래도 그게 지관들 저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지. 그 동국대학에도 그거 다 배워. 그 중학교 거기도 다 그런 거, 천재들 나오고 그러는 거에 다 나와.

붕분을 만들 때에 달구소리를 하게 마련인데, 달구는 선소리를 주면 박자에 맞추어서 발로 밟고, 손뼉을 치면서 막대기로 했다. 옛날 방식의 달구 방법은 거의 다 잊혀졌다.

그것도 밟는 방식이 있어요. 산소 자리 잘 쓰고 그 할 적에는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선설해 주는 사람이 선설해 주잖아. 그러면 이히리 달구 하면서 발도 툅 거기 산소를 밟잖아. 그리고 또 손을 딱 치면서 밟고 또 이쪽에 원다리 들어갈 적에 이히리 달구 그러면서 쪽 그러면서 이제 박자 맞춰서 밟는 거지. (...) 막대기 들고 막대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옛날에 막대기로 하는 식을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로다 그렇게 밟고 마는 거야. 지금 그 옛날식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 나. 군내면 명산리 토박이의 일생의례

### (1) 마을 개관



〈그림 4〉 명산리 마을 전경

군내면 명산리는 고성 이씨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해방 전까지는 동성마을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그 이후에 외지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고성 이씨 원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 살게 되면서 현재는 전체 60~70호 정도의 마을 가구 중에서 40호 정도가 고성 이씨 집안이라고 한다.

포천 명산리는 38선 이남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포천의 북쪽 지역처럼 북한 통치를 경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육이오 전쟁 당시에 당시 피난을 간 사람도 있었지만, 북한 인민군의 남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난가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멀리 피난 간 경우에는 한강을 건너가기도 했다고 한다. 일사 후퇴 때에도 피난을 가야 했고, 인민군대가 들어오기도 했고, 중공군도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심지어 수원 산에 거주하는 화전민들의 경우에는 빨치산들에게 피해를 입기도 했다.

마을은 고성 이 씨 도천파 아래 창주공파가 거주하고 있다. 창주공은 선

조때 임진왜란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창주공을 비롯한 선조들을 위한 재실도 마련해 두었고, 선조들의 유골을 정리하여 평장의 형태로 마을 선산을 재정비했다고 한다.

주변의 여러 성씨와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주로 포천 군내면 인근의 평강 채 씨나 전주이 씨, 의령 남 씨들이 그 대상이었다.

매년 10월이면 마을에서 산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거의 중단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명산리의 산제사에는 돼지머리를 예전부터 써왔다고 한다. 참고로 건너 편 화천 마을에서는 소머리를 쓰고 있다고 한다. 현재 마을 주민 중에서 젊은 세대에서는 산제사를 수행하는 데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음력 11월 2일에 산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면담 참여자 중에서 화전생활을 한 이한중 씨의 경우에 어머니가 산치성을 개별 가족 차원에서 정성껏 지내왔다고 말한다.

명산리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지었다고 한다. 콩 등이 주요 작물이었다. 마을 입구에 일제 강점기에 저수지가 축조되기는 했지만, 명산리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했고, 대부분 아랫마을에서 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한다. 명산리에서는 지하수 관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하수를 끌어올 전기가 70년대 초반에 들어온 이후에야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 논농사는 골짜기 물을 확보할 수 있거나,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논에서만 가능했다.



<그림 5> 명산리의 논

논농사가 용이하지 않았던 과거에 명산리 마을은 부유하지 못했다.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밭에 콩, 보리, 조, 팥 등을 경작하였는데, 보리밥이나 조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쌀밥은 거의 먹지 못했으며 보릿고개가 심했다. 한창 배고플 때에는 쌀 1말을 빌려서 이자를 50%로 갚았다. 이렇게 빌려온 쌀을 장리쌀이라고 했다. 돈을 빌려도 이자를 50%로 해서 갚아야했던 것이다.

장례밥. 한 말 먹으면 그 한 달을 먹으나 두 달을 먹으나 한말 반을 갚다 주는 것이지. 한 말을 먹고 50프로를 갚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았지.

(다른 참여자) 돈도 그랬지, 돈도.

(다른 참여자) 이장님 말씀 하셨지만, 한 말을 꾸어 갓갓아요. 가을에 한 말 반이 되잖아요. 한 말 반 꾸어가지고 가서 갓갓아요. 갓갓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한 말반을 꾸어 와요. 그럼 내년엔 세 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마가 세 가마가

되는 거예요, 장례쌀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그걸 풀면서 했는데 그거 거의 한 50프로는 때 먹혔죠.

마을 주민들이 즐기는 특별한 놀이로 기억나는 것으로 면담 참여자들은 춘향이 놀이를 이야기한다. 정월대보름에 춘향이 놀리기라는 놀이를 했는데, 춘향이 놀리기는 합창, 노래, 춤, 신들림이 동반되는 놀이이다.

춘향이 놀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월 때 둘러 앉아. 한 사람 춘향이 놀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계속 옆에 사람들이 여럿이 합창을 해서 정을. 정이 뭐냐면 우매 딸 춘향이 나이는 18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오늘 저녁에 유쾌히 놀아봅시다. 그것을 합창을 반복을 해서 반시간을 하면 이 여자가 있다가 이렇게 벌어져 (...) 그럼 나중에 한참을 우리가 옆에서 노래 해주면 춤을 추는 거야. (...) 이 여자가 이렇게 벌어져. 나중에 일어나 춤을 추는 거야. 신이 들리고 그러는 것이지. 신 들리는 것이지 뭐야.

1972년도에 새마을운동으로 명산리에도 전기가 들어왔으며, 그 전에는 호롱불을 썼다. 논농사도 그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벼의 수확량도 크게 늘었다. 200평에 쌀 두가마니 반만 나오면 "아, 그 집 농사가 아주 잘 됐다"라고 했다. 지금은 그 정도 넓이의 땅에서 다섯 가마니씩 나온다. 200평에서 나오는 쌀 한가마니를 '마대'라고 했다. 한 집에 1천 평 정도 있으면 '있는 사람' 축에 들었다.

마을에는 집집마다 한 뒷박씩, 80집이 참여해 초상을 준비했던, <이중계>가 있었다. 연말에 계를 한다고 공고문을 붙여놓곤 했으며, 계원들끼리 타작을 마치고 모여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이중계 관련 옛 문서는 남아있는 게 없다. 이중계 외 친목계가 있었는데, 돈계가 대표적이다. 이중계는 장사를 치를 때만 했으며, 혼례는 포함하지 않았다. 혼례 때는 국수 두어 뭉치나 막걸리, 장사 때는 팔죽 등으로 부조를 대신했다.

## (2) 명산리 토박이의 삶



〈그림 6〉 면담 참여자 이기태, 이한중, 이양호

명산리의 면담 참여자는 이양호 씨와 이한중 씨, 이기태 씨이다. 모두 고성 이씨 창주공파 일가로 상호 친밀한 관계에 있다.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 부분 공유하며,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 참여자들과는 고성 이씨 종친회 재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한중 씨는 1940년생이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할아버지대에 수원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대에 내려와서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일본에 광부로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한중씨는 청송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사정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여름이면 야채를 재배해서 내다 팔고, 겨울이면 나무를 해서 포천장에 내다 팔았다. 나무는 약 6킬로그램 단위로 묶어서 내다 팔았다.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도 함께 일을 하

게 되면서 점차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돈이 모이면 토지를 사서 농사를 점차 불러 나갔고, 나중에는 부농 소리도 듣게 되었다. 직접 산에서 재배한 야채는 포천과 의정부를 거쳐서 서울까지 내다 팔렸다고 한다. 산은 문중 산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가 없이 화전을 일굴 수 있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차남이 가업을 잇는다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며 농사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1970년대에는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일도 하였고, 그 다음엔 이장 일도 했지만, 농사 규모가 컸던 관계로 면단위의 일은 하지 못하였다. 현재 약 2만평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며, 적소 사육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인도인 부부가 일군으로 농장에서 일을 돕고 있다.

이기태 씨는 세 명의 면담 참여자 중에서 항렬은 가장 높지만 나이는 가장 어리다. 집안이 그런대로 잘 사는 편이었고,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생활해 왔다. 1남 2녀를 슬하에 두고 있으며, 본인을 비롯해 모든 식구가 서울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다. 현재에는 고향 명산리 집을 전원주택으로 이용하는 편이며, 시간이 나면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종친회 부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양호 씨는 상여소리를 잘 하는 분이며,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이 아주 부유하지는 않아도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살림을 꾸리셨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에 육이오를 경험했는데, 누님이 조금 고생한 것을 제외하면 별일이 없었다고 한다.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병환이 있었던 관계로 포천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가사를 이었고, 3년 동안 서당 공부를 했다. 이 때 배운 한문 지식이 생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1965년에 2살 어린 신부와 구식결혼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해로하고 있다고 한다. 아버님은 70세에, 어머니는 95세에 돌아가셨고, 조금씩 재산을 늘려서 그런대로 살고 있다. 상여소리를 좀 하는 편인데, 상여소리는 마을에서 소리를 잘 하는 분에게서 배웠다고 하는데, 이제는 많이 잊어버려서 잘 하기 어렵다고 한다.

### (3) 명산리의 일생의례

#### (가) 출생의례

이양호 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는데, 출산은 모두 집에서 하였다. 출산할 때 어머니가 도와주었으며, 본인은 어머니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다고 한다. 배냇저고리나 미역 등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한다. 금줄은 성별로 맞추어서 모두 쳤다고 하며, 태는 태웠다고 한다. 백일상은 잘 차려주지 못했지만, 돌상은 모두 차려 주었는데, 백설기와 수수팥떡은 꼭 올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돌잡이도 모두 했다고 한다.

금줄은 삼칠일까지는 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반적으로 산후조리는 3주 정도 하지만, 부인의 경우에는 3일 만에 부엌으로 나갔다고 한다.

## (나) 혼례

1940년대 초반생들이 결혼을 하였던 196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구식 결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면담 참여자 중에서 이양호 씨는 1965년도에 수탉, 암탉을 가져다놓고 구식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중매결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부 얼굴만 한 번 보고 결혼을 하였으니, 이전에 선도 보지 못하고 혼인을 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은 신부네 집에서 보았다고 하는데, 처갓집은 백(100)석 한다고 소문이 났던 부잣집 주사 덕이었다. 당시에 선을 보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는 결례가 아니었다고 한다. 양가에서 혼사를 합의하면, 사주를 신부 측에 보내며 택일도 신랑 측에서 담당하였다고 하는데, 중매쟁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함은 혼례의 대례 이전에 가져다주었는데, 당일이나 이삼일 전에 가져가기도 했다. 함쟁이가 들고 가기도 하고 신랑 본인이 가져가기도 했는데, 이한중 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들고 갔다고 기억한다. 이영호 씨는 명산리에서 동두천까지 차를 대절해서 타고 갔는데, 중간에 내려서(마을 들어가기 1km 전에서부터) 가마를 타고 마을로 들어갔다. 후향뿐 아니라 하인이라

부르는 아랫사람들도 데려갔다. 동두천에 위치한 신부 집에 도착한 다음 하인이 가져온 사모관대를 처갓집 옆집에서 따로 마련해준 공간에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고 기러기를 드린 다음 대례를 했는데, 대문에 들어서는 방향으로 남자가 오른쪽에, 여자가 왼쪽에 섰다. 초례상에는 대추 등의 음식이 올랐으며, 동네 젊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수탉한테는 밤, 암탉한테는 대추를 물리고 있었다.

후행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차 뒤에 타고 돌아왔는데, 신부집이 너무 멀 경우에는 하룻밤을 자고 오기도 하였다. 후행은 일가의 대표인데 숙부나 당숙, 사촌 형 등이 이를 수행하였고, 마을에 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러 허드렛일을 하였다고 한다. 대례를 할 때는 남자가 먼저 절을 두 번 반 한 다음 신부가 절을 했다고 한다. 대례가 끝나고는 식사를 했는데, 이양호 씨의 경우 국수를 세 그릇이나 먹어서 훗날까지 이를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한다.

장인, 장모께 인사를 드린 후 트럭을 타고 본가로 돌아왔다. 신부집에서 자지 않고 신방은 신랑가에 차렸다. 하지만 이양호 씨의 누이들은 신부가에 신방을 차렸다고 한다. 이는 당일 신행이나 우귀가 이 지역에서도 최근에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신부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신부놀음을 하고 있었고, 동네사람들이 신부와 신부가 가져온 혼수 구경을 하러 왔다. 신부가 가지고 오는 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구경거리였다고 한다. 폐백을 하고 나서 다음날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사당차례를 돌았다. 명산리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친인척이었던 관계로 대부분 인사를 하러 왔다.

신부는 신랑집에 온 뒤 삼일만에 신부집에 다시 가는데, 이를 삼일도배기라고 불렀다. 처가에 가서 신랑은 발바닥을 맞았는데, 이양호 씨의 경우 처

가마일에 친척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신부가 노래를 하면 신랑다루기를 보통 멈춘다. 신부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으며, 처외갓집까지 가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잔치 때에 필요한 그릇은 이중계에서 제공하였지만, 상의 경우에는 마을 이웃들에게서 빌려 왔다고 한다. 그릇이 낫그릇이었던 관계로 녹이 잘 슬기 때문에 아낙네들이 며칠 동안이나 기와를 곱게 뿜아 낸 가루로 녹슨 낫그릇의 녹을 제거하였다. 잔치 때에 먹는 국수는 당시에 이미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사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잔치는 3일을 했는데, 국수 삶는 일은 주로 여자가 하고 남자는 잠깐씩 거들기만 했다. 1년 뒤에 가는 근친은 몰랐다고 한다.

#### (다) 축수연

이 마을에서 환갑의 경우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나 가까운 일가친척을 부르는 정도에서 잔치를 치렀다고 한다. 여러 음식으로 고임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기생을 부르는 정도의 큰 잔치는 치르지 못했다고 말한다.

환갑상의 고임의 경우에, 젊은이들이 며칠 전부터 모두 도와주었다고 한다. 술도 만들고, 여러 음식도 장만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국수 부조를 많이 했다. 부조의 경우, 환갑이나 칠순에는 받고 팔순에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 (라) 상장례

장사 때 이웃은 부조로 팔죽을 마련해 오기도 했는데, 이 때 팔죽은 액

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으며, 이 팔죽을 손님들과 나누어먹기도 했다. 장사를 치를 때 국수는 절대 먹지 않았다. 밥과 국을 먹고 대접했는데, 국은 사정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해 만들었다. 국은 무국을 주로 끓였는데, 장사 때 돼지를 잡는 집도 있었지만, 보통 결혼식 잔치를 위해서 잡으며, 가난한 집에서는 고기를 손님상에 올리지 못했다. 결혼식 때 돼지고기 다섯 근으로 잔치를 치르기도 했다. 고기가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밀 빈대떡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했다. 녹두로 만든 빈대떡은 잘 사는 집에서만 했다. 잔치 음식을 모두 함께 보관하는 과방을 따로 지어서, 잔치 음식을 접시에 나누어 담아 손님상으로 내보냈다.

과방이라고 알아? 그때는 이렇게 음식을 차려 놓잖아. 다 차려 놓으면 과방을 따로 지어. (다른 참여자) 방 하나에다. (다른 참여자) 그러면 동네 할 만한 사람이 거기서 접시에 다 놓는 거야. 거기다 몰아넣고 음식은 다 거기다 넣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담아 가지고 손님들 심부름하는 사람이 잔치상에 갖다 놓으면 들고 나와서 그게 과방.

상례에서 고기접시는 4명~6명에 앉았던 한 상에 한두 개 정도 올라왔다. 막걸리는 꼭 준비했다. 양조장이 있어서 막걸리를 사기도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집에서 누룩으로 담그기도 했다. 장례 소식이 나면 여자들은 술을 빚었다. 아랫목에 술을 파묻어서 3일 안에 술이 되도록 했다. 당시에는 3일장이 없고 5일장을 주로 했다고 한다. 수의를 준비하고 널을 짜는 것도 상을 당한 다음 했다. 아름답기로 큰 오동나무, 은행나무 등을 두껍게 통나무로 평소에 준비해놓고 있다가 널을 짰다. 그 당시에는 나무의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관을 준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었다.

고성 이씨 창주공파는 탈관을 하였지만, 집안 내에도 탈관을 하지 않는 직

과도 있었으며, 아주 윗대 조상들은 탈관을 하지 않고 입관하였다. 염은 집 안에서 잘하는 사람, 해 본 사람(두 사람)이 담당하였으며, 아랫목 칠성판 위에 돌아가신 분의 시체를 얹었다. 염은 하루 있다가 한다. 증편이라고, 다른 곳에 가묘를 했다가 장사 지내는 민속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한다.



〈그림 7〉 명산리 평장

염은 문을 덮어 놓고 옷을 벗긴 후 알코올로 대강 닦았다. 잘 벗겨지지 않는 부분은 칼로 켜다. 일가의 남자가 들어가서 염을 한다. 닦은 후에는 속옷부터 입혀서 옷을 입힌다. 옷을 입힌 후에는 발톱과 손톱을 전부 깎아서, 깎은 것들은 봉지에 넣어서 옆에 가져다가 놓는다. 입에 찔 붙린 것들 한 손가락 넣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베로 된 끈으로 움직이지 않게 줄라 묶

는다. 꼭 줄라 묶는 것을 몇 번 한다. 대략 8개에서 9개를 비틀어 묶는다.

입에다 밥, 쌀 불린 것 한 숟가락 넣고 천석이요 만석이요. 뭐 그렇게 한 숟가락을 떠도 그렇게 많이 드린다는 뜻이지. 천석이요 만석이요 그러지.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림 8> 명산리 평장

입관을 하고 밭인 후에 매장을 하고 나면 평토제를 지냈다. 그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솜뭉치에 불을 붙여 불을 든 사람을 불목하지라고 불렀는데, 이들에게는 떡을 특별히 두 뭉치를 줬기 때문에 서로들 불을 들고 있으려고 했다. 장사 때 떡은 편을 했는데, 그래야 집안이 편편해진다는 말이 있었다.

추울 때는 매장 전날 미리 땅을 뚫다. 땅이 괜찮을 때는 상여가 나가는 그날 땅을 뚫다. 6자 정도까지 깊게 땅을 뚫다. 이양호 씨의 경우 아버지는 3년, 어머니는 1 년정도 상청을 모셨다고 한다.



<그림 9> 고성 이씨 묘각 옆 창고



<그림 10> 고성 이씨 묘 봉분



<그림 11> 고성 이씨 묘각 전경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

# 경기 북부 지역 일생의례의 특징

## 경기 북부 지역 일생의례의 특징

강정원

### 가. 들어가며

경기 북부 지역 일생의례의 특징을 경기 북부 전체 차원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앞서서 각 시군 별 마을 단위로 수집된 여러 일생의례를 최대한 상술하였지만, 경기 북부 전체로 확장시켜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조사자 개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시도되는 일종의 시론의 성격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조사된 일생의례의 대부분은 조선조 후기에 이 지역에서 중요하게 작동한 유교적 의례를 이상구조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유교적 모델에 근거해서 의례의 각종 상징과 의미가 체계를 이루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천이라는 행위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여러 의미 구조와 체계에 순종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민속문화의 형태를 구성해낸다.

민속문화는 기본적으로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형태는 체계와 구조로 지탱이 되며, 사람들은 이러한 민속문화 체계 속에 출생하여 단순히 그 구조에 따라가지 않고 개인의 다면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목적으로 실천한다. 체계와 구조는 존재하는 민속문화의 골격을 형성한다. 상징과 의미, 행위 모두 체계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복합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안정적인 민속문화는 체계와 구조와 분리되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민속문화의 체계와 구조는 하나의 체계가 있지만, 구조는 기본구조, 이상구조, 표현구조로 분리되며, 구조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는 체계도 있을 수 있다. 하나의 형태에는 하나의 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체계만 있고 포괄적인 형태는 유동적인 경우도 있고, 하나의 형태에 두 개 이상의 체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며, 하나의 체계임에도 다수의 구조가 존재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체계보다는 좀 더 인간의 의식과 연관된 구조에 의존해서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기본구조는 민속문화에서 사람들이 작동 원리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행위나 구성물로 표현되는 것이며, 이상구조는 행위의 의도적 지향점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표현구조는 이상구조와 기본구조의 대립 속에서 행해지는 실천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표현구조는 가변적이며 다의적이어서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감정적 변화, 자연 침해 등에서 행해지는 실천에 의해 쉽게 그 형태를 변경시키고, 현실에서는 다수가 존재할 수 있다.

구조는 실천을 배제하는가?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구조는 실천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여러 문화이론이 지나치게 변화만을 강조하거나 인간의 실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실천과 구조 사이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구조와 실천은 상호 변증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내가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실천과 구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한국 문화의 현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을 해체하거나 실재 불가지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민속문화의 지속과 변화라는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나. 출생의례

경기 북부 지역의 출산과 출생 의례에서 흥미롭게 관찰되는 것은 출산 방식이 가지는 지역성과 계층성이라고 생각된다. 홀로 출산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여성들이 특별히 용감해서 이러한 민속이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러한 홀로 출산도 가능하며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도록 출산 민속문화가 기본구조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정에서 친정어머니의 도움 하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이상구조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이상구조가 1900년대 중반 경기 북부 지역의 현실에서 생활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실천되기는 어려웠다.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실천 방식과 표현 구조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상층일 경우에는 이상구조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친정과 연계가 원활하고 친정에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 친정에서 첫아이를 출산하고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받아 주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중층이나 하층에 속하거나 상층이라도 친정어머니가 없을 경우

에 친정으로 출산하러 갈 수가 없었고, 시댁에서 출산을 해야 했다. 친정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을 보면 홀로 출산이 여성의 시댁 출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홀로 출산하는 방식을 배웠냐는 말에 그냥 혼자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하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홀로 출산하는 민속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홀로 출산이 기본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협할 수도 있는 홀로 출산 방식을 감행했으리라 생각한다.

출산 장소의 경우에는 친정과 시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상층의 경우에 친정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중하층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시댁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러한 민속규칙의 경우에 경기 북부 지역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 태의 경우에 대부분 태웠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없었다. 아이에게 백일상이나 돌상을 차려 주는 것은 기본구조임과 동시에 이상구조였으며, 표현될 때는 차려 주기도 하고 차려 주지 못하기도 했다. 실천이 항상 기본적인 이상적인 상징체계구조 속에서 머물지는 않기 때문이다. 백일이나 돌을 맞아서 백설기 떡을 상에 올려 주는 것은 기본이상구조이며 실천에서도 항상 관찰되었다. 이 지역의 특징적인 떡으로 수수팥떡이 있는데, 이 도 이 경기 북부 지역 민속의 기본이상구조이다. 아이에게 돌빔을 차려주는 것은 이상구조이기는 하지만 실천으로 표현되지 못하였다.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새우를 차려주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기는 하다.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이상구조가 새우차림이라는 기본구조와 결합되면서 실천으로 연결되어 표현구조로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산과 출생 의례에 유교식 가례 구조가 강한 힘을 가지고 개입하지는 않았다. 즉 정치나 경제, 사회로부터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속문화였기 때문에 전승된 상징과 의미 체계가 그 자체로 구조화되어서 이상과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상구조와 기본구조가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표현구조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출산 방식에서만 이상과 기본구조의 차이가 커서 실천방식이나 표현구조에서 지역적이고 계층적 차이가 나타난다.

## 다. 혼례

이번 조사에서 혼례와 관련해서 주된 조사 시기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가

된다. 이 시기는 해방이 되었다가 육이오 전쟁이 발발하는 등 상황이 어렵고 어수선했다. 혼례가 어떤 방식으로 형식적 구조와 의미적 내용을 추구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조선 후기에 정립된 혼례 방식은 잔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대례 중심의 구조로 변화했다. 대례 중심의 혼례 체계와 구조가 어떤 정도로 실천되는가에 따라서 표현 구조에 차이가 나게 된다.

경기 북부 지역은 대례 중심의 혼례 구조가 정착한 지역이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치러진 혼례에서 대례가 치러지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큰상과 잔치 방식으로만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대례를 어디에서 치르는가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데, 친정이 혼례잔치를 치를 정도가 되지 못하면 신랑집에서 대례를 올린 경우도 간혹 보였다. 신부집에서 대례를 치른 후에 신랑집으로 오는 당시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고 다른 실천이 행해지면서 변형된 표현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신랑집에서의 대례는 친영제의 실현으로 이상구조가 현실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혼례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혼례 표현 구조의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부가에서 상을 받고 잔치를 먼저 치르고, 신랑가에서 또 한 번 상을 받고 잔치를 치르는 두 번의 상차림과 잔치를 통해서 혼인을 확인하는 것이 한국 혼례의 기본 구조인데, 이러한 기본 구조는 1400년대부터 170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제시한 대례와 친영제 중심의 이상 구조 제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대체로 보면 관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 잔치는 신식 대례가 보급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본구조는 이상구조의 강요에 따른 실천의 결과로 새로운 기본구조로 변형되게 되는데, 이는 형태 혹은 체계와 관련이 된다. 1500년대까지 한국 혼례 민속은 두 번의 잔치와 신부집에서의 허락과 동침이라는 형태와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때의 기본구조와 이상구조, 표현구조에 모순과 괴리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 국가를 정립한 지배층은 부계부거 중심의 혼례 체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혼례의 이상 구조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요소가 신랑집에서의 대례와 동침이다. 이러한 이상 구조는 지속적으로 계몽되었고, 민간에서도 이를 기본구조와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기본구조를 창출시키기도 했다. 1800년대와 1900년대가 되면 지역 별로 상이한 방식의 혼례 형태가 구조를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기 북부 지역의 혼례는 신

부 집에서의 잔치와 당일 신행, 신랑 집에서의 잔치, 신랑 집에서의 첫 동침이라는 요소를 갖춘 구조로 체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 구조는 이 지역의 기본 구조임과 동시에 이상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랑과 신부가 각자 상을 받거나 신부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는 것은 기본 구조로 사람들에게 어렵듯하게 인식되기는 했지만 실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신랑과 신부가 큰 상을 받는 것은 상층에서만 실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이 지역에서 1900년대 중반에 혼례구조(기본이상구조)는 두 번 잔치를 치르고 당일 신부는 신랑가로 가며, 신랑 집에서 첫날밤을 치른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혼례 형태에서 핵심 요소에 해당되었던 큰상받기가 이 지역에서는 생략되었고, 이는 거의 소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소 이외에 재행이라는 삼일도배기가 있다. 이 삼일도배기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당일 신행과 결합되어 새로운 체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부가 당일로 신행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행하는 재행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재행이라는 기본구조가 새로운 형태 속에서도 지속된 경우가 삼일도배기이다. 당일우귀가 행해진 경우에 여타 지역에서는 인재행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했지만,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삼일도배기로 해결했고, 이 때에 신랑과 신부 친척의 인사와 신랑 다루기 등을 행했다. 신부가 따라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했는데, 지역적인 고정 구조를 찾기가 어려웠고, 이는 표현 구조가 미정립되었거나 다양화되면서 실천 방식에 자유가 주어진 경우라고 생각된다. 삼일도배기가 행해진 관계로 1년 뒤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처가를 방문하는 근친은 많은 경우에 생략되었다. 경기도 북부의 혼례는 3일 정도 걸리는 간소한 모습을 1900년대 중반이 되면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신랑이나 신부가 입는 의복의 경우에 1950년대까지이 신랑은 사모관대를 한 경우가 많았고, 점차 양복으로 대체되어 갔고, 신부의 옷차림은 치마저고리와 족두리 차림에서 족두리가 점차 사라지는 쪽으로 변화되어 갔다. 활옷은 반촌에서는 착용했지만, 경기도 북부의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음식의 경우에 국수 위주였으며, 메밀국수가 주를 이루었지만, 밀국수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국수를 국수 가게에서 구매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모두 밀국수였다. 이외에 잔치에 반드시 등장하는 음식이 돼지고기였는데, 돼지를 한 마리 잡는 경우는 부유한 경우였다. 돼지고기를 조금만이라도 살 수 있는 지역에서는 사서 쓰는 경우도 있었다. 1950년대부터 혼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

진이었는데, 사진은 대부분 찍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례를 할 경우에 신랑과 신부가 서는 위치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들어서는 대문을 중심으로 볼 때, 다수는 신랑이 초례상의 오른쪽에 섰고, 대문 바로 앞에 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신부는 집을 등지고 대문을 바라보며 서게 된다. 한 체계 내에서 두 표현구조가 대립된 경우이다. 대례상에 수탉과 암탉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사람들이 들고 서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닭을 날리는 것은 대부분 발견되는 요소였다.

경기 북부 지역에 공통된 것은 하님이라는 사람들이 혼례에 등장한다는 점일 것이다. 점차 사라지기는 했지만, 반촌이든 민촌이든 관계없이 혼례에서 허드렛일에 해당되는 일을 하님에게 시켰는데, 특히 함을 보내거나 가마를 매는 일, 신부가 절하는 것을 돕는 일, 신부가 가지고 가는 예단 등을 신랑가에 전하는 일 등을 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민촌에서는 이른 시기에 함지는 것이 친구나 친척으로 대체되었지만, 반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님은 사라지게 된다.

민촌의 경우에는 신부나 신랑의 어머니 역할이 일정 정도 있었다.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집을 방문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그것인데, 신부를 보내기 전에 신랑측의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혼례 당시에 신랑이나 신부의 어머니가 상대방을 방문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국수를 먹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랜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상적 구조이기도 한데, 이 구조는 현재까지도 관철되고 있기도 하다. 기본이상 구조에 속하지만 옷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실천과정에서 이에 특별한 불편함을 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식주 중에서 의라는 민속문화가 경제나 정치 등의 외적 체계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 라. 상장례

경기 북부 지역 상장례 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탈관 방식일 것이다. 상장례의 경우 한국 전역이 상당한 정도로 단일 구조를 보여주는데, 탈관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집안에 따라서 입관 매장과 탈관매장이 구분되었고, 실제로 최근까지 입관매장을 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입관매장의 경우에 관의 두께가 두껍고 나무의 질을 좋게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많게 된다. 탈관을 하면 관을 사용하되 상대적으로 질이 나빠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다. 입관과 탈관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모순된 표현구조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상여도 최근까지 사용하였고, 상여소리도 있었지만, 상여놀이의 경우에 다양한 의미로 사람들은 이해하였다. 출상하기 전날에 상여놀이를 하는 경우는 없었고, 호상일 경우에 한해서 파주 등지에서 출상 날에 유족들도 춤추고 노는 것이 가능하였다. 유교식 상장례가 이상구조로 도입되고 기본구조가 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기본구조가 작동한 것 중의 하나가 상여놀이였다고 생각한다. 탈육시킨 다음 뼈만 추린 다음 장사를 두 번 치르는 것도 이전 기본 구조의 하나였다. 현재 희미하게 남아 있는 유족놀이나 이중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 나는 현재의 장례구조(기본이상구조)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화된 기본구조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감정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장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놀이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실천을 하지 않고 유쾌함이나 즐거움을 장례식장에서 표현하며, 이를 유족들도 수시로 수용한다. 현재의 상장례 체계에는 모순된 두 구조가 존재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천되며 표현구조화된다. 경기 북부의 장례식장도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라 즐거움과 유쾌함이 표현된 잔치의 장으로서도 기능한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이상적 슬픔의 표현방식인 곡소리가 오랜 기간 관찰되었는데, 최근까지도 상주들은 곡소리를 냈어야 한다. 아울러 유교 민속의 하강과 함께 민간화된 민속인 상청을 차려서 만 2년 동안 꼬박 지속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죽음의 지속과 효도로 대표되는 유교식 혈연질서가 민속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러한 엄숙함과 장엄한 슬픔으로 대변되는 장례 구조와 죽음과의 단절 및 돌아가는 조상에 대한 즐거운 이별로 대별되는 장례 구조가 모순되게 존재해 온 것이 경기 북부 지역의 상장례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여러 특징적 현상을 살펴 보면, 여성들이 민촌의 경우에는 상여를 따라서 산에까지 갔지만, 일부 민촌이나 반촌에서는 여성들이 집앞에서 상여와 작별하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상계 혹은 쌀계를 조직하여 모두 협심하여

상장례를 치른 것도 이 지역에서 잘 보여지는 것이며, 마을에서 그릇이나 차일 등을 구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공통된 것이다. 반촌의 경우에 유학계를 만들어서 반촌 내의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민촌 사람들이 상여를 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계가 유학계인데, 해방이나 육이오전쟁 후에 궁여지책으로 반촌사람들이 만든 계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장례 부조가 팔죽 혹은 술, 쌀 등이었다고 하는데, 팔죽을 문상객들에게 제공하였다. 장례에서는 국밥을 제공했는데, 국의 경우에 돼지고기로 끓이지는 않았고, 무국을 만들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였다.

## 마. 종합 고찰

경기 북부 지역에만 한정되면서도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나 구조, 혹은 특징적 현상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기술한 여러 구조적 특징이 경기 북부에만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탈관 방식의 경우에도 경기도 전역에서 관찰되는 것이며, 혼례에서 당일 우귀의 방식도 경기 남부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의주로 가는 대로과 원산으로 가는 대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대로로 대변되는 경제(상업)구조가 민속 구조를 구분지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이도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생의례의 기본구조 혹은 이상구조, (기본이상)구조에 있어서 지역 차이보다는 집안이나 계층 사이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본구조와 이상구조의 모순이나 갈등, 표현 구간의 갈등이나 대립, 표현구조의 세밀화 등은 각 부분 별로 관찰할 수 있었지만, 이에 공간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면서 실천 방식과 다양한 표현 구조에 세밀한 관찰과 이해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냉전의 지속으로 인하여 전쟁의 위험과 함께 살아야 했고, 향후에도 살아야 하는 지역이 경기 북부 지역이다. 이 지역의 현대 민속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요소는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으로부터의 피난민과의 공존, 접경지역

에 따른 군인(미군 포함)과의 공생일 것이다. 이 지역은 전쟁으로 인한 마을 파괴, 원주민 강제 소개, 수복에 따른 이주, 군인들의 증가, 사회주의 통치 경험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서울과 유사할 정도로 여러 지역과 외국의 민속이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대 민속에 대한 고찰은 다음 과제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 그림 차례

### 조사개요

<그림 1> 일생의레팀 방문 조사지	5
---------------------	---

### 가평군

<그림 1> 목동2리 전경	16
<그림 2> 목동2리 경로당(마을회관) 입구	17
<그림 3> 목동2리 경로당(마을회관) 전경	20
<그림 6> 신하리 마을 전경	38
<그림 7> 조종면 신하리 토박이 김옥순 씨(1919년 생)	39
<그림 8> 김옥순 씨 친정마을 행현리 전경	40
<그림 9> 신하리 노인회관	43

### 고양시

<그림 1> 면담 참여자 이계희 씨, 김수정 씨	61
<그림 2> 두포동 전경	77
<그림 3> 두포동 전경	79
<그림 4> 관산마을 시루통	82
<그림 5> 관산마을 회관	83
<그림 6> 관산마을 회관	83
<그림 7> 관산마을 당고사 용품 창고	84
<그림 8> 관산마을 당고사 물통	84
<그림 9> 관산마을 당고사 제단	85
<그림 10> 관산마을 당고사 제단 전경	85
<그림 11> 관산마을 당고사 우물	86
<그림 12> 김유빈 씨 아버지 환갑잔치 (1973년)	96
<그림 13> 김유빈 씨 어머니 환갑잔치 (1981년)	97
<그림 14> 김유빈 씨 어머니 환갑잔치 (1981년)	97
<그림 15> 김유빈 씨 부모님 금혼식 (1985년)	98

<그림 16> 김유빈 씨 부모님 금혼식 (1985년)	98
<그림 17> 1993년 김유빈 씨 아버지 장례	99
<그림 18> 상감천마을 회관	101
<그림 19> 면담 참여자 문분권 씨, 이명희 씨, 신경래 씨	104
구리시	
<그림 1> 구리시 인창동 마을 전경	115
<그림 2> 김종해 씨	122
<그림 3> 동창마을 전경	133
<그림 4> 문경호 씨와 왕정춘 씨 부부	137
남양주시	
<그림 1> 옛 나루터의 흔적	148
<그림 2> 정규혁·이희종 부부	150
<그림 3> 1930년대 조안면에서 신랑이 받은 큰 상	156
<그림 4> 수동면 운수리 전경	162
<그림 5> 수동면 운수리 부노인회장 이희영 씨(1936년 생)	164
<그림 6> 수동면 운수리 노인회장 이희원 씨(1943년 생)	164
동두천시	
<그림 1> 동두천시 송내동 안골 마을 입구	176
<그림 2> 동두천시 송내동 안골 전경	177
<그림 3> 동두천시 송내동 안골의 면담 참여자 송옥영 씨	179
<그림 4> 동두천시 안흥동 도곡리 전경	187
<그림 5> 동두천시 안흥동 도곡리 전경	189
<그림 6> 동두천시 안흥동 도곡리 면담 참여자 정기호 씨 댁	191
<그림 7> 정기호 씨 댁 재실 옆 개인 도서관의 내부	194
<그림 8> 면담 참여자 정기호 씨의 얼굴이 새겨진 문패	195
<그림 9> 재실 내의 제단	205
<그림 10> 재실 내의 문기류	206
<그림 11> 재실 내의 문기류(분재기)	207

<그림 12> 고목 문서	208
<그림 13> 재실 옆 창고 내의 서고	208
<그림 14> 재실 옆 창고의 도자기와 책들	209
<그림 15> 재실 내의 고문서	209

#### 양주시

<그림 1> 경기도 양주시 일영면 절골 마을 어귀	214
<그림 2> 경기도 양주시 일영면 구만리 나무	216
<그림 3> 밀양 박씨 공간공파의 시제를 지내는 사당	230
<그림 4> 백영렬 씨 처조카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1960년대)	240
<그림 5> 백영렬 씨 처조카 부부의 대례상 (1960년대)	241
<그림 6> 백영렬 씨 처조카 대례식 모습 (1960년대)	241
<그림 7> 백영렬 씨의 육촌 시누이 대례상 (1960년대)	242
<그림 8> 백영렬 씨 작은 할머니 칠순잔치 (1970년대)	243
<그림 9> 백영렬 씨 본인 칠순잔치 (2000년대)	244

#### 연천군

<그림 1> 두일 3리 마을 전경	251
<그림 2> 두일 3리 마을 전경	252
<그림 3> 조한선 씨(1941년 생)	256
<그림 4> 조한선 씨의 아들 돌사진(1968년)	260
<그림 5> 조한선 씨 결혼식(1967년)	262
<그림 6> 조한선 씨 장인(심씨) 회갑잔치(1974년)	264
<그림 7> 조한선 씨 부친 상여 운구 행렬(1979년)	266
<그림 8> 조한선 씨 아버지 장례 매장 모습(1979년)	266
<그림 9> 조한선 씨 아버지 장례 매장 모습(1979년)	267
<그림 10> 조한선 씨 아버지 장례 매장 모습(1979년)	267
<그림 11> 발악동 꽃상여 보관 모습(2018년)	268
<그림 12> 발악동 꽃상여 장식(2018년)	268
<그림 13> 연천군 유촌리 전경	269
<그림 14> 면담에 참여해주신 미산면 유촌리 주민들: 이병창 씨(1937년 생), 심재학(1936년 생)	

씨, 신동직(1945년 생) 씨, 송영우(1939) 씨, 정용재 씨(1943년 생), 신상섭 씨(1961년 생), 구본표 씨(1945년 생)	271
<그림 15>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릇	275
<그림 16> 장례식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 영수증 (신동직 기증, 1973년)	280
<그림 17> 장례식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 영수증 2 (신동직 기증, 1973년)	281
<그림 18> 부고 소식을 알리는 전보(신동직 기증, 1973년)	282
<그림 19> 부조 내역을 기록한 부조록(신동직 기증, 1967년)	282

#### 의정부시

<그림 1> 입석마을 입구	299
<그림 2> 입석마을 회관	301
<그림 3> 면담 참여자 이순용 씨와 김순근 씨 부부	305
<그림 4> 동막골의 현재 모습	313
<그림 5> 동막골의 현재 모습	315
<그림 6> 동막골 경로당이 있는 건물	317
<그림 7> 동막골 경로당 회관에 걸려있는 산계 게시판	320
<그림 8> 동막골 경로당 내 게시판에 걸린 경로당 행사 사진	323
<그림 9> 동막골 경로당 내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시는 주민들	323
<그림 10> 동막골 산제사 터 가는 길	324
<그림 11> 동막골 경로당 입구	324
<그림 12> 동막골의 한 묘터	325
<그림 13> 동막골 산제사 터	325
<그림 14> 동막골 산제사 터의 돌무더기	326
<그림 15> 동막골 산제사 터 전경	327
<그림 16> 제사 용 물을 길렀던 우물	328
<그림 17> 면담 참여자 함의한 씨	329
<그림 18> 면담 참여자 고영수 씨	331

#### 파주시

<그림 1> 파주 장파리 지도	347
<그림 2> 미군들이 주로 출입하였던 댄스홀 ‘라스트 찬스’	351

<그림 3> 장파리 마을 한 가운데 나있는 넓은 2차선 도로	351
<그림 4> 파주의 주요 도시들로 이어지는 장파리 앞 리비 사거리	352
<그림 5> 1967년 정운춘씨의 혼례식 당시 받았던 부조 물품을 목록으로 작성한 부조록	358
<그림 6> 권옥순(1933년 생) 씨와 그의 아들 이창무 씨	364
포천시	
<그림 1> 지장산마을 전경	384
<그림 2> 지장산마을 집터	386
<그림 3> 면담 참여자 정균 씨	392
<그림 4> 명산리 마을 전경	403
<그림 5> 명산리의 논	405
<그림 6> 면담 참여자 이기태, 이한중, 이양호	407
<그림 7> 명산리 평장	413
<그림 8> 명산리 평장	414
<그림 9> 고성 이씨 묘각 옆 창고	415
<그림 10> 고성 이씨 묘 봉분	416
<그림 11> 고성 이씨 묘각 전경	416



<그림 1> 김유빈 씨 아버지 환갑간치 (1973년)



<그림 2> 백영렬 씨의 육촌 시누이 대례상 (1960년대)



<그림 3> 김유빈 씨 어머니 환갑잔치 (1981년)



<그림 4> 1993년 김유빈 씨 아버지 장례



<그림 5> 1930년대 조안면에서 신랑이 받은 큰 상



<그림 6> 백영렬 씨 작은 할머니 칠순잔치 (1970년대)



<그림 7> 조한선 씨 아버지 장례 매장 모습(1979년)



<그림 8> 조한선 씨 장인(심씨) 회갑잔치(1974년)



이 작업은 각 시군에서 오랜 기간을 뿌리내리면서 살아왔던 토박이의 생애를 바탕으로 하여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희박해지고 있는 각 지역의 전통문화와 문화적 전통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 경기북부 토박이들의 생애와 일생의례

ISBN 979-11-86929-33-9



9 791186 929339

94380

